연구보고 RR 2018-02

2018 한국교육종단연구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Ⅲ) : 10년 주기 코호트 간 비교

연구책임자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보고 RR 2018-02

2018 한국교육종단연구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Ⅲ): 10년 주기 코호트 간 비교

연구책임자 남궁지영(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김 혜 자(한국교육개발원)
박 경 호(한국교육개발원)
송 승 원(한국교육개발원)
김 양 분(한국교육개발원)
연 구 원 정 민 주(한국교육개발원)
최 유 리(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머리말

한 국가의 미래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단계별로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성장·발달 추이를 분석하여 실효성 높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은 2005년부터 국가수준의 종단적 교육패널 데이터를 구축·분석하는 한국교육종단연구를 수행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2005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5 코호트와, 기존의 2005 코호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초·중등교육 자료의 유용성을 보완하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2013년에 새롭게 구축한 2013 코호트를 동시에 유지하며 매년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연구의 성과물은 동일 학년에 대하여 10년 간격으로 수집된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의 중학교 1~3학년 시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를 분석한 심층분석 보고서, 2013 코호트의 1~5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학생의 교육 경험과 성장을 분석한 기초분석 보고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성장·발달한 2013 코호트에 대한 6차년도 조사 결과를 담은 조사개요 보고서, 만26세로 성장·발달한 2005 코호트에 대한 11차년도 조사 결과를 담은 조사개요 보고서이다.

총 4종의 보고서 중 본 보고서는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의 중학교 시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를 분석한 심층분석 보고서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학교생활과 경험, 인지적 성취와 학습, 정의적 특성과 진로의 측면에서 10년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코호트 간 비교를 통하여 심층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가정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학업성취도 격차 및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높다.

끝으로 장기적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양질의 신뢰로운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준 17개 시·도교육청 자문위원, 각 학교 교장선생님과 연구협력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연구진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중학교 교육정책 이슈를 다각도로 도출하고 바람직한 공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반 상 진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추진되어온 다양한 교육정책의 변화 속에서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중학생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가정배경 변수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도 이에 영향을 미친 학생 및 학교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가정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학업성취도 격차와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10년 간격으로 자료를 수집한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코호트 중학교 1~3학년(2005~2007년) 및 2013 코호트 중학교 1~3학년(2015~2017년) 시기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Ⅱ장에서는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 전반에 대한 10년간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학교생활과 경험, 인지적 성취와 학습, 정의적 특성과 진로 등 네 영역에 대한 10년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은 물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버지의 교육수준, 학생 성별, 거주 지역의 지역규모 등 학생 개인 특성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영역 중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원은 10년 전에 비해 더 높아졌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정도도 높았다. 사교육 참여 시간은 국어·영어·수학 교과 모두 10년 전에 비해 더 줄었지만 사교육 참여 비용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사교육을 많이 받던 10년 전과는 달리 중학교 1학년부터 꾸준히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평균 교육비도 사교육 비용과 마찬가지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높았는데,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비용 및 월평균 교육비가 높은 경향이 10년 전에 비해 더욱 심화되었다. 다만, 비용 조사에 있어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해석시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 모두 10년 전과 비교하여 높아졌지만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10년 전과 달리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생활과 경험 영역 중 수업 이해도는 국어·영어·수학 교과 모두 10년 전에 비해 높아졌으며, 수업 분위기 또한 학생들이 더욱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교사의 성취압력은 2학년 시기에 주춤했다가 3학년 때 다시 증가하는 브이형 모양이었던 10년 전과는 달리 2013 코호트에서는 오히려 2학년 시기에 다소 증가했다가 3학년 때 다시 감소하는 역브이 형태를 보였다. 학생이 느끼는 교사의 열정 및 지식은 10년 전과는 달리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내 폭력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조금 줄어들었으나 학년에 따라 증가하는 패턴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또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내 폭력 정도에 대해 더 높게 응답하였으나, 2013 코호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은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확대되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비율로 참여했던 과거와는 달리 2013 코호트에서는 그러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월간 독서량과 독서 향유 정도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인지적 성취와 학습 영역 중 낮을수록 더 좋은 외적 조절동기, 부과된 조절동기, 무동기는 10년 전에 비해 그 정도가 낮아졌고, 확인된 조절동기와 내재적 조절동기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10년 전과 비슷하거나 줄어들었다. 학습목표지향성 중 하나인 숙달접근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높아졌으나, 수행접근은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은 인지조절 전략인 시연, 정교화, 조직화, 초인지를 10년 전에 비해 더 잘 활용하고 있었으며, 행동조절 전략 또한 잘 활용하고 있었다. 즉, 노력조절은 물론이고 시간 및 공간관리 정도가 증가하고, 교사나 친구들의 도움을 더 잘 받고 있었으며, 학습활동을 위해 주변 정보를 활용하는 자원 활용 또한 높아진 것이다. 교과 자기효능감도 국어·영어·수학 모두 10년 전보다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중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적 특성들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정도도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학생들은 10년 전에 비해 협동학습을 더 선호하고, 경쟁학습은 덜 선호하였다. 10년 전에는 모든 학년에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이 협동학

습을 선호하는 추세가 명확했었으나, 2013 코호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의적 특성과 진로 영역 중 시험 스트레스는 10년 전보다 조금 낮아지고, 자아개념은 가족, 사회, 신체, 학업 모두 10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학생의 교육포부와 학부모의 교육 기대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까지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가 가장 많았지만, 10년 사이에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까지의 진학을 원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대학원 석사 및 박사까지의 진학을 원하는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진학 계획은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 10년 전과 비교하여 새롭게 생겨난 학교의 유형들이 있어 두 코호트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다만,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일반계고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특성화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Ⅲ장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cohort×SES)은 10년 전에 비해 더욱 커졌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어·수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bcohort×SES)도 10년 전후 간 차이를 보였지만, 모형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별 특성에 의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어·영어·수학 성취도의 성장률에 대한 코호트 간 차이(cohort×year×SES)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수학 성취도의 성장률(year×SES)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국어·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학 성취도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및 학교 배경 요인 중 부모의 교육기대는 국어·영어·수학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의 경우, 읍면지역에 비해 특별시는 영어 성취도가, 대도시는 국어·영어 성취도가 더 높았으며, 읍면지역에서 특별시 또는 중소도시로 이동한 경우 국어 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에 비해 국어·

영어·수학 성취도가 일관되게 높았으며, 남녀공학에서 여학교로 이동한 경우 국어 성취도가 높았다.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전학 등의 이유로 늘어나는 경우 영어·수학 성취도는 낮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국어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 및 학교 과정 요인 중 학생의 학업 자아개념과 독서 향유 정도는 국어 성취도에, 시험 스트레스는 국어·영어·수학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시간(자기주도학습시간)은 수학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학 성취도는 국어·영어에 비해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의 수업 이해도와 교사 열의는 국어·영어·수학 성취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교사 성취압력은 국어 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Ⅳ장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10년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반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의 자녀들은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10년간 유지되었다.

중학생의 고교 진학 계획은 실제 고교 유형별 진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중학교 1학년 시기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 진학을 계획한 학생이 실제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로 진학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기대 등 가정배경의 직접적 영향력이 학생 특성인 고교 진학 계획에 매개되어 고교 유형별 진학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고교 진학 계획 외에도 가정 및 학생 특성 요인 중 부모의 교육기대, 영어 학업성취도 및 수업 이해도, 공부시간, 시간관리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교육 참여, 부모의 교육기대, 학업성취도, 수업 이해도, 학업 자아개념, 공부시간은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에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참여 정도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 확률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학교 특성 요인 중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교사 열의, 진학 및 진로지도가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열의, 진학 및 진로지도와 같은 학교 특성이 가정 및 학생 특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을 상쇄하고 평등한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2013 코호트에 한하여 중학교 2학년 시점 학교재정 변수를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단위학교의 재정수준 증가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 확률을 증가시키는 매우 유의미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2013 코호트의 변화된 고교유형을 고려한 추가분석 결과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Ⅴ장에서는 중학생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가정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학업성취도 격차와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학교교육 체제 강화,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한 교육정책 마련,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정책 강화, 학교폭력예방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가정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완화하고,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 완화를 위한 수학 교과 관심 제고, 교사 학습공동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가정의 교육적 지원 보완제로서의 교사 역할 강화, 전학자 추수지도를 위한 지원 체제 강화, 설립유형에 따른 학교 특성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가정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격차 완화를 통해 평등한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바람직한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정배경에 따

른 고교유형별 진학 격차 완화를 위한 입학전형 개선, 학생 고유 특성이 존중되는 공정한 고입 체제로의 전환, 진로탐색의 일상화 및 진로체험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결정 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 특성 강화, 종단자료와 단위학교별 재정자료를 연계한 분석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

주제어: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코호트 간 비교, 교육격차, 학업성취, 고교진학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7
3. 연구 방법 ····· 9
4. 연구의 제한점 ····· 12

Ⅱ.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 변화 양상 ····· 15
1. 연구문제 ····· 17
2. 선행연구 분석 ····· 18
3. 분석 방법 ····· 30
4. 분석 결과 ····· 33
5. 요약 ····· 97

Ⅲ.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 ····· 101
1. 연구문제 ····· 103
2. 선행연구 분석 ····· 106
3. 분석 방법 ····· 109
4. 분석 결과 ····· 116
5. 요약 및 논의 ····· 124

Ⅳ.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 127
1. 연구문제 ····· 129
2. 선행연구 분석 ····· 131
3. 분석 방법 ····· 135
4. 분석 결과 ····· 147
5. 요약 및 논의 ····· 161

Ⅴ.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165**
1. 요약 ····· 167
2. 정책적 제언 ····· 172

참고문헌 ····· **185**

Abstract ····· **195**

부 록 ····· **203**
[부록 1]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 변화 양상 ····· 205
[부록 2] 교과별 CREM 모형 분석 결과 ····· 267

〈표 Ⅱ-1〉 중학교 관련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1) ····· 20
〈표 Ⅱ-2〉 중학교 관련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2) ····· 29
〈표 Ⅱ-3〉 영역별 분석 변수 ····· 31
〈표 Ⅱ-4〉 개인 특성 변수에 따른 패널 분포 ····· 32
〈표 Ⅲ-1〉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 109
〈표 Ⅲ-2〉 독립변수 설명 ····· 110
〈표 Ⅲ-3〉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 112
〈표 Ⅲ-4〉 국어 성취도 영향 요인 ····· 117
〈표 Ⅲ-5〉 영어 성취도 영향 요인 ····· 120
〈표 Ⅲ-6〉 수학 성취도 영향 요인 ····· 123
〈표 Ⅳ-1〉 변수 설명 ····· 139
〈표 Ⅳ-2〉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 140
〈표 Ⅳ-3〉 일반고 기술통계량 ····· 142
〈표 Ⅳ-4〉 특수목적고 기술통계량 ····· 143
〈표 Ⅳ-5〉 특성화고 기술통계량 ····· 144
〈표 Ⅳ-6〉 특수목적고 진학 영향 요인 ····· 150
〈표 Ⅳ-7〉 가정 특성에 따른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진학 확률 ····· 154
〈표 Ⅳ-8〉 학생 및 학교 특성에 따른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진학 확률 ····· 155
〈표 Ⅳ-9〉 특성화고 진학 영향 요인 ····· 158
〈표 Ⅳ-10〉 가정특성에 따른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학 확률 ····· 160

그림 목차

[그림 Ⅱ-1] 부모의 학업적 지원 ····· 34
[그림 Ⅱ-2] 부모의 정서적 지원 ····· 35
[그림 Ⅱ-3] 사교육 참여 시간 ····· 36
[그림 Ⅱ-4] 사교육 참여 시간: 국어 ····· 37
[그림 Ⅱ-5] 사교육 참여 시간: 영어 ····· 38
[그림 Ⅱ-6] 사교육 참여 시간: 수학 ····· 40
[그림 Ⅱ-7] 사교육 참여 비용 ····· 41
[그림 Ⅱ-8] 사교육 참여 비용: 국어 ····· 42
[그림 Ⅱ-9] 사교육 참여 비용: 영어 ····· 43
[그림 Ⅱ-10] 사교육 참여 비용: 수학 ····· 44
[그림 Ⅱ-11] 월평균 교육비 ····· 45
[그림 Ⅱ-12] 부모의 자녀 학교교육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 46
[그림 Ⅱ-13] 부모의 자녀 학교교육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 48
[그림 Ⅱ-14] 국어 수업 이해도 ····· 50
[그림 Ⅱ-15] 영어 수업 이해도 ····· 51
[그림 Ⅱ-16] 수학 수업 이해도 ····· 52
[그림 Ⅱ-17] 수업 분위기 ····· 53
[그림 Ⅱ-18] 교사의 성취압력 ····· 54
[그림 Ⅱ-19] 교사의 열정 및 지식 ····· 55
[그림 Ⅱ-20] 학교 폭력 ····· 57
[그림 Ⅱ-21] 동아리 활동 ····· 58
[그림 Ⅱ-22] 독서량 ····· 59
[그림 Ⅱ-23] 독서 향유 ····· 60
[그림 Ⅱ-24] 외적 조절동기 ····· 62
[그림 Ⅱ-25] 부과된 조절동기 ····· 63
[그림 Ⅱ-26] 확인된 조절동기 ····· 64
[그림 Ⅱ-27] 내재적 조절동기 ····· 65
[그림 Ⅱ-28] 무동기 ····· 66
[그림 Ⅱ-29] 숙달접근 ····· 68

[그림 Ⅱ-30] 수행접근 ····· 69
[그림 Ⅱ-31] 시연 ····· 70
[그림 Ⅱ-32] 정교화 ····· 71
[그림 Ⅱ-33] 조직화 ····· 72
[그림 Ⅱ-34] 초인지 ····· 73
[그림 Ⅱ-35] 노력조절 ····· 74
[그림 Ⅱ-36] 시간관리 ····· 75
[그림 Ⅱ-37] 공간관리 ····· 76
[그림 Ⅱ-38] 도움 및 자원활용: 교사 도움 ····· 77
[그림 Ⅱ-39] 도움 및 자원활용: 친구 도움 ····· 79
[그림 Ⅱ-40] 도움 및 자원활용: 자원활용 ····· 80
[그림 Ⅱ-41] 자기효능감: 국어 ····· 81
[그림 Ⅱ-42] 자기효능감: 영어 ····· 82
[그림 Ⅱ-43] 자기효능감: 수학 ····· 83
[그림 Ⅱ-44] 협동학습 선호 ····· 85
[그림 Ⅱ-45] 경쟁학습 선호 ····· 86
[그림 Ⅱ-46] 시험 스트레스 ····· 87
[그림 Ⅱ-47] 가족 자아개념 ····· 89
[그림 Ⅱ-48] 사회 자아개념 ····· 90
[그림 Ⅱ-49] 신체 자아개념 ····· 91
[그림 Ⅱ-50] 학업 자아개념 ····· 92
[그림 Ⅱ-51] 학생의 교육 포부 ····· 93
[그림 Ⅱ-52] 학부모의 교육 기대 ····· 94
[그림 Ⅱ-53] 고등학교 진학 계획 ····· 96
[그림 Ⅳ-1] SES에 따른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진학 선택 확률 변화 ····· 145
[그림 Ⅴ-1] 중학생의 바람직한 성장·발달 지원 및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 모형 ····· 172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는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인과관계 규명, 학생 및 학교의 변화·성장 추이 이해 및 예측,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2005년부터 장기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국가수준의 종단적 교육조사 연구이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류한구 외, 2005). 이 연구는 현재 2005년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2005 코호트와 2013년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2013 코호트를 구축하여, 이들이 만28세가 되는 해까지 추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두 코호트는 동일 학년에 대해 10년의 간격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중학교 1~3학년의 경우, 2005 코호트의 2005~2007년 자료와 2013 코호트의 2015~2017년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본 조사를 통해 가정 및 학교에서의 교육경험이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성취와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을 조사한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상급학교의 진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직업 획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적·종단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교육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연구의 수행과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교육 분야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오고 있다(남궁지영 외, 2017).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중학교 1~3학년 시기의 자료인 2013 코호트 3~5차년도(2015~2017년) 및 2005 코호트 1~3차년도(2005~2007년)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1~3학년 시기에 겪게 되는 교육경험과 교육성과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하고 심층분석하는 연구이다. 중학생 시기는 본격적인 사춘기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로서, 신체적으로 성인에 가깝게 변화하고, 인지적으로도 발달하여 추상적,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지만, 사회적·정서적으로는 아직 미숙하여 아동도 성인도 아닌 중간인 또는 주변인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송주미·강경미, 2011: 15). 이 시기의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성장·발달 과정에서 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나아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 10년, 20년간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몸무게)는 1997년 165.7cm(55.7kg), 2007년 169.2cm(61.1kg), 2017년 170.1cm(63.6kg)로, 여학생의 평균 키(몸무게)는 1997년 158.6cm(52.3kg), 2007년 159.8cm(53.2kg), 2017년 159.9cm(54.5kg)로 증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6.8.; 교육부, 2018.3.15.;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1998).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학생들이 심리적 갈등과 혼란을 겪는 사춘기의 시기가 빨라지고, 인터넷을 통한 폭력적 콘텐츠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교폭력 및 부적응 문제가 나타나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조선일보, 2016.8.18.; 황순길 외, 2016; 남궁지영 외, 2017 재인용). 따라서 중학생의 성장·발달 상황이 지난 10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중학교 교육도 지난 10년간 교육정책의 변화와 함께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8년 OECD 교육지표」(교육부, 2018.9.11.)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중학교 14.7명으로 OECD 평균 12.7명보다 높으나, 10년 전인 2006년에 비해 6.2명이 감소하였다. 학급당 학생수도 중학교 28.4명으로 OECD 평균 22.9명보다 여전히 높으나, 10년 전인 2006년에 비해 7.4명이 감소하여, 중학교의 교육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내용 및 방법 측면에서도 국가교육과정의 변화, 진로교육 강화 및 자유학기제 정책 시행, 수업 및 평가 방식의 변화, 수준별 수업 감소 및 교과 중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감소, 동아리활동 확대,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학교폭력 및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고교 다양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고교 진학 유형이 다양화되고(김신영 외, 2010; 관계부처합동, 2013.5.28.), 최근에는 외국어고, 국제고에 대한 선호도 하락 현상(내일신문, 2016.4.11.)이 나타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시기에는 수준별 수업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이 시행·적

용되었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확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방과후학교 도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추진, 중학교 의무교육 전국 확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 그리고 교육복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추진되었다(김신영 외, 2010). 이명박 정부(2008~2012년) 시기에는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적용되었다. 그리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시행, 영어 공교육 완성, 교원능력개발평가 확대 및 맞춤형 연수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들과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학원비 안정화 등 사교육 경감 정책,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 Wee 프로젝트,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마련 및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 등 교육복지 관련 정책들도 시행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은 물론 학교 정보공시와 고교 다양화 정책 등도 추진되었으며,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 도입 등 진로교육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김신영 외, 2010). 박근혜 정부(2013~2017년) 시기에는 진로교육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운영,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인성교육 5개년 종합 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의 초등학생 평가를 폐지하고, 중·고등학생은 평가대상 교과를 축소하였으며,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고,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등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있었다(관계부처합동, 2013.5.28.). 2005 코호트의 학생들은 중학교 시기(2005~2007년)에 노무현 정부(2003~2007년)에서 추진한 교육정책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2013 코호트의 학생들은 초등학교(2009~2014년) 및 중학교(2015~2017년) 시기에 이명박 정부(2008~2012년)와 박근혜 정부(2013~2017년)가 추진한 교육정책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변화와 함께 교육정책의 변화를 겪으면서 중학교 교육도 변화를 거듭하여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 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교육부가 행복교육 온라인 교원·학부모 모니터단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2017년 2월에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068명(교원 397, 학부모 217, 일반국민 454)의 응답자 중 93.9%가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교육

부, 2017.3.8.). 그리고 응답자의 87%가 과거에 비해 교육격차가 커졌으며, 소득수준 대비 교육비 투자 차이, 부모의 관심 또는 개입 정도,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가 그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교육부, 2017.3.8.). 실제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정과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의 교육비 지출 격차는 2006년 9.5배에서 2016년 10.2배로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2017.3.8.; 통계청, 2017.2.24.). 여유진 외(2015)의 연구에서는 노력에 따른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2009년 37.6%에서 2015년 22.8%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이다.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학교교육을 통해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획득을 기대하기 어렵고, 학교교육이 사회이동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식조사 결과로서,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지난 10년간 교육정책의 변화 속에서 학생, 가정 및 부모, 학교 및 교사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전반적인 교육의 환경과 교육활동, 교육성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정배경이나 학교 교육활동들이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상급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2005 코호트 및 2013 코호트 중학교 1~3학년 시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10년 사이에 추진되어온 다양한 교육정책의 변화 속에서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학교생활과 경험, 학생의 인지적 성취와 학습, 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진로 등의 측면에서 10년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은 물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버지의 교육수준, 그리고 학생 성별과 거주 지역의 지역규모 등 학생 개인 배경에 따른 변화 양상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학교 교육역량 제고는 물론 중학생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교육정책의 변화 속에서 대표적인 가정배경 변수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코호트 간 비교·분석함으로써, 가정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학업성취도 격차 및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도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고등학교 유형별 진

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배경 요인, 학생의 학습 특성 요인, 학교의 교육활동 경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중학생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향상과 평등한 학교 선택권 보장 및 바람직한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가. [기초분석]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 변화 양상

중학생 시기는 본격적인 사춘기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이나, 최근에는 그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인터넷을 통한 폭력적 콘텐츠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교폭력 및 부적응 문제가 나타나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조선일보, 2016.8.18.; 황순길 외, 2016; 남궁지영 외, 2017 재인용). 이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면서 중학교 교육도 교과 활동 및 비교과 활동 전반은 물론 고등학교 진학 유형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따라서 동일 학년에 대하여 10년 간격으로 종단적 자료가 구축된 한국교육종단연구의 2005 코호트 및 2013 코호트 중학교 1~3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 전반에 대한 10년간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학교생활과 경험, 학생의 인지적 성취와 학습, 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진로 등 교육 전반에 대한 10년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은 물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버지의 교육수준, 학생 성별, 거주 지역의 지역규모 등 학생 개인 특성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학생 개인 배경에 따른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생활과 경험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학생 개인 배경에 따른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학생의 인지적 성취와 학습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학생 개

인 배경에 따른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넷째, 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진로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학생 개인 배경에 따른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나. [심층분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소득계층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고,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 소득계층 간 학력격차의 심화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김위정, 2012; 남궁지영·김위정·김양분, 2012; 박경호 외, 2017; 성기선, 20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생의 노력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횡단 데이터에 근거한 비교 연구이거나 학교 종단 코호트의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성장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의 수혜를 받은 학생들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최근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코호트 및 2013 코호트 중학교 1~3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교육정책의 변화를 거치면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도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배경 요인, 학생 학습 특성 요인, 학교 교육활동 경험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코호트 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코호트 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외에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생 및 학교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다. [심층분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경제, 문화, 사회자본 등 다양한 형태로 학벌경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이후 지난 10년간 자율형 사립고 및 특성화고가 크게 팽창하였고,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등 입학전형 방법 및 요소가 복잡해지면서 부모의 정보력이나 전략 등 문화자본이 고교 진학에서 더욱 중요한 입시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추진되어온 고교 교육 혁신 방안은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가 명문대 입시를 위한 예비고, 입시 명문고, 귀족학교 등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학벌경쟁이 본격화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10년 전후 시점에 수집된 2005 코호트(2008년 고교 진학 결과) 및 2013 코호트(2018년 고교 진학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고교 유형별 진학이 계층에 따라 얼마나 차별적이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차이,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도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차이를 가져오는 학생 및 학교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차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면 두 코호트 간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의 희망 고교유형과 실제 진학한 고교유형 간 상관 정도는 어떠한가? 두 코호트 간 고교 진학 계획이 고교 유형별 진학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고교 유형별 진학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생 및 학교 특성은 무엇인가? 또한, 분석변수들을 통해 지난 10년간 교육정책 변화 등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가?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지난 10여 년간의 중학교 관련 교육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동향과 정책동향을 반영하여 연구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나. 데이터 분석

본 연구의 기초분석과 심층분석을 위해, 10년간의 시차를 두고 데이터를 수집한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코호트 및 2013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는 2005 코호트 1~3차년도(2005~2007년)와 2013 코호트 3~5차년도(2015~2017년)에 각각 중학교 1~3학년 시기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내용별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초분석]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 변화 양상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 전반에 대한 10년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학교생활과 경험, 학생의 인지적 성취와 학습, 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진로 등의 측면에서 10년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학생 개인 특성에 따른 변화 양상을 기술통계 분석 및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학생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경험과 교육성과의 차이 검정을 위해 t-test, ANOVA, χ^2-test 등을 실시하였다. 기초분석에서는 조사결과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각 코호트별, 연도별 데이터에 대한 학생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학생 개인 특성에 따른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학생 성별 및 거주 지역의 지역규모를 구분 변수로 사용하였다.

2) [심층분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학업성취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코호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외에 중학생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생 및 학교 배경요인과 과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STATA 13.0을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에서는 우선 모형에 포함되지 못한 개체효과(C_i)와 독립변수와의 관련성으로 인한 학생 내(within) 변화와 학생 간(between) 변화에 대한 추정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CREM(correlated random effect model)을 활용하였다. 확률효과 모형(CREM)을 통해 학생 내 변화에 대한 추정치(w)와 학생 간 변화에 대한 추정치(b)의 차이(b-w)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우, 학생 내(within) 변화와 학생 간(between) 변화를 분리하여 추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추정하는 Hybrid 모형을 적용하였다(Schunck, 2013).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는 각 코호트별로 자체 개발한 평가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교육과정 변화 등의 이유로 두 평가도구 간에 동등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각 코호트 내에서는 1~3학년별 검사도구에 대한 동등화와 수직척도 점수가 개발되었으나, 코호트 간에는 동등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호트 간 학업성취도 원점수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각 코호트별 1~3학년 시기의 수직척도 점수를 국어·영어·수학 교과별 표준화점수(T점수)로 선형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심층분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코호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외에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영향을 주는 학생 및 학교배경, 학생의 학습 특성, 학교의 교육활동 경험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STATA 13.0을 이용하여 다항 로짓(Multinomial Logit: MNL)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로 구분하고, 특수목적고에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만을 포함하였다. 자율형 사립고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목적고와 유사하나, 인재양성 측면에서는 특정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일반고의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두 코호트 간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의 상대적 확률을 분석하는 연구목적에 비춰볼 때, 자율형 사립고가 일반고 또는 특수목적고와 동일 범주로 분석될 때 분석 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율형 사립고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예술·체육고와 마이스터고는 특수목적고로 분류되

나,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동일 범주로 분석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어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은 명백한 순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순위가 없는 다항 모형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의 진학 차이를 유발하는 영향 요인과 경향성을 분석하는 각각의 모형에서 2개 집단 사이의 이항 로짓 분석 결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Wald 검정을 통해 각 독립변수들의 효과크기 및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분석은 근원적으로 고등학교 유형 변화에 따른 코호트 간 비교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고교 다양화 정책 이후의 데이터인 2013 코호트에 대하여 일반고를 기준범주로 하고,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대비집단으로 하여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다. 전문가 협의회 운영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모형과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정책적 제언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계 및 학계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분석을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와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에서 각각 자체 개발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였다. 중학교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2010년은 2007 개정 교육과정,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다. 10년 사이에 국가교육과정의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1~3학년에 대하여 코호트 간 동일한 검사지를 활용하지 못하였고, 두 코호트 간 검사도구에 대한 동등화 작업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각 코호트별로는 1~3학년별 검사도구에 대한 동등화와 수직척도 점수가 개발되었으나, 코

호트 간에는 동등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코호트 간 원점수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각 코호트별 1~3학년 시기의 수직척도 점수를 국어·영어·수학 교과별 T점수로 선형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업성취도 점수가 상대적인 순위 점수이므로 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

둘째, 고등학교 유형은 2011년 이전까지 크게 일반계와 전문계로 구분되었으나, 이후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대한 영향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각 시기의 고등학교 유형별 특성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로 구분하였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고에 포함하였으며, 자율형 사립고는 인재양성 측면이나 입학전형 방법 측면에서 일반고 또는 특수목적고와 유사하나, 이와 동일한 범주로 분석될 때 분석 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특수목적고에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만을 포함하였다. 예술·체육고와 마이스터고는 특수목적고로 분류되나,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동일 범주로 분석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어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등학교 유형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10년 전후 시점의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의 진학 차이를 유발하는 영향요인과 경향성 등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으나, 고등학교 유형의 변화 전후로 각 유형별 고등학교 특성이나 진학 희망 학생 특성 등을 온전히 반영하여 고등학교 유형을 통일·분류하는데 한계가 있다.

Ⅱ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 변화 양상

1. 연구문제
2. 선행연구 분석
3.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요약

Ⅱ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 변화 양상

1 연구문제

중학생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로서 청소년기에 해당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이 시기에는 본격적인 사춘기 특성이 나타남에 따라, 신체적으로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성인에 가깝게 변화하고, 인지적으로도 발달하여 추상적,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지만, 심리적으로는 자아정체감의 혼란에 따라 불안과 갈등이 증대되고, 특히 부모 등 기성세대에 대한 양가적 감정의 대립이 두드러진다(송주미·강경미, 2011: 15;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Berk, 2009). 이처럼 이 시기의 학생들은 사회적·정서적 측면에서 아직 미숙하여 아동도 성인도 아닌 중간인 또는 주변인의 모습을 보이나, 청소년기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을 제대로 형성하게 된다(Berk, 2009). 또한, 이 시기의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성장·발달 과정에서 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나아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심리적 갈등과 혼란을 겪는 사춘기의 시기가 빨라지고, 인터넷을 통한 폭력적 콘텐츠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교폭력 및 부적응 문제가 나타나는 시기도 점차 저연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조선일보, 2016. 8. 18.; 황순길 외, 2016). 따라서 중학생의 성장·발달 상황이 지난 10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중학교 교육도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교육과정의 변화, 진로교육 강화 및 자유학기제 시행, 수업 및 평가 방식의 변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고교 다양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고교 진학 유형이 다양화되었다. 이 같은 중학교 교육 및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난 10년간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일 학년에 대하여 10년 주기로 자료가 수집된 2005 코호트 및 2013 코호트 중학교 1~3학년 시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학교생활과 경험, 학생의 인지적 성취와 학습, 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진로 등의 측면에서 10년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은 물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학생 성별 및 거주 지역의 지역규모 등 학생 개인 배경에 따른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학생 개인 배경에 따른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생활과 경험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학생 개인 배경에 따른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학생의 인지적 성취와 학습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학생 개인 배경에 따른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넷째, 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진로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학생 개인 배경에 따른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2 선행연구 분석

2005 코호트의 중학교 1~3학년 시기(2005~2007년)부터 2013 코호트의 중학교 1~3학년 시기(2015~2017년)까지는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문재인 정부(2017~현재)를 포함한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학교급은 진학 시기의 교육정책의 영향을 받으므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영향은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1]. 따라서 본 절에서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교육정책 중 중학교와 관련 있는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이 시기에 적용된 교육과정으로서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1) 2013 코호트의 중학생 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들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시기도 선행연구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특히 두 시기의 중학생들의 교육경험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제 관련 정책, 학교폭력 관련 정책,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가. 중학교 관련 정부 교육정책의 변화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에서 중학교와 관련 있는 사항은 공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2004년의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EBS 수능강의,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사이버가정학습 강화 등), 2004년의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수능 9등급제, 내신 석차 9등급제, 학교생활기록부(내신) 반영 비율 증가), 그리고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전국 확대'(2004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2003년), '방과후학교 도입'(2005년) 등이 있다(김신영 외, 2010: 33). 한편,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강화(표집 확대) 등도 중학교와 관련된 노무현 정부 정책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김신영 외, 2010: 34).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에서 중학교와 관련 있는 정책은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학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 및 학교 단위 교원 채용 확대,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보공시 등을 통한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학교 특성 살리기 플랜),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대입 업무의 대교협·전문대교협 이양, 입학사정관제 지원 확대, 수능 응시과목 축소 등 대입 완전 자율화 추진) 등이 있다.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영어 공교육 완성(영어 전담교원 확충, 영어 교육과정 개편,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교원능력제고'를 위한 정책(교원능력개발평가 확대 실시 및 맞춤형 연수, 학습연구년제 추진),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선진교육과정 개편: 2009 교육과정 마련), 즐거운 학교 만들기(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학교급식체제 개선) 등이 있다. 그리고 '교육복지기반 확충' 정책으로는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학력수준 파악을 위한 평가 체계 선진화(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시행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 교과학습 진단평가 시행(초4~중3)), 학습부진 학생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및 책임지도) 등이

있다(김신영 외, 2010: 37-39).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학교 교육 관련 정책으로 교육비 부담경감 정책(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사교육비 경감 추진을 위한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EBS 교육서비스 운영 내실화,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관계부처합동, 2013.5.28.: 73), 창의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개선[2],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마련, 학교 체육 활성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대입 부담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학생부, 논술, 수능 위주로 대입 간소화,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대입 전형 3년 예고제),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관계부처합동, 2013.5.28.: 135-139) 등의 교육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들 교육정책은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1〉 중학교 관련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1)

	노무현 정부(2003~2007)	이명박 정부(2008~2012)	박근혜 정부(2013~2017)
공교육 강화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표집 확대)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시행 • 영어 공교육 완성 • 교원능력개발평가 확대 및 맞춤형 연수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초등학생 평가 폐지 및 중학교 평가대상 교과 축소 •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등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사교육 경감	• 사교육비 경감 대책	•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 학원비 안정화	•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학교 자율화·다양화		• 학교 운영 자율성 확대 • 고교 다양화 정책 • 학교 정보공시	
교육복지	• 방과후학교 도입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 중학교 의무교육 전국 확대	•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 • Wee 프로젝트(학교안전망구축사업)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대입전형	• '08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마련(수능 및 내신 석차 9등급제, 내신 반영 비율 증가)	•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대입 업무의 대교협·전문대교협 이양, 입학사정관제 지원 확대, 수능 응시과목 축소)	• 대입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학생부, 논술, 수능 위주로 대입 간소화,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대입 전형 3년 예고제)

2)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폐지하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만 평가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학교의 경우는 대상 교과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에서 국어, 영어, 수학 교과로 축소하고, 사회와 과학은 표집으로 전환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3.5.28.: 35).

나. 교육과정의 변화 : 제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

중학교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007 개정 교육과정[3],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다[4]. 따라서 2005 코호트의 중학교 1~3학년 시기(2005~2007년)는 제7차 교육과정, 2013 코호트의 중학교 1~3학년 시기(2015~2017년)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은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어,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므로 함께 검토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1~10학년)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11~12학년)으로 구성하고,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여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교육내용과 방법을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맞게 다양화하였다(교육부, 1997.12.: 85). 중학교의 경우,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은 교과활동(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재량활동(교과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편성되고 재량활동 시간이 확대되었다(교육부, 1997.12.: 94). 수준별 교육과정 유형에는 수학과 영어와 같은 위계가 분명한 교과를 단계별로 세분화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사회, 과학, 국어와 같이 기본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심화 학습 또는 보충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그리고 과목 내용의 다양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과목들을 종류와 수준별로 설치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였다(교육부, 1997.12.: 87). 교과 재량 활동은 선택과목(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과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보충·심화 학습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과별 최소 수업 시간 수'를 감축 또는 조정하였다(교육부, 1997.12.: 97).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하여, 교과별 교육목표 성취의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학생 학력평가, 학교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하였다(교육부, 1997.12.: 143). 특히, 교과의 평가는

3) 수학과 외국어과(영어)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나머지 교과는 2010년에 적용되었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 1학년의 경우 2018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교육부, 1997.12.: 144).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총론의 골간은 승계하고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교육부, 2007.2.: 107).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 편제의 조정과 학생, 학교의 자율성 확대',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의 반영', '수업 시수의 일부 조정'에 중점을 두었다(교육부, 2007.2.: 116). 그 내용으로는 수준별 교육과정에서의 단계형, 심화 보충형이라는 유형을 폐지하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교육부, 2007.2.: 120-121),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는 심화, 보충학습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재량활동에 배당된 시간 등 별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학습 집단도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특별보충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07.2.: 120-121). 또한, 사회과에서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여 독립된 역사 과목을 신설함으로써 과목의 시수를 보장하였다. 월 2회 주 5일 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학년별 연간 총 수업시수는 34시간씩 감축되었으며, 학년별, 교과 및 영역별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인 34주를 충족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07.2.: 117-118).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제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평가, 학교와 교육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07.2.: 2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공통 교육과정(1~9학년)과 선택 교육과정으로 이원화하고, 초·중·고교 12년의 교육기간을 5개 학년군(1~2, 3~4, 5~6, 7~9, 10~12학년군)으로 설정하여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화,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국민공통 교과를 중학교의 경우는 8개 교과(군)인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교과(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탐색)로 설정하여 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과 다양성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포함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신설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12.: 30-31, 34-35). 학생 중심 수업의 변화를 위해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교과는 제외)로

줄이고 교과 집중 이수제를 도입해 특정 과목을 특정학기에 몰아서 수업하며[5] 학교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12.: 39-40). 그러나 예·체능 교과의 경우, 매학기 운영되지 않거나 수업시수가 삭감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201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 시수 20% 증감 시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제외시켰다(교육부, 2013.12.: 40). 선택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12.: 109).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12.: 31). 특히, 교과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12.: 123).

다. 진로교육 정책의 변화 및 자유학기제 시행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중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은 급증하고 널리 확산되었다. 2009년 교육부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를 선택 교과로 개설하고 신설된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진로활동'을 명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12.). 이에 따라 진로 관련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위하여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학교 진로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서울특별시교육청, 2010). 진로교육 제1차 기본계획(2010~2013년)에서는 진로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질과 적성 중심으로 진로 선택을 위한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자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2.). 또한, 2011년부터 '진로진학상담' 교과를 신설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1.2.9.), 국가수준의 진로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교육과학기술부, 2012.4.20.), 전체 중·고등학교 중 95.3%의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였다. 이어 2015년에는 진로

5)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 등 학생 중심 맞춤형,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 교실제를 12년까지는 일반고에, 14년까지는 6학급 이하의 전체 중·고교의 90%에 도입하기로 함(교육과학기술부, 2011.2.9.).

교육법(2015.6.22. 공포)과 진로교육법 시행령(2015.12.23. 시행)을 제정하여 진로교육 기본 방향 및 지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교육부, 2015.12.15.). 이를 토대로,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15.12.15.).

한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 동안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되 학생의 흥미와 수요에 기반하여 진로탐색활동과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을 참여 활동형으로 확대 강화하고, 토론, 실험, 실습, 현장 체험, 프로젝트 학습 등의 교수학습 방법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학교 교육방법을 혁신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유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는 실시하지 않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시행한다(교육부, 2013.5.28.). 2013년 전국의 42개 중학교(연구학교)에서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하였으며(교육부, 2013.5.28.), 2014년에는 전국의 25%인 811개 중학교(40개교의 연구학교와 희망학교), 2015년에는 80%인 2,551개 중학교에서 시범 운영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교육부,2015.11.25.a; b)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5.9.15. 공포)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반영(2015.9.23·고시)하여 2016년에는 전국의 3,213개교인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교육부, 2016.4.5.).

그러나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에 치중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 관리는 부족한 상태이므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의 질 관리와 대학으로의 확대의 필요에 의해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2015~2020년)을 수립하였다. 2차 계획에서는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4개 영역(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진로교육 대상 확대, 진로체험 활성화,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8개 추진과제 20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중학교는 초등학교 시기의 교과 연계형 진로교육과 진로 체험에 의한 진로인식 단계에 이은 진로 탐색의 시기로 진로탐색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일반교과 연계 진로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중·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100%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교육부, 2016.4.5.).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관인 국가진로교육센터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두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초·중·고·대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나아가 평생 학습자까지 진로 설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17.2.13.). 아울러 2016년 추진 실적 등을 점검·보완하여 2017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4개 과제[학교 진로교육 운영 내실화, 진로교육 대상 확대(특수, 탈북, 다문화 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진로체험 다양화·내실화,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1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교육부, 2017.2.24.).

라. 학교폭력,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변화

학교폭력과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정책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1) 학교폭력 정책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초였으나, 2000년대 들어 그 정도가 심각해져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4년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4.1.29.)'과 시행령(2004.7.30.)이 제정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고, 2005년에는 교육부를 포함한 7개 관련 부처 장관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년)'을 수립·시행하였다(박효정·정미경·박종효, 2006: 3).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학교폭력예방 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전문능력 제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5개 추진과제를 포함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5.2.).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년)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확충과 유치원·초등학교 단계 조기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 차단하고, 가해 및 피해 학생을 위한 지역 단위 전문 진단-상담-선도 시스템 구축과 학교와 지역의 책무성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안전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1.13.). 2011년 국무총리실은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집단화 및 따돌림을 비롯하여 아동대상 성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 안전보호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

처가 합동으로 학생안전보호인프라 선진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학생·학부모 지원 확대, 민·관 협력체제 강화를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학교폭력·따돌림없는 학교만들기”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국무총리실 외, 2011.7.29.). 한편,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2011.12.23.부터 학생·학부모·교사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보급하고(교육과학기술부, 2011.12.22.),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2012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하였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2.1.15.),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매해 1월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1.18.). 2011년 말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생 자살 사건 발생으로 2012년 2월 관계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 대책에서는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는 직접대책으로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 체계 개선 및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 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강화)과 간접대책으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2.2.5.).

교육부는 2013년 단위 학교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통한 학교폭력예방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2013.07.23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통해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적용과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운영 등 다양한 예방 정책과 활동을 추진하였다(박효정, 2015: iii). 그리고 2014년에는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여 부각되고 있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국무조정실·교육부, 2014.3.4.),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를 운영하였다(교육부·푸른나무 청예단, 2014.9.16.). 제3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년)에서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ZERO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인성교육 중심의 예방 강화, 안전 인프라 확충,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역량의 강화, 피해 학생의 보호, 치유 및 가해 학생의 선도, 전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의 5대 분야를 마련하여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학교폭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하였다(국무조정실·교육부, 2014.12.22.). 2017년 9월 부산에서 학생 간 폭행 사안이 발생한 후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또는

청소년 간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집중하는 “학교 안팎 청소년 예방 대책”으로서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5대 영역(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노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확충, 소년 사업체계 기능 개편, 범정부 협업 체계 개선) 20개 주요 과제를 발표하였다(교육부 외, 2017.12.22).

2)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에서 인성교육은 항상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인성교육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강조된 것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창의인성 강화를 2010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하면서 부터이다(박균열 외, 2015). 한편, 교육과정에서도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 바,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와 인성’을 강화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기당 이수 교과목 축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고교 교과의 재구조화,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 학교가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박균열 외, 2015: 55). 그리고 201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론의 일부를 개정하여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집중이수제를 보완하여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는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고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던 중학교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년별로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을 편성하고, 모든 학생이 한 종목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어, 도덕, 사회 교육 내용을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중심으로 개선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7.9.). 이러한 인성교육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과 공동으로 21세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성, 감성, 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다짐과 약속인 대한민국 인성교육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9.3.).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인성교육 실천 한마당 개최,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 초·중등학생 인성 수준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인성검사 개발 및 매뉴얼 보급, 교육부가 인증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개 등을 수행하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모든 학교에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를 중요 목표로 제시하고, 인성 중심의 교육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해 「인성교육진흥법」(2015.7.21.)을 제정하였다(박균열 외, 2015).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 소속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성 전문가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도 연 4시간 이상 의무화하기로 하였다(경향신문, 2015.7.14.). 이에 따라 인성교육 5개년 종합 계획(2016~2020년)에서는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인성친화적으로 변화, 학생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확산·지원, 가정·학교·사회의 연계 지원체제 구축, 대국민적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의 5대 과제를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교육부 외, 2016.1.19.).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정책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목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의 인간상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힌다'는 중학교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교육부, 1997.12.).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으로 제공되는 사회과와 도덕과에서 민주시민의 자질과 덕목을 갖추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사회과에서 민주시민성을 기르기 위해 인권의식, 공동체의식, 사회정의, 책임의식, 타협의식, 관용의식, 민주적 참여의식,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인터넷 윤리, 다문화 감수성 등을 중요 덕목으로 포함하고 있다(이인재, 2009; 강영혜 외, 2011: 52 재인용). 우리나라 도덕과의 주요 가치덕목은 정직, 자주, 성실, 절제, 책임, 용기, 효도, 예절, 협동, 민주적 대화, 준법, 정의, 배려, 애국· 애족, 평화·통일, 생명존중, 자연애, 사랑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 덕목들이 교과서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민주시민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 즉, 도덕 교과서에서는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관심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정의의 추구를 상호적 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만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김상봉, 2005; 강영혜 외, 2011: 55 재인용).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12.: 32). 아울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하여 체험 위주의 창의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하여 정부에서는 2010년에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시민교육이 교과서 위주의 지식 전수에 치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덕목을 결여하였으며, 학교 밖에서 제공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들과 학교교육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를 인식하여, '참여와 실천을 통한 공동체 책임의식 함양', '민주시민의 기본 역량 함양 및 기반 조성', '범부처적 민주시민교육 체제 구축', '나라사랑 문화 확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강영혜 외, 2011: 6).

지금까지 10년 전후 중학생들의 교육경험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교육과정 변화, 진로교육 정책, 학교폭력 정책,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정책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개략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2〉 중학교 관련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2)

	노무현 정부(2003~2007)	이명박 정부(2008~2012)	박근혜 정부(2013~2017)
교육과정 변화 (중학교 적용시기)	• 7차 교육과정('01~'09)	• 7차 교육과정('01~'09) • 2007 개정 교육과정('10) • 2009 개정 교육과정('11~'17)	• 2009 개정 교육과정 ('11~'17)
진로교육 정책		• 제1차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10~'13년) • 진로진학상담 교과 신설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 도입('11)	• 진로교육법 및 시행령 제정('15) • 제2차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16~'20년)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16)
학교폭력 정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제정('04) •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추진('05~'09)	•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추진('10~'14) • 학교폭력 실태 전수 조사 실시('12~매해) •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마련('12)	•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마련: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등 운영('13) •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추진('15~'19) • 학교 안팎 청소년 예방 대책 발표(2017)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정책		• 교육과학기술부 중점 추진과제 선정(창의·인성 강화)('10) •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10) • 대한민국 인성교육 비전 선포식('12)	• 인성교육진흥법 제정('15) • 인성교육 5개년 종합 계획 수립·추진('16~'20)

3 분석 방법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 전반에 대한 10년간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중학교 1~3학년 시기의 데이터인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코호트 1~3차년도(2005~2007년) 및 2013 코호트 3~5차년도(2015~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학교생활과 경험, 인지적 성취와 학습, 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진로 등의 영역에서 10년간의 전반적인 변화 및 학생 개인 특성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장의 목적은 지난 10년간의 변화 비교이므로 분석 변수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코호트에서 모두 조사되었는가이다. 설령 해당 변수가 2005 및 2013 코호트에서 모두 조사되었다 하더라도 측정을 위해 설계한 문항이나 척도에 변화가 생겼다면 의미와 개념은 같을지라도 그 값을 두 코호트 간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2005 및 2013 코호트에서 모두 동일한 문항 및 척도로 조사된 변수를 최종적으로 선정[6]하여 위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학생 개인특성으로는 아버지의 교육 수준(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성별(남, 여),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의 지역규모(특별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를 사용하였는데, 아버지의 교육 수준의 결측값은 어머니의 교육 수준으로 대체하였다.

영역별 분석 변수는 해당 변수의 측정 척도와 학생 개인의 특성 변수에 따라 t-test, ANOVA, χ^2-test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중학교 시기의 전반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특히 아버지의 교육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교육 수준 외에 학생 성별,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의 지역규모에 따른 분석 결과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분석 변수는 다음의 〈표 Ⅱ-3〉과 같다.

6) 2013 코호트의 문항은 기본적으로 2005 코호트의 문항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추가되거나 수정된 부분, 지난 코호트의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한 부족함(응답의 호응이 좋지 않거나 해당 문항의 신뢰도가 낮은 등)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한 부분 등 크고 작은 변화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을 위해 두 코호트에서 정확하게 겹치는 문항만을 추렸으며, 각 변수를 구성하는 문항에 대한 세부 정보는 이후 결과 그래프의 하단에 명시하였다.

〈표 Ⅱ-3〉 영역별 분석 변수

영역	하위영역	내용	조사 여부						척도
			2005 코호트			2013 코호트			
			중1	중2	중3	중1	중2	중3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부모의 지원	학업적 지원	×	○	○	○	○	○	5점 척도
		정서적 지원	×	○	○	○	○	○	5점 척도
	사교육	참여 시간	○	○	○	○	○	○	연속
		참여 비용	○	○	○	○	○	○	연속
	월평균 교육비		×	○	○	○	○	○	연속
	자녀 학교교육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	○	○	○	○	○	5점 척도
		학교생활 만족도	○	○	○	○	○	○	5점 척도
학교생활과 경험	수업활동	수업 이해도	○	○	○	○	○	○	명목
		수업 분위기	○	○	×	×	○	○	5점 척도
	교사 풍토	교사의 성취압력	○	○	○	○	○	○	5점 척도
		교사의 열정 및 지식	○	○	○	○	○	○	5점 척도
	학교 폭력		○	○	○	○	○	○	5점 척도
	동아리 활동		○	○	○	○	○	○	명목
	독서활동	독서량	×	○	○	○	○	○	연속
		독서 향유	○	○	○	○	○	○	5점 척도
인지적 성취와 학습	동기	외적 조절동기	×	○	○	○	×	○	4점 척도
		부과된 조절동기	×	○	○	○	×	○	4점 척도
		확인된 조절동기	×	○	○	○	×	○	4점 척도
		내재적 조절동기	×	○	○	○	×	○	4점 척도
		무동기	×	○	○	○	×	○	4점 척도
	학습목표지향성	숙달접근	×	○	○	○	×	○	4점 척도
		수행접근	×	○	○	○	×	○	4점 척도
	인지조절전략	시연	○	○	○	○	×	○	4점 척도
		정교화	○	○	○	○	×	○	4점 척도
		조직화	×	○	○	○	×	○	4점 척도
		초인지	○	○	○	○	×	○	4점 척도
	행동조절전략	노력조절	○	○	○	○	×	○	4점 척도
		시간관리	○	○	○	○	×	○	4점 척도
		공간관리	○	○	○	○	×	○	4점 척도
		도움 및 자원활용(교사도움)	×	○	○	○	×	○	4점 척도
		도움 및 자원활용(친구도움)	○	○	○	○	×	○	4점 척도
		도움 및 자원활용(자원활용)	×	○	○	○	×	○	4점 척도
	자기효능감	국어	○	○	○	○	×	○	4점 척도
		영어	○	○	○	○	×	○	4점 척도
		수학	○	○	○	○	×	○	4점 척도
	학습양식	협동학습선호	○	○	○	○	×	○	4점 척도
		경쟁학습선호	○	○	○	○	×	○	4점 척도

영역	하위영역	내용	조사 여부						척도
			2005 코호트			2013 코호트			
			중1	중2	중3	중1	중2	중3	
정의적 특성과 진로	시험 스트레스		○	○	○	○	○	○	5점 척도
	자아개념	가족	○	○	○	○	○	○	5점 척도
		사회	○	○	○	○	○	○	5점 척도
		신체	○	○	○	○	○	○	5점 척도
		학업	○	○	○	○	○	○	5점 척도
	진로	학생의 교육 포부	○	○	○	○	○	○	명목
		학부모의 교육 기대	○	○	○	○	○	○	명목
		진학계획	○	○	○	○	○	○	명목

조사결과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각 코호트별, 연도별 데이터에 대한 학생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005 코호트는 시·도 및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2013 코호트는 학생의 성별, 지역규모, 설립유형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7]. 학생의 성별과 부의 교육수준, 학교 소재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대상의 분포는 다음의 〈표 Ⅱ-4〉와 같다.

〈표 Ⅱ-4〉 개인 특성 변수에 따른 패널 분포(가중치 적용 전, 후)

(단위: 명)

		2005 코호트						2013 코호트					
		중1(1차)		중2(2차)		중3(3차)		중1(3차)		중2(4차)[8]		중3(5차)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체		6,822	6,822	6,472	6,472	6,568	6,568	6,826	6,826	6,677	6,676	6,517	6,517
성별	남자	3,560	3,622	3,376	3,441	3,137	3,483	3,362	3,576	3,291	3,497	3,217	3,415
	여자	3,262	3,200	3,096	3,031	3,431	3,085	3,464	3,250	3,386	3,179	330	3,102
부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644	637	614	595	613	596	153	109	151	107	149	106
	고졸	3,213	3,150	3,071	3,001	3,102	3,030	2,550	2,418	2,510	2,376	2,475	2,342
	대졸	2,463	2,519	2,320	2,393	2,348	2,422	3,339	3,492	3,264	3,417	3,179	3,334
	대학원졸	361	373	321	335	339	354	583	611	555	581	527	551
지역규모	특별시	1,216	1,283	1,151	1,219	1,151	1,240	1,217	1,136	1,168	1,104	1,124	1,073
	대도시	1,918	1,885	1,806	1,789	1,850	1,821	1,641	1,706	1,616	1,667	1,599	1,625
	중소도시	3,059	2,787	2,919	2,694	2,948	2,726	2,707	2,970	2,679	2,918	2,602	2,845
	읍면지역	629	867	596	770	619	781	1,261	1,014	1,213	986	1,192	973

7) 학생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 학생 무응답 가중치, 학생의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가중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교육종단연구2005(Ⅳ)」(김성식·남궁지영, 2008) 및 「2018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성장(기초분석보고서)」(남궁지영 외, 2018)를 참조하기 바란다.

4 분석 결과

가.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영역에는 학생에 대한 부모의 지원, 사교육 참여 시간 및 비용, 월평균 교육비, 부모의 자녀 학교교육 만족도가 포함된다.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의 비교를 통해 지난 10년간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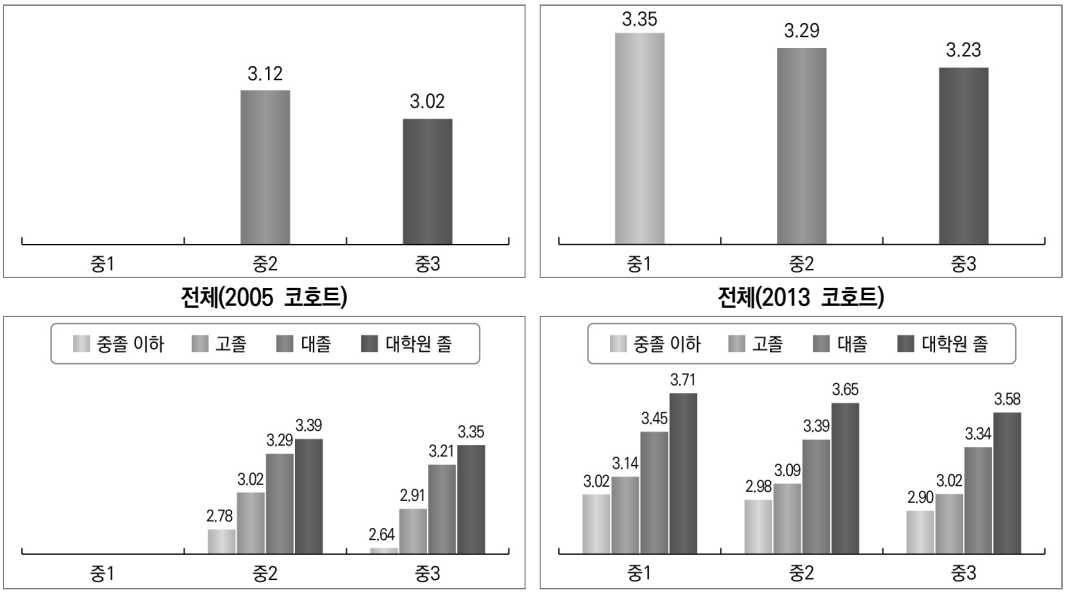
1) 부모의 지원

부모의 지원은 학업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부모의 지원은 학생 설문지를 통해 조사되었으며,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학업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2005 코호트는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한 2, 3학년에서 조사되었고 2013 코호트는 중학교 1~3학년 모두 조사되었다.

가) 학업적 지원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값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평균값은 2013 코호트가 더 높았다. 두 코호트 모두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학업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두 코호트에서 성별에 따른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학업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였으며, 지역이 클수록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이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에서 모두 발견되었으나 후자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뚜렷하였다(부록 표 1-1 참조).

8) 2013 코호트의 중2(4차년도) 자료는 가중치 적용 전과 후의 전체 학생수에 차이가 있다. 이는 해외거주자의 경우 가중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지역 유층을 구분할 수 없어 제외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신다',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하신다',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하신다', '성적 관리에 신경 쓰신다', '진로진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신다',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하신다'의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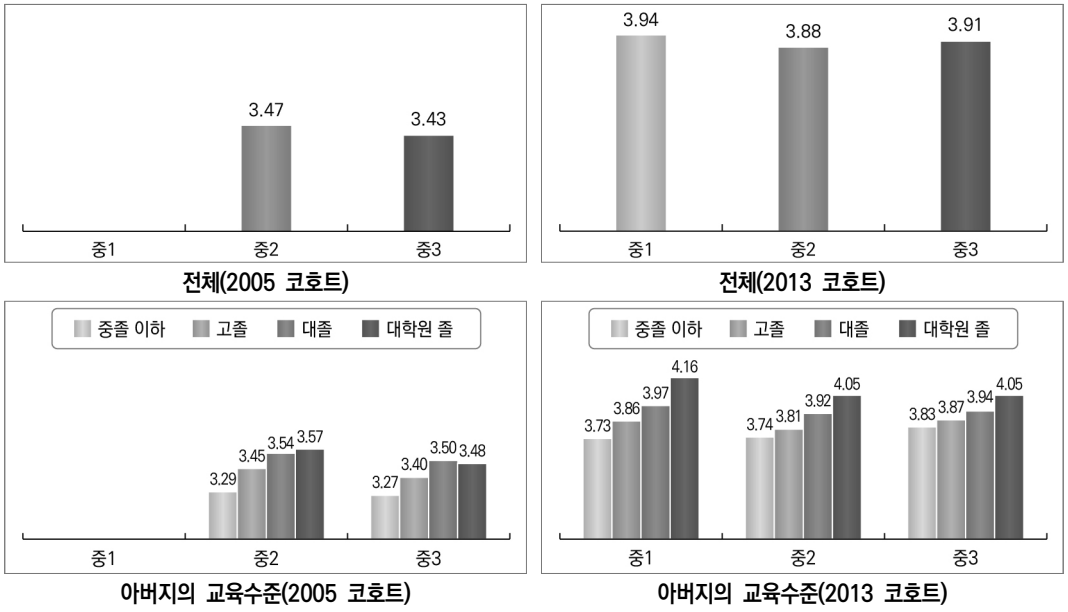
[그림 Ⅱ-1] 부모의 학업적 지원(5점 척도)

나) 정서적 지원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학업적 지원과 달리 학년에 따른 변화의 폭이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으나, 두 코호트 모두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평균값은 모든 학년을 통틀어 2013 코호트가 더 높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의 정서적 지원 정도는 두 코호트 간 상이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2005 코호트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차이가 세 학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013 코호트의 경우 1학년과 2학년 시기에는 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학년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두 코호트 간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05 코호트의 경우 3학년 시기의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여학생이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013 코호트의 경우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2013 코호트가 더욱 선명하였다. 2005 코호트의 경우, 2학년 시기의

응답에 한하여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평균이 높아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 2013 코호트에서는 1~3학년 모두 대도시 이상의 지역이 중소도시 이하의 지역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부록 표 1-2 참조).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나를 격려하신다', '내 기분을 맞추어 주신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2] 부모의 정서적 지원(5점 척도)

2) 사교육

사교육은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시간과 참여 비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모두 중학교 1~3학년 세 시기에 전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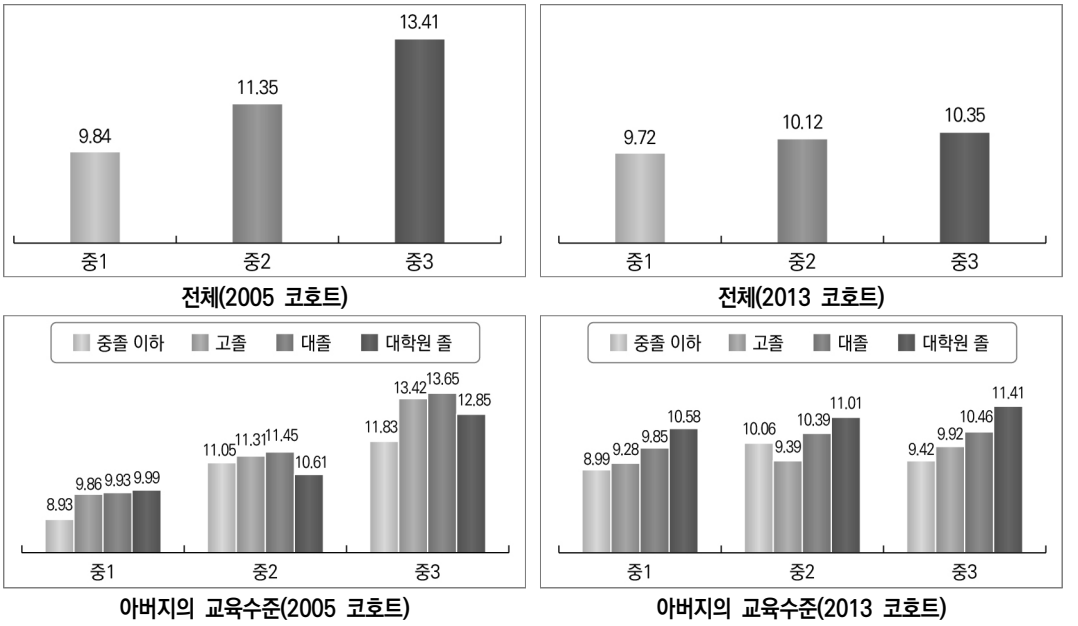
가) 참여 시간

사교육 참여 시간은 1주일 동안 사교육을 받은 시간을 과목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국어·영어·수학 교과별 시간 및 세 교과의 합계 시간이 학생의 개인 특성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전체

국어·영어·수학 교과의 합계 시간은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모두 학년이 올라가며 증가하였으나 2013 코호트의 참여 시간이 2005 코호트보다 더 짧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사교육 참여 시간의 차이는 두 코호트 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2005 코호트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2013 코호트는 1~3학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가 대졸 이상의 학력인 경우, 고졸 이하보다 더 긴 시간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학원을 졸업한 아버지를 둔 학생이 가장 긴 시간동안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었다.

성별의 경우, 2005 코호트는 3년 내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긴 시간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2013 코호트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두 코호트에서 모두 나타났으나 10년 전의 경우 뚜렷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은 반면, 2013 코호트는 1~3학년 모두 지역의 크기가 클수록 사교육을 받은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부록 표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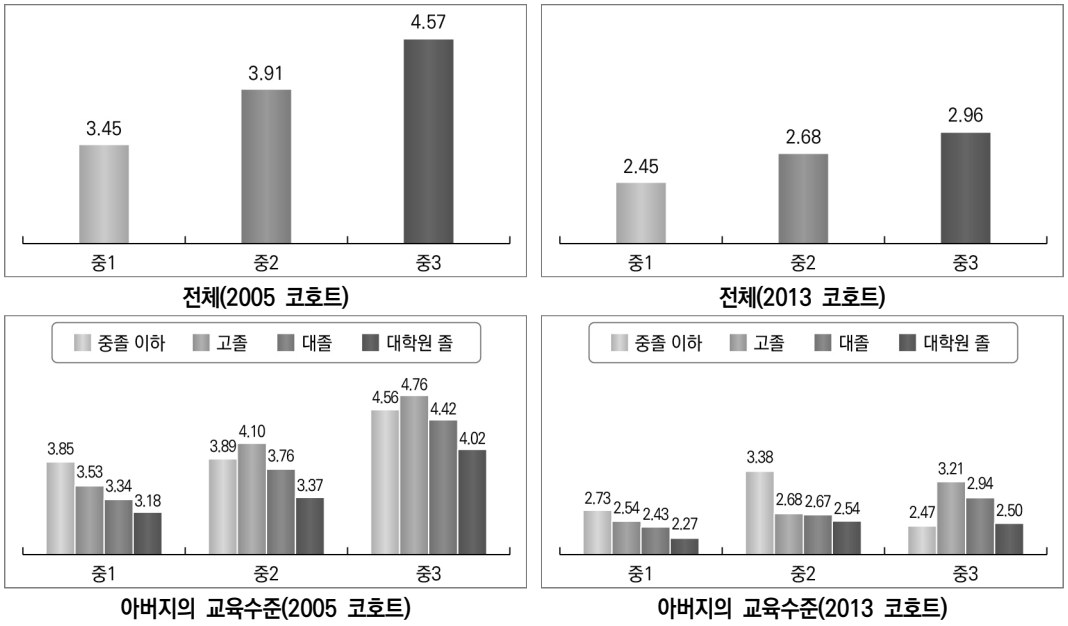


[그림 Ⅱ-3] 사교육 참여 시간(주당 시간)

(2) 국어

국어 교과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모두 학년이 올라가며 증가하였으나 2013 코호트의 참여 시간이 2005 코호트보다 1시간 이상 줄어들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국어 사교육 참여 시간은 두 코호트 간에 서로 다른 차이가 있었다. 2005 코호트의 경우 1~2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아버지가 고졸 이하 학력인 학생이 대졸 이상의 학생들보다 더 긴 시간 국어 교과 사교육에 노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학원졸 학력의 학생들이 가장 적은 시간 국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 코호트의 경우 3학년에만 국어 사교육의 참여 시간이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으며, 2005 코호트와는 달리 특정한 패턴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2005 코호트는 2~3학년 동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국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지만 2013 코호트에서는 2학년 시기에 한정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국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규모에 따른 국어 사교육 참여 시간에도 10년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10년 전만 해도 2~3학년 모두 중소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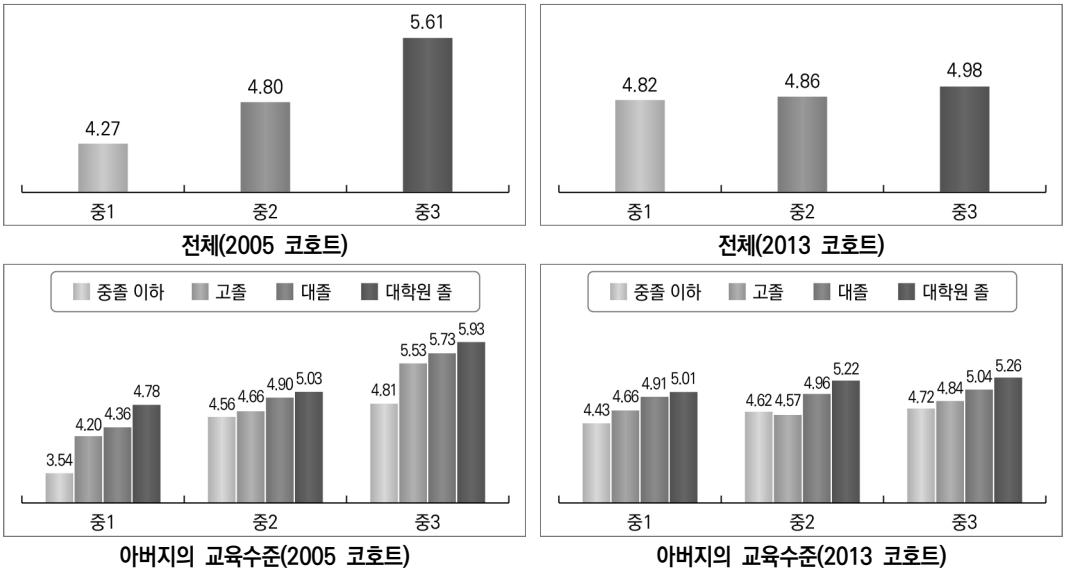


[그림 Ⅱ-4] 사교육 참여 시간: 국어(주당 시간)

이하의 지역이 대도시 이상의 지역보다 더 긴 시간 국어 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에 반해 2013 코호트는 1학년의 국어 사교육 참여 시간이 지역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지만, 이전과는 달리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부록 표 1-4 참조).

(3) 영어

영어 교과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모두 학년이 올라가며 증가하였으나 10년 전의 학년에 따른 증가폭이 2013 코호트보다 커서 3학년을 기준으로 영어 사교육 참여 시간은 10년 전보다 감소하였다. 다만, 1~2학년의 주당 영어 사교육 시간은 10년 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아 3학년 시기부터 영어 사교육을 많이 받았던 10년 전과는 달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영어 사교육 참여 시간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3학년을 제외한 1~2학년에서만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어 사교육 참여 시간이 길었던 10년 전과는 달리 2013 코호트에서는 1~3학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어 사교육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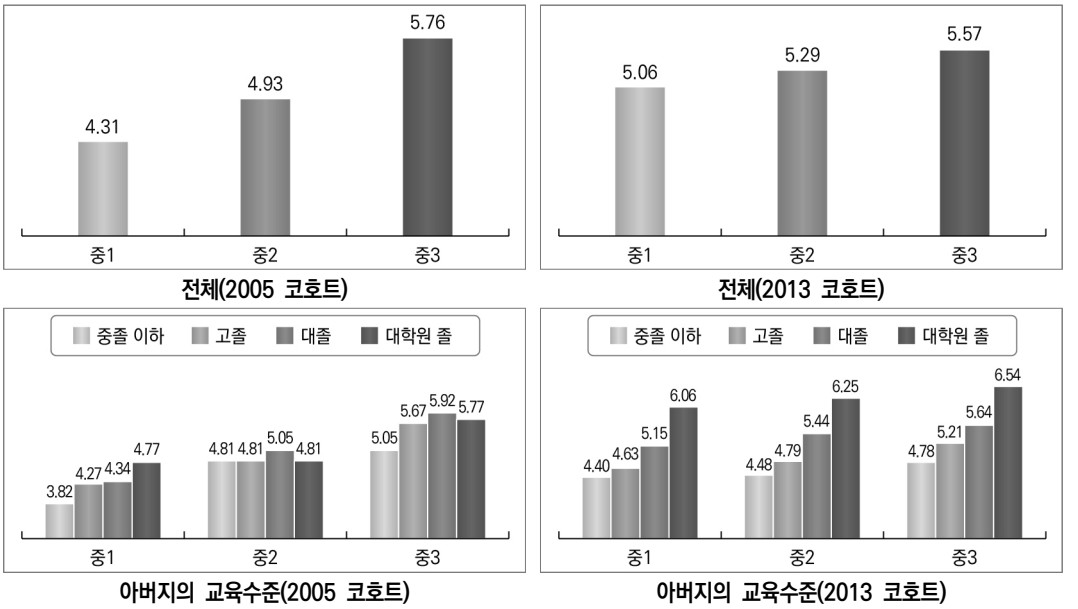
[그림 Ⅱ-5] 사교육 참여 시간: 영어(주당 시간)

성별의 경우, 2005 코호트는 2학년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3 코호트는 중학교 1학년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많이 영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영어 사교육 참여 시간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년에서 유의하였으나, 읍면지역과 중소도시의 값이 다소 높았던 2005 코호트와는 달리 대도시 이상, 특히 특별시의 영어 사교육 시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부록 표 1-5 참조).

(4) 수학

수학 교과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앞선 다른 교과들과 마찬가지로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모두 학년이 올라가며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영어 교과와 마찬가지로 10년 전의 학년에 따른 증가폭이 2013 코호트 보다 커서 3학년을 기준으로 수학 사교육 참여 시간은 10년 전보다 감소한 모습을 띄었다. 하지만 1~2학년의 주당 수학 사교육 시간은 10년 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아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수학 사교육에 더 많이 노출되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수학 사교육 참여 시간은 두 코호트 간에 차이가 있었다. 2005 코호트는 1학년 시기에 한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수학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3 코호트는 1~3학년 내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긴 시간동안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10년 전과 비교하여 매우 컸다.

남녀 간 성별의 차이는 10년 전도, 현재도 그렇게 극명하지 않았다. 2005 코호트는 2학년에 한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3 코호트는 1학년에 한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사교육을 받는다 응답하였으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수학 사교육 참여 시간 또한 10년간 변화가 있었다. 두 코호트 모두 지역규모에 따른 수학 사교육 참여 시간이 1~3학년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나, 10년 전과는 달리 2013 코호트는 도시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시간동안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는 패턴이 나타났다(부록 표 1-6 참조).



[그림 Ⅱ-6] 사교육 참여 시간: 수학(주당 시간)

나) 참여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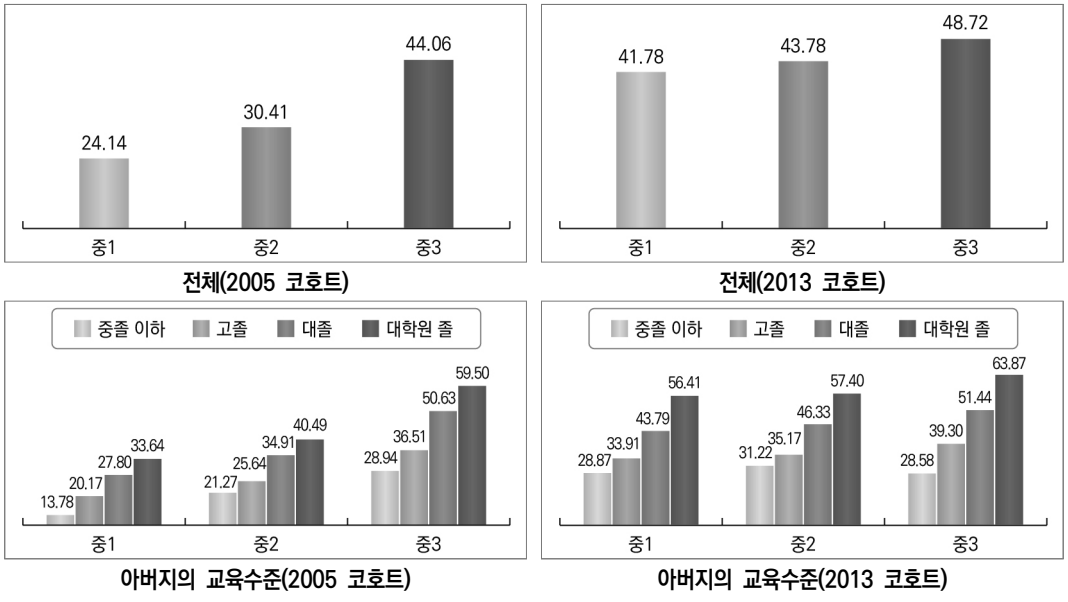
사교육 참여 비용은 1개월 동안의 평균 사교육 비용(만원)을 과목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국어·영어·수학 교과별 시간 및 세 교과의 합계 비용(만원)이 학생의 개인 특성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전체

전체 사교육 비용(국어·영어·수학 비용 합계)은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모두 학년이 올라가며 증가하였다. 10년 전의 학년에 따른 증가폭이 2013 코호트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2013 코호트의 전체 비용이 더 컸으며 중학교 1학년부터 꾸준히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참여 비용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비용도 높아지는 패턴은 비슷하지만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차이 정도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훨씬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녀 간 성별의 경우, 2005 코호트는 3년 내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사

교육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2013 코호트에서는 1학년과 3학년에서만 남학생의 사교육 비용이 여학생보다 조금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3년 내내 관찰되었다. 지역이 클수록 더 많은 사교육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패턴은 동일하였으나 그 차이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2013 코호트가 훨씬 더 극명하였다(부록 표 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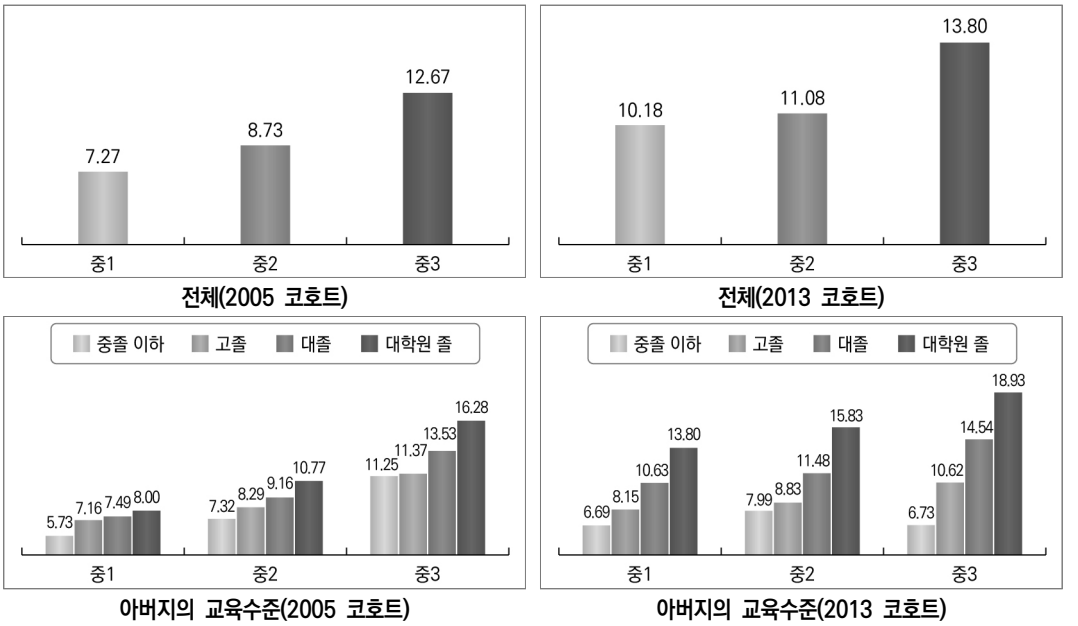
[그림 Ⅱ-7] 사교육 참여 비용(만원/월)

(2) 국어

국어 교과의 사교육 비용은 2005, 2013 코호트 모두 학년이 올라가며 증가하였다. 전체 사교육 비용과 마찬가지로 10년 전 학년에 따른 증가폭이 2013 코호트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2013 코호트의 비용이 더 컸으며 1학년부터 꾸준히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교육 수준에 따른 국어 사교육 비용은 두 코호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비용도 높아지는 패턴은 비슷하지만 학력에 따른 차이 정도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훨씬 컸다.

남녀 간 성별의 경우, 두 코호트 모두 2~3학년 시기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비

용을 국어 사교육에 지출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3년 내내 관찰되었다. 2005 코호트는 대도시 이상 지역이 중소도시 이하 지역보다 국어 교과의 사교육 비용을 많이 지출하였고, 2013 코호트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국어 사교육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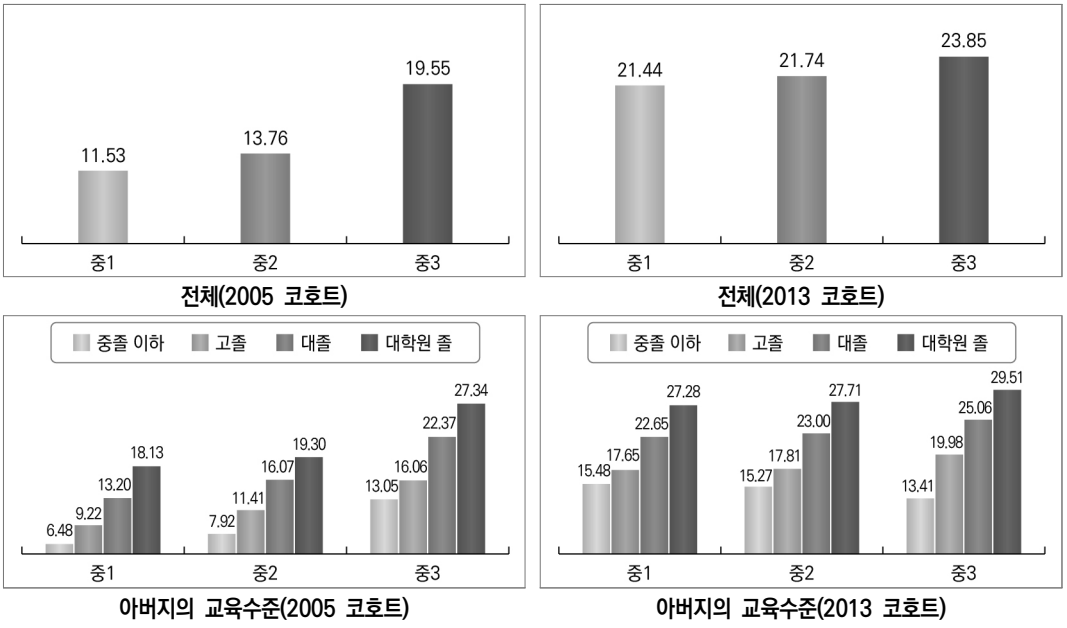
[그림 Ⅱ-8] 사교육 참여 비용: 국어(만원/월)

(3) 영어

영어 교과의 사교육 비용은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모두 학년이 올라가며 증가하였으나 10년 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영어 사교육 비용은 두 코호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비용도 높아지는 패턴은 비슷하지만 학력에 따른 차이 정도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 코호트 간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05 코호트는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남학생이 더 많은 금액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3 코호트는 남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10년 전보다 더 커졌다. 두 코호트 모두 중학교 3년 내내 지역규모가 클수록 비용도 높았으나 2013 코호트가 10년 전에 비해 그 정도가 더욱 컸다(부록 표 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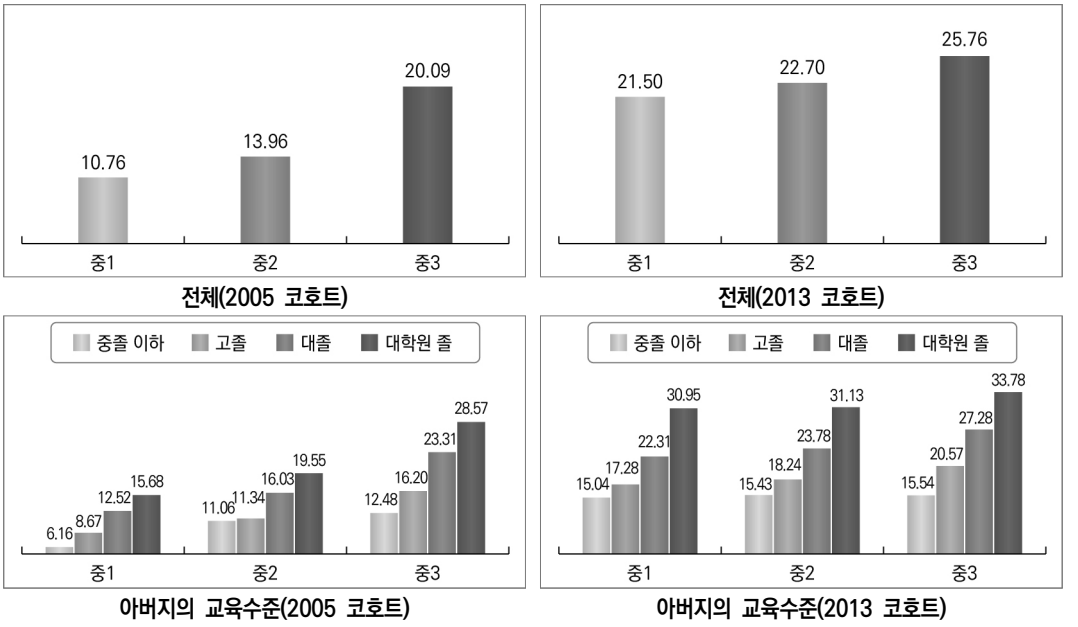
[그림 Ⅱ-9] 사교육 참여 비용: 영어(만원/월)

(4) 수학

수학 교과의 사교육 비용은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모두 학년이 올라가며 높아졌으나 10년 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5 코호트의 경우 1학년 보다 3학년의 수학 사교육 비용이 2배 가까이 높지만, 2013 코호트는 1학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꾸준히 지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비용도 높아지는 패턴은 비슷하지만 학력에 따른 차이 정도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더욱 커졌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두 코호트 모두 1학년과 3학년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었으며, 이 차이가 유의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10년 전보다 그 정도가 더 커진 것을 확인하였다. 두 코호트 모두 3년

내내 지역규모가 클수록 수학 사교육 비용도 커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3 코호트에서 그 정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부록 표 1-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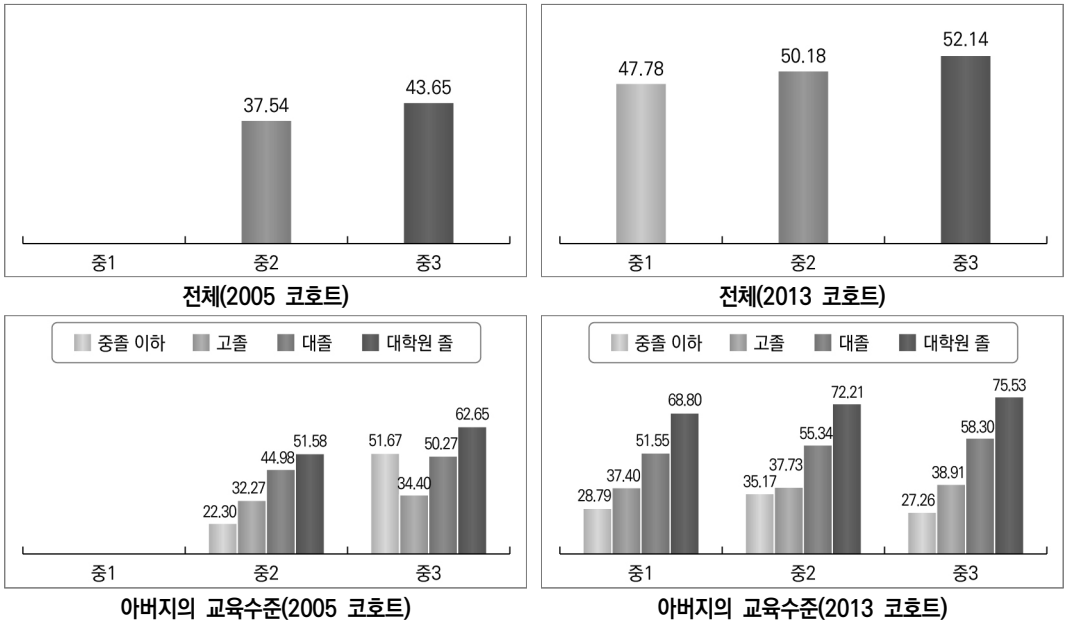
[그림 Ⅱ-10] 사교육 참여 비용: 수학(만원/월)

3) 월평균 교육비

월평균 교육비는 부모가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의 한 달 교육비(만원)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2005 코호트는 중학교 2~3학년, 2013 코호트는 중학교 1~3학년 동안 조사되었다. 먼저, 교육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코호트와 관계없이 동일하였지만 전반적인 교육비의 수준이 10년 전에 비해 높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교육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교육비 또한 높았고 이러한 패턴은 10년 전과 동일하였지만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2005 코호트에서는 2학년 시기만, 2013 코호트에서는 1학년 시기만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모두 남학생의 교육비가 여학생의 교육비보다 더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교육비의 차이 또한 유의미하였으며, 두 코호트 간 그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05 코호트는

중학교 2학년 시기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규모가 클수록 교육비 또한 높았다. 2013 코호트는 중학교 3년 내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역규모가 클수록 교육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을 뿐더러 그 정도가 더욱 뚜렷하였다(부록 표 1-11 참조).



[그림 Ⅱ-11] 월평균 교육비(만원)

4) 부모의 자녀 학교교육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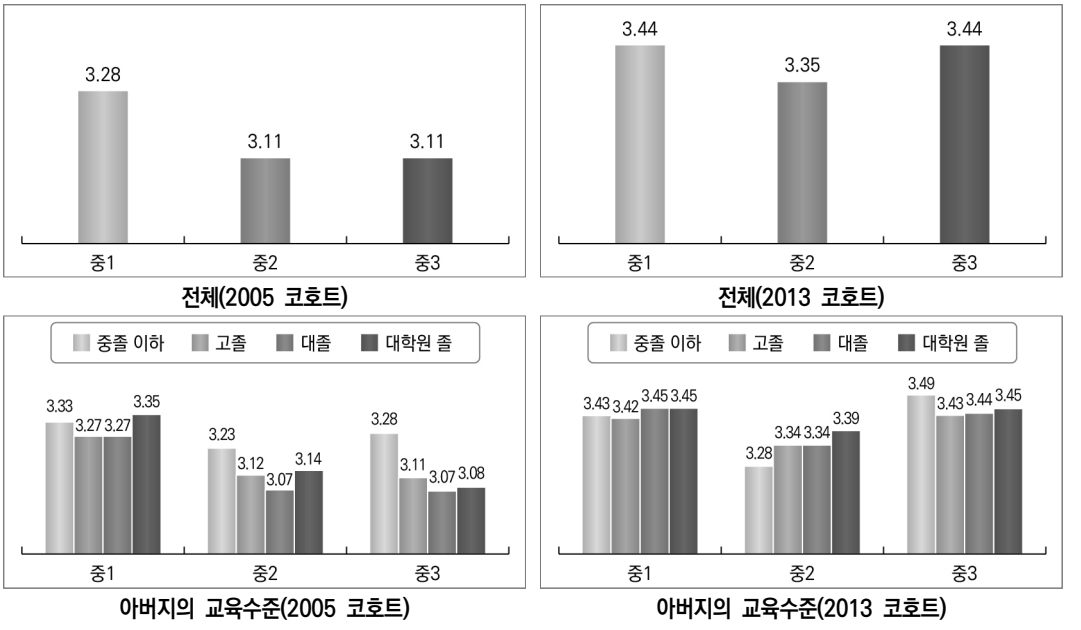
부모의 자녀 학교교육 만족도는 자녀의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며 학부모 설문지를 통해 조사되었다. 학생의 학부모(혹은 법적 보호자)들은 자녀들의 학교교육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모두 중학교 1~3학년 세 시기에 전부 조사되었다.

가) 전반적인 만족도

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높아졌다. 또한,

2005 코호트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만족도가 떨어진 반면, 2013 코호트는 2학년 때 다소 낮아졌던 만족 정도가 3학년이 되면서 1학년과 동일한 수준까지 다시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또한 코호트 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05 코호트에서는 2~3학년 시기의 만족도 정도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졸 이하의 부모가 느끼는 만족도가 다른 학력 수준의 부모보다도 높았다. 하지만 2013 코호트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남녀에 따른 성별 간의 유의한 차이는 두 코호트에서 모두 나타났다. 2005 코호트는 1~2학년, 2013 코호트는 1, 3학년의 남학생 학부모가 여학생 학부모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1~3학년 내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두 코호트 모두 동일하였다. 다만, 2005 코호트는 읍면지역이 가장 높고, 특별시가 가장 낮은 경향이 있었지만, 2013 코호트의 경우 대도시 지역의 만족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부록 표 1-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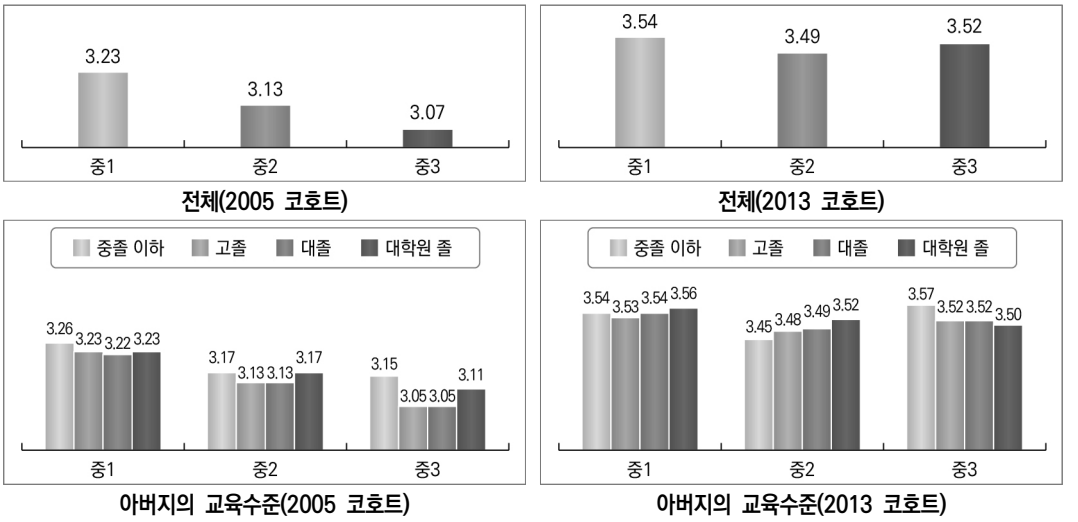
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가 다니는 학교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의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12] 부모의 자녀 학교교육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5점 척도)

나) 학교생활 만족도

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는 앞선 전반적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2005 코호트의 경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그 정도가 꾸준히 낮아졌지만 2013 코호트는 계속 낮아지던 값이 3학년 때는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두 코호트 간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다. 10년 전에는 3학년 시기의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정도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졸 이하의 부모가 다른 학력 수준의 부모보다도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3 코호트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남녀에 따른 성별 간의 유의한 차이는 두 코호트에서 모두 나타났다.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모두 1~3학년의 남학생 학부모가 여학생 학부모보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더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또한 1~3학년 내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두 코호트 모두 동일하였다. 다만, 2005 코호트는 읍면지역이 가장 높고, 특별시가 가장 낮은 경향이 있었지만, 2013 코호트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대도시 지역의 만족도가 유난히 더 높았다(부록 표 1-13 참조).



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는 '기초능력 향상', '자녀 수준에 맞는 교육',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적성에 따른 진로지도', '인성 및 생활지도', '학습에 불편함이 없는 학교의 시설 환경', '학교 행사나 교육활동(명예교사, 자원봉사자) 참여 기회', '원만한 교사-학부모 간 관계' 등 8문항의 만족 정도에 대해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13] 부모의 자녀 학교교육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5점 척도)

나. 학교생활과 경험

학교생활과 경험 영역에는 수업활동(수업 이해도, 수업 분위기), 교사 풍토(교사의 성취 압력, 교사의 열정 및 지식), 학교 내 폭력정도, 동아리 활동, 독서활동(독서량, 독서향유)이 포함된다.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의 비교를 통해 지난 10년간 학생들의 학교 내 교육 경험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1) 수업활동

수업활동은 수업 이해도와 수업 분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 두 항목은 학생 설문지를 통해 조사되었다. 수업 이해도는 두 코호트 모두 국어·영어·수학 교과로 나누어 1~3학년 세 차례 조사되었다. 수업 분위기는 2005 코호트에서 1~2학년 시기에, 2013 코호트에서 2~3학년 시기에 조사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한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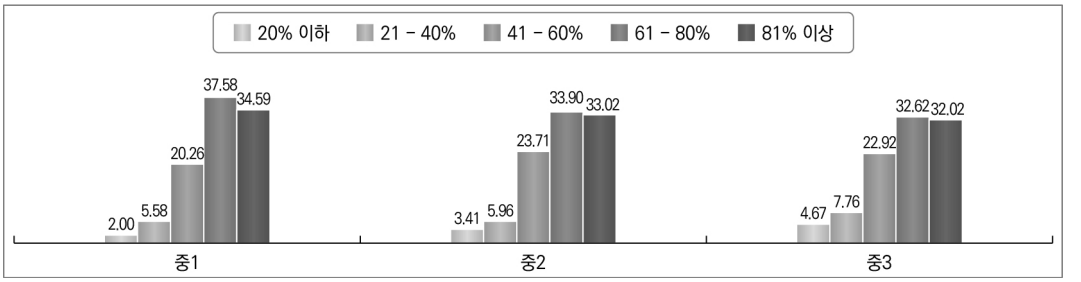
가) 수업 이해도

수업 이해도는 국어·영어·수학 교과의 이해 정도를 20% 이하, 21~40% 이하, 41~60% 이하, 61~80% 이하, 81% 이상으로 구분하여 응답한 결과이다. 세 교과의 수업 이해도가 학생의 개인 특성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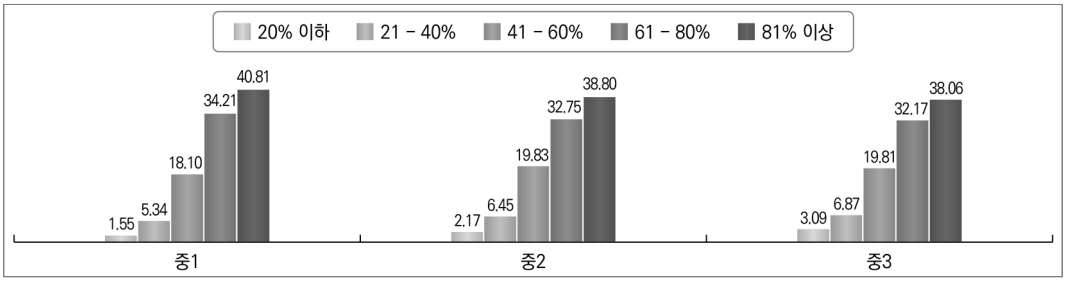
(1) 국어

2005 코호트에서는 1~3학년 모두 국어 수업에 대해 61~80%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2013 코호트에서는 1~3학년 모두 81% 이상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국어 교과의 수업 이해도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60% 이하로 국어 수업을 이해하고 있다는 학생의 비중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늘어났으나, 61% 이상 국어 수업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었다. 이는 두 코호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현상이다.

국어 수업 이해도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5 코호트의 경우, 60% 이하의 이해 수준에서는 학력이 높은 아버지를 둔 학생일수록 그 비율이 낮고 81% 이상의 이해 수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은 경향이 모든 학년에서 뚜렷하였다. 한편, 2013 코호트에서는 21~40% 이하의 이해 수준에서는 학생들의 비율이 아버지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낮았고 81% 이상의 이해 수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그 비율도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이 모든 학년에서 동일하였으나, 그 이외의 이해 수준에서는 학년에 따라 그 경향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두 코호트는 성별 및 지역규모에 따른 국어의 수업 이해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든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14 참조).



전체(2005 코호트)



전체(2013 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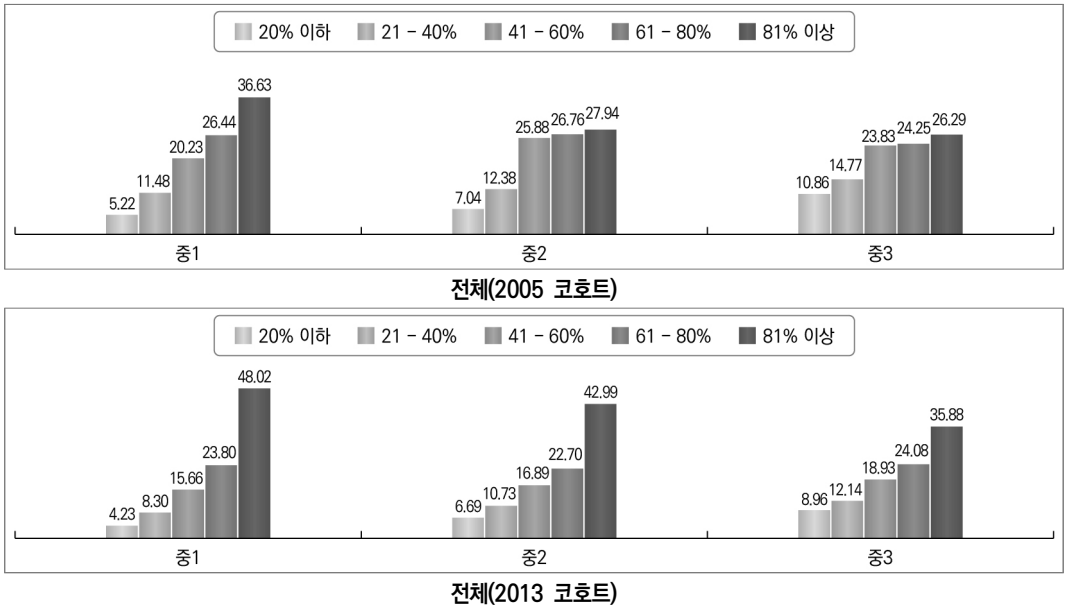
[그림 Ⅱ-14] 국어 수업 이해도(%)

(2) 영어

영어 교과의 수업 이해도는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모두 81% 이상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모든 학년에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 비율이 2013 코호트에서 더 높았으며, 40% 이하로 영어 수업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보아 영어 수업의 이해 정도가 10년 전과 비교하여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5 코호트에서는 40% 이하로 이해한 학생의 비율이 학년에 따라 늘어났지만 2013 코호트에서는 60% 이하로 확대된 것을 확인하였다.

영어 수업 이해도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2005 코호트의 경우, 60% 이하의 이해 수준에서는 학력이 높은 아버지를 둔 학생일수록 그 비율이 낮고 81% 이상의 이해 수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은 경향이 모든 학년에서 뚜렷하였다. 한편, 2013 코호트에서는 40% 이하의 이해 수준에서는 학생들의 비율이 아버지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낮았고 81% 이상의 이해 수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그 비율도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이 모든 학년에서 동일하였으나, 그 이외의 이해 수준에서는 학년에 따라 그 경향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2013 코호트 3학년의 성별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 영어 수업 이해도가 성별 및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부록 표 1-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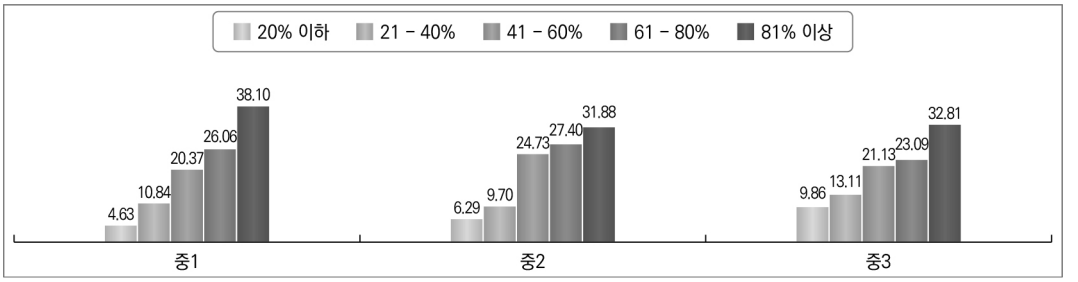
[그림 Ⅱ-15] 영어 수업 이해도(%)

(3)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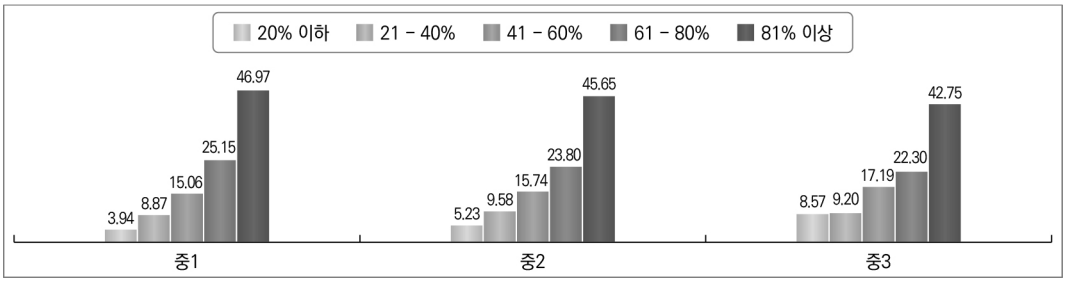
수학 교과의 수업 이해도는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모두 81% 이상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모든 학년에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 비율이 2013 코호트에서 더 높았으며, 40% 이하로 수학 수업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2005 코호트 비교하여 더 낮은 것으로 보아 수학 수업의 이해 정도가 10년 전과 비교하여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수학 수업 이해도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두 코호트 모두 60% 이하의 이해 수준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의 비율이 낮았지만, 81% 이상의 이해 수준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두 코호트는 모든 학년에서 수학 수업 이해도

가 성별 및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16 참조).



전체(2005 코호트)



전체(2013 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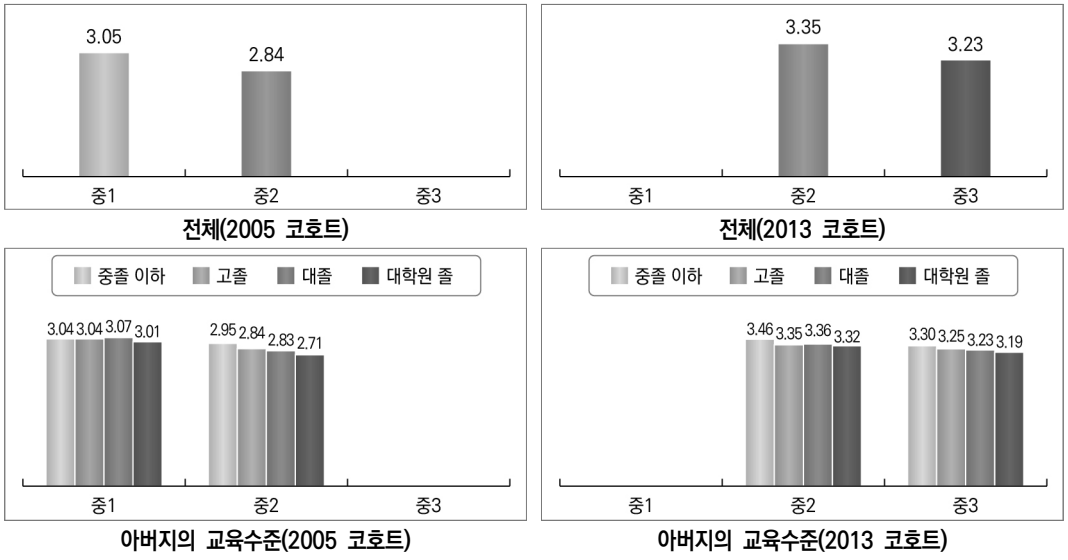
[그림 Ⅱ-16] 수학 수업 이해도(%)

나) 수업 분위기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수업 분위기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정도 또한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10년 전과 비교할 때 그 정도가 더 커진 것을 확인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또한 코호트 간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2005 코호트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느끼는 수업 분위기 정도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력이 낮을수록 수업 분위기를 더욱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3 코호트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 또한 두 코호트 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05 코호트에서는 2학년 시기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업 분위기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3 코호트에서는 2~3학년 두 차례의 조사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업 분위기가 더 좋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 또한 나타

났는데 이는 두 코호트의 모든 조사 시점에서 전부 유의하였다. 다만, 2005 코호트의 경우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평균값이 더 높았지만, 2013 코호트에서는 대도시 지역의 평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부록 표 1-17 참조).



수업 분위기는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역)', '수업이 시작된 후에도 한참 동안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다(역)', '시끄럽고 무질서하다(역)',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한다(역)'의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17] 수업 분위기(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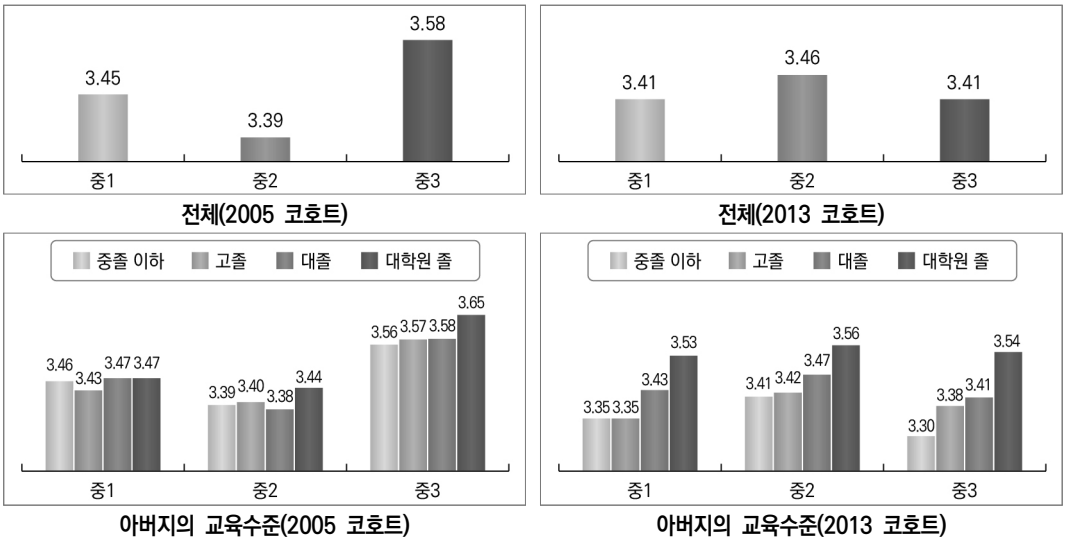
2) 교사풍토

교사풍토는 학생이 느끼는 교사의 성취압력과 교사의 열정 및 지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두 항목은 모두 학생 설문지를 통해 조사되었다. 교사의 성취압력과 교사의 열정 및 지식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두 코호트 모두 1~3학년 세 차례 모두 조사되었다.

가) 교사의 성취압력

2005 코호트의 교사 성취압력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며 감소했다가 3학년 때 다시 증가하는 패턴이었으나, 2013 코호트의 교사 성취압력은 2학년 때가 가장 높았고,

1학년과 3학년은 동일한 값을 띄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교사의 성취압력 정도는 두 코호트 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10년 전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3 코호트에서는 그 정도가 확연히 드러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교사로부터 느끼는 성취압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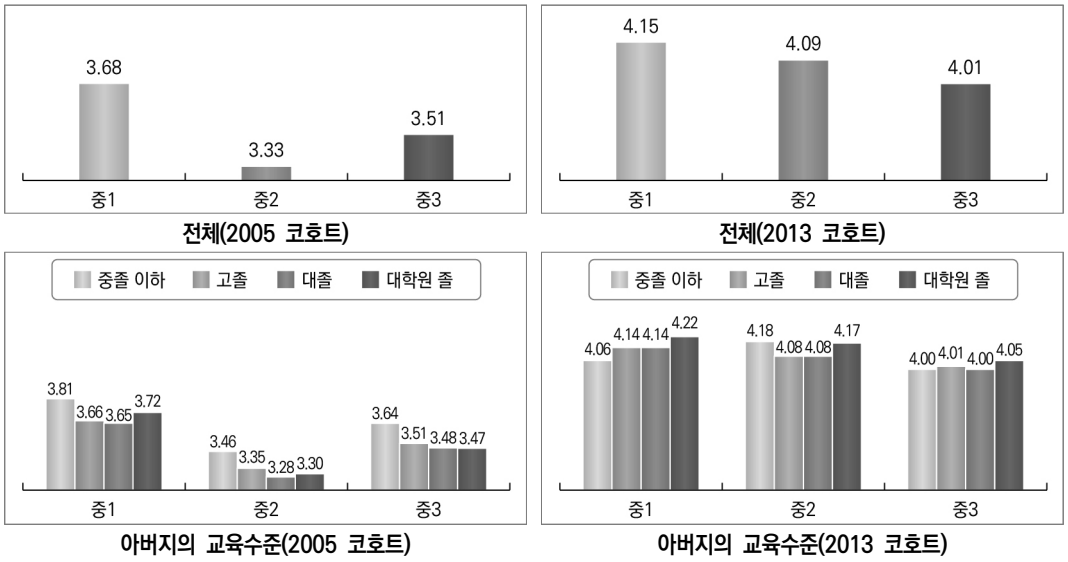
교사의 성취압력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싫어하신다', '시험에서 우리 반이 상위권에 들 것을 강조하신다', '모든 학생이 과제를 다 해오도록 강조하신다', '과제 검사를 철저하게 하신다'의 5문항으로 측정되었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18] 교사의 성취압력(5점 척도)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 코호트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의 1~3학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큰 성취압력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차이가 유의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 또한 두 코호트에서 모든 학년이 유의하였으나 2005 코호트는 읍면지역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성취압력을 보인 것에 비해, 2013 코호트는 특별시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느끼는 성취압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부록 표 1-18 참조).

나) 교사의 열정 및 지식

학생이 느끼는 교사의 열정 및 지식은 10년 전과는 달리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2005 코호트에서는 중학교 시기 내내 학생들이 느끼는 교사의 열정 및 지식이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이 느끼는 교사의 열정 및 지식이 다른 학력의 자녀들보다 더 높았다. 하지만 2013 코호트의 경우 이러한 차이는 1~2학년에서만 발견되었다. 1학년에는 대학원졸 아버지의 자녀들이, 2학년에는 중졸 이하 아버지의 자녀들이 느끼는 교사의 열정 및 지식 수준이 다른 학력의 아버지를 둔 학생들에 비해 높았으며 3학년 때는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열정 및 지식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신다', '본받을 만한 점이 많으시다',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다',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신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19] 교사의 열정 및 지식(5점 척도)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 코호트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의 1~3학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의 열정 및 지식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차이가 유의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 또한 두 코호트에서 모든 학년이 유의하였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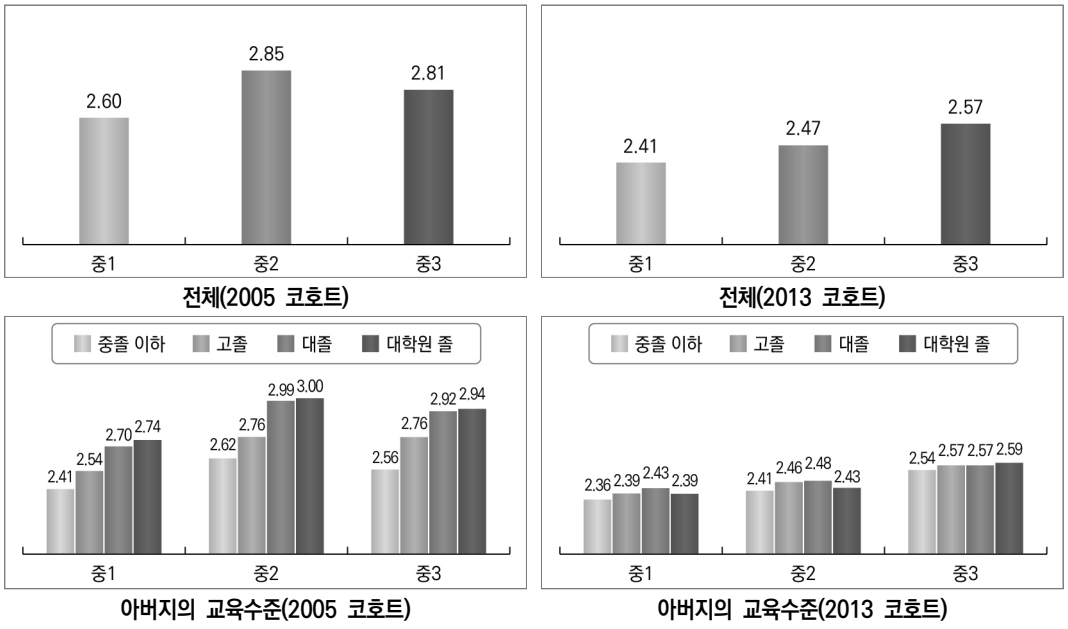
2005 코호트는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느낀 교사의 열정 및 지식이 가장 높았던 것에 반해, 2013 코호트는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가장 높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부록 표 1-19 참조).

3) 학교 폭력

학교 폭력은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내 폭력 정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학생들은 학생 설문지에서 교내 폭력 정도에 대해 '전혀 없다'부터 '매우 많다'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모두 3년 내내 조사되었다.

분석 결과, 10년 전과 비교하여 학교 내 폭력 정도는 조금 줄어들었다. 또한, 2005 코호트의 경우 2학년의 폭력 정도가 많이 높아졌다가 3학년으로 진학하며 다소 감소한 패턴을 보인 반면, 2013 코호트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폭력 정도도 꾸준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두 코호트의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졌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 내 폭력 정도 또한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가 유의했지만 2013 코호트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남녀에 따른 차이 또한 두 코호트 간에 서로 달랐다. 2005 코호트에서는 3학년 시기의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폭력 정도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나, 2013 코호트의 경우 학년에 따라 그 패턴에 차이가 있었다. 1학년 시기에는 남학생이, 3학년 시기에는 여학생이 학교 내 폭력 정도를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2학년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교내 폭력 정도는 두 코호트 모두 3년 내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특별시 지역 학생이 느끼는 폭력 정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부록 표 1-20 참조).



학교 폭력은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에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일이 일어난다', '학생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몸에 상처를 입는 일이 일어난다', '특정 학생을 고의로 따돌리는 일(왕따)이 일어난다', '욕설을 쓰는 학생이 많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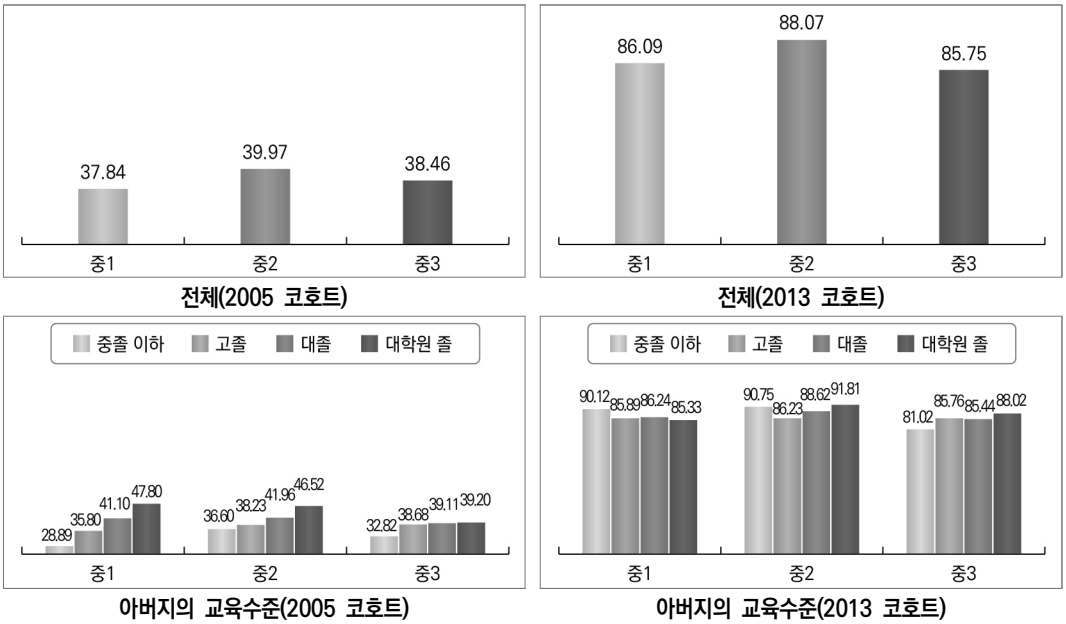
[그림 Ⅱ-20] 학교 폭력(5점 척도)

4)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활동 경험 여부에 대한 학생 설문지 응답 값이며 두 코호트 모두 1~3학년 시기에 조사되었다. 동아리 활동 경험 비율은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13 코호트의 경험 비율이 2005 코호트와 비교하여 매우 증가하였으며, 이는 모든 학년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2005 코호트의 경우, 1~3학년 모두 동아리 활동의 경험 여부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 비율 또한 높은 경향이 있었다. 반면, 2013 코호트는 2학년 시기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른 패턴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경험여부의 차이 또한 두 코호트 간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05 코호트에서는 3학년에서만 남녀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남학생의 동아리 활동 경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하지만 2013 코호트에서는 1~3학년 모두 남녀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모든 학년에서 남학생의 경험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참여비율의 차이

도 10년간 변화가 있었다. 2005 코호트는 3년 내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1학년 시기에는 특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2~3학년 시기에는 읍면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더 많은 비율로 동아리 활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013 코호트의 경우 1, 3학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1학년은 읍면지역 학생이, 3학년은 특별시 학생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보다 더 많이 동아리 활동을 경험하고 있었다(부록 표 1-21 참조).



[그림 Ⅱ-21] 동아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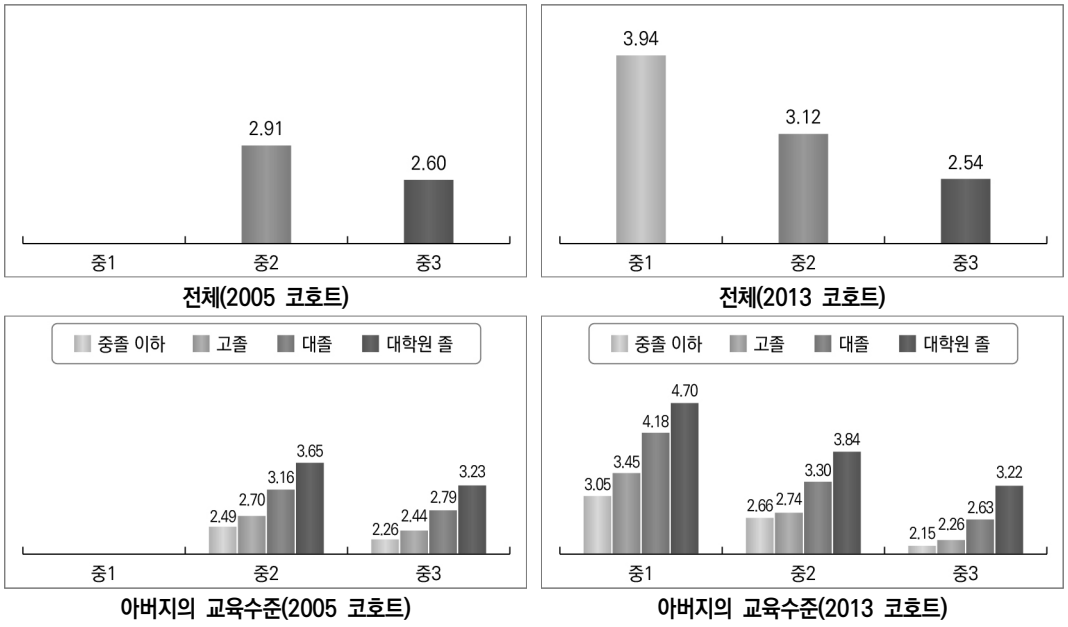
5) 독서활동

독서 활동은 월간 독서량과 독서 향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항목 모두 학생 설문지를 통해 조사되었는데, 독서량은 2005 코호트에서 2~3학년 동안, 2013 코호트에서는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응답한 결과이다. 독서 향유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두 코호트 모두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독서량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읽는 책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줄어들었으며, 이는 두 코호트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특히, 10년 전과 비교할 때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하며 월 평균 독서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독서량은 코호트와 관계없이 여전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독서량 또한 많았으며 그 정도가 뚜렷하였다.

성별에 따른 독서량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3년 내내 유효하였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른 독서량은 두 코호트 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05 코호트의 경우 2~3학년 모두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독서량이 더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2013 코호트의 경우 1학년에 한해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특별한 패턴은 보이지 않았다(부록 표 1-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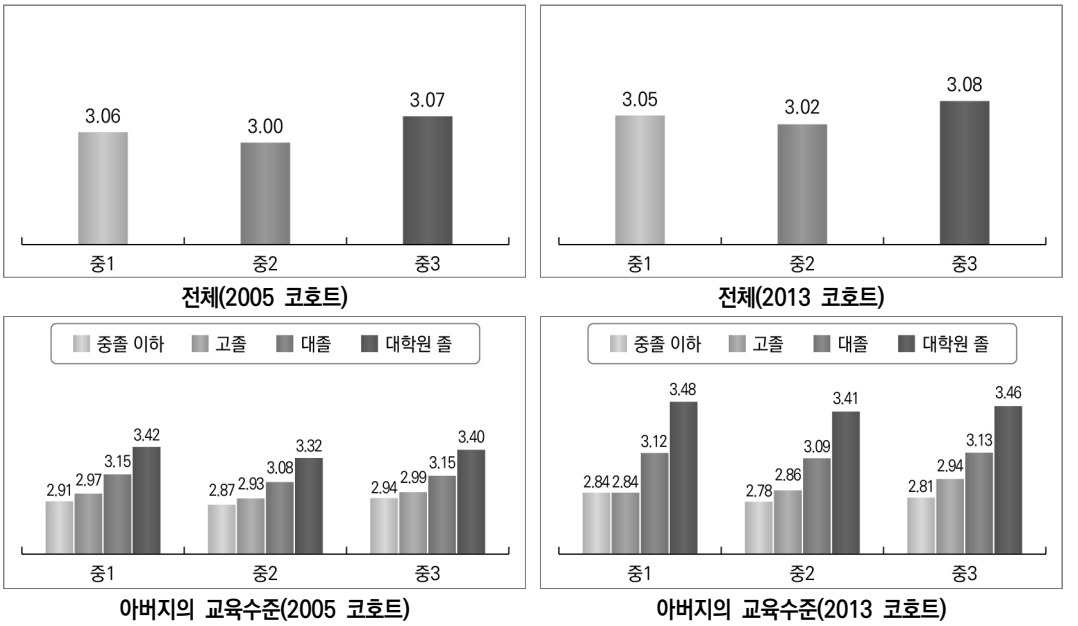


[그림 Ⅱ-22] 독서량(월/권)

나) 독서 향유

독서 향유 정도는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수준이었다. 2학년에 진급하며 다소 감소하였다가, 3학년이 되며 다시 높아졌는데, 이러한 패턴 또한 두 코호트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또한 두 코호트의 1~3학년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독서 향유 정도 또한 높았다.

성별에 따른 독서 향유 정도 또한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독서량 자체는 남학생이 더 많았지만, 독서 향유 정도는 모든 학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1~3학년 모두 있었으며, 두 코호트가 동일하였다. 다만, 10년 전과는 달리 2013 코호트에서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독서 향유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부록 표 1-23 참조).



독서 향유는 '독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이다', '다른 사람과 책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책을 선물로 받을 때 기쁘다', '한 번 읽기 시작한 책은 끝까지 읽는다'의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23] 독서 향유

다. 인지적 성취와 학습

인지적 성취와 학습관련 영역에는 동기(외적 조절동기, 부과된 조절동기, 확인된 조절동기, 내재적 조절동기, 무동기), 학습목표지향성(숙달접근, 수행접근), 인지조절전략(시연, 정교화, 조직화, 초인지), 행동조절전략(노력조절, 시간관리, 공간관리, 도움 및 자원 활용), 자기효능감(국어·영어·수학), 학습양식(협동학습선호, 경쟁학습선호)이 포함된다.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의 비교를 통해 지난 10년간 인지적 성취와 학습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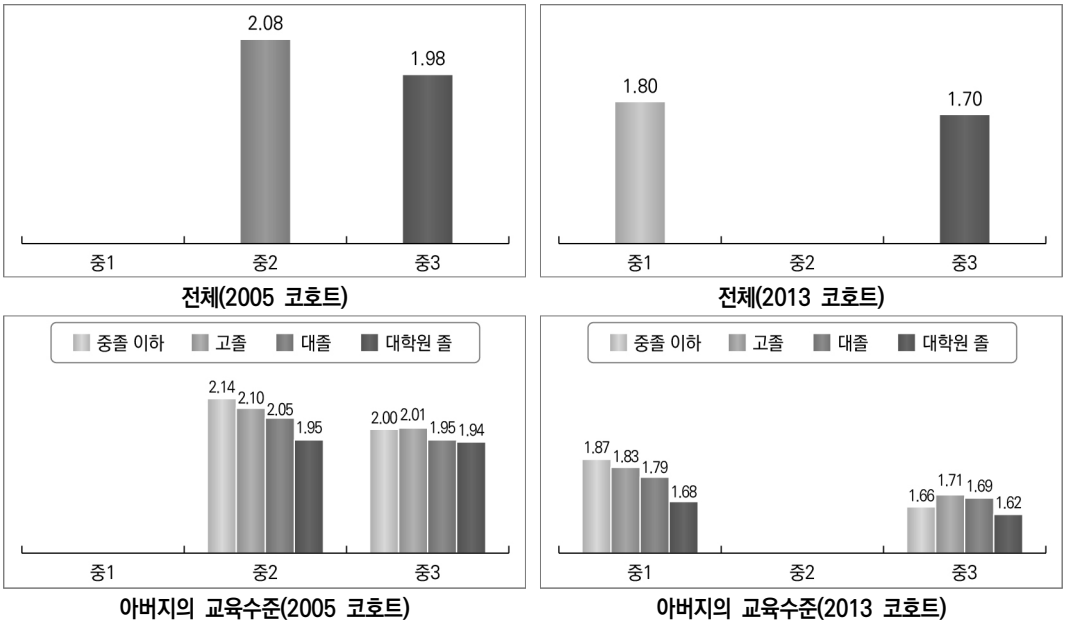
1) 동기

동기는 학습 동기의 내·외재적 수준에 따라 분류한 이론적 모형(김아영·오순애, 2001; 김아영, 2002; Ryan & Deci, 2000)을 바탕으로 외적 조절동기, 부과된 조절동기, 확인된 조절동기, 내재적 조절동기, 무동기 등의 하위 요인을 나누어 측정하였다(김성식·남궁지영, 2008). 이 항목들은 2005 코호트의 자기조절학습 검사지, 2013 코호트의 학습자특성조사지를 통해 조사되었으며,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2005 코호트는 2~3학년, 2013 코호트는 1, 3학년에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외적 조절동기

외적 조절동기는 "자기결정성의 부재 상태에서 수행되는 행동"이며 "규칙에 따라야 하니까 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아영·오순애, 2001; 김양분 외 2016 재인용). 학생들의 외적 조절동기는 두 코호트 모두 학년이 높아지면서 그 정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3 코호트가 10년 전보다 낮은 수준의 외적 조절동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외적 조절동기의 유의한 차이가 2005 코호트에서는 뚜렷하였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값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2013 코호트 또한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긴 하였으나 1학년 시기의 외적 조절동기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값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지만, 3학년은 그렇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외적 조절동기는 두 코호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사된 학년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값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코호트별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2005 코호트에서는 2학년에서 대도시 및 중소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았지만 2013 코호트에서는 1, 3학년 모두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만, 1학년은 읍면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던 반면, 3학년은 특별시와 읍면지역 모두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부록 표 1-24 참조).



외적 조절동기는 '부모님이 상(용돈, 선물, 칭찬 등)을 주시기 때문에 공부한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벌(꾸중, 체벌)을 주시기 때문에 공부한다', '부모님이 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공부한다', '선생님이 하라고 시켜서 공부한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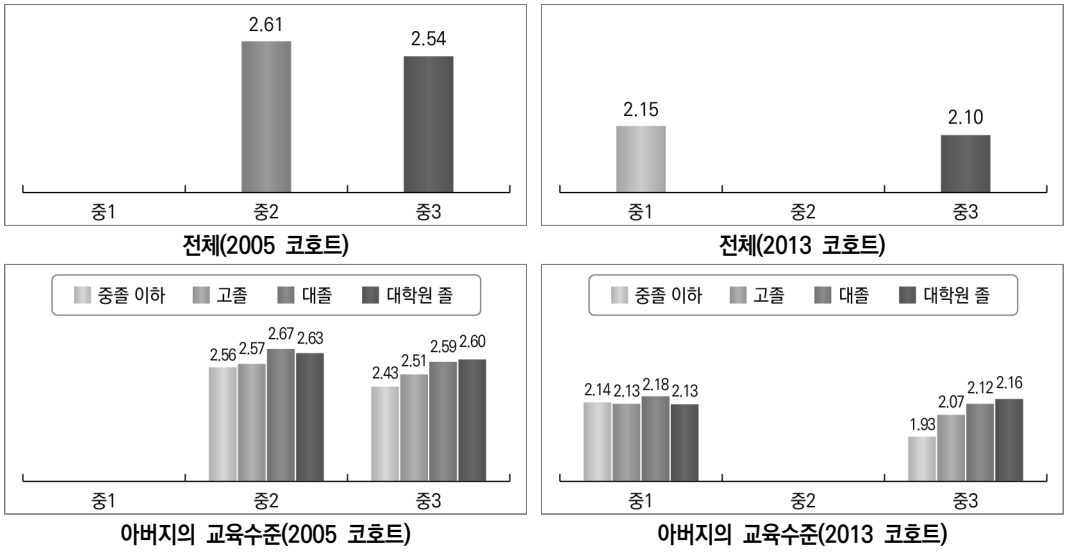
[그림 Ⅱ-24] 외적 조절동기(4점 척도)

나) 부과된 조절동기

부과된 조절동기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아영·오순애, 2001; 김양분 외, 2016 재인용). 학생들의 부과

된 조절동기는 두 코호트 모두 학년이 높아지면서 그 정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3 코호트가 10년 전보다 낮은 수준의 부과된 조절동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과된 조절동기의 유의한 차이가 2005 코호트, 2013 코호트에서 모두 뚜렷하였는데, 2005 코호트는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녀들이 대졸 이상의 자녀들보다 낮은 수준의 부과된 조절동기를 갖고 있었다. 한편, 2013 코호트는 10년 전과는 달리 특별한 패턴이 없었으며 1학년 때는 대졸 아버지를 둔 학생들이, 3학년에는 대학원졸 아버지를 둔 학생들이 부과된 조절동기가 다른 학생들보다 높았다.

성별에 따른 부과된 조절동기는 두 코호트의 조사된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값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코호트별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05 코호트에서는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2013 코호트에서는 1, 3학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학년과 3학년 모두 특별시와 읍면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부과된 조절동기가 다른 지역보다도 높았다(부록 표 1-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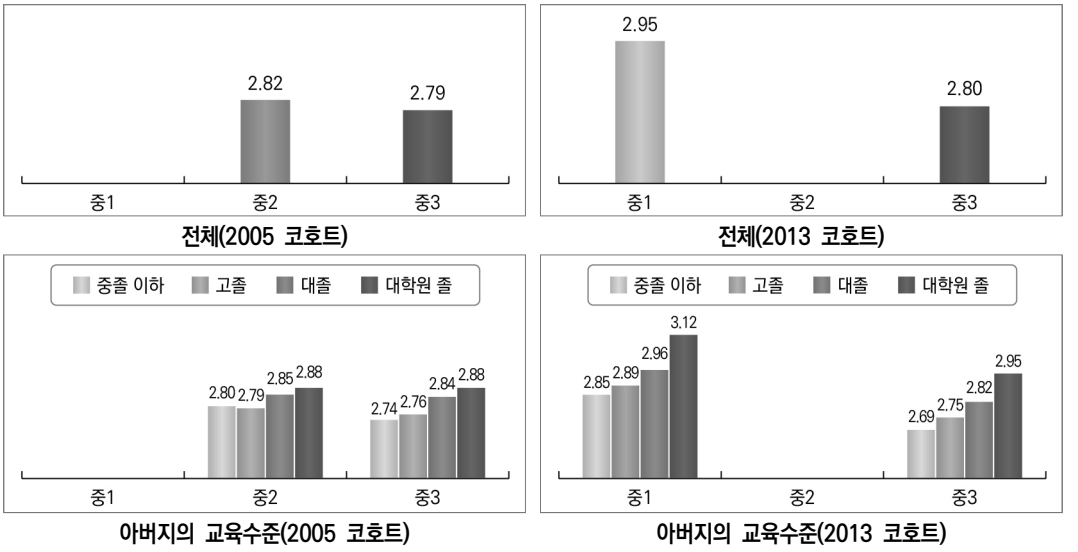
부과된 조절동기는 '선생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성적이 나쁘면 창피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한다', '친구들이 나를 똑똑한 학생으로 봐주기를 원해서 공부한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25] 부과된 조절동기(4점 척도)

다) 확인된 조절동기

확인된 조절동기는 “스스로 그 행동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부여된 목표나 개인적인 중요성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경우”의 동기를 의미한다(김아영·오순애, 2001; 김양분 외, 2016 재인용). 학생들의 확인된 조절동기는 두 코호트 모두 학년이 높아지면서 그 정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외적 조절동기의 유의한 차이가 2005 코호트, 2013 코호트에서 모두 뚜렷하였는데, 두 코호트 모두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확인된 조절동기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성별에 따른 확인된 조절동기는 2005 코호트의 모든 학년, 2013 코호트의 3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차이는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두 코호트에서 조사된 모든 학년은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특별한 경향성이 보이진 않았다. 2005 코호트의 경우 2학년은 읍면지역이, 3학년은 특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값이 높았지만, 2013 코호트의 경우는 1학년은 특별시가, 2학년은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확인된 조절동기를 보였다(부록 표 1-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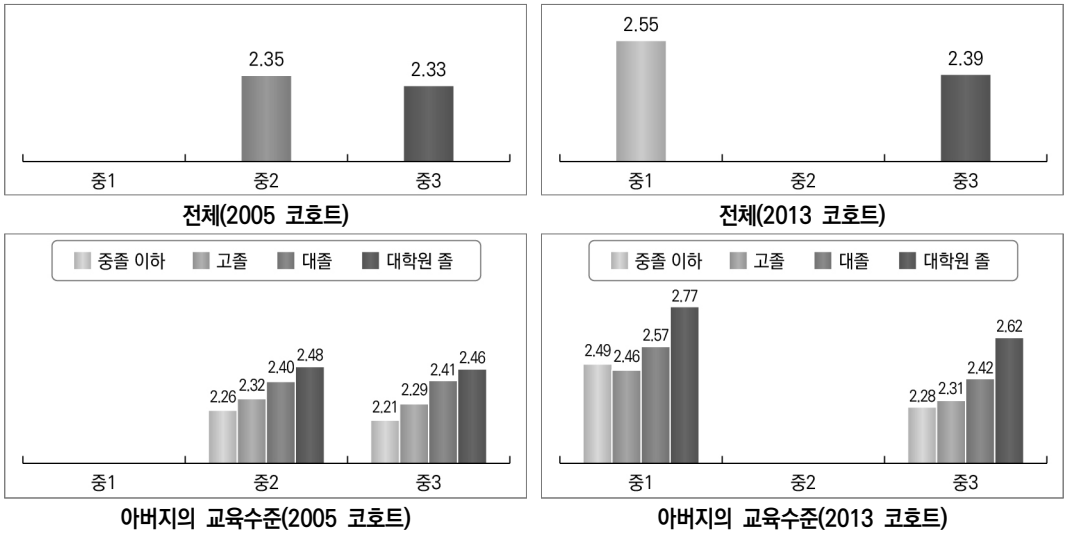
확인된 조절동기는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지식을 쌓아 가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공부한다’, ‘공부를 하면 실생활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나중에 공부할 때 좀 더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한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26] 확인된 조절동기(4점 척도)

라) 내재적 조절동기

내재적 조절동기는 “자기결정성 원리에 의해 내적 즐거움 혹은 재미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뜻하며 “즐거움과 재미 때문에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경우”이다(김아영·오순애, 2001; 김양분 외, 2016 재인용). 2005 코호트 학생들의 내재적 조절동기는 학년이 올라가며 다소 감소하였으나 비슷한 수준이었고, 2013 코호트는 학년에 높아짐에 따라 조금 더 많이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또한 두 코호트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코호트와 학년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내재적 조절동기가 높아지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내재적 조절동기의 차이는 두 코호트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05 코호트는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3 코호트는 1, 3학년 모두 남학생의 내재적 조절동기가 여학생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한편, 두 코호트 모두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05 코호트는 특별시 및 읍면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고, 2013 코호트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내재적 조절동기 평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부록 표 1-2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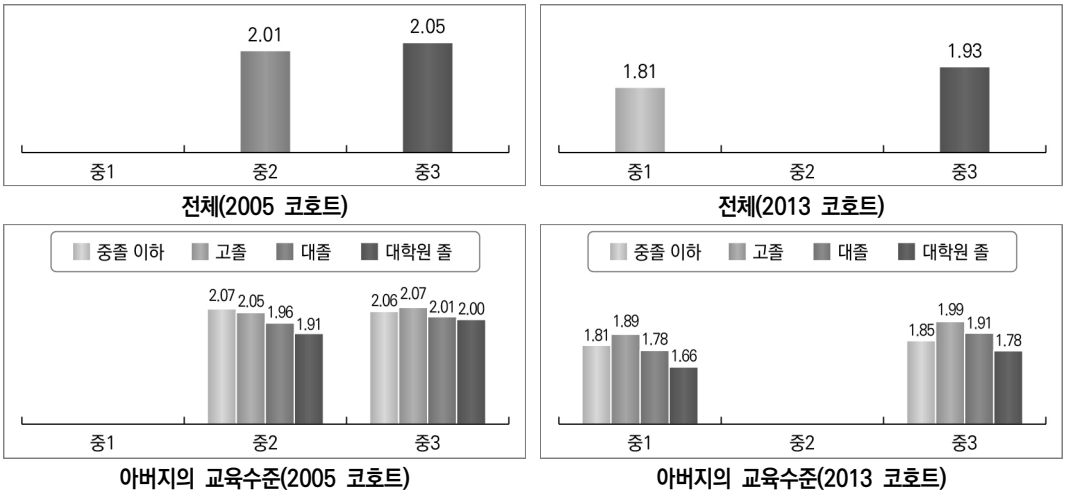
내재적 조절동기는 ‘공부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공부한다’, ‘어려운 도전들로부터 기쁨을 얻기 때문에 공부한다’, ‘지식을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공부한다’,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한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27] 내재적 조절동기(4점 척도)

마) 무동기

무동기는 “행동하려는 의지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이며 “무동기 상태인 학생들은 행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무한 상태”이다(김아영·오순애, 2001; 김양분 외, 2016 재인용). 학생들의 무동기 정도는 두 코호트 모두 학년이 높아지면서 그 정도가 높아졌으며, 2013 코호트가 10년 전보다 낮은 무동기 수준을 보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무동기의 유의한 차이가 2005 코호트, 2013 코호트에서 모두 뚜렷하였다. 2005 코호트는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녀들이 대졸 이상의 자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무동기 상태였지만, 2013 코호트는 다른 학력 수준의 아버지를 둔 자녀들보다 고졸 아버지의 자녀들이 무동기 정도가 더 높았다.

성별에 따른 무동기 정도는 두 코호트 모두 3학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만, 2005 코호트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값을 띄었지만, 2013 코호트는 반대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무동기 정도는 코호트 별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05 코호트에서는 3학년의 무동기 값이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시가 가장 높았다. 한편, 2013 코호트는 1, 3학년 모두 중소도시 이하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무동기를 보였다(부록 표 1-28 참조).



무동기는 ‘내가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왜 학교에 가는지 모르겠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28] 무동기(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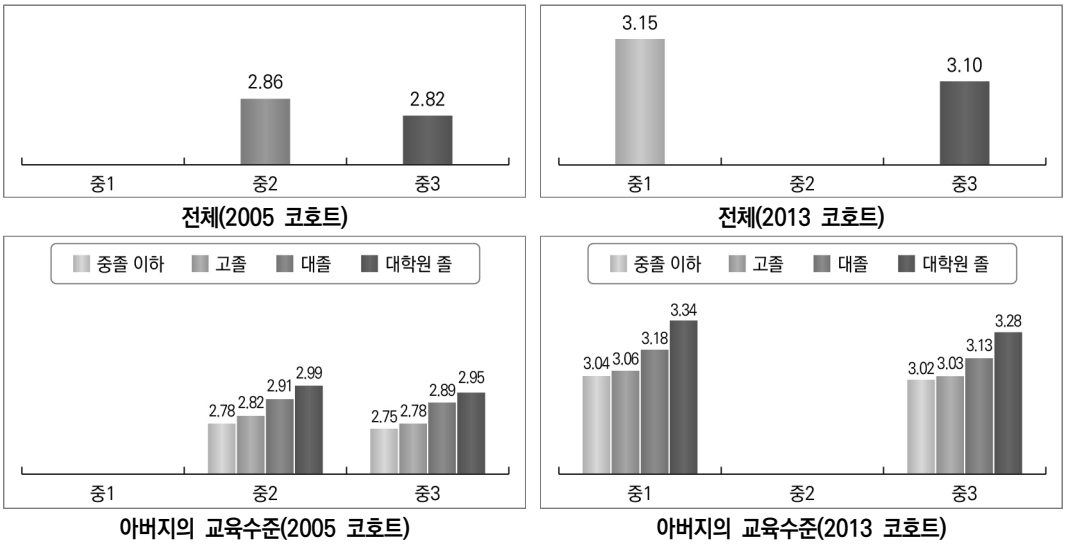
2) 학습목표지향성

학습목표지향성은 Elliot(1999)의 이론적 틀에 따라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 등의 하위 요인으로 측정된 바 있으나(김성식·남궁지영, 2008) 여기서는 숙달접근과 수행접근 두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항목들은 2005 코호트의 자기조절학습 검사지, 2013 코호트의 학습자특성조사지를 통해 조사되었으며,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2005 코호트는 2~3학년, 2013 코호트는 1, 3학년에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숙달접근

숙달접근은 "자신의 유능함을 개발 또는 발전시키거나 과제를 숙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목표 성향"을 의미한다(이주화·김아영, 2005; 김양분 외, 2016 재인용). 두 코호트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정도가 낮아졌지만 2013 코호트가 10년 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숙달접근 정도를 보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숙달접근 또한 두 코호트 모두 조사된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숙달접근 정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숙달접근 정도는 코호트가 서로 달랐다. 2005 코호트에서는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2013 코호트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숙달접근 정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숙달접근은 두 코호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2005 코호트는 특별시 및 읍면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었던 반면 2013 코호트는 특별시와 대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숙달접근을 보여 두 코호트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부록 표 1-29 참조).



숙달접근은 '수업에서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배우고 싶다', '수업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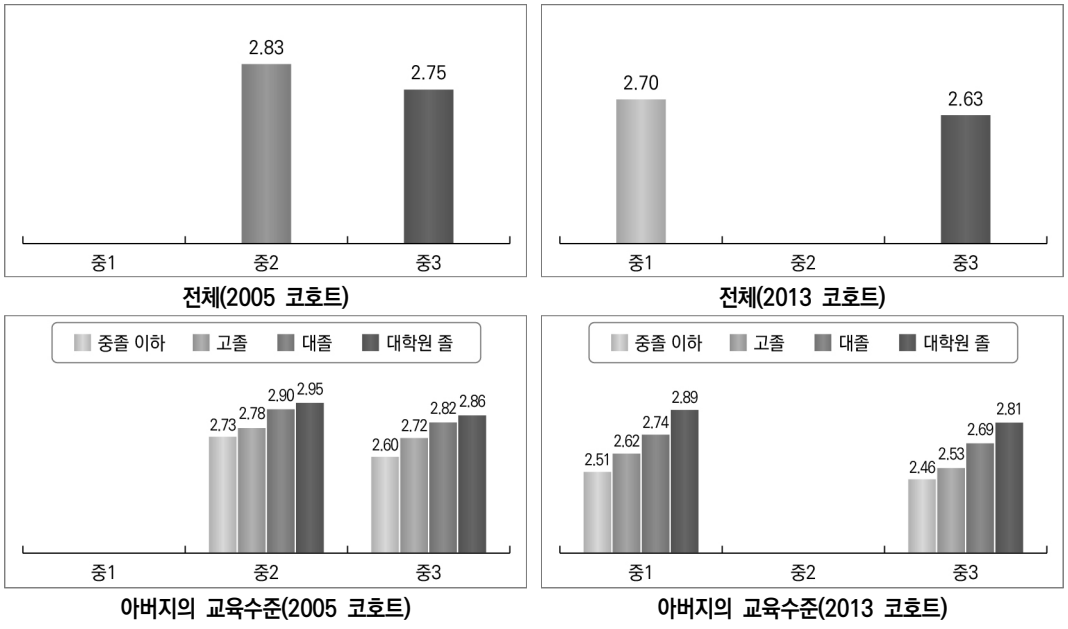
[그림 Ⅱ-29] 숙달접근(4점 척도)

나) 수행접근

수행접근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거나 적은 노력으로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우수한 능력을 입증하려는 목표 성향"을 뜻한다(이주화·김아영, 2005; 김양분 외, 2016 재인용). 두 코호트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정도가 낮아졌으며 2013 코호트가 10년 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행접근 정도를 보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수행접근 또한 두 코호트 모두 학년에 상관없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력이 높은 아버지를 둔 자녀일수록 높은 수준의 수행접근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차이가 2013 코호트에서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10년 전보다 뚜렷해졌다. 2005 코호트는 2학년에 한해 남학생의 수행접근 정도가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던 반면, 2013 코호트는 1, 3학년 모두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 또한 코호트 간 서로 다른 결과를 띄었다. 10년 전에는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2013 코호트에서는 1학년과 3학년 모

두 대도시 이상의 규모를 가진 지역이 다른 지역들 보다 수행접근 정도가 높았으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부록 표 1-30 참조).



수행접근은 '나에게는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학생들보다 학교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수업에서 나의 목표는 다른 학생들보다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30] 수행접근(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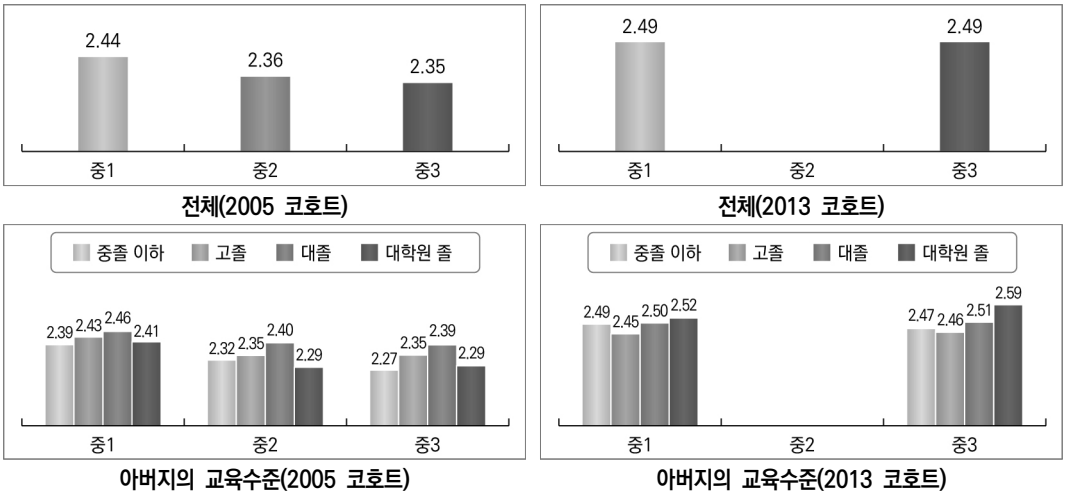
3) 인지조절전략

인지조절전략은 시연, 정교화, 조직화, 초인지 전략으로 측정하였다. 이 항목들은 2005 코호트의 자기조절학습 검사지, 2013 코호트의 학습자특성조사지를 통해 조사되었으며,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시연, 정교화, 초인지 항목은 2005 코호트는 1~3학년, 2013 코호트는 1, 3학년에 조사되었으며, 조직화 항목에 한해 2005 코호트는 2~3학년, 2013 코호트는 1, 3학년 동안 조사되었다.

가) 시연

시연은 “암송이나 요약을 통해 작업 기억에 도달한 정보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시키는 전략”이다(박해빈·신태섭, 2016; 김양분 외, 2016 재인용). 2005 코호트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수가 점차 하락한 반면, 2013 코호트는 1학년과 3학년이 동일한 값을 보였으며 그 정도가 10년 전보다 높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시연 정도의 차이는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2005 코호트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교육수준이 대졸인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그 정도가 높았으나 2013 코호트에서는 대졸 이상의 아버지를 둔 학생들의 값이 고졸 이하 보다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성별에 따른 시연 정도 또한 코호트 간 차이가 있었다. 2005 코호트는 1~3학년 내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시연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2013 코호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1학년 시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학생들이 시연 전략을 활용하는 정도는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2005 코호트의 경우 1학년 때는 읍면지역이, 3학년 때는 특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고, 2013 코호트의 경우 1학년에 한해 대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시연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부록 표 1-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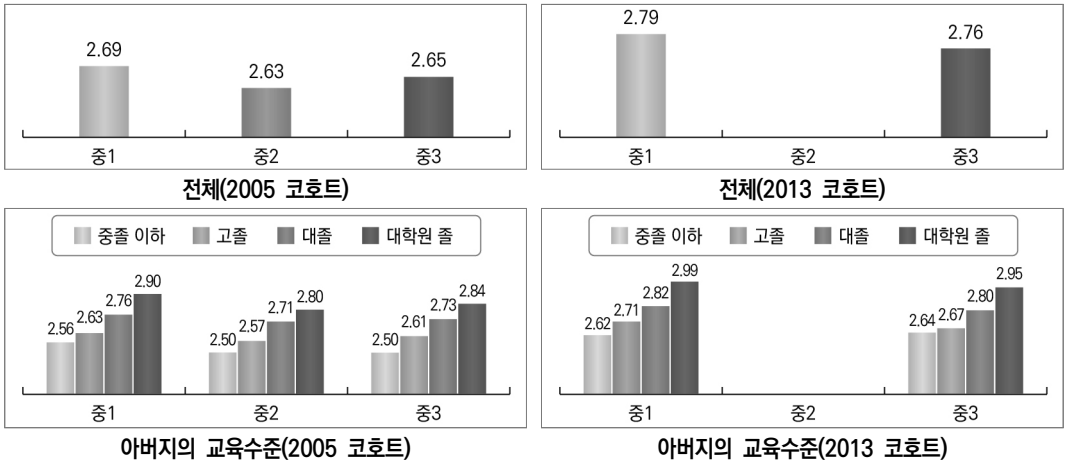
시연은 ‘공부할 때 모든 내용을 다 외우려고 애쓴다’, ‘공부할 때 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외운다’, ‘공부할 때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모두 안보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운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31] 시연(4점 척도)

나) 정교화

정교화는 “기존의 지식에 새로운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정보의 유의미성을 증가시키는 부호화 전략”이다(Eggen & Kauchak, 2009; 김양분 외, 2016 재인용). 학생들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정교화 전략은 더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코호트 모두 학년에 올라가면서 정교화 전략 점수가 하락하였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정교화 전략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또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정교화 전략 점수 또한 높았다.

성별에 따른 정교화 전략 활용 정도의 차이는 코호트 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 2005 코호트는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2013 코호트에서는 1, 3학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교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 학생들이 정교화 전략을 활용하는 정도의 차이 또한 코호트 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2005 코호트의 경우 1학년에 한해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지역규모가 클수록 평균값 또한 컸다. 하지만 2013 코호트는 1학년과 3학년 모두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도시 이상의 지역이 그 이외의 지역보다 더 큰 평균값을 보였다(부록 표 1-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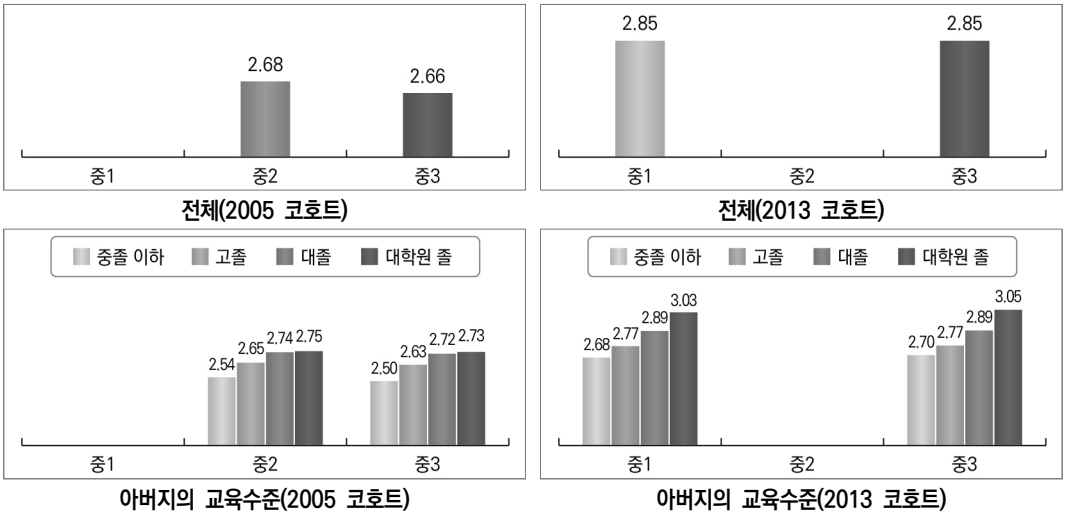
정교화는 ‘공부할 때 배우는 내용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공부할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생각해 본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키면 공부가 더 잘 된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32] 정교화(4점 척도)

다) 조직화

조직화는 “제시된 정보를 순서대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를 범주나 단위로 묶는 것과 같은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재조직하는 방법”(박경아·최경숙, 2007; 김양분 외, 2016 재인용)을 뜻한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2013 코호트의 조직화 전략 활용 정도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며, 2005 코호트의 경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두 코호트 모두 학년과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조직화 전략 활용 정도는 코호트 및 학년과 관계없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의 조사된 모든 학년에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조직화 전략의 활용 정도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조직화 전략 활용 정도 또한 코호트 및 학년과 관계없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 정도가 더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 또한 모든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유의하였으며, 2005 코호트의 경우 지역규모가 클수록 그 정도가 높았고 2013 코호트의 경우에는 대도시 이상일수록 더 높은 정도의 조직화 전략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부록 표 1-3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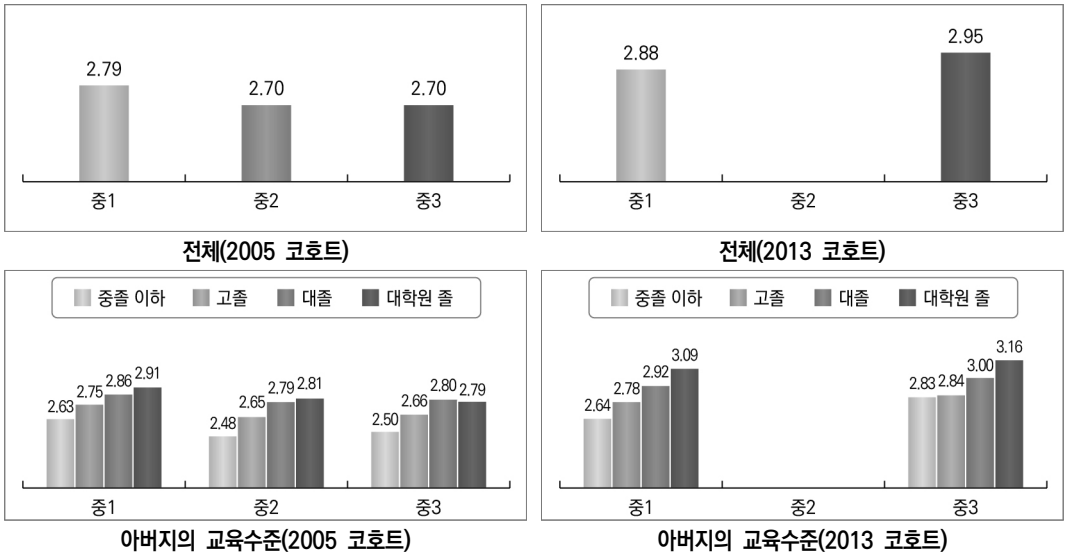
조직화는 ‘공부한 내용은 내 방식대로 정리해 놓는다’,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을 따로 정리한다’, ‘공부를 할 때 개념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관계를 정리해 본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33] 조직화(4점 척도)

라) 초인지

초인지는 “학습자 자신이 사고활동을 의식적으로 통제, 조절하는 활동”(김성식·남궁지영, 2008; 김양분 외, 2016 재인용)을 뜻한다. 학생들의 초인지 전략 활용 정도는 10년 전에 비해 높아졌으며, 2005 코호트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값이 낮아진 것에 반해, 2013 코호트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활용 정도 또한 높아진 것을 발견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초인지 활용 정도는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초인지 활용 정도 또한 높아지는 패턴이 있었다.

성별에 따른 초인지 전략 활용 정도는 2005 코호트의 경우 2, 3학년에 한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2013 코호트는 3학년의 남녀 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초인지 전략을 더 잘 활용하고 있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모든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유의하였으며, 2005 코호트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활용 정도가 높았고, 2013 코호트에서는 대도시 이상 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초인지 전략의 활용 정도가 더 높았다(부록 표 1-34 참조).



초인지는 ‘공부할 때는 내가 배운 것을 기억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책을 읽을 때 아직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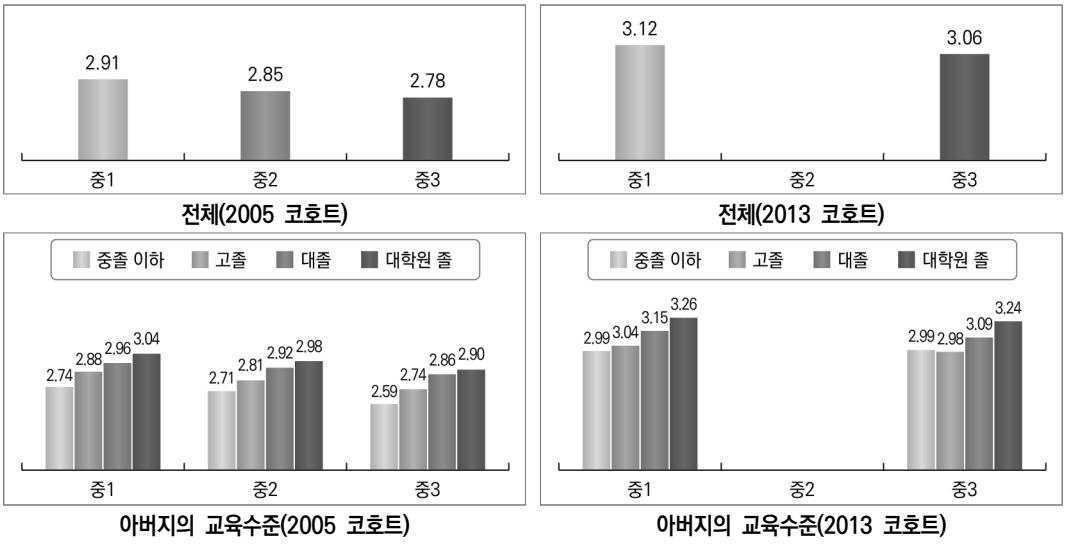
[그림 Ⅱ-34] 초인지(4점 척도)

4) 행동조절전략

행동조절전략은 노력조절, 시간관리, 공간관리, 교사도움, 친구도움, 자원활용 등으로 측정하였다. 이 항목들은 2005 코호트의 자기조절학습 검사지, 2013 코호트의 학습자특성조사지를 통해 조사되었으며,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노력조절, 시간관리, 공간관리, 친구도움 항목의 경우 2005 코호트는 1~3학년, 2013 코호트는 1, 3학년에 조사되었으며, 교사도움, 자원활용 항목의 경우 2005 코호트는 2~3학년, 2013 코호트는 1, 3학년에 조사되었다.

가) 노력조절

노력조절은 "스스로 얼마나 끈기를 가지며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지"(김성식·남궁지영, 2008; 김양분 외, 2016 재인용)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노력조절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노력조절 정도는 코호트 및 학년과 관계없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그 정도 또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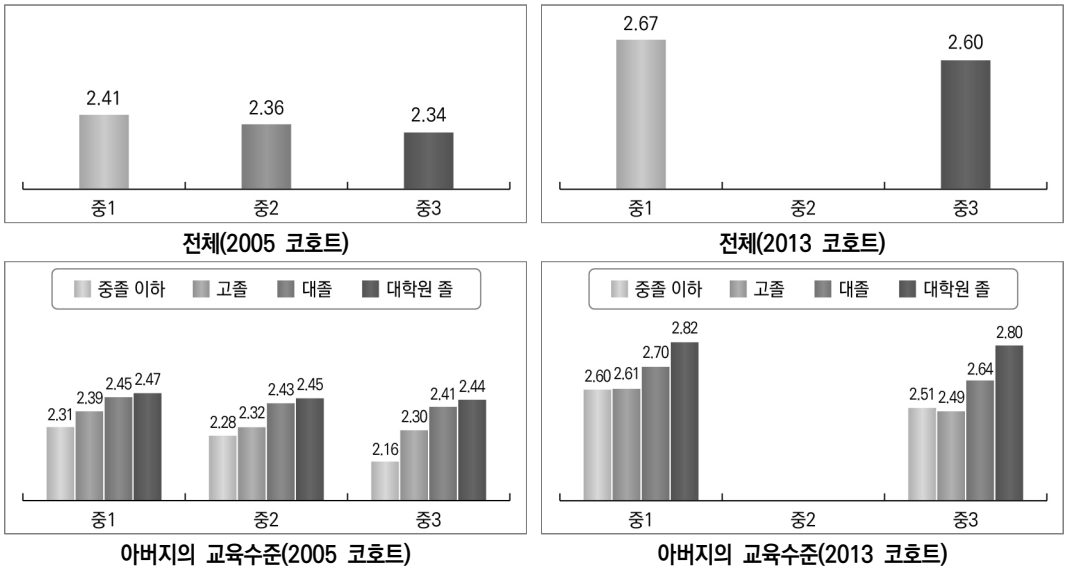
노력조절은 '공부를 가능한 한 열심히 하려고 한다', '내용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한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배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35] 노력조절(4점 척도)

성별에 따른 노력조절의 차이는 2005 코호트의 1학년에서만 유의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노력조절 정도가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노력조절은 두 코호트 모두 1, 3학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2005 코호트의 1학년은 특별시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3학년은 대도시 이상의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노력조절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2013 코호트는 1, 3학년에서 모두 대도시 이상의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35 참조).

나) 시간관리

10년 전과 비교하여 시간관리 전략의 활용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시간관리 정도는 코호트 및 학년과 관계없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그 정도 또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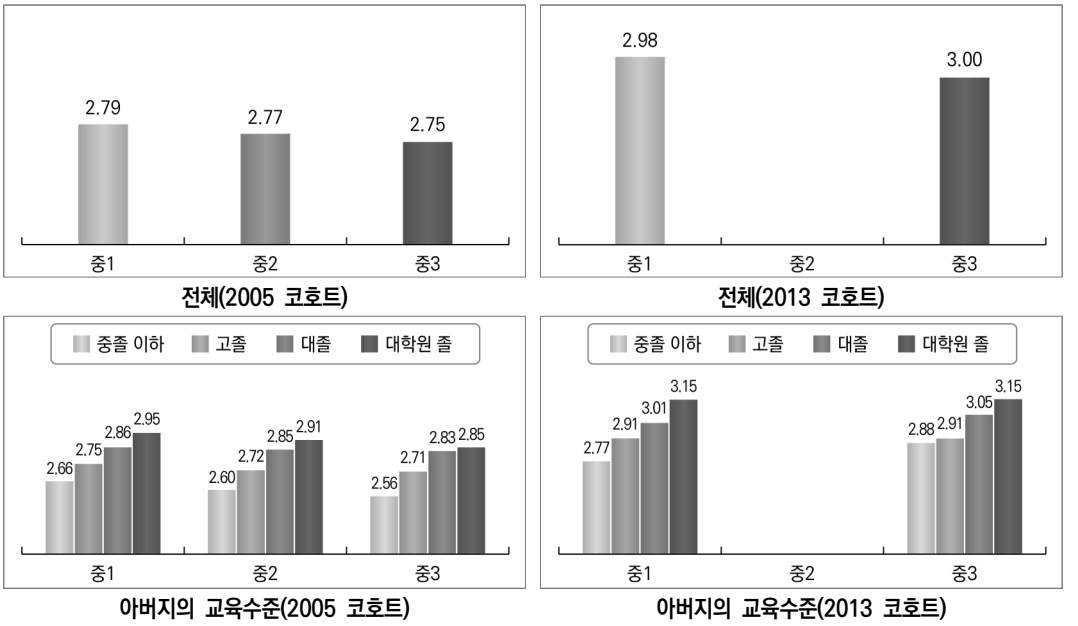
시간관리는 '교과목 공부를 위해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잘 활용한다', '계획한 공부 시간표를 지킨다', '공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활용한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36] 시간관리(4점 척도)

성별에 따른 시간관리 정도의 차이는 2005 코호트의 2, 3학년과 2013 코호트의 1학년에서 유의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시간관리 정도가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시간관리 정도는 두 코호트 모두 1, 3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2005 코호트는 1, 3학년 모두 특별시가 높았고, 2013 코호트는 1, 3학년에서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시간관리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36 참조).

다) 공간관리

10년 전과 비교하여 공간관리 전략의 활용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던 2005 코호트와는 달리 2013 코호트는 미미하게나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공간관리 정도는 코호트 및 학년과 관계없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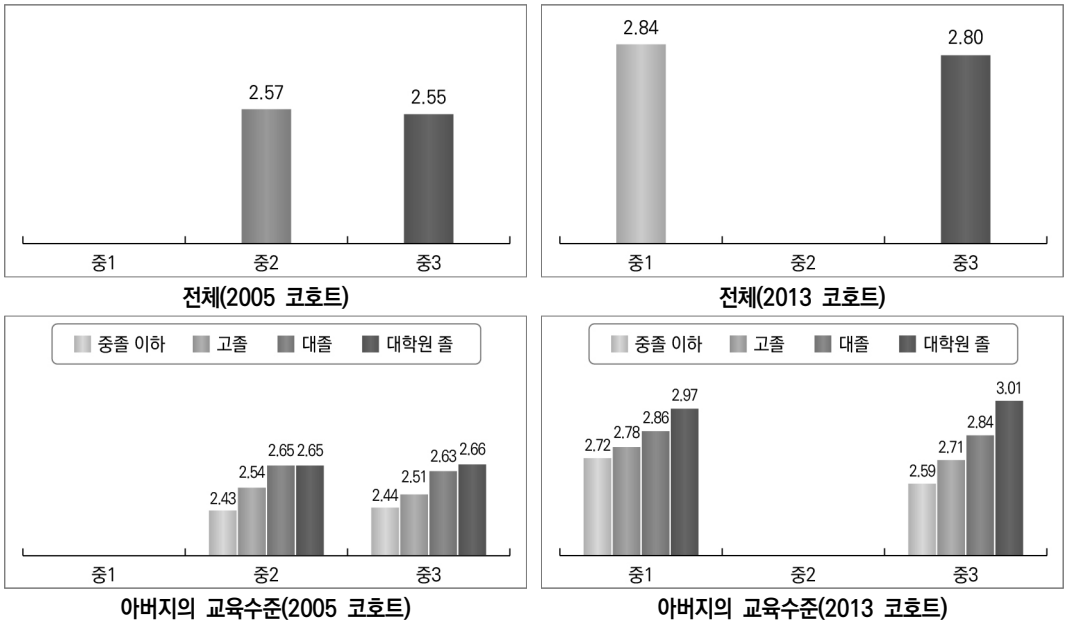
공간관리는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부한다', '일정한 장소에서 공부한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37] 공간관리(4점 척도)

성별에 따라 두 코호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간관리 전략의 활용 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규모도 성별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만, 2005 코호트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공간관리 전략 활용 정도도 높아지는 패턴이 발견되었지만 2013 코호트는 뚜렷한 패턴은 없이 대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37 참조).

라) 도움 및 자원활용(교사의 도움)

교사의 도움 및 자원활용은 “학습활동을 위해 교사의 도움이나 정보를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뜻한다(김성식·남궁지영, 2008; 김양분 외, 2016 재인용). 10년 전과 비교하여 교사의 도움을 이용하는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교사 도움의 이용 정도는 두 코호트에서 조사된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은 일관되었다.



도움 및 자원활용: 교사 도움은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선생님께 질문한다’, ‘선생님께 공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도움을 구한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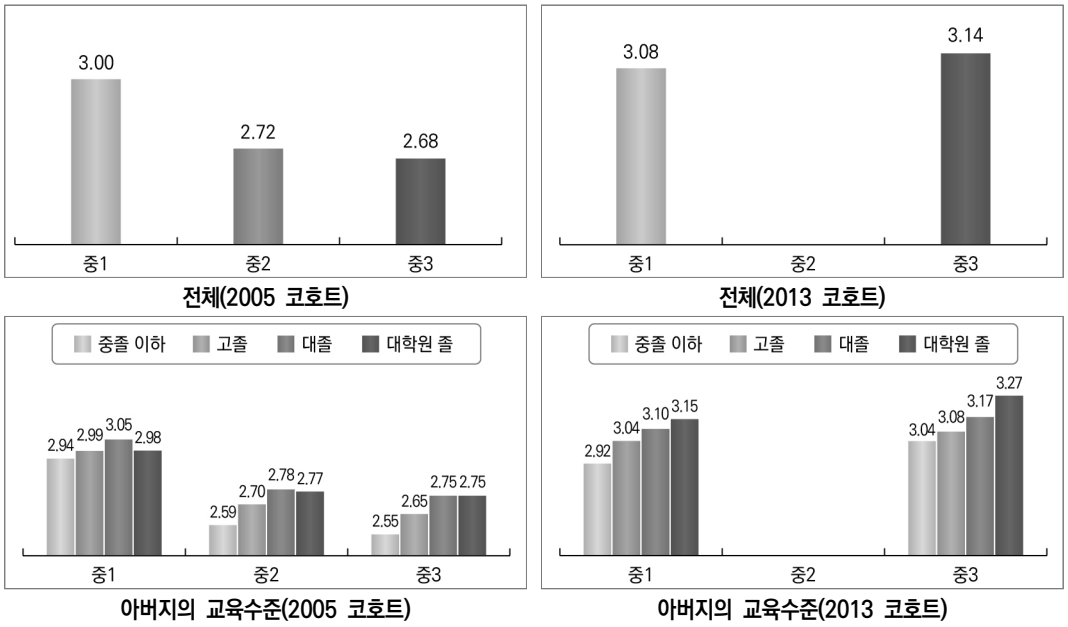
[그림 Ⅱ-38] 도움 및 자원활용: 교사 도움(4점 척도)

2005 코호트의 경우 남녀 간 교사 도움의 이용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2013 코호트에서는 1학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교사의 도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교사의 도움 활용 정도는 두 코호트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2005 코호트는 3학년에 한하여 규모가 클수록 교사의 도움 정도도 더 컸으나, 2013 코호트는 1, 3학년 모두 대도시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교사의 도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부록 표 1-38 참조).

마) 도움 및 자원활용(친구 도움)

친구의 도움 및 자원활용은 “학습활동을 위해 친구의 도움이나 정보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뜻한다(김성식·남궁지영, 2008; 김양분 외, 2016 재인용). 10년 전과 비교하여 친구의 도움을 이용하는 정도가 증가하였을 뿐더러 2005 코호트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3 코호트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값도 증가하는 모습을 띄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친구 도움의 이용 정도는 두 코호트의 모든 조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005 코호트는 모든 학년에서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인 학생들이, 2013 코호트는 모든 학년에서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졸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친구의 도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친구의 도움 이용 정도 또한 두 코호트의 모든 조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친구의 도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10년 전과 동일한 경향이었으며, 특히 2013 코호트 3학년의 경우, 여학생의 값이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른 친구의 도움 이용 정도는 두 코호트 모두 1, 3학년에서 대도시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친구의 도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부록 표 1-39 참조).



도움 및 자원활용: 친구 도움은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다른 학생(친구들)에게 질문한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으려고 한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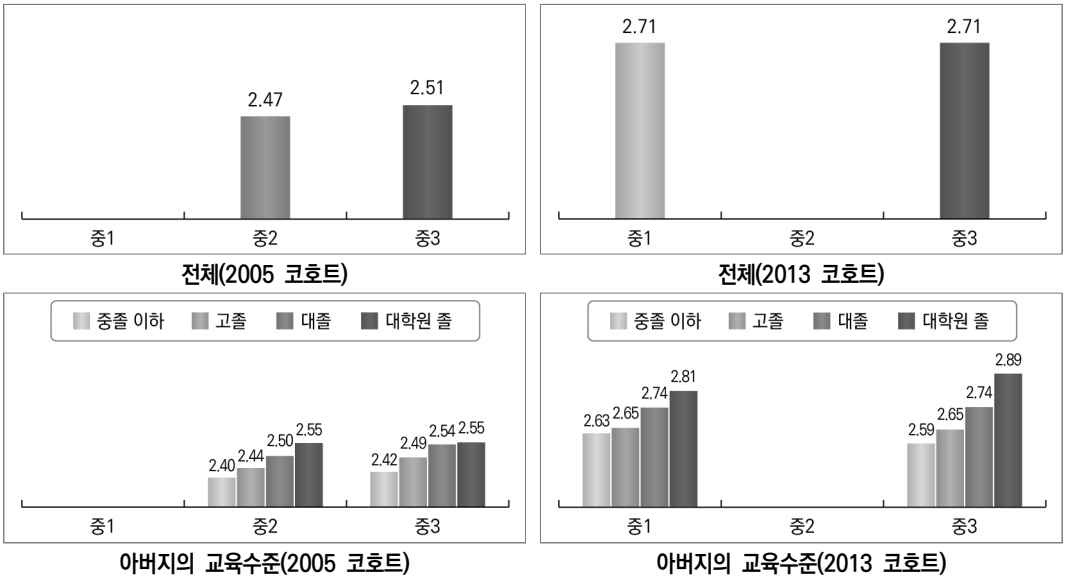
[그림 Ⅱ-39] 도움 및 자원활용: 친구 도움(4점 척도)

바) 자원활용

자원활용은 "학습활동을 위해 주변 정보를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뜻한다(김성식·남궁지영, 2008; 김양분 외, 2016 재인용). 10년 전과 비교하여 자원활용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2005 코호트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였던 반면, 2013 코호트는 학년이 올라가도 그 정도가 변함이 없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원활용 정도 두 코호트의 모든 조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 수준이 높은 아버지의 자녀일수록 자원활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성별에 따른 자원활용 정도는 두 코호트의 결과가 조금 달랐다. 2005 코호트의 경우, 2, 3학년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활용정도가 높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반면, 2013 코호트의 경우 1학년에서만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자원활용 정도 또한 두 코호트의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2005 코호트는 3학년 시기에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읍면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한편, 2013 코호트는 1, 3학년에서 전부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더 많이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40 참조).



도움 및 자원활용: 자원활용은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도서관 등에서 다른 책들을 찾아 본다', '숙제나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한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40] 도움 및 자원활용: 자원활용(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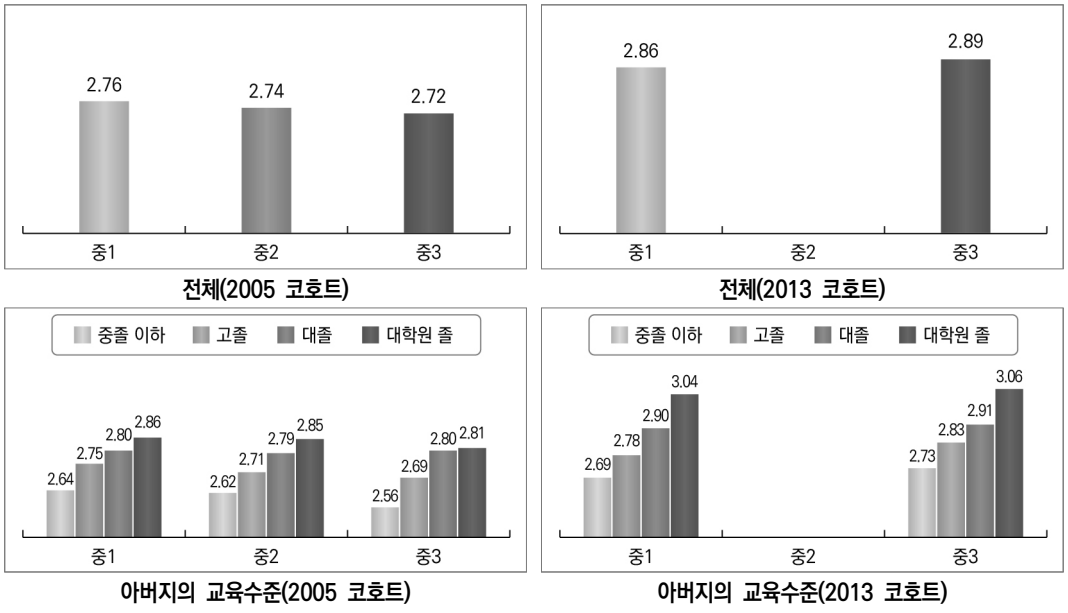
5)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기관련신념 영역에 포함된 하위 영역 중 하나로 "교과 내용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신념"을 의미한다(김성식·남궁지영, 2008; 김양분 외, 2016 재인용). 국어·영어·수학 교과별 자기효능감을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005 코호트는 자기조절학습 검사지를 통해 1~3학년 세 차례, 2013 코호트는 학습자 특성 검사지를 통해 1, 3학년에 한해 조사되었다.

가) 국어

국어 교과의 자기효능감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조금 높아졌을 뿐더러, 학년이 올라가면서 값이 점차 낮아졌던 2005 코호트와는 달리 2013 코호트에서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그 값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어 교과의 자기효능감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력이 높은 아버지를 둔 자녀일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았으며 이는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패턴이었다.

성별에 따른 국어 교과의 자기효능감 차이는 2005 코호트의 1, 3학년과, 2013 코호트의 3학년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차이는 여학생의 효능감이 남학생보다 크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국어 교과의 자기효능감 또한 두 코호트의 모든 조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2005 코호트에서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자기효능감 또한 컸고 2013 코호트의 3학년 시기에도 이와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었으나, 1학년의 경우 대도시 이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정도였다(부록 표 1-4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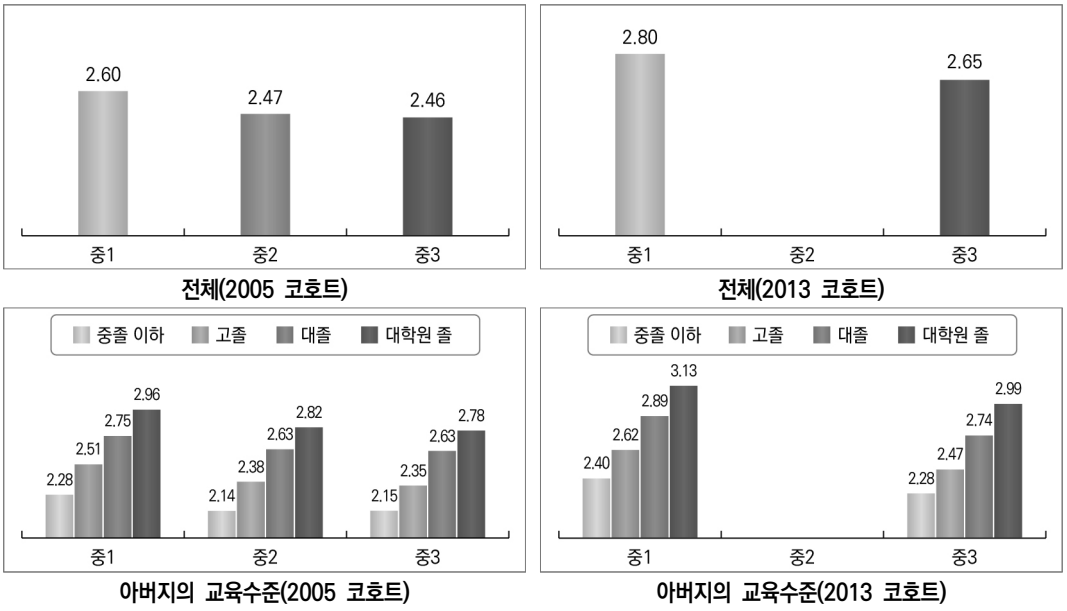
국어 교과의 자기효능감은 '선생님이 제시한 복잡한 국어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국어 과제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국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자신이 있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41] 자기효능감: 국어(4점 척도)

나) 영어

영어 교과의 자기효능감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조금 높아졌으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값이 점차 낮아지는 패턴이 두 코호트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영어 교과의 자기효능감은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그 차이가 있었으며, 학력이 높은 아버지의 자녀일수록 영어 교과의 자기효능감 또한 높았다.

성별에 따른 영어 교과의 자기효능감 차이는 두 코호트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05 코호트에서는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3 코호트는 1, 3학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영어 교과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영어 교과의 자기효능감 또한 앞선 국어 교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05 코호트에서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자기효능감 또한 컸고 2013 코호트의 1학년 시기에도 이와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었으나, 3학년의 경우 대도시 이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정도였다(부록 표 1-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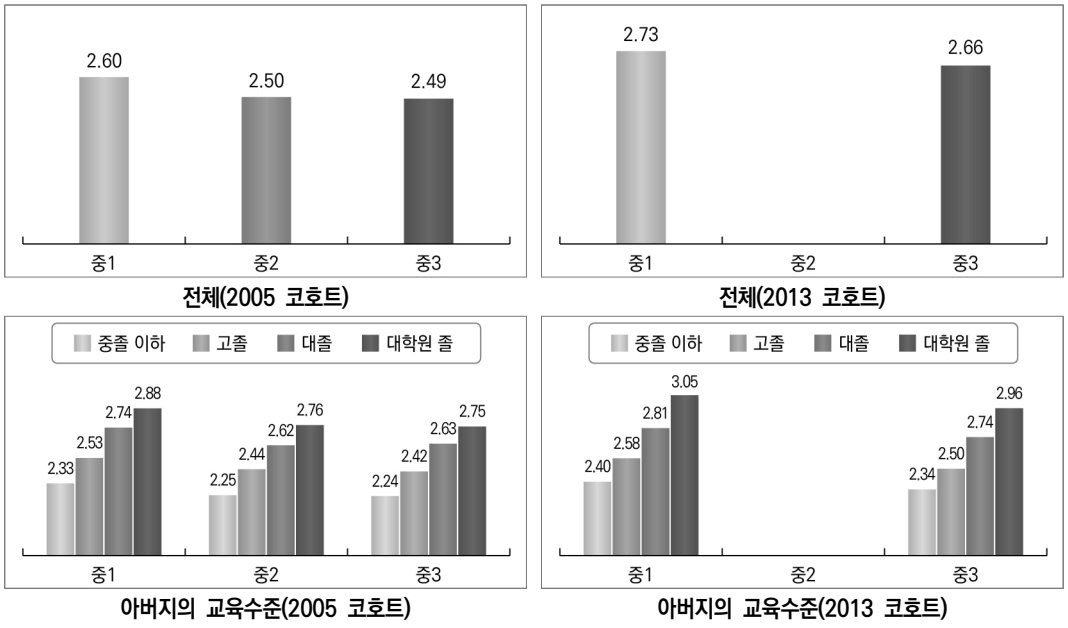
영어 교과의 자기효능감은 '선생님이 제시한 복잡한 영어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영어 과제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영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영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자신이 있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42] 자기효능감: 영어(4점 척도)

다) 수학

수학 교과의 자기효능감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조금 높아졌으나, 두 코호트 모두 학년이 올라가면서 값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수학 교과의 자기효능감은 두 코호트의 모든 조사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력이 높은 아버지를 둔 학생일수록 수학 교과의 자기효능감 또한 높은 특징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 또한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남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수학 교과의 자기효능감 또한 앞선 국어 및 영어 교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05 코호트에서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자기효능감이 컸고, 2013 코호트의 1학년 시기에도 이와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었으나, 3학년의 경우 대도시 이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정도였다(부록 표 1-43 참조).



수학 교과의 자기효능감은 '선생님이 제시한 복잡한 수학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수학 과제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수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수학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자신이 있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43] 자기효능감: 수학(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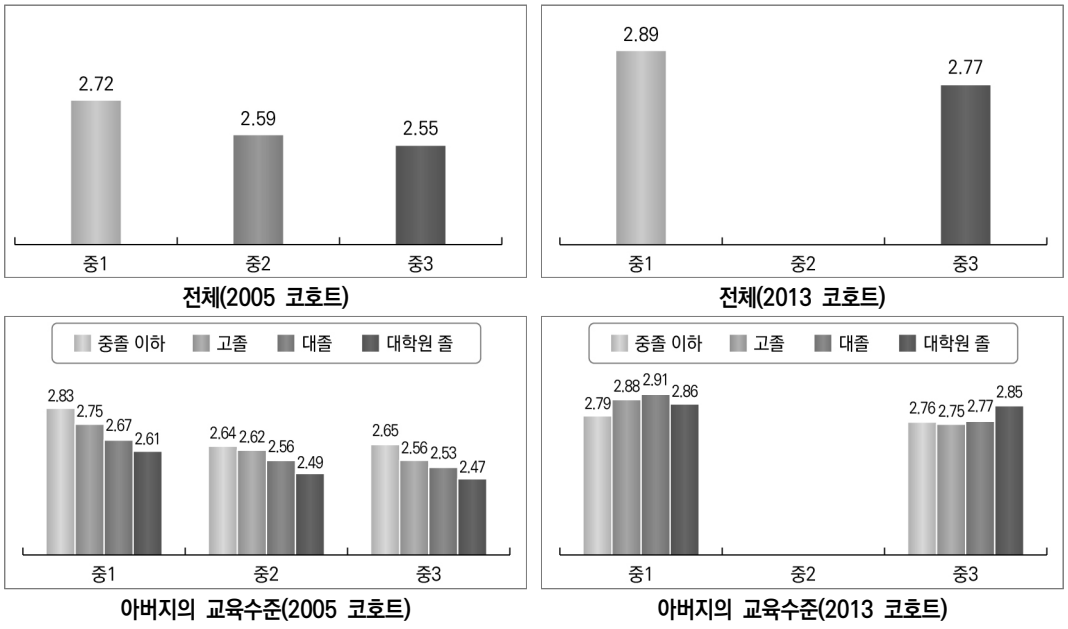
6) 학습양식

학습양식은 협동학습 선호와 경쟁학습 선호로 나누어진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2005 코호트는 자기조절학습 검사지를 통해 1~3학년 전부, 2013 코호트는 학습자 특성 검사지를 통해 1, 3학년에 한해 조사되었다.

가) 협동학습 선호

협동학습 선호는 동료와 함께 협동하여 학습하는 방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협동학습을 덜 선호하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협동학습 선호 정도의 차이는 10년 전의 경우 모든 학년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들이 협동학습을 선호하는 추세가 명확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하지만 2013 코호트는 3학년에서만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고, 2005 코호트에서의 추세와는 달리 대학원을 졸업한 아버지를 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협동학습을 선호하였을 뿐이었다.

성별에 따른 협동학습 선호 정도에는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협동학습을 더 많이 선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선호 정도의 차이는 코호트 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05 코호트는 지역규모별 차이가 없었지만, 2013 코호트는 1, 3학년 모두 대도시 이상의 지역이 나머지 지역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4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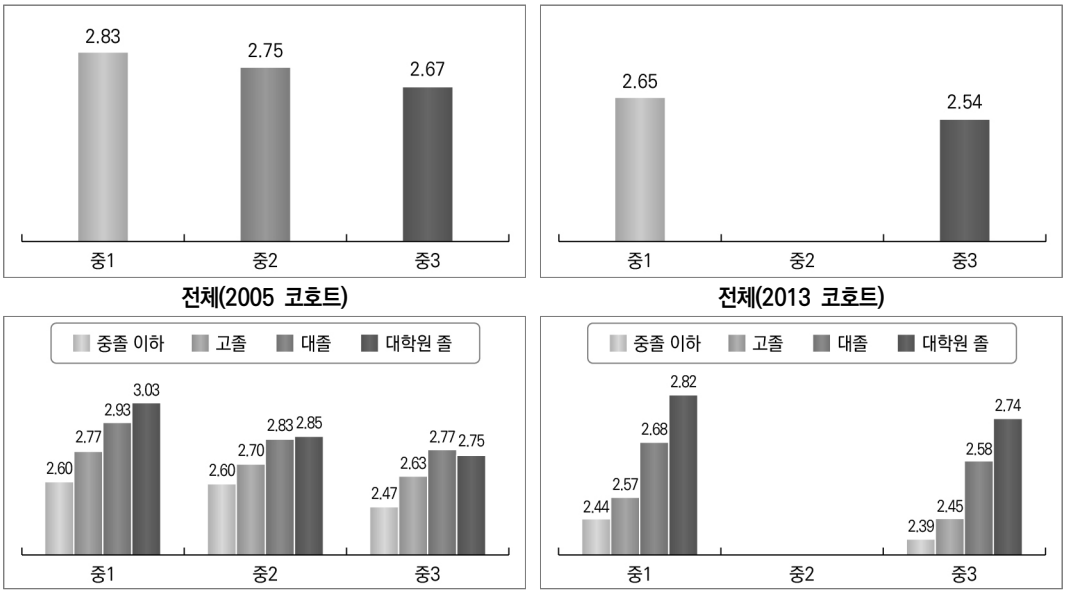
협동학습 선호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때 공부가 더 잘 된다', '친구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44] 협동학습 선호(4점 척도)

나) 경쟁학습 선호

경쟁학습 선호는 경쟁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감소하였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경쟁학습을 덜 선호하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경쟁학습 선호 정도의 차이는 두 코호트의 모든 조사에서 유의하였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는 경쟁학습을 더 많이 선호하는 추세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성별에 따른 경쟁학습 선호 정도 또한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쟁학습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선호 정도의 차이는 코호트 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05 코호트는 1, 3학년에 지역규모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1학년 때에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3학년 때에는 대도시 지역의 경쟁학습 선호 정도가 높았다. 2013 코호트는 1학년 학생들의 경쟁학습 선호 정도가 지역규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지역규모가 클수록 경쟁학습을 선호하였다(부록 표 1-45 참조).



경쟁학습 선호는 '다른 학생들보다 앞서려고 노력한다', '다른 학생들보다 더 잘하려고 할 때 공부가 더 잘 된다', '다른 학생들보다 더 잘하려고 애쓸 때 배우는 속도가 빨라진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45] 경쟁학습 선호(4점 척도)

라. 정의적 특성과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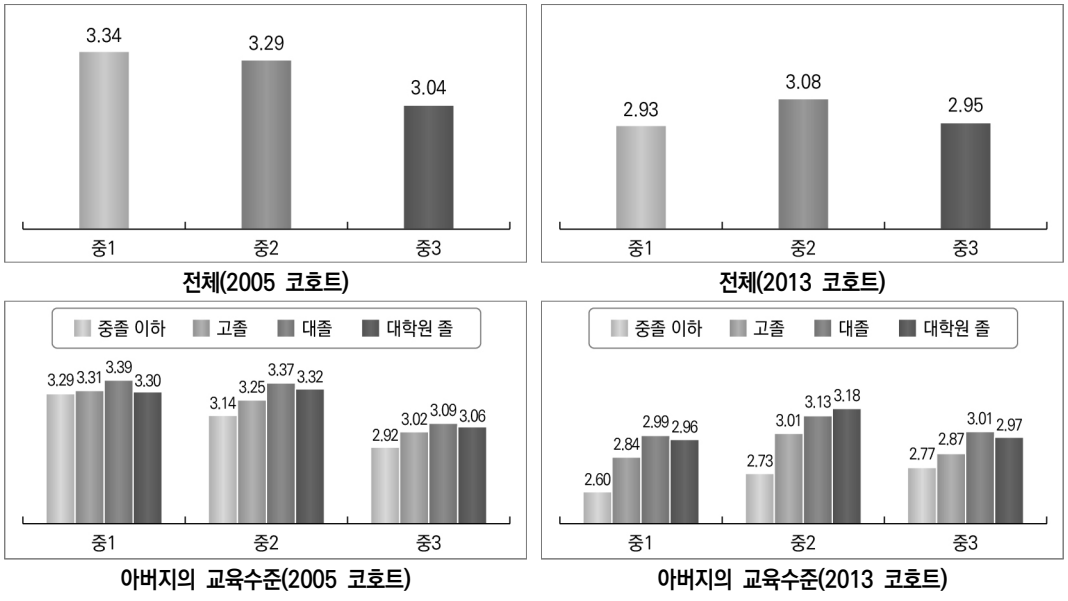
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진로 영역에는 시험 스트레스, 자아개념(가족, 사회, 신체, 학업), 진로(학생의 교육포부, 학부모의 교육 기대, 고등학교 진학계획)가 포함된다.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의 비교를 통해 지난 10년간 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진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1) 시험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는 학생 설문지를 통해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모두 1~3학년 세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다. 시험 스트레스는 10년 전보다 조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 코호트의 시험 스트레스 정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2013 코호트의 경우 2학년 시기에 다소 상승했던 시험 스트레스 정도가 3학년으로 진급하며 다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생

들의 시험 스트레스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2005 및 2013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다만, 2005 코호트는 대졸 학력의 아버지를 둔 학생들의 시험 스트레스가 다른 학생들보다 높았던 반면, 2013 코호트는 대졸 이상 학력의 아버지를 둔 학생들의 시험 스트레스가 고졸 이하의 학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시험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두 코호트 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05 코호트에서는 3학년 시기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나 2013 코호트의 경우 모든 학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정도가 매우 극명하고 유의한 차이였다. 2005 코호트는 지역규모에 따른 시험 스트레스 정도가 1~3학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특별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고 1, 2학년은 대도시, 3학년은 읍면지역의 시험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았다. 2013 코호트에서는 1, 3학년에서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1학년은 특별시, 3학년은 읍면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시험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부록 표 1-46 참조).



시험 스트레스는 '시험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시험 기간에는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공부를 많이 해도 시험을 볼 때면 초조하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46] 시험 스트레스(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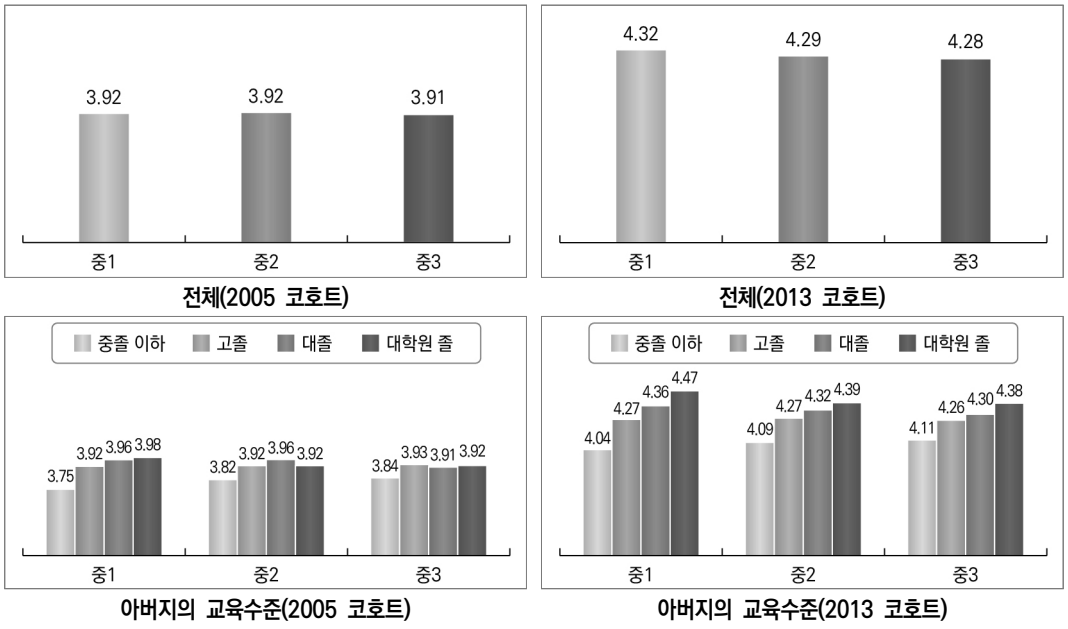
2)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타인의 평가와 판단에 근거하여 내리는 자신에 대한 지각과 평가”(Shaffer, 2000)이다. 이러한 자아개념을 가족, 사회, 신체, 학업 등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자아개념을 조사하였다.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모두 학생 설문지를 통해 1~3학년 세 차례 조사되었다.

가) 가족

가족 자아개념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더 높아졌으나, 2005 코호트에서는 학년이 높아져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과는 달리 2013 코호트에서는 학년에 높아짐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 자아개념은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만, 2005 코호트에서와는 달리 2013 코호트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인식하는 가족 자아개념이 높아지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성별에 따른 가족 자아개념은 두 코호트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것은 공통된 사항이었으나, 2005 코호트는 1~3학년 모두 여학생의 가족 자아개념이 남학생보다 높았던 반면, 2013 코호트는 1~3학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가족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가족 자아개념 또한 두 코호트 간의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05 코호트는 1학년 시기에 한해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지역규모가 클수록 자아개념의 평균값 또한 높았다. 2013 코호트는 1~3학년 모두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도시가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가장 낮은 특징이 있었다(부록 표 1-4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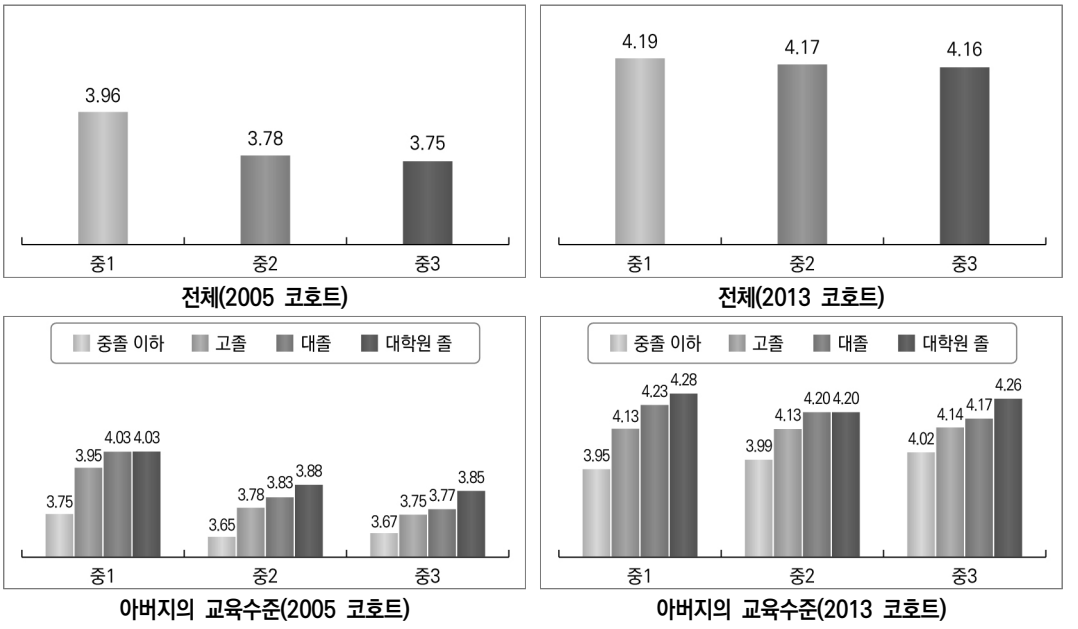
가족 자아개념은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가족들은 나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 '우리 가족은 나를 이해한다'의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47] 가족 자아개념(5점 척도)

나) 사회

사회 자아개념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높아졌으나, 두 코호트 모두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 자아개념은 코호트 및 학년과 관계없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 자아개념 또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성별에 따른 사회 자아개념은 2005 코호트의 1학년 시기에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해당 시기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 자아개념이 높았으며, 2013 코호트의 경우에는 모든 학년에서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사회 자아개념은 2005 코호트의 1학년 시기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만, 2005 코호트의 경우 2, 3학년의 사회 자아개념이 읍면지역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2013 코호트는 1~3학년 내내 읍면지역이 가장 낮고 대도시 이상의 규모를 가진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부록 표 1-4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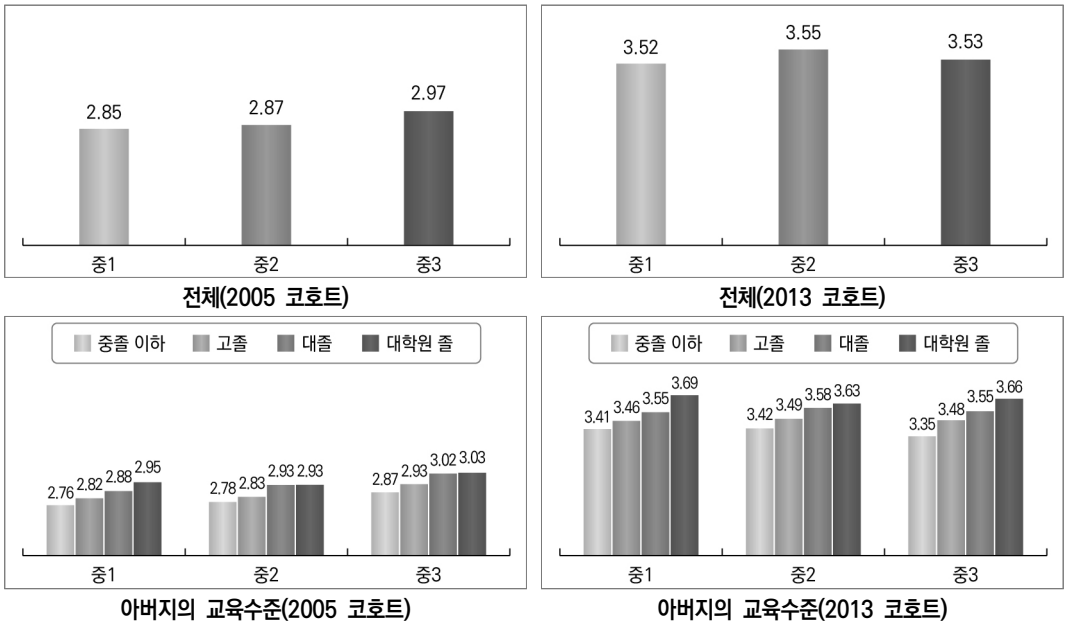
사회 자아개념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친구들은 나와 놀기를 좋아한다', '단체생활을 잘한다',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이 즐겁다', '내 친구들은 나를 믿는다'의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48] 사회 자아개념(5점 척도)

다) 신체

신체 자아개념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높아졌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했던 2005 코호트와는 달리 2013 코호트는 학년과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신체 자아개념은 코호트 및 학년과 관계없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 자아개념 또한 높았다.

성별에 따른 신체 자아개념 또한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는데, 남녀 간 차이 정도가 학년에 올라가면서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신체 자아개념은 두 코호트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학년이 서로 달랐다. 2005 코호트의 경우, 1학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 2013 코호트는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대도시 이상의 지역이 그 이외의 지역보다 높았던 점은 두 코호트 모두 동일하였다(부록 표 1-4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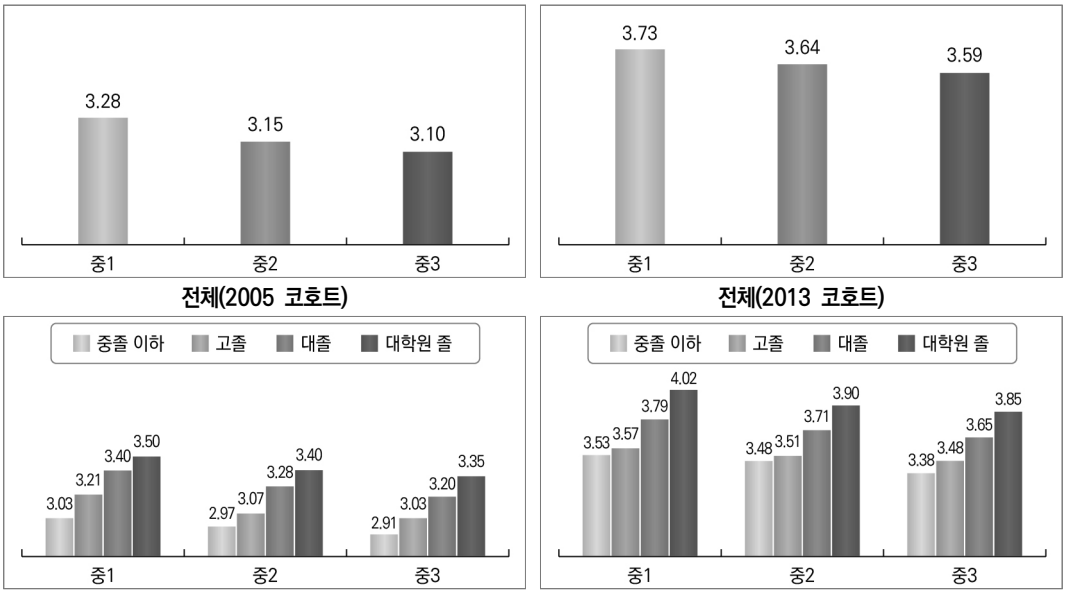
신체 자아개념은 '나는 얼굴 생김새에 만족한다', '나의 몸매에 만족한다',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다', '나의 얼굴은 좋은 느낌을 주는 편이다', '나의 용모는 매력적인 편이다'의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49] 신체 자아개념(5점 척도)

라) 학업

학업 자아개념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높아졌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추세가 두 코호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업 자아개념은 코호트 및 학년과 관계없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학업 자아개념 또한 높았다.

성별에 따른 학업 자아개념의 차이는 두 코호트 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05 코호트는 2학년에 한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던 반면, 2013 코호트는 모든 학년에서 남학생의 학업 자아개념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른 학업 자아개념은 2005 및 2013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전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만, 2005 코호트는 1, 3학년 시기에는 특별시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2학년 시기에는 읍면지역이 높았던 반면 2013 코호트는 대도시 이상의 지역의 값이 꾸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50 참조).



학업 자아개념은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학교공부를 열심히 한다', '수업시간에 발표하거나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한다'의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그림 Ⅱ-50] 학업 자아개념(5점 척도)

3)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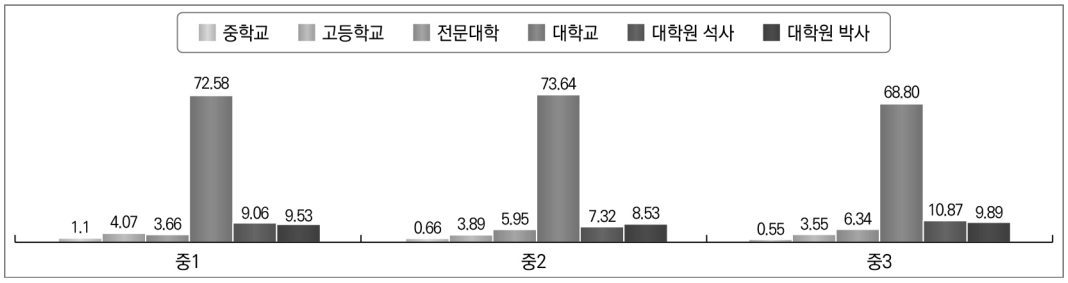
진로는 학생의 교육 포부, 학부모의 교육 기대,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계획으로 알아보았다. 각 항목은 두 코호트 모두 1~3학년 시기에 조사되었는데, 학생의 교육 포부와 고교 진학 계획은 학생 설문지를, 학부모의 교육 기대는 학부모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가) 학생의 교육 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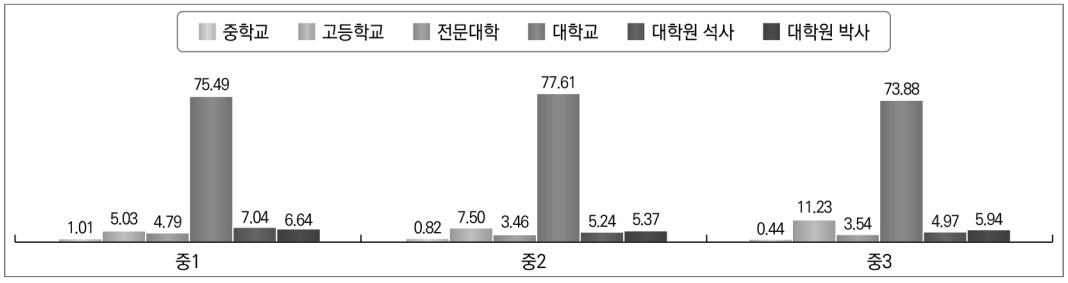
학생의 교육포부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까지 진학하길 원하는 학생이 모든 학년에서 가장 많았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이 2013 코호트에서 많이 늘어났으며, 대학원 석사 및 박사까지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은 오히려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생의 교육 포부는 코호트 및 학년과 상관없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만, 10년 전과 비교하여 중졸 이하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길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대졸의 경우 대학원 석사 및 박사에 진학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졸에서 대학원 석사 및 박사에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의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성별에 따른 교육 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발견되었다. 2013 코호트에서 3학년 시기에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기 원한다고 응답한 2013 코호트의 남학생의 비율이 2005 코호트보다 훨씬 많았으며 여학생 중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과 대학원 석사까지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의 비율 또한 2005 코호트보다 늘었고, 전문대학까지 진학하기 원하는 여학생의 비율은 줄었다. 한편, 2013 코호트의 3학년을 제외하고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지역규모별 학생의 교육 포부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부록 표 1-51 참조).



전체(2005 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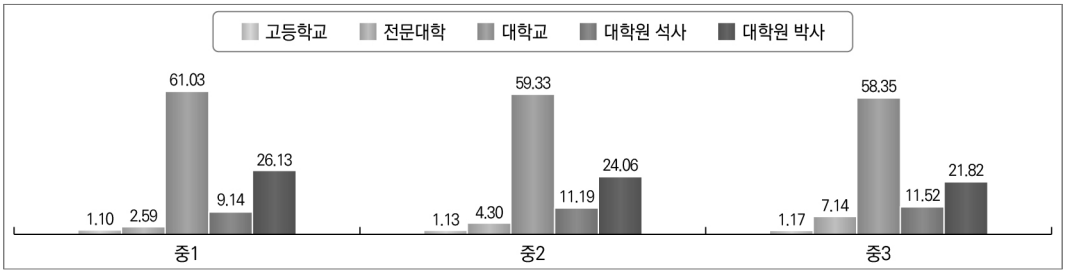
전체(2013 코호트)

[그림 Ⅱ-51] 학생의 교육 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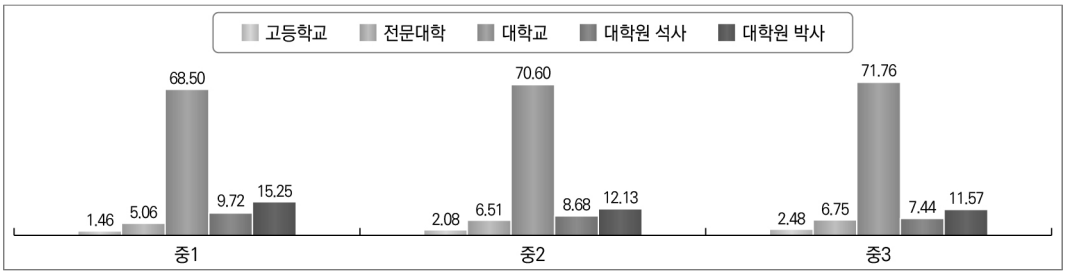
나) 학부모의 교육 기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자녀가 4년제 대학교까지 진학하길 원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3 코호트에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까지 진학하길 원하는 학부모의 비중도 높아졌지만, 대학원 석사 및 박사까지 진학하길 원하는 학부모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학부모의 교육 기대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다만, 10년 전과 비교하여 자녀가 대학원 석사 이상까지 진학하길 원하는 대학원졸 부모의 비율은 줄었고 자녀가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까지 진학하기를 기대하는 고졸 이하의 부모 비율은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 기대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0년 전까지는 남학생의 부모 중 자녀가 대학원 석사 이상까지 진학하길 원하는 비율이 여학생의 부모보다 많았는데 2013 코호트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10년 전과 비교하여 여학생을 둔 부모 중 자녀가 전문대학까지 진학하기를 원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 기대 또한 두 코호트의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부록 표 1-52 참조).



전체(2005 코호트)



전체(2013 코호트)

[그림 Ⅱ-52] 학부모의 교육 기대(%)

다) 고등학교 진학 계획[9)]

2005 코호트에서 학생들은 학년과 상관없이 가장 큰 비율로 일반계고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지면서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늘어나고, 특수목적고와 예체능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 계획은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졸 및 중졸 이하 아버지를 둔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계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줄어들었으며, 대졸 및 대학원졸 아버지를 둔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며 일반계고 진학을 더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특성화고에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낮았지만, 특수목적고는 그 반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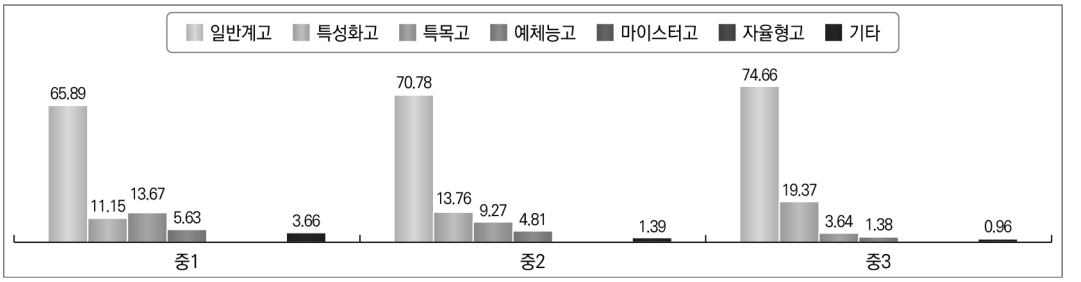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 계획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1, 2학년 시기에는 일반계고에 진학하길 원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지만 3학년에는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또한, 2학년 이후 특성화고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특수목적고는 1~3학년 모두 남학생이, 예체능고는 1~3학년 모두 여학생이 더 높은 비율로 진학을 희망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 계획 또한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13 코호트의 학생들도 학년과 상관없이 가장 큰 비율로 일반계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특수목적고와 예체능고, 자율형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 계획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특성화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비율이 낮았으며, 중졸 이하 및 고졸 학력의 아버지를 둔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비율이 3학년 시기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특수목적고와 자율형고 모두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 또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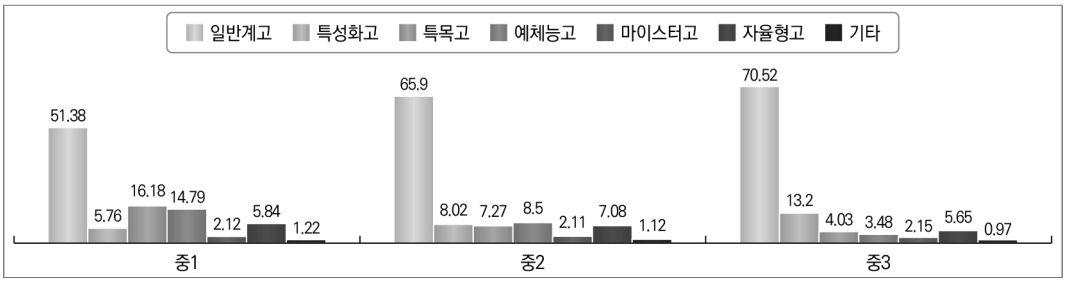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 계획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계고, 예체능고에 진학하

9) 2005 코호트에 비해 2013 코호트의 고교 유형은 더욱 다양하며 이는 마이스터고와 자율형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의 등장이 큰 몫을 하였다. 2005 코호트 당시에도 자율형 사립고는 있었으나, 지금의 자율형 사립고와는 그 특성에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고 특수목적고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동일 범주로 분류되곤 하였는데 이에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또한 특수목적고(외국어고/과학고/영재고/자율형 사립고)의 범주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항목에 대한 2005 및 2013 코호트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하여 두 코호트의 특징을 각각 나열, 서술하였다.

기 원하는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자율형고에 진학하기 원하는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 계획 또한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일반계고에 진학하길 원하는 학생의 비율은 읍면지역이 가장 높았던 반면, 특성화고와 자율형고에 진학하길 원하는 학생의 비율은 특별시에서 가장 높았다(부록 표 1-53 참조).



전체(2005 코호트)



전체(2013 코호트)

[그림 Ⅱ-53] 고등학교 진학 계획(%)

5 요약

Ⅱ장에서는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의 10년간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학교생활과 경험, 인지적 성취와 학습, 정의적 특성과 진로 등 네 영역으로 나누어 2005 및 2013 코호트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학생 개인 배경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영역에서는 부모의 학업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사교육의 참여 시간과 비용, 월평균 교육비, 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해 두 코호트를 비교하였다. 부모의 학업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은 2005 코호트보다 2013 코호트에서 더 높았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정도도 높았다. 사교육 참여 시간은 국어·영어·수학 교과 모두 2013 코호트의 참여 시간이 2005 코호트보다 더 짧았지만 영어 및 수학 교과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더 낮은 학년부터 꾸준히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참여 비용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국어·영어·수학 교과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 시간과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비해 낮은 학년부터 꾸준히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평균 교육비도 사교육 비용과 마찬가지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높았는데,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비용 및 월평균 교육비가 높은 경향이 10년 전보다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용 조사에 있어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해석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 모두 10년 전과 비교하여 높아졌지만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10년 전과 달리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생활과 경험 영역에서는 수업 이해도와 수업 분위기 등의 수업활동, 교사의 성취압력, 열정 및 지식 등의 교사 풍토, 학교 폭력, 동아리 활동 그리고 독서 활동에 대해 두 코호트를 비교하였다. 수업 이해도는 국어·영어·수학 교과 모두 10년 전에 비해 높아졌으며, 수업 분위기 또한 학생들이 더욱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교사의 성취압력은 2학년 시기에 주춤했다가 3학년 때 다시 증가하는 브이형 모양이었던 10년 전과는 달리 2013 코호트에서는 오히려 2학년 시기에 다소 증가했다가 3학년 때 다시 감소하는 역브이 형태

였다. 학생이 느끼는 교사의 열정 및 지식은 10년 전과는 달리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내 폭력 정도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조금 줄어들었으나 학년에 따라 증가하는 패턴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또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내 폭력 정도에 대해 더 높게 응답하였으나, 2013 코호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은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확대되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비율로 참여했던 과거와는 달리 2013 코호트에서는 그러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월간 독서량과 독서 향유 정도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인지적 성취와 학습 영역에서는 외적 조절동기, 부가된 조절동기, 확인된 조절동기, 내재적 조절동기, 무동기 등의 동기와 숙달접근, 수행접근 등의 학습목표지향성, 시연, 정교화, 조직화, 초인지 등의 인지조절전략, 노력조절, 시간관리, 공간관리, 도움 및 자원활용(교사도움, 친구도움, 자원활용) 등의 행동조절전략, 국어·영어·수학 교과의 자기효능감, 협동 및 경쟁학습 선호 정도의 학습양식에 대해 두 코호트를 비교하였다. 낮을수록 더 좋은 외적 조절동기와 부과된 조절동기, 그리고 무동기는 10년 전에 비해 그 정도가 낮아졌고, 확인된 조절동기와 내재적 조절동기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10년 전과 비슷하거나 희미해졌으며 10년 전과 비교하여 더욱 뚜렷해지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학습목표지향성 중 하나인 숙달접근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높아졌으나, 수행접근은 더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와 더불어 학생들은 인지조절전략인 시연, 정교화, 조직화, 초인지를 10년 전보다 더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10년 전에 비해 행동조절 전략 또한 잘 활용하고 있었다. 노력조절은 물론이고 시간 및 공간관리 정도가 증가하고, 교사나 친구들의 도움을 더 잘 받고 있었으며, 학습활동을 위해 주변 정보를 잘 활용하는 자원활용 정도 또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과 자기효능감도 국어·영어·수학 모두 10년 전보다 높아졌다. 학생들은 10년 전에 비해 협동학습을 더 선호하고, 경쟁학습은 덜 선호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협동학습 선호 정도는 10년 전과 큰 차이가 있었는데, 2005 코호트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이 협동학습을 선호하는 추세가 명확했었던 것이 2013 코호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의적 특성과 진로 영역에서는 시험 스트레스, 가족, 사회, 신체, 학업으로 나누어 살펴

본 자아개념, 학생의 교육포부와 학부모의 교육 기대,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계획에 대해 두 코호트를 비교하였다. 시험 스트레스는 10년 전보다 조금 낮아지고, 자아개념은 가족, 사회, 신체, 학업 모두 10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학생의 교육포부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까지 진학하길 원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지만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은 많이 늘어났으며, 대학원 석사 및 박사까지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의 교육 기대도 학생의 교육포부와 마찬가지로 10년 전과 동일하게 4년제 대학까지 진학하길 원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까지 진학하길 원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대학원 석사 및 박사까지 진학하길 원하는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진학 계획은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 10년 전과 비교하여 새롭게 생겨난 학교의 유형들이 있어 두 코호트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다만,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일반계고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특성화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Ⅲ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

1. 연구문제
2. 선행연구 분석
3.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요약 및 논의

Ⅲ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

1 연구문제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우수한 인적 자원 양성을 통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사회계층 이동의 주요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가 양극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있다(교육부, 2017.3.8.: 1). 이러한 경향은 교육의 결과로서의 학업성취도가 상급학교 진학, 그리고 진학 대학 서열 등에 영향을 주고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는데(박경호 외, 2017), 경제사회의 양극화로 교육비 투자의 격차가 벌어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경제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학업성취도 격차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는 학습결손이 누적되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공부에 흥미를 잃거나 수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교육부, 2017.3.8.: 9-10). 이러한 결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격차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위정, 2012; 성기선, 2010; 남궁지영·김위정·김양분, 2012; 박경호 외, 2017). OECD PISA 자료를 분석한 김위정(2012)은 2000년에 비해 2009년 한국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더 커져,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1988년 서울시와 2007년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중학교 3학년 자료를 분석한 성기선(2010)은 지난 20년간 중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가정배경의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져 점차 한국사회가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2000년 초반 이후 10여 년 동안 초·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분석한 남궁지영·김위정·김양분(2012)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가정배경에 따른 수학성취도의 차이가 확대되는 경향을 발견하였으며, 박경호 외(2017)는 소득계층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가 최근에 좀 더 심화되었고,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 소득계층 간 학력격차의 심화가 좀 더 뚜렷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학생의 노력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횡단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비교연구이거나 코호트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성장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은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의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 성장에 대해 최근 자료를 포함하여 학력격차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네 차례에 걸친 정부의 변화(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10]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교육정책의 변화 중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가장 관련이 있는 교육정책으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과 고교 입시 정책, 그리고 자유학기제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이명박 정부에서의 기초학력 보장정책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활용하여 교육성과를 점검하고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의의를 넘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에서 전수평가로 전환 실시하여 기초미달 학생을 1%대로 축소시키려는 정책이었다. 이를 위해서 기초미달 비율과 학력 향상도를 공시하도록 하고, 학력 향상 중점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12년부터는 학습종합클리닉센타를 운영하여 ADHD, 난독증 등 정서행동상의 원인으로 학습이 부진한 학생에 대해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7.18.).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6학년을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만을 평가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에서 다시 표집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였다[11].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대변되는 고교 다양화 정책은 일반고와

10) 노무현 정부(2005~2007년),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문재인 정부(2017년~현재)

1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현황 : '86년 : 표집평가로 최초 시행(초: 4, 5, 6, 중: 1, 2, 고: 1, 2), '98~'07년 : 표집평가 '99년부터 초·중·고 1개 학년으로 축소, '08~'12년 : 전수평가(초6, 중3, 고1, '12년 고1→고2, '13~'15년 : 전수평가(중3, 고2: 국 수 영, '13년 초등학교 평가 폐지), '17년 : 표집평가 실시(교육부, 2017.3.8.: 10의 내용 일부 보완)

특성화고 위주의 고교 유형을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특성화고와 자율고의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만들어 교육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교육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불어넣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강영혜·박소영·김용, 2011: 1). 그러나 고교 다양화 정책은 공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교육의 수월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또 다른 목표인 '교육의 평등성 실현'과 '사교육 경감' 영역에서는 그 성과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황준성 외, 2013: vii).

고교 입시에서는 2011학년도부터 경시대회와 지필고사 위주의 종전 방식에서 내신 성적과 면접을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바뀌고(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대구광역시교육청, 2011: 6) 추첨에 의해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2019학년도부터는 당초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 및 학교교육 다양성의 확대라는 취지와는 달리 우수 학생의 우선 선점에 따른 고교 서열화와 고입 단계의 사교육 가열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후기전형으로 동일한 시기에 선발하게 된다(고입정보포털, 2018.08.23.).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자유학기제 정책은 초·중등교육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중학교 한 학기동안 토론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활동 등 여러 체험활동을 제공하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같은 일제식 지필평가 대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교육부, 2015.11.25.).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장되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학교의 주요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교육정책을 종합하면, 현재의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기초학력보장 정책과 고교 다양화 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후 자유학기제 정책의 영향을 모두 받았으며, 10년 전 중학생들은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와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의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코호트 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성장률에 미치

는 영향력은 코호트 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외에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생 및 학교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완화하고 학업성취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주된 관심 중 하나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학성취도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성기선, 2006), 아버지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영어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차성현·신혜숙·민병철, 2011). 그리고 가구소득의 경우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매개되어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최돈민 외, 2013).

이외에 학생배경 요인 가운데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는 성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김성식 외, 2007; 김세리·남창우·장선영, 2012; 김현진, 2013; 도승이·김성식, 2014; 박도영·박정·김성숙, 2001).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국어 및 수학성취도에 차이가 있었으며(김현진, 2013) 과학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였다(박도영·박정·김성식, 2001). 그리고 성별은 국어·영어·수학 표준점수의 평균점수로 측정한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김세리·남창우·장선영, 2012). 또한, 국어와 영어 학업성취도의 성장률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크다는 연구도 있다(김성식 외, 2007; 도승이·김성식, 2014).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부모의 기대,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감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모의 기대는 객관적 학업성적은 물론 주관적 성취지각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박영신 외, 2011)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학교급 변화에 따른 국어·영어·수학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김양분·강호수: 2017). 부모-자녀 관

계는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업효능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문주희·백지숙, 2012). 또한, 중학생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는 학업성취도의 초기값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변화율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김광혁, 2007).

학생과정 요인으로는 독서와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학생의 학습 관련 심리적 특성인 자아개념, 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전략, 시험 스트레스와 수업 이해도, 공부시간, 사교육[12] 등이 있다. 독서와 관련해, 독서시간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임현정·시기자·김성은, 2016) 독서 향유 정도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3개년 동안의 국어·영어·수학 학업성취도 변화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김양분·강호수, 2017). 자아개념과 관련해 긍정적 자아를 가진 학생은 학업성취도의 초기값은 양의 값, 변화율은 음의 값을 갖지만 부정적 자아를 가진 학생은 학업성취도의 초기값은 음의 값, 변화율은 양의 값을 나타냈다(이현철, 2014).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학생의 학업성취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김선숙·고미선, 2007).

동기의 경우, 김현진(2013)에 따르면 외적 조절동기, 부과된 조절동기, 확인된 조절동기는 국어 및 수학 성취도와 관련이 있었다. 내재적 동기는 중학생의 수학 성취도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김양분·강호수, 2017; 차동춘, 2015) 외재적 동기는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이 혼재되어 있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강호수, 2017; 김양분·신혜진·강호수, 2016).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객관적 학업성취는 물론 주관적 성취지각에도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며(박영신 외, 2011) 국어 성취도 변화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이은하·최은정, 2015). 그리고 중학생의 국어·영어·수학 성취도의 향상에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양분·강호수, 2017; 임현정·시기자·김성은, 2016). 그리고 자기조절 전략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이 둘 간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연구가 있다(양명희·이경아, 2012). 또한, 시험 스트레스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3개년 동안의 국어·영어·수학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김양분·강호수, 2017).

수업 이해도의 경우 국어·영어·수학 공히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3개년 동

12) 사교육은 선행연구에서 학생과정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와 2013 각 3개년의 결측치가 상당하여 모형에 포함되면 많은 수의 분석대상이 줄어들게 되어 누락된 변수(omitted variables)와 독립변수의 관련성을 고려한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보완함.

안의 성취도 변화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김양분·강호수, 2017). 공부시간은 자기주도 학습시간과 학업성취가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김준엽·박인용·시기자, 2014; 임현정·시기자·김성은, 2016)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3개년 동안의 성취도 변화와 부적 관련이 있다는 연구(김양분·신혜진·강호수, 2016; 김양분·강호수, 2017)가 혼재되어 있다. 사교육의 경우에도 학업성취도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연구(김경근·김성식·성열관, 2015; 김선숙·고미선, 2007; 김준엽·박인용·시기자, 2014; 박순흥·한기순; 2013; 박현정 외, 2013; 임현정·시기자·김성은, 2016)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연구(김양분·강호수, 2017; 김양분·신혜진·강호수, 2016; 도승이·김성식, 2014; 박현정, 2010; 박현정·상경아·강주연, 2008)가 함께 보고되고 있다.

학교배경 요인과 관련하여, 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김양분·강호수, 2017)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학생의 국어·영어·수학 학업성취도 향상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식 외, 2007). 학교과정 요인으로 교사의 수업방식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으며(김세리·남창우·장선영, 2012; 김양분·강호수, 2017) 교사의 열의가 높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향(김양분·신혜진·강호수, 2016; 김준엽·박인용·시기자, 2014)이 있으나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3개년 동안의 국어·영어·수학 학업성취도의 변화에 대한 영향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김양분·강호수, 2017). 교사의 성취압력은 학업성취도와 관련(김양분·강호수, 2017)이 있으며 학교의 문제행동 발생 빈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식 외, 2007).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 등과 같은 학생배경 요인, 독서(독서 향유 정도)와 자아개념, 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전략, 시험 스트레스, 수업 이해도, 공부시간, 사교육 등과 같은 학생과정 요인, 학교 설립유형,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배경 요인, 교사의 수업방식, 교사 열의, 교사 성취압력, 학교의 문제행동 발생 빈도 등 학교과정 요인들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변수 중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와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변수들을 코호트 간 학업성취도의 영향력 차이를 탐색하는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격차 완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한다.

3 분석 방법

가. 분석 자료

본 연구는 2005년 전국 중학교 1학년 가운데 6,908명을 표집한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1~3차년도(중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와 2013년(1차년도) 전국 초등학교 5학년 가운데 7,324명을 표집한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3~5차년도(중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에 응답한 학생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분석에 활용되는 분석 대상은 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결측치에 따라 달라진다.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와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에서 각각 자체 개발한 교과별 평가도구로 측정되었다. 각 코호트(cohort)별로 수직척도를 개발하였으나, 두 평가도구 간에 동등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두 코호트의 수직척도 점수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각 코호트(cohort)에서 산출한 수직척도 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표준화(10z+50)한 위치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표 Ⅲ-1〉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개체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체	국어	39,385	50	10	25.417	88.288
	영어	39,454	50	10	27.743	80.058
	수학	39,692	50	10	28.377	79.363
2005 코호트	국어	19,472	50	10	26.725	88.288
	영어	19,556	50	10	27.743	80.058
	수학	19,783	50	10	28.377	79.363
2013 코호트	국어	19,913	50	10	25.417	72.266
	영어	19,898	50	10	27.959	69.799
	수학	19,909	50	10	30.921	70.615

2) 독립변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에서 모두 조사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코호트가 다르더라도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과 척도는 동일하다. 먼저 코호트(cohort) 변수는 2013 코호트를 1, 2005 코호트를 0으로 코딩하였고, 연도(year) 변수는 중학교 1학년을 0, 중학교 2학년을 1, 중학교 3학년을 2로 코딩하였다.

〈표 Ⅲ-2〉 독립변수 설명

독립변수	변수설명	비고
cohort	1=2013 코호트, 0=2005 코호트	TIV
year	0=중학교 1학년, 1=중학교 2학년, 2=중학교 3학년	TV
SES	부의 학력과 가구의 월평균 총 소득	TV
성별	1=남자, 0=여자	TIV
부모의 교육기대	1=고등학교, 2=전문대학, 3=대학교, 4=대학원 석사, 5=대학원 박사	TV
특별시	1=특별시, 0=그 외 지역(참조집단: 읍면지역)	TV
대도시	1=대도시, 0=그 외 지역(참조집단: 읍면지역)	TV
중소도시	1=중소도시, 0=그 외 지역(참조집단: 읍면지역)	TV
설립유형(사립=1)	1=사립, 0=국·공립	TV
남학교	1=남학교, 0=그 외(참조집단: 남녀공학)	TV
여학교	1=여학교, 0=그 외(참조집단: 남녀공학)	TV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TV
학업 자아개념	5문항 평균, 5점 척도	TV
시험 스트레스	3문항 평균, 5점 척도	TV
독서향유	5문항 평균, 5점 척도	TV
공부시간	1일 평균 공부시간	TV
수업 이해도(국어)	1=20% 이하, 2=21~40%, 3=41~60%, 4=61~80% 5=81% 이상	TV
수업 이해도(영어)	1=20% 이하, 2=21~40%, 3=41~60%, 4=61~80% 5=81% 이상	TV
수업 이해도(수학)	1=20% 이하, 2=21~40%, 3=41~60%, 4=61~80% 5=81% 이상	TV
교사 성취압력	5문항 평균, 5점 척도	TV
교사 열의	4문항 평균, 5점 척도	TV

* TV(time-varying variable)는 학생별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변수이고, TIV(time-invarying variable)는 학생별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부모 중 높은 쪽의 학력 및 월평균 가구소득에 1을 더하여 로그변환 값을 각각 표준화한 평균값이며, 성별은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변수화 하였다. 또한, 부모의 교육기대는 자녀가 어느 수준의 학교급까지 진학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문항의 응답 값으로 고등학교는 1, 전문대학은 2, 4년제 대학은 3, 대학원 석사는 4, 대학원 박사는 5로 코딩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변수는 특별시, 대도시, 중소도시이며 읍면지역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각각의 지역에 대한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설립유형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설립유형을 뜻하며, 사립학교는 1, 국·공립 학교는 0으로 코딩하였고, 남녀공학 및 남녀별학에 대한 변수로는 남녀공학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남학교와 여학교에 대한 더미변수를 각각 생성하였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해당학교의 전체 학생수를 전체 교원수로 나눈 값이다.

학업 자아개념[13]은 5문항의 평균값, 시험 스트레스[14]는 3문항의 평균값, 독서향유[15]는 5문항의 평균값이며, 공부시간은 학교 및 학원 수업을 제외한 하루 평균 공부시간이다. 수업 이해도는 각 과목별로 20% 이하는 1, 21~40%는 2, 41~60%는 3, 61~80%는 4, 81% 이상은 5로 변수화 하였으며, 학생이 인식한 교사의 성취 압력[16]과 교사 열의[17]는 각각 5문항 평균, 4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Ⅲ-3〉과 같다. 여기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와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전체와 각 코호트의 기술통계량을 함께 제시하였다.

---

13) 학업 자아개념: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다/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거나 호명되는 것을 좋아한다/나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한다/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한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14) 시험 스트레스: 중간, 기말 고사를 치는 기간에는 마음이 불안해진다/시험을 치는 동안에 신경이 날카로워 진다/시험공부를 많이 한 경우에도 시험에 대해 불안하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15) 독서향유: 독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이다/다른 사람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책을 끝까지 읽기가 어렵다/책을 선물로 받을 때 기쁘다/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역문항/ 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16) 교사의 성취 압력: 선생님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한다/선생님은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싫어한다/선생님은 정기 고사에서 우리반이 상위권에 들도록 강조한다/선생님은 모든 학생이 숙제를 다 해오도록 강조한다/과제물 검사를 철저하게 한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17) 교사 열의: 선생님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신다/선생님은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선생님은 담당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다/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신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표 Ⅲ-3〉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개체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체	cohort	42,696	.515	.500	0	1
	year	42,696	1	.817	0	2
	SES	42,212	-.004	.938	-8.748	3.758
	성별(남=1)	42,696	.509	.500	0	1
	부모의 교육기대	37,783	3.363	.900	1	5
	특별시	40,375	.177	.382	0	1
	대도시	40,375	.262	.440	0	1
	중소도시	40,375	.424	.494	0	1
	설립유형(사립=1)	40,375	.196	.397	0	1
	남학교	42,696	.152	.359	0	1
	여학교	42,696	.143	.351	0	1
	교원 1인당 학생수	40,356	16.536	4.377	.833	25.239
	학업 자기개념	39,824	3.415	.851	1	5
	시험 스트레스	39,684	3.100	1.050	1	5
	독서향유	39,715	3.043	.908	1	5
	공부시간	38,887	1.034	.931	0	3.430
	수업 이해도(국어)	39,045	3.943	1.034	1	5
	수업 이해도(영어)	39,333	3.692	1.267	1	5
	수업 이해도(수학	39,315	3.789	1.247	1	5
	교사 성취압력	39,762	3.446	.681	1	5
	교사 열의	39,749	3.796	.812	1	5
2005 코호트	cohort	20,724	0	0	0	0
	year	20,724	1	.817	0	2
	SES	20,340	-.009	.869	-8.748	3.278
	성별(남=1)	20,724	.524	.499	0	1
	부모의 교육기대	18,944	3.501	.942	1	5
	특별시	20,355	.180	.384	0	1
	대도시	20,355	.281	.449	0	1
	중소도시	20,355	.448	.497	0	1
	설립유형(사립=1)	20,355	.198	.399	0	1
	남학교	20,724	.186	.389	0	1
	여학교	20,724	.159	.366	0	1

		개체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교원 1인당 학생수	20,355	18.847	4.397	3	25.239
	학업 자기개념	19,851	3.173	.790	1	5
	시험 스트레스	19,716	3.216	.960	1	5
	독서향유	19,790	3.034	.800	1	5
	공부시간	18,979	.763	.735	0	3.430
	수업 이해도(국어)	19,064	3.888	1.044	1	5
	수업 이해도(영어)	19,378	3.568	1.261	1	5
	수업 이해도(수학)	19,369	3.686	1.245	1	5
	교사 성취압력	19,797	3.472	.691	1	5
	교사 열의	19,797	3.499	.797	1	5
2013 코호트	cohort	21,972	1	0	1	1
	year	21,972	1	.817	0	2
	SES	21,872	0	.998	-3.758	3.758
	성별(남=1)	21,972	.495	.500	0	1
	부모의 교육기대	18,839	3.223	.833	1	5
	특별시	20,020	.175	.380	0	1
	대도시	20,020	.243	.429	0	1
	중소도시	20,020	.399	.490	0	1
	설립유형(사립=1)	20,020	.194	.396	0	1
	남학교	21,972	.121	.326	0	1
	여학교	21,972	.129	.335	0	1
	교원 1인당 학생수	20,001	14.184	2.830	.833	23.361
	학업 자기개념	19,973	3.656	.841	1	5
	시험 스트레스	19,968	2.987	1.120	1	5
	독서향유	19,925	3.052	1.003	1	5
	공부시간	19,908	1.293	1.020	0	3.430
	수업 이해도(국어)	19,981	3.996	1.021	1	5
	수업 이해도(영어)	19,955	3.813	1.261	1	5
	수업 이해도(수학)	19,946	3.889	1.242	1	5
	교사 성취압력	19,965	3.421	.670	1	5
	교사 열의	19,952	4.090	.715	1	5

나. 분석 모형

분석 모형은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와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이 모두 동일한 학생을 반복·측정한 패널 자료임을 감안하여 학생별 개체효과(individual effect)를 고려하였다. 먼저, 모형에 포함되지 못한 개체효과와 독립변수와 관련성으로 인한 학생 내(within)와 학생 간(between) 변화에 대한 추정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Hausman 검증 대신 학생 내와 학생 간 추정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CREM(correlated random effect model)을 활용하였다(Hausman, 1978; Schunck, 2013). 통상 이를 검증하기 위해 활용되는 Hausman 검증은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학생 내 추정치와 학생 내와 학생 간 추정치의 가중평균치 차이[18]를 전체 변수에 대해(overall) 검증하여, 어떤 변수가 두 추정치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특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 Hausman, 1978). 이에 비해 CREM은 아래와 같이 학생 내 변화에 대한 추정치(w)와 학생 간 변화에 대한 추정치(b)의 차이(b-w)를 직접 추정하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는 장점이 있다[19](Schunck, 2013).

$$Y_{ti} = \beta_0 + \beta_1^{(w)}(X_1)_{ti} + \beta_1^{(b-w)}\overline{(X_1)}_i + \beta_2^{(w)}(X_2)_{ti} + \beta_2^{(b-w)}\overline{(X_2)}_i + \beta_3^{(w)}(X_1)_{ti}(X_2)_{ti} + \beta_3^{(b-w)}\overline{(X_1X_2)}_i + C_i + \epsilon_{ti}$$

이와 같이 확률효과 모형(CREM)을 적용하여 학생 내(w)와 학생 간(b) 변화에 대한 추정치의 차이(b-w)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는 학생 내와 학생 간 추정치를 분리하여 추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통합하여 추정하는 Hybrid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Schunck, 2013; Raudenbush & Bryk, 2002: 134-141).

$$Y_{ti} = \beta_0 + \beta_1^{(w)}[(X_1)_{ti} - \overline{(X_1)}_i] + \beta_1^{(b)}\overline{(X_1)}_i + \beta_2^{(w)}[(X_2)_{ti} - \overline{(X_2)}_i] + \beta_2^{(b)}\overline{(X_2)}_i + \beta_3^{(w)}[(X_1)_{ti}(X_2)_{ti} - \overline{(X_1X_2)}_i] + \beta_3^{(b)}\overline{(X_1X_2)}_i + C_i + \epsilon_{ti}$$

구체적으로, 모형1에서 CREM을 통해 SES_{ti}와 $cohort_{ti} \times SES_{ti}$가 학생내(w)와 학생간(b) 변화에 대한 추정치의 차이(b-w)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Hybrid 모형을 활용하

18) 이는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추정치와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추정치의 비교를 의미함.

19) 학생내 변화를 추정하는 경우 within의 첫글자인 'w'를, 학생간 변화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between 첫글자인 'b'를 변수명 앞에 추가함.

여 학생 내(within)와 학생 간(between) 변화를 분리하여 추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지 않고 추정하였다. 모형2는 모형1을 수용하여 모형2에서 추가로 포함된 변수에 대해서만 CREM을 통해 학생 내(w)와 학생 간(b) 변화에 대한 추정치의 차이(b-w)를 검증하였다. Hybrid 모형을 활용하여 모형1과 같이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학생 내(within)와 학생 간(between) 변화를 분리하여 추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분리하지 않고 추정하였다.

모형3과 모형4도 모형2에서 모형1을 활용한 것처럼 모형3은 모형2를, 모형4는 모형3을 수용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학생 내(within)와 학생 간(between) 변화에 대한 추정치를 분리해 Hybrid 모형으로 추정할 때, 학생 간(between) 변화에 대한 추정치는 모형의 특성상 모형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 특성에 의해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chunck, 2013).

모형1: $Y_{ti} = \beta_0 + \beta_1 cohort_{ti} + \beta_2 SES_{ti} + \beta_3 (cohort_{ti} \times SES_{ti}) + C_i + \epsilon_{ti}$

모형2: $Y_{ti} = \beta_0 + \beta_1 cohort_{ti} + \beta_2 year_{ti} + \beta_3 SES_{ti} + \beta_4 (cohort_{ti} \times SES_{ti}) + \beta_5 (year_{ti} \times SES_{ti})$
$+ \beta_6 (cohort_{ti} \times year_{ti} \times SES_{ti}) + C_i + \epsilon_{ti}$

모형3: $Y_{ti} = \beta_0 + \beta_1 cohort_{ti} + \beta_2 year_{ti} + \beta_3 SES_{ti} + \beta_4 (cohort_{ti} \times SES_{ti}) + \beta_5 (year_{ti} \times SES_{ti})$
$+ \beta_6 (cohort_{ti} \times year_{ti} \times SES_{ti}) + \beta_p (X_p)_{ti} + C_i + \epsilon_{ti}$

모형4: $Y_{ti} = \beta_0 + \beta_1 cohort_{ti} + \beta_2 year_{ti} + \beta_3 SES_{ti} + \beta_4 (cohort_{ti} \times SES_{ti}) + \beta_5 (year_{ti} \times SES_{ti})$
$+ \beta_6 (cohort_{ti} \times year_{ti} \times SES_{ti}) + \beta_p (X_p)_{ti} + \beta_q (X_q)_{ti} + C_i + \epsilon_{ti}$

Y_{ti}: 코호트별 국, 영, 수 수직척도 점수의 표준화 값(=10·Z+50)

$cohort_{ti}$: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 0,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 1

$year_{ti}$: 중학교 1학년 = 0, 2학년 = 1, 3학년 = 2

SES_{ti}: 코호트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X_p)_{ti}$: 학생 및 학교 배경 요인

$(X_q)_{ti}$: 학생 및 학교 과정 요인

모형1의 $\beta_3 (cohort_{ti} \times SES_{ti})$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코호트

간 영향력의 차이를 의미한다. 모형2의 $\beta_5(year_{ti} \times SES_{ti})$는 학업성취도의 성장률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의미하고 $\beta_6(cohort_{ti} \times year_{ti} \times SES_{ti})$는 학업성취도 성장률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코호트 간 영향력의 차이를 의미한다. 모형3의 X_p는 학생 및 학교 배경 요인으로 성별, 부모의 교육기대, 학교 소재지(특별시, 대도시, 중소도시, 기준은 읍면지역), 설립유형(사립, 기준은 국·공립), 남학교(기준은 남녀공학), 여학교(기준은 남녀공학), 교원 1인당 학생수이다. 모형4의 X_q는 학생 및 학교 과정 요인으로 학업 자아개념, 시험 스트레스, 독서 향유 정도, 공부시간, 수업 이해도(국어·영어·수학), 교사 성취압력, 교사 열의이다.

4 분석 결과

가. 국어

모형1~모형4에 대해, CREM(correlated random effect model)을 활용하여 학생 내(w)와 학생 간(b) 변화에 대한 추정치의 차이(b-w)를 분석한 결과는 〈부록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1의 경우 SES_{ti}와 $cohort_{ti} \times SES_{ti}$의 학생 내(w)와 학생 간(b) 변화에 대한 추정치의 차이(b-w)를 검증한 결과, (b-w)SES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SES_{ti}에 대해서만 학생 내와 학생 간 변화에 대한 추정치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모형2는 모형1을 수용하여 모형2에서 추가로 포함된 변수인 $year_{ti}$, $cohort_{ti} \times year_{ti}$, $year_{ti} \times SES_{ti}$, $cohort_{ti} \times year_{ti} \times SES_{ti}$만 학생 내(w)와 학생 간(b) 변화에 대한 추정치의 차이(b-w)를 검증한 결과, (b-w)cohort×year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cohort_{ti} \times year_{ti}$ 변수에 대해서만 학생 내와 학생 간 변화에 대한 추정치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20].

중학생의 국어 성취도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의 영향력은 2013 코호트가 2005 코호트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1에서 중학생의 국어 성취도에 대한 SES의 영향력은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간(cohort×SES)에 다르며 2013 코호트가 2005

20) 모형3과 모형4는 〈부록 표 2-1〉 참고.

코호트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모형2~모형4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중학생 국어 성취도의 성장률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의 2013 코호트와 2005 코호트간의 영향력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모형2~모형4에서, 중학생의 국어 성취도의 성장률에 대한 SES의 2013 코호트와 2005 코호트간의 영향력 차이(cohort×year×SE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그리고 중학생의 국어 성취도 성장률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평균적인 영향력(year×SES)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중학생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른 국어 성취도 성장에 대한 SES의 영향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학생 및 학교 배경 요인 가운데 성별, 부모의 교육기대, 학교 소재지, 설립유형, 학교유형,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유의미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그리고 부모의 교육기대가 높을수록 국어 성취도가 높았다.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 보다 국어 성취도가 높았으며, 읍면지역에서 특별시(w특별시)나 중소도시(w중소도시), 학교 소속이 남녀공학에서 여학교(w여학교)로 변경되는 경우 국어 성취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재학할수록 국어 성취도가 높았다.

학생 및 학교 과정 요인에서는 학업 자아개념, 시험 스트레스, 독서향유, 수업 이해도, 교사 성취압력, 교사 열의가 의미가 있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간다' 등으로 구성된 w학업 자아개념, 시험 스트레스, w독서향유와 w수업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국어 성취도는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교사 성취압력은 국어 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교사 열의는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표 Ⅲ-4〉 국어 성취도 영향 요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cohort	.029	.115	4.094**	.508	5.882**	.341	5.665**	.301
wSES	-.235	.184	-.154	.123	-.225	.129	-.217	.136
bSES	1.790**	.096	1.992**	.102	.947**	.107	.545**	.103
cohort×SES	.658**	.123	.480**	.128	.709**	.128	.597**	.124
year			9.772**	.045	9.807**	.047	9.955**	.051
wcohort×year			-5.834**	.063	-5.799**	.066	-5.892**	.069
bcohort×year			-4.201**	.508	-5.052**	.327	-5.084**	.279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year×SES			-.070	.054	-.057	.057	-.042	.060
cohort×year×SES			.032	.071	.038	.075	.031	.078
성별(남=1)					-3.219**	.128	-1.914**	.116
w부모의 교육기대					.130*	.056	.133*	.059
b부모의 교육기대					2.327**	.077	1.309**	.070
w특별시					-2.357*	1.077	-2.653*	1.125
b특별시					.056	.206	.126	.182
대도시					.562**	.196	.377*	.173
w중소도시					-2.270**	.645	-2.345**	.654
b중소도시					-.262	.183	-.298	.161
설립유형(사립=1)					.592**	.141	.618**	.124
w남학교					-1.979	1.083	-1.951	1.114
b남학교					.290	.168	-.102	.148
w여학교					3.217**	.939	2.916**	.976
b여학교					.456**	.169	.742**	.149
교원 1인당 학생수					.073**	.016	.082**	.014
w학업 자아개념							.141*	.066
b학업 자아개념							-.593**	.084
w시험 스트레스							.155**	.046
b시험 스트레스							.320**	.056
w독서향유							.159*	.063
b독서향유							1.721**	.066
w공부시간							.093	.052
b공부시간							-.753*	.073
w수업 이해도(국어)							.446**	.049
b수업 이해도(국어)							3.121**	.065
교사 성취압력							-.127*	.051
w교사 열의							.401**	.061
b교사 열의							.639**	.087
절편	50.043**	.082	40.500**	.091	32.349**	.400	17.277	.528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R^2	.038		.405		.463		.550	
개체수	39,097		39,097		36,689		34,853	

* p〈.05, ** p〈.01

나. 영어

모형1~모형4에 대해, CREM을 활용하여 학생 내(w)와 학생 간(b) 변화에 대한 추정치의 차이(b-w)를 분석한 결과는 〈부록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21] 모형3의 경우 부모의 교육기대, 학교 소재지, 설립유형, 학교 유형, 교원 1인당 학생수의 학생 내(w)와 학생 간(b) 변화에 대한 추정치의 차이(b-w)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b-w)부모의 교육기대, (b-w)교원 1인당 학생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이 변수들에 대해 학생 내와 학생 간 변화에 대한 추정치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중학생의 영어 성취도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의 차이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모형1~모형4에서 중학생의 영어 성취도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의 차이(wcohort×SES)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중학생의 영어 성취도에 대한 SES의 학생 간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간(bcohort×SES)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지만 이는 모형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별 특성에 의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chunck, 2013: 69).

중학생의 영어 성취도의 성장률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2013 코호트와 2005 코호트 간 영향력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모형2~모형4에서, 중학생의 영어 성취도 성장률에 대한 SES의 2013 코호트와 2005 코호트간의 영향력 차이(cohort×year×SE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학생의 영어 성취도 성장률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평균적인 영향력(year×SES)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중학생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른 영어 성취도 성장에 대한 SES의 영향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학생 및 학교 배경 요인 가운데 성별, 학교 소재지, 설립유형,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 소재지가 특별시와 대도시에 있는

21) 모형1, 모형2, 모형4는 〈부록 표 2-2〉 참고.

학생의 영어 성취도가 읍면지역에 비해 높았고 사립학교 학생이 국·공립학교 학생에 비해 영어 성취도가 높았다. 그런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전학 등의 이유로 늘어나는 경우(w교원 1인당 학생수) 영어 성취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 및 학교 과정 요인에서 시험 스트레스, 수업 이해도, 교사 열의가 의미가 있었다. 시험 스트레스, w수업 이해도, 교사 열의는 국어 성취도와 같이 영어 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국어 성취도와 달리 w학업 자아개념, w독서향유, w교사 성취압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5〉 영어 성취도 영향 요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cohort	.075	.111	6.346**	.121	7.646**	.141	6.784**	.137
wSES	.133	.228	.106	.127	.040	.136	-.005	.145
bSES	2.485**	.097	2.612**	.104	1.369**	.108	.351**	.100
wcohort×SES	-.138	.342	-.160	.187	.026	.200	.104	.208
bcohort×SES	1.614**	.128	1.515**	.138	1.859**	.135	1.711**	.122
year			9.982**	.040	9.978**	.042	10.157**	.046
cohort×year			-6.507**	.056	-6.605**	.061	-6.673**	.064
year×SES			-.063	.048	-.026	.050	-.028	.053
cohort×year×SES			.050	.063	-.014	.066	-.029	.068
성별(남=1)					-2.175**	.125	-1.409**	.109
w부모의 교육기대					.123*	.049	.091	.051
b부모의 교육기대					2.346**	.076	1.080**	.067
특별시					1.106**	.199	1.183**	.171
대도시					.736**	.192	.483**	.165
중소도시					-.112	.176	.006	.152
설립유형(사립=1)					.686**	.138	.781**	.118
남학교					-.132	.162	-.254	.139
여학교					.158	.163	.246	.139
w교원 1인당 학생수					-.123**	.033	-.097**	.034
b교원 1인당 학생수					.121**	.017	.139**	.015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w학업 자기개념							.052	.057
b학업 자기개념							-.297**	.077
시험 스트레스							.247**	.032
w독서향유							.034	.055
b독서향유							1.133**	.061
w공부시간							.014	.045
b공부시간							-.289**	.070
w수업 이해도(영어)							.364**	.040
b수업 이해도(영어)							3.103**	.050
w교사 성취압력							.090	.053
b교사 성취압력							-.152	.088
교사 열의							.362**	.045
절편	50.055**	.079	40.362**	.086	30.542**	.401	19.142**	.503
R^2	.096		.466		.514		.615	
개체수	39,165		39,165		36,755		35,239	

* p<.05, ** p<.01

다. 수학

모형1~모형4에 대해, CREM을 활용하여 학생 내(w)와 학생 간(b) 변화에 대한 추정치의 차이(b-w)를 분석한 결과는 〈부록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22], 모형4의 경우에는 학업 자아개념, 시험 스트레스, 독서향유, 공부시간, 수업 이해도, 교사 성취압력, 교사 열의에 대해 학생 내(w)와 학생 간(b) 변화에 대한 추정치의 차이(b-w)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b-w)학업 자아개념, (b-w)독서향유, (b-w)공부시간, (b-w)수업 이해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이 변수들에 대해 학생 내와 학생 간 변화에 대한 추정치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중학생의 수학 성취도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22) 모형1, 모형2, 모형3은 〈부록 표 2-3〉 참고.

의 차이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모형1~모형4에서 중학생의 수학 성취도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의 차이(wcohort×SES)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중학생의 수학 성취도에 대한 SES의 학생 간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간(bcohort×SES)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모형의 특성상 이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중학생의 수학 성취도 성장률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의 영향력은 부적이었으며 2013 코호트와 2005 코호트 간 영향력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모형2-모형4에서 일관되게 중학생의 수학 성취도의 성장률은 SES가 높아짐(year×SES)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중학생의 수학 성취도 성장률에 대한 SES의 2013 코호트와 2005 코호트간의 영향력 차이(cohort×year×SE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SES에 따른 수학 성취도의 차이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축소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학생 및 학교 배경 요인 가운데 성별, 설립유형,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유의미하였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수학 성취도가 높았고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에 비해 수학 성취도가 높았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전학 등의 이유로 늘어나는 경우(w교원 1인당 학생수) 영어와 마찬가지로 수학 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 및 학교 과정 요인에서는 시험 스트레스, 공부시간, 수업 이해도, 교사 열의가 의미가 있었다. 국어·영어처럼 시험 스트레스, 수업 이해도, 교사 열의는 수학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국어·영어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w공부시간이 수학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공부시간이 '학교와 학원(과외)의 수업 및 숙제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조사된 것을 감안하면 국어와 영어에 비해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수학 성취도 향상 가능성을 제기한다.

〈표 Ⅲ-6〉 수학 성취도 영향 요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cohort	.044	.114	6.703**	.126	8.090**	.149	7.208**	.141
wSES	.208	.224	.196	.132	.108	.144	.166	.153
bSES	2.269**	.099	2.414**	.108	1.109**	.113	.142	.103
wcohort×SES	.099	.336	.224	.195	.274	.211	.294	.219
bcohort×SES	1.624**	.131	1.646**	.143	1.996**	.142	1.896**	.127
year			9.650**	.041	9.625**	.044	9.790**	.048
cohort×year			-6.667**	.058	-6.742**	.064	-6.816**	.067
year×SES			-.149**	.049	-.114*	.053	-.136*	.056
cohort×year×SES			-.012	.065	-.053	.070	-.038	.072
성별(남=1)					-.342**	.131	-.481**	.111
w부모의 교육기대					.026	.052	.018	.054
b부모의 교육기대					2.561**	.079	1.083**	.069
w특별시					-.944	.928	-1.139	.960
b특별시					.821**	.211	.700**	.177
대도시					.867**	.202	.295	.170
중소도시					.011	.185	-.227	.156
설립유형(사립=1)					.673**	.145	.789**	.121
남학교					-.082	.171	-.044	.143
여학교					-.016	.171	-.067	.143
w교원 1인당 학생수					-.114**	.035	-.102**	.036
b교원 1인당 학생수					.118**	.018	.149**	.015
w학업 자아개념							.035	.060
b학업 자아개념							-.210**	.079
시험 스트레스							.180**	.033
w독서향유							.018	.058
b독서향유							.715**	.063
w공부시간							.098*	.048
b공부시간							-.374**	.071
w수업 이해도(수학)							.594**	.041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b수업 이해도(수학)							3.670**	.051
교사 성취압력							-.045	.048
교사 열의							.298**	.047
절편	50.073**	.081	40.475**	.089	28.983**	.422	17.537**	.464
R^2	.085		.426		.461		.589	
개체수	39,396		39,396		36,710		35,028	

* p<.05, ** p<.01

5 요약 및 논의

국어 성취도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은 2005 코호트에 비해 2013 코호트에 더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국어 성취도에 대한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cohort×SES)은 2013 코호트가 2005 코호트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중학생의 영어·수학 성취도에 대한 SES의 학생 간 2005 코호트와 2013 코호트 간(bcohort×SES)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지만 이는 모형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별 특성에 의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의 코호트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어·영어·수학 성취도의 성장률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의 코호트 간 차이(cohort×year×SES)는 공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앞선 논의와 비교해 보면, 국어 성취도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의 코호트 간 차이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국어·영어·수학 성취도의 성장률에 대한 코호트 간 차이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중학생의 국어·영어 성취도에 비해 수학 성취도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 수학 성취도의 성장률은 SES가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year×SES)되었는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수학 성취도에 대한 SES의 영향력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어와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학 성취도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남궁지영 외(2017)에서는 수학 성취도 성장률에 대한 SES 영향력이 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본 연구와 달리 수학 성취도 성장률에 대한 모형을 2차 함수의 비선형 형태로 설정하고 2013 코호트만 활용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자료를 활용한 차이점이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중학생의 경우 국어와 영어에 비해 수학 성취도는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어·영어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공부시간(w공부시간)이 수학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공부시간이 '학교와 학원(과외)의 수업 및 숙제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조사된 것을 감안하면 국어와 영어에 비해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늘리면 수학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생 및 학교 배경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국어·영어·수학 성취도가 일관되게 높았지만 모형 특성상 성별은 학생 간 추정치로 분석모형에 포함되지 못한 변수 즉, 학생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부모의 교육기대는 국어·영어·수학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의 경우 읍면지역에서 특별시 또는 중소도시로 이동한 경우 국어 성취도가 낮아졌고 대도시는 읍면지역에 비해 국어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읍면지역에 비해 특별시와 대도시는 영어 성취도가 높았다.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에 비해 국어·영어·수학 성취도가 일관되게 높았으며 남녀공학에서 여학교로 이동한 경우 국어 성취도가 높았다.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전학 등의 이유로 늘어나는 경우 영어와 수학 성취도는 낮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국어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생 및 학교 과정 요인을 살펴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간다' 등으로 구성된 학업 자아개념이 긍정적이 될수록 국어 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험 스트레스는 국어·영어·수학 성취도 공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국어의 경우 독서 향유 정도가 높아지면 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업 이해도와 교사 열의는 공히 국어·영어·수학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교사 성취압력은 국어 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Ⅳ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

1. 연구문제
2. 선행연구 분석
3.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요약 및 논의

Ⅳ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

1 연구문제

2017년 고등학교 진학률 99.7%, 대학 진학률 68.9%로 OECD 평균 대비 교육기회는 평등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학생 및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고교 및 대학 서열화 등이 낯설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학벌은 명백한 위치재의 성격을 가진다. 위치재는 그 재화가 주는 절대적인 만족이나 쓸모보다는 전체 재화의 서열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류동민, 2011: 1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경제, 문화, 사회자본 등 다양한 형태로 학벌경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이후 지난 10년간 자율형 사립고 및 특성화고가 크게 팽창했고,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대학 입학전형 방법 및 요소 등이 매우 복잡해졌다. 특히, 최근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수시전형이 확대되면서 부모의 정보력이나 전략 등 문화자본이 고교 및 대학 진학에서 더욱 중요한 입시요인이 되고 있다. 류동민(2011)은 문화자본 우위를 점한 기득권이 대학입시에 앞서 특수목적고 입시, 국제중, 사립초 및 영어유치원 등으로 경쟁 시점을 앞당기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보았다. 한편, 중산층은 학벌경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낮지만 기대수익이 매우 커 상층부의 위험기피적 행동에 편승하는 위험애호자로 행동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등이 낮은 계층은 학벌추구 자체를 포기하거나 절망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학벌경쟁에서 계층별로 상이한 대응방식을 보이는 것은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같다고 본 류동민(2011)의 견해와 본 연구의 문제 인식은 같은 맥락에 있다. 즉, 지난 10년 전후 시점으로 학벌경쟁이 본격화되는 고교 유형별 진학이 계층에 따라 얼마나 차별적이었는지, 특히 가정의 사회·경

제적 지위에 따른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차이,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도 고교 유형별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고교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2009년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일원화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 2009~2010년 일반계고 과학중점학교 100개교 선정, 2010년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지정·운영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2010년 제1차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 2011년 고교 석차 9등급제 평가를 성취평가제로 전환하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2012년 자율형 공립고 116개교로 확대, 2014년 대입전형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를 유도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2015학년도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개선방안, 2016년 일반고 역량강화 등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2017년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 100개교 선정 등이다. 특히, 2017년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실시 등의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이 포함되었고, 2018년 8월 2022학년도 고입 동시 실시,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고교교육 혁신방안은 지난 10년간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가 명문대 입시를 위한 예비고, 입시 명문고, 귀족학교 등을 확대 재생산하였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경제·사회 양극화 및 격차 심화에 따른 교육 분야의 대응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변수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등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심화되었는지 아니면 개선되었는지를 10년 전후 시점의 코호트 간 비교·분석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고교 진학 관련 정책들과 분석변수들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관련 정책 효과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동일 문항과 척도에 따른 10년 전후 시점의 두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적이며, 10년 전후 시점의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1~3학년 동안의 학생 특성들을 분석변수로 포함하였다는 점 또한 그러하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2008년과 2018년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결과라는 측면에서 횡단분석의 특성을 갖지만 가정배경, 학생 및 학교 특성 변수들 중 중학교 1~3학년 시기의 평균값을 포함하고 있어 종단자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두 코호트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와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을 통해 지난 10년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네 번의 정권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2010년 전후 시점의 고교 유형 및 입시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2013 코호트 자료는 2015년 도입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2018학년도 진학 결과이다. 따라서 두 코호트 비교를 통해 지난 10년간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차이를 확인하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도 고교 유형별 진학 차이를 유발하는 변수들과 유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배경에 따른 중학생의 고교 유형별 진학 차이를 완화하고, 고교 유형별 진학 선택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차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면 두 코호트 간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의 희망 고교유형과 실제 진학한 고교유형 간 상관 정도는 어떠한가? 두 코호트 간 고교 진학 계획이 고교 유형별 진학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고교 유형별 진학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생 및 학교 특성은 무엇인가? 또한, 분석변수들을 통해 지난 10년간 교육정책 변화 등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가?

2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1~3차년도와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3~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및 영향 요인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고등학교 유형은 2011년 이전 크게 일반계와 전문계로 구분되었으나, 이후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으로 개편[23]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계고는 일반계고와 비교하여 뒤처진 학교로

인식되고 있으며(김성식·류방란, 2008), 일반계고에 비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국·영·수 학업성취도가 중·고등학교 시기에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경호 외, 2017). 이처럼 고등학교 유형별 격차는 여전히 고교 서열화 및 교육 계층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성식·류방란, 2008; 이혜영,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10년 전후 시점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특성 및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 고교 유형별 진학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변수들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이 보고되고 있다(김성식·류방란, 2008; 김위정·김양분, 2013; 전은정·임현정·성태제, 2015). 전은정·임현정·성태제(2015)에 의하면 고교 유형별 진학에서 중학교 성적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지만, 중학교 성적을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배경 특성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하였다. 김성식·류방란(2008)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지원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전문계고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방하남·김기헌(2002)에서도 고등학교 계열 이행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박병영 외, 2010 재인용). 김희삼(2017)은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가정환경(아버지 학력, 아버지 직업군, 가구소득)이 고등학교 유형별로 체계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변수용·주영효(2012) 또한 특수목적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다른 유형의 학교선택을 한 학생들에 비해 고학력, 고소득, 고위직 부모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특수목적고 진학이 학교수업 시간의 집중 이외에도 가정에서의 추가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김성식·류방란(2008)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고등학교 계열 선택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사교육 참여, 부모의 교육적 지원 등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임현정, 2013).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0.5%, 특히 초등학교는 82.3%로 중학교 66.4%, 고등학교 55.0%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28만 4천원, 중학교 29만 1천원, 초등학교 25만 3천원으로 2007년 대비 2017년 고등학교 44.2%, 중학교 24.4%, 초등

23) 특수목적고는 기존 9개(농업, 공업, 수산, 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계열에서 5개 계열로 정비되어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가 포함된다. 특성화고는 기존 전문계고, 전문계 특수목적고, 특성화고가 특성화고로 일원화되어 특성(직업)과 특성(대안)으로 나뉜다. 자율고 또한 일원화되어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로 나뉜다(황준성 외, 2013; 이혜영 외, 2015 재인용).

학교 11.5%의 증가율을 보였다. 결국, 지난 10년 동안 사교육 참여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크게 확대되어 왔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고등학생 시기에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중학교 시기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증가가 고등학교 진학 경쟁에서 유발된 사교육 수요로 해석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2005 및 2013 코호트의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 선택 영향 요인 중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김정숙·백병부(2010)는 중3 학부모의 고등학교 선택 동기를 분석하였는데,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통학거리 및 교통보다는 대학진학, 학습 분위기, 명성과 전통 요인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고등학교 계열 선택에서 학업성취도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임현정 외, 2009). 중학교 성적이 자율형 공립고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교 진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전은정·임현정·성태제, 2015), 동일한 가정배경 수준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확률이 증가하였다(임현정, 2013). 학업성취도와 교육포부 수준이 높을수록 실업계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경근·변수용, 2006). 그런데 학업성취도 역시 가정배경 영향 하에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매개한 가정배경의 영향력이 상급학교 진학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임현정 외, 2009). 김성식·류방란(2008)의 연구에서도 교육포부 수준이 높을수록 특수목적고 진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오석영·임정만(2012)은 서울지역 중3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일반고 보다는 자율고 및 특수목적고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수업시간 이외 공부시간이 많은 학생일수록 특수목적고 진학 가능성이 높고, 수업태도는 일반고 진학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특수목적고 진학에는 유의하지 않았다(김성식·류방란, 2008). 그 밖에 학습동기 및 학업적 자아개념, 진로성숙도 등의 학생 특성이 고교 유형별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도진, 2011; 김경근·변수용, 2006; 김성식·류방란, 2008; 김위정·김양분, 2013; 박소영·민병철, 2009; 심현애·김경연, 2014; 임현정, 2013;).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의하면 중학생의 고등학교에 진학계획이 일반고 62.1%, 자율고 4.5%, 특성화고 10.8%, 특수목적고 12.4% 등이었다. 이 같은 고교 유형별 진학계획의 차이를 유발한 주요 변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학교 시기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계획과 최종 진학결과의 일치여

부를 통해 진로선택의 자기결정성 등이 확인되는지 검토하였다.

학교수준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학교소재지, 지역규모, 설립유형, 남녀공학 여부, 그리고 학교풍토와 관련하여 교사 열의, 성취압력, 진로지도, 학교평균 SES 등이 보고되고 있다(김경근·변수용, 2006; 김성식·류방란, 2008; 김양분 외, 2012; 심현애·김경연, 2104; 임현정, 2013; 임현정 외, 2009). 학교소재지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한 방하남·김기헌(2002) 및 김경근·변수용(2006)과 달리 학교소재지, 지역규모 및 설립유형 등은 고등학교 계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임현정, 2013; 임현정 외, 2009). 한편, 김성식·류방란(2008)은 성적을 통제했을 때 학교평균 SES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전문고 진학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양분 외(2012)에서도 학교평균 SES가 특성화고 진학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심현애·김경연(2014) 또한 학교평균 SES가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진학을 선택하는 데 유의미한 부적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임현정(2013)은 학교의 진로교육이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 가정배경 요인의 영향력을 상당부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중학교 시기 담임교사와의 개별상담 수행정도, 진로지도 프로그램 수, 진로지도 만족도 등이 고등학교 계열선택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임현정 외, 2009). 졸업 후 취업과 관련성이 높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일반고 및 특수목적고 학생들과 비교하여 중학교 시절 진로활동이 고등학교 유형선택 과정에서 유의미한 변수였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편, 서미숙·홍은주(2018)는 청소년기 진로 선택의 자발성이 청년기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과 동기유무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통해 비동기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보다 상대적으로 자발적 동기로 진학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행복도가 더 높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가정특성, 중학교 경험, 학업성취도, 학습자 특성 등이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주요 변수들을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의 영향력 차이를 탐색하는 독립변수로 선정하고자 한다. 중학교 시기 진학희망 고교유형과 최종진학 고교유형 간의 관련성, 진학 및 진로지도 등 다양한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 전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차이가 발견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차이를 유발하는 가정, 학생 및 학교 특성은 무엇이며, 지난 10년간 교육정책 변화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차이를 완화하고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선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한다.

3 분석 방법

가.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중학교 1~3학년 자료인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1~3차년도(2005~2007년)와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3~5차년도(2015~2017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표본 탈락 및 결측치 등이 제외되고 고등학교 진학 결과가 확인된 2005 코호트 4차(2008년) 기준 4,729명과 2013 코호트 6차(2018년) 기준 5,951명으로 총 10,680명이다.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8,891명, 특수목적고 216명, 특성화고 1,573명이다.

1) 종속변수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따른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로 구분되는 명목변수이다. 2011년 이전까지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계와 전문계로 구분되었던 반면, 2011년 이후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와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자료의 고등학교 유형 구분이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고교유형은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로 구분하고, 특수목적고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만을 포함하였다. 특수목적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 국제전문 및 과학 인재양성 등의 목적으로 특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반면 일반고는 특정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이다. 한편, 자율형 사립고는 2008년 당시 자율형 사립고가 아닌 자립형 사립고로 시범학교 6개교에 불과하였는데, 2018년 현재 자율형 사립고는 43개교로 약 7배 증가하였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율형 사립고는 특수목적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인재양성 측면에서는 특정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일반고의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두 코호트 간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의 상대적 확률을 비교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춰볼 때 자율형 사립고는 분석범주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율형 사립고는 10년 전후 고교유형의 큰 변화 중 하나이므로 2013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 진학 확률 차이 분석 결과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예술·체육고와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2, 제76조 3의 제2항, 그리고 제90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에 의해 특수목적고로 분류된다. 마이스터고 또한 자율형 사립고와 마찬가지로 2013 코호트 자료만 존재하여 두 코호트 간 비교가 불가하다. 또한, 직업분야 학교인 마이스터고를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동일 범주로 분석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술·체육고, 대안학교도 동일한 이유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와 함께 10년 전후 고교유형의 큰 변화 중 하나이므로 2013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일반고 대비 마이스터고 진학 확률 차이 및 영향 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10년 전후 시점의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그리고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2013 코호트의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 그리고 일반고 대비 마이스터고 진학 확률 차이 및 영향 요인 등을 검토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코호트 특성, 가정 특성, 학생 특성, 그리고 학교 특성 등을 포함하였다. 코호트는 2005 코호트=0, 2013 코호트=1인 더미변수로 구분하였다. 2005 코호트의 중학교 1~3학년 시기는 1차(2005년)~3차(2007년) 자료이고, 2013 코호트의 중학교 1~3학년 시기는 3차(2015년)~5차(2017년) 자료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SES는 부모 학력 및 월평균가구소득에 1을 더하여 로그변환

값을 각각 표준화한 평균값이다. 그 외 부모의 교육기대, 사교육 참여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부모의 교육기대는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고졸=12, 전문대졸=14.5, 대졸=16, 석사=18, 박사=21의 교육연한으로 변환하고, 중학교 1~3학년 시기의 평균값을 부여하였다. 사교육 참여 여부는 중학교 1~3학년 시기의 학원(단과/종합반), 과외(개인/그룹과외), 학습지·통신·인터넷 과외를 모두 포함한 과목별 참여 여부 합계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교육비 지출 및 사교육 참여 시간 등이 고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사교육비 변수의 결측률이 높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1~3학년 시기의 국어·영어·수학 사교육 참여 여부를 통해 사교육이 고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상을 통해 가정배경에 따른 자녀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의 차별적 영향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학생 특성은 성별, 학업성취도, 수업 이해도, 고교 진학 계획, 학업 자아개념, 공부시간, 시간관리 등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여학생=0, 남학생=1인 더미변수이다. 학업성취도와 수업 이해도를 통해 중학생의 학업수준과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학업성취도는 각 코호트별로 개발된 국어·영어·수학 수직척도 점수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두 코호트 간의 학업성취도 검사가 동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직척도 점수의 직접 비교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코호트 및 과목별 수직척도 점수를 표준화(z)한 후 10z+50으로 선형변환점수를 사용하였다. 수업 이해도는 20%이하=1, 21-40%=2, 41-60%=3, 61-80%=4, 81%이상=5로 코딩된 중1~3학년 시기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학업 자아개념[24]은 중학교 1~3학년 시기의 5점 척도로 측정된 5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중학교 3년간 형성된 평균적 수업 이해도와 학업 자아개념이 고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별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하의 기술통계량에서 보듯이 중3 시기의 학업성취도와 중학교 1~3학년 시기의 평균값을 사용한 수업 이해도 및 학업 자아개념이 고교 유형별로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중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세 변수 모두에서 특수목적고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다음으로 일반고, 특성화고 순이었다. 중학교 1학년 시기의 고교 진학 계획과 실제 진학한 고교유형과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1학년

24) 학업 자아개념: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다/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거나 호명되는 것을 좋아한다/나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한다/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한다(김성식 외, 2007; 김양분 외, 2006; 2015; 2016; 남궁지영 외, 2017)

시기의 고교 진학 계획은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예체능고로 구분된 각각의 더미변수로 코딩하였다. 계획과 실제 진학 고교유형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 중학생들의 적극적인 진로선택 및 결정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학업 자아개념 등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부시간은 중3 시기의 학교 수업 및 학원을 제외한 하루 평균 공부시간이다. 또한, 학생의 행동조절전략 중 시간관리[25]는 중3 시기에 4점 척도로 측정된 3문항의 평균값을 변수로 포함하였다.

학교 특성은 중학교 설립유형 및 소재지, 교사 열의, 진학 및 진로지도 등을 포함하였다. 설립유형은 국·공립=0, 사립=1 더미변수이고, 중학교 소재지 또한 특별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가변수로 코딩하였다. 교사 열의[26]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학생들이 인식한 교사 열의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된 4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진학 및 진로지도는 중학교 3학년 시기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수업,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방문, 학과체험, 현장견학, 현장직업체험 및 모의직업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1로 코딩한 후, 전체 프로그램 중 학생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개수로 해당 변수를 변환하였다. 이상에서 열거한 분석변수는 2005 및 2013 코호트, 그리고 코호트별 차수 간 동일 문항을 기준으로 구성하였고,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5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각 분석변수의 설문지 및 문항내용은 2013 코호트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25) 시간관리: 교과목 공부를 위한 공부시간(수업시간 외)을 잘 활용한다/내가 계획한 공부 시간표를 지킨다/공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사용한다(김성식 외, 2007; 남궁지영 외, 2017)

26) 교사 열의: 선생님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신다/선생님은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선생님은 담당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다/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신다(김성식 외, 2007; 남궁지영 외, 2017)

〈표 Ⅳ-1〉 변수 설명

변수명			변수설명	
고교유형			일반고=1, 특수목적고=2, 특성화고=3	명목변수
코호트 특성			2005 코호트=0, 2013 코호트=1	더미변수
가정 특성	SES		중학교 3학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연속변수
	사교육참여		중학교 1~3학년 국어·영어·수학 과외 여부(참여=1, 불참=0) 합계	연속변수
	부모의 교육기대		중학교 1~3학년 평균값(고졸=12, 전문대졸=14.5, 대졸=16, 석사=18, 박사=21)	연속변수
학생 특성	성별		여학생=0, 남학생=1	더미변수
	학업성취도	국어	중학교 3학년 국어 기초능력검사 수직척도점수의 표준화 값(10z+50)	연속변수
		영어	중학교 3학년 영어 기초능력검사 수직척도점수의 표준화 값(10z+50)	연속변수
		수학	중학교 3학년 수학 기초능력검사 수직척도점수의 표준화 값(10z+50)	연속변수
	수업 이해도	국어	중학교 1~3학년 국어(5점 척도) 평균값	연속변수
		영어	중학교 1~3학년 영어(5점 척도) 평균값	연속변수
		수학	중학교 1~3학년 수학(5점 척도) 평균값	연속변수
	학업 자아개념		중학교 1~3학년 5문항(5점 척도) 평균값	연속변수
	고교 진학 계획	일반고	중학교 1학년 1=일반고, 0=그 외 지역	더미변수
		특성화고	중학교 1학년 1=특성화고, 0=그 외 지역	더미변수
		특수목적고	중학교 1학년 1=특수목적고, 0=그 외 지역	더미변수
		예체능고	중학교 1학년 1=예체능고, 0=그 외 지역	더미변수
	공부시간		중학교 3학년 1문항(7점 척도) 평균값	연속변수
	시간관리		중학교 3학년 3문항(4점 척도) 평균값	연속변수
학교 특성	설립유형		중학교 3학년 국·공립=0, 사립=1	더미변수
	중학교 소재지	특별시	중학교 3학년 1=특별시, 0=그 외 지역	더미변수
		대도시	중학교 3학년 1=대도시, 0=그 외 지역	더미변수
		중소도시	중학교 3학년 1=중소도시, 0=그 외 지역	더미변수
		읍면지역	중학교 3학년 1=읍면지역, 0=그 외 지역	더미변수
	교사 열의		중학교 3학년 4문항(5점 척도) 평균값	연속변수
	진학 및 진로지도		중학교 3학년 4문항 참여여부(참여=1, 불참=0) 합계	연속변수

〈표 Ⅳ-2〉 독립변수 기술통계량(N=10,680)

구분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전체		
			N	M	SD	N	M	SD	N	M	SD	N	M	SD
코호트 특성			8,891	.525	.499	216	.630	.484	1,573	.730	.444	10,680	.557	.497
가정 특성	SES		8,891	.077	.851	216	.656	.770	1,573	-.587	.872	10,680	-.009	.889
	사교육참여		8,891	5.609	2.632	216	6.287	2.046	1,573	3.446	2.882	10,680	5.304	2.771
	부모의 교육기대		8,859	17.109	1.744	215	18.695	1.997	1,556	15.809	1.383	10,630	16.951	1.780
학생 특성	성별		8,891	.498	.500	216	.398	.491	1,573	.551	.498	10,680	.504	.500
	학업 성취도	국어	8,764	58.187	8.832	212	63.527	8.066	1,556	51.210	8.652	10,532	57.264	9.175
		영어	8,760	57.645	9.011	213	66.590	7.156	1,552	49.261	8.508	10,525	56.590	9.495
		수학	8,773	57.447	8.787	212	64.476	8.479	1,556	48.877	8.052	10,541	56.323	9.265
	수업 이해도	국어	8,890	4.077	.767	216	4.757	.420	1,573	3.404	.859	10,679	3.991	.819
		영어	8,890	3.910	.983	216	4.881	.318	1,573	2.865	1.046	10,679	3.776	1.063
		수학	8,890	4.011	.952	216	4.779	.468	1,573	2.987	1.047	10,679	3.876	1.034
	학업 자아개념		8,891	3.485	.691	216	4.051	.653	1,573	3.225	.698	10,680	3.458	.702
	고교 진학 계획	일반고	8,438	.659	.474	207	.184	.388	1,464	.532	.499	10,109	.631	.483
		특성화고	8,438	.066	.248	207	.024	.154	1,464	.209	.407	10,109	.086	.280
		특수 목적고	8,438	.189	.392	207	.778	.417	1,464	.068	.252	10,109	.184	.387
		예체능고	8,438	.087	.281	207	.014	.120	1,464	.191	.393	10,109	.100	.300
	공부시간		8,768	1.108	.929	212	1.871	1.048	1,541	.827	.875	10,521	1.083	.936
	시간관리		8,765	2.498	.616	211	3.005	.665	1,550	2.344	.608	10,526	2.485	.623
학교 특성	설립유형		8,856	.191	.393	216	.185	.389	1,561	.218	.413	10,633	.194	.396
	중학교 소재지	특별시	8,856	.171	.377	216	.259	.439	1,561	.152	.359	10,633	.170	.376
		대도시	8,856	.273	.446	216	.273	.447	1,561	.289	.453	10,633	.275	.447
		중소도시	8,856	.422	.494	216	.389	.489	1,561	.381	.486	10,633	.415	.493
		읍면지역	8,856	.134	.340	216	.079	.270	1,561	.179	.383	10,633	.139	.346
	교사 열의		8,774	3.763	.793	212	4.039	.838	1,542	3.819	.793	10,528	3.776	.795
	진학 및 진로지도		8,891	2.067	1.522	216	2.185	1.451	1,573	2.433	1.555	10,680	2.123	1.531

이하는 고교유형별 기술통계량을 코호트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005 및 2013 코호트의 고등학교 유형별 SES 평균은 감소한 반면 표준편차는 증가하였다. 일반고의 2005 코호트 SES 평균은 .108이고, 최솟값 -4.036, 최댓값 3.243이었던 반면, 2013 코호트 SES 평균은 .049, 최솟값 -3.758, 최댓값 3.608이었다. 이처럼 일반고 SES 평균은 감소한 반면,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모두 증가하였다. 한편, 특수목적고의 2005 코호트 SES 평균은 .676, 최솟값 -1.283, 최댓값 2.297이었고, 2013 코호트 SES 평균은 .645이고, 최솟값 -2.374, 최댓값 2.598이었다.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표준편차와 최댓값은 증가한 반면 최솟값은 -1.091만큼 하향하였다. 이는 10년 전후 일반고와 비교해 특수목적고 진학자들의 SES 수준이 보다 다양화되었고, 특수목적고 사회통합전형[27] 등의 정책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성화고는 일반고 및 특수목적고와 달리 두 코호트 SES 평균이 모두 음(-)의 방향을 나타냈다. 2005 코호트 SES 평균 -.485, 최솟값 -4.630, 최댓값 2.123 대비 2013 코호트 SES 평균은 보다 낮아진 -.625이고, 최솟값 -3.292, 최댓값 2.389이었다. 이처럼 특수목적고 진학자들의 SES는 일반고 및 특성화고 진학자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학업성취도 또한 일반고 및 특성화고 대비 특수목적고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한편, 지난 10년 전후 사교육 참여 및 부모의 교육기대는 모든 고교 유형에서 감소한 반면 학업 자아개념은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진학자들 모두 증가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2005 코호트 대비 2013 코호트의 큰 변화 중 하나가 중학교 시기 자유학기제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즉,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하고,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감이 개선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일반고 및 특성화고 진학자의 국어·영어·수학 수업 이해도는 모두 향상된 반면 특수목적고 진학자의 국어와 수학 수업 이해도는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27)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33호, 2014.2.25. 시행) 제17조(사회통합전형)에 따라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선발해야 한다.

〈표 Ⅳ-3〉 일반고 기술통계량(N=8,891)

구분			2005 코호트					2013 코호트				
			N	M	SD	Min	Max	N	M	SD	Min	Max
가정 특성	SES		4,225	.108	.774	-4.036	3.243	4,666	.049	.914	-3.758	3.608
	사교육참여		4,225	6.038	2.674	0	9	4,666	5.220	2.532	0	9
	부모의 교육기대		4,216	17.550	1.842	12	21	4,643	16.708	1.544	12	21
학생 특성	성별		4,225	.527	.499	0	1	4,666	.472	.499	0	1
	학업성취도	국어	4,151	61.532	5.685	48.614	88.288	4,613	55.177	10.000	35.269	72.266
		영어	4,152	61.713	5.379	51.579	80.058	4,608	53.980	9.998	35.686	69.799
		수학	4,159	61.175	5.750	52.023	79.363	4,614	54.086	9.654	38.138	70.615
	수업 이해도	국어	4,224	4.061	.748	1	5	4,666	4.091	.783	1	5
		영어	4,224	3.844	.951	1	5	4,666	3.970	1.007	1	5
		수학	4,224	3.969	.914	1	5	4,666	4.049	.984	1	5
	학업 자아개념		4,225	3.253	.618	1	5	4,666	3.695	.686	1	5
	고교 진학 계획	일반고	4,006	.735	.441	0	1	4,432	.589	.492	0	1
		특성화고	4,006	.070	.256	0	1	4,432	.061	.240	0	1
		특수목적고	4,006	.153	.360	0	1	4,432	.221	.415	0	1
		예체능고	4,006	.041	.198	0	1	4,432	.128	.334	0	1
	공부시간		4,153	.887	.762	0	3.429	4,615	1.308	1.017	0	3.400
	시간관리		4,165	2.371	.537	1	4	4,600	2.613	.658	1	4
학교 특성	설립유형		4,225	.201	.401	0	1	4,631	.181	.385	0	1
	중학교 소재지	특별시	4,225	.192	.394	0	1	4,631	.152	.359	0	1
		대도시	4,225	.304	.460	0	1	4,631	.245	.430	0	1
		중소도시	4,225	.430	.495	0	1	4,631	.414	.493	0	1
		읍면지역	4,225	.074	.261	0	1	4,631	.189	.391	0	1
	교사 열의		4,157	3.490	.765	1	5	4,617	4.008	.736	1	5
	진학 및 진로지도		4,225	1.626	1.429	0	4	4,666	2.466	1.494	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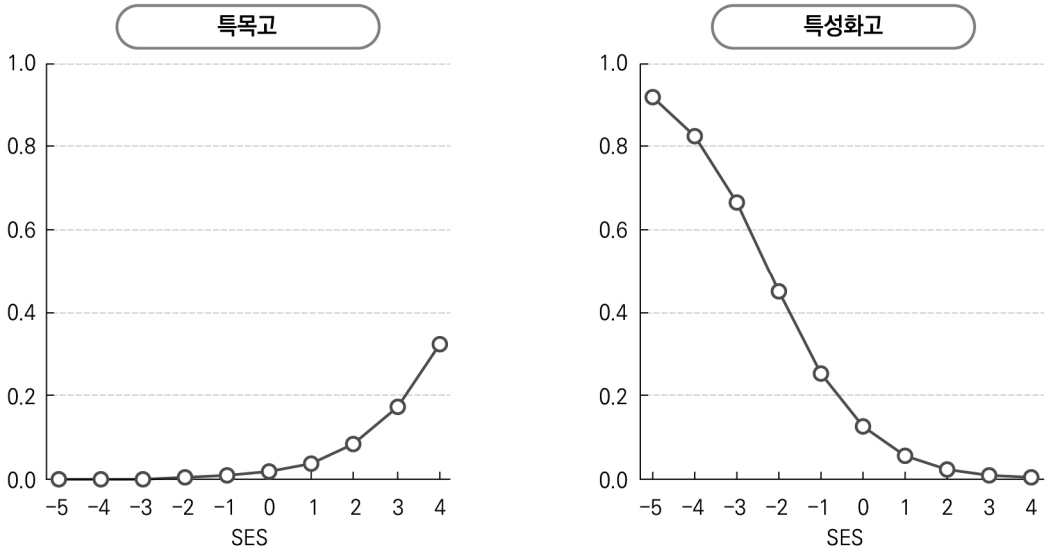
〈표 Ⅳ-4〉 특수목적고 기술통계량(N=216)

구분			2005 코호트					2013 코호트				
			N	M	SD	Min	Max	N	M	SD	Min	Max
가정 특성	SES		80	.676	.641	-1.283	2.297	136	.645	.839	-2.374	2.598
	사교육참여		80	6.938	2.027	0	9	136	5.904	1.966	0	9
	부모의 교육기대		79	19.333	1.926	16	21	136	18.324	1.949	15.5	21
학생 특성	성별		80	.425	.497	0	1	136	.382	.488	0	1
	학업성취도	국어	77	65.486	5.647	48.614	77.832	135	62.409	8.994	35.269	72.266
		영어	78	69.143	7.330	51.579	80.058	135	65.115	6.644	35.686	69.799
		수학	77	67.722	7.781	52.023	79.363	135	62.625	8.329	38.138	70.615
	수업 이해도	국어	80	4.760	.482	2.333	5	136	4.755	.381	3.333	5
		영어	80	4.846	.386	3	5	136	4.902	.269	3.667	5
		수학	80	4.819	.432	3	5	136	4.755	.487	2.333	5
	학업 자아개념		80	3.746	.689	1.733	5	136	4.231	.561	2.800	5
	고교 진학 계획	일반고	75	.213	.412	0	1	132	.167	.374	0	1
		특성화고	75	.040	.197	0	1	132	.015	.123	0	1
		특수목적고	75	.747	.438	0	1	132	.795	.405	0	1
		예체능고	75	0	0	0	0	132	.023	.150	0	1
	공부시간		76	1.609	.837	0	3.429	136	2.018	1.125	0	3.400
	시간관리		75	2.738	.562	1.333	4.000	136	3.152	.674	1	4.000
학교 특성	설립유형		80	.200	.403	0	1	136	.176	.383	0	1
	중학교 소재지	특별시	80	.250	.436	0	1	136	.265	.443	0	1
		대도시	80	.288	.455	0	1	136	.265	.443	0	1
		중소도시	80	.463	.502	0	1	136	.346	.477	0	1
		읍면지역	80	0	0	0	0	136	.125	.332	0	1
	교사 열의		76	3.638	.907	1	5	136	4.263	.707	1	5
	진학 및 진로지도		80	1.750	1.522	0	4	136	2.441	1.349	0	4

〈표 Ⅳ-5〉 특성화고 기술통계량(N=1,573)

구분			2005 코호트					2013 코호트				
			N	M	SD	Min	Max	N	M	SD	Min	Max
가정 특성	SES		424	-.485	.861	-4.630	2.123	1,149	-.625	.874	-3.292	2.389
	사교육참여		424	3.967	3.139	0	9	1,149	3.253	2.758	0	9
	부모의 교육기대		421	16.276	1.455	12	21	1,135	15.636	1.314	12	21
학생 특성	성별		424	.632	.483	0	1	1,149	.521	.500	0	1
	학업성취도	국어	419	56.686	5.227	48.614	68.646	1,137	49.192	8.791	35.269	72.266
		영어	417	57.289	4.293	51.579	80.058	1,135	46.311	7.736	35.686	69.799
		수학	419	56.381	3.749	52.023	68.279	1,137	46.111	7.427	38.138	70.615
	수업 이해도	국어	424	3.369	.808	1	5	1,149	3.417	.877	1	5
		영어	424	2.802	.966	1	5	1,149	2.888	1.074	1	5
		수학	424	2.939	.956	1	5	1,149	3.004	1.079	1	5
	학업 자아개념		424	2.917	.613	1.067	4.600	1,149	3.339	.693	1	5
	고교 진학 계획	일반고	389	.599	.491	0	1	1,075	.508	.500	0	1
		특성화고	389	.257	.438	0	1	1,075	.192	.394	0	1
		특수목적고	389	.075	.263	0	1	1,075	.066	.248	0	1
		예체능고	389	.069	.254	0	1	1,075	.234	.424	0	1
	공부시간		411	.544	.639	0	3.429	1,130	.930	.926	0	3.400
	시간관리		417	2.204	.517	1	4	1,133	2.395	.631	1	4
학교 특성	설립유형		424	.250	.434	0	1	1,137	.206	.404	0	1
	중학교 소재지	특별시	424	.113	.317	0	1	1,137	.166	.372	0	1
		대도시	424	.413	.493	0	1	1,137	.243	.429	0	1
		중소도시	424	.351	.478	0	1	1,137	.391	.488	0	1
		읍면지역	424	.123	.328	0	1	1,137	.200	.400	0	1
	교사 열의		412	3.443	.814	1	5	1,130	3.956	.740	1	5
	진학 및 진로지도		424	1.752	1.552	0	4	1,149	2.684	1.479	0	4

다음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확률 예측치를 살펴보았다. 다수의 학생들은 일반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고, 특성화고 진학은 약 14.7%, 특수목적고 진학은 약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른 조건이 평균수준일 때, SES 1단위 증가에 따라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 확률은 1.41%p만큼 증가하였다. 코호트를 구분해 보면, 2005 및 2013 코호트 각각 1.28%p, 1.51%p 증가하였다. 한편,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 확률은 9.67%p만큼 감소했는데, 2005 및 2013 코호트 각각 6.05%p, 11.62%p 감소하였다. 이상을 통해 지난 10년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특성화고 진학 확률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더욱이 10년 후 시점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1단위 증가가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약 2배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Ⅳ-1〉 SES에 따른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진학 선택 확률 변화

나. 분석 모형

본 연구는 다항 로짓(Multinomial Logit: MNL) 모형을 통해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유형별로 진학할 때, 그 확률은 개체별로 고유한(individual-specific) 특성에 의하며, 오차항들은 서로 독립이라는 제약을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승산은 특성화고와 무관하며,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승산은 특수목적고와 무관함을 의미한다. 또한, Wald 검정을 이용하여 각 독립변수들의 효과크기 및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은 명백한 순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순위가 없는 다항 모형을 이용해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1 : $\ln(\frac{P_J}{P_R}) = b_{J0} + b_{J1}(X_{J1})$

모형2 : $\ln(\frac{P_J}{P_R}) = b_{J0} + b_{J1}(X_{J1}) + b_{J2}(X_{J2})$

모형3 : $\ln(\frac{P_J}{P_R}) = b_{J0} + b_{J1}(X_{J1}) + b_{J2}(X_{J2}) + b_{J3}(X_{J3})$

모형4 : $\ln(\frac{P_J}{P_R}) = b_{J0} + b_{J1}(X_{J1}) + b_{J2}(X_{J2}) + b_{J3}(X_{J3}) + b_{J4}(X_{J4})$

X_{J1}는 코호트 및 SES, X_{J2}는 가정특성, X_{J3}는 학생 특성, X_{J4}는 학교 특성을 포함한다. 코호트는 2005 코호트=0, 2013 코호트=1인 더미변수이다. 기준범주(P_R)는 사례수가 가장 많은 일반고로 설정하고,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를 대비집단(P_J)으로 선택하여 상대적 위험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유형 선택은 3개 범주이므로 이하의 각 모형에서는 2개 집단 사이의 이항 로짓 추정 결과를 해석한다. 모형1에서 추정해야 할 미지수는 b_{J0}, b_{J1}이고, b_{J1}은 코호트 및 SES 차이에 따른 효과를 나타낸다. 모형2에서 추정한 b_{J2}은 가정특성이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친 영향력의 차이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모형3의 b_{J3} 및 모형4의 b_{J4}은 각각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차이를 유발한 학생 및 학교 특성을 추정한 값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들의 유의성 및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특히, 2005 및 2013 코호트를 통해 10년 전후 시점 간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결과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 정도, 코호트 차이 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분석은 근원적으로 고등학교 유형 변화에 따른 코호트 간 비교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고교 다양화 정책 이후의 데이터인 2013 코호트에 대하여 일반고를 기준범주로 하고,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대비집단으로 하여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4 분석 결과

가. 특수목적고 진학 영향 요인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계수($\hat{\beta}$) 및 지수화된 회귀계수($e^{\hat{\beta}}$)를 표시하였다. 지수화된 회귀계수는 설명변수 1단위 변화에 따라 기준범주인 일반고 대신에 특수목적고 또는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상대적 위험비(relative-risk ratio)의 변화를 의미한다(Cameron & Trivedi, 2010/2017: 663). 모형1을 통해 코호트 및 SES 변화에 따른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 확률을 분석하였다. 2005 대비 2013 코호트일 때 일반고 보다 특수목적고에 진학할 상대적 확률이 약 1.717배였다. 다시 말해서 10년 전과 비교하여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 가능성이 약 2배 증가해 코호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ES 1단위 증가에 따라 일반고 대신 특수목적고에 진학할 상대적 확률은 SES 변화 이전에 비해 약 3.201배 크다. 이처럼 특수목적고에 진학할 확률은 다른 조건들이 평균일 때 SES 평균(-0.0088058)에서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약 1.9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SES 1단위 변화에 따른 특수목적고 진학 확률의 한계효과가 1.92%p 증가해 지난 10년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에 있어 SES가 결정적인 변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난 10년 동안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녀들이 일반고 보다 특수목적고에 진학했

을 가능성이 컸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한편, 코호트와 SES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결국 10년 전후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에서 SES 영향력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코호트와 SES 상호작용 효과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에서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 등이 2010학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효과가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2008학년도 대비 2018학년도 특수목적고 진학자들의 SES 수준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보다 다양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매우 차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모형2는 모형1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의 가정특성을 추가한 모형으로서, 사교육 참여 정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정도가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기존 사교육비 지출 또는 사교육 참여 시간 등을 활용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상반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사교육 변수가 중학교 1~3학년 시기 국어·영어·수학 사교육 참여 여부 합계로 사용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중학교 3년간 사교육 참여 정도가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고 및 특수목적고 진학자 다수가 중학생 시기 사교육에 참여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66.4%였고, 이는 10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해 24.4% 증가한 수준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고교 유형별 진학의 상대적 확률에 대한 사교육 참여 정도의 유의성을 사교육비 또는 사교육 참여 시간 등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다른 조건이 평균수준일 때 SES 평균(-0.0076604)에서 1단위 증가하면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에 진학할 확률이 1.11%p 증가하였다. 또한, SES 1단위 증가에 따른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변화 이전에 비해 약 2.424배로서 여전히 SES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3월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모든 일반고에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 검토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는 일반고 학생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결과에 SES 영향력이 약 2.4~3.2배 수준으로 확인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정책 배경을 뒷받침한다. 한편,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은 1.470배로서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은 학생 특성을 추가한 모형이다.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일 때 특수목적고에 진학할 상대적 확률이 높았다. 학업성취도 및 수업 이해도는 영어 과목만 유의하였고, 국어와 수학은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과 관련하여 영어 학업성취도 1단위 증가에 따라 변화 이전 대비 약 1.082배, 영어 수업 이해도 1단위 증가에 따라 변화 이전 대비 약 3.968배의 상대적 확률을 보였다. 국어 및 수학과 상반되게 영어 학업성취도가 특수목적고 진학에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특수목적고 진학자 중 약 69%가 외국어고이고, 2018학년도 외국어고 및 국제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1단계 선발은 영어 내신성적과 출결점수만 반영되기 때문에 영어성적 우수자들이 다수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내신성적은 자유학기제를 제외한 중2 성취평가[28]수준과 중3 석차 9등급[29] 성적의 합산점수이다. 한편, 모형1~2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SES는 모형3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가정배경의 직접적 영향이 학업성취 등을 매개한 간접효과로 전이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모형3에서는 중학교 1학년 시기 고교 진학 계획이 결정적인 변수로 확인되었다. 중학교 1학년 시기 타 고교유형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을 계획했던 학생의 경우, 실제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 결과에 미치는 상대적 확률이 약 5.771배였다. 즉, 다른 변수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다른 고교유형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을 계획한 학생인 경우 일반고 보다는 특수목적고로 진학할 상대적 확률이 5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자의 행동적 특성에 해당하는 공부시간과 시간관리가 철저할수록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에 진학할 상대적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8) 성취평가: A등급(90% 이상), B등급(80%이상~90%미만), C등급(70%이상~80%미만), D등급(60%이상~70%미만), E등급(60% 미만) 등으로 산출되는 절대평가체제(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1.31.,일부개정)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29) 석차등급: 1등급(상위 4%이하), 2등급(상위 4%초과~11%이하), 3등급(상위 11%초과~23%이하), 4등급(23%초과~40%이하), 5등급(40%초과~60%이하), 6등급(60%초과~77%이하), 7등급(77%초과~89%이하), 8등급(89%초과~96%이하), 9등급(96%초과~100%이하)으로 산출되는 상대평가체제(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1.31.,일부개정)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표 Ⅳ-6〉 특수목적고 진학 영향 요인

구분			특수목적고(기준범주: 일반고)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상수			-4.332**	·	-11.726**	·	-22.569**	·	-23.133**	·
코호트 (기준: 2005)		2013	.541*	1.717	1.004**	2.730	.675*	1.965	.575+	1.777
가정 특성	SES		1.164**	3.201	.885*	2.424	.409	1.505	.451	1.570
	코호트*SES		-.214	.808	-.255	.775	-.257	.774	-.273	.761
	사교육참여		·	·	.061	1.063	-.021	.979	-.020	.980
	부모의 교육기대		·	·	.385**	1.470	.214**	1.239	.216**	1.241
학생 특성	성별 (기준: 여학생)	남학생	·	·	·	·	-.504*	.604	-.554*	.575
	학업 성취도	국어	·	·	·	·	-.020	.980	-.020	.980
		영어	·	·	·	·	.079**	1.082	.079**	1.082
		수학	·	·	·	·	.027	1.027	.028	1.029
	수업 이해도	국어	·	·	·	·	.386	1.471	.410	1.506
		영어	·	·	·	·	1.378**	3.968	1.368**	3.926
		수학	·	·	·	·	-.101	.904	-.095	.909
	학업 자아개념		·	·	·	·	-.086	.918	-.208	.812
	고교진학 계획 (기준: 일반고)	특성화고	·	·	·	·	.838	2.311	.842	2.321
		특수 목적고	·	·	·	·	1.753**	5.771	1.755**	5.785
		예체능고	·	·	·	·	.220	1.246	.192	1.212
	공부시간		·	·	·	·	.221+	1.247	.223+	1.250
	시간관리		·	·	·	·	.392*	1.480	.361+	1.435
학교 특성	설립유형 (기준: 국·공립)	사립	·	·	·	·	·	·	-.186	.830
	중학교 소재지 (기준: 특별시)	대도시	·	·	·	·	·	·	-.140	.869
		중소도시	·	·	·	·	·	·	-.076	.927
		읍면지역	·	·	·	·	·	·	-.087	.917

구분		특수목적고(기준범주: 일반고)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exp(b)	b	exp(b)	b	exp(b)	b	exp(b)
	교사 열의	·	·	·	·	·	·	.235	1.265
	진학 및 진로지도	·	·	·	·	·	·	.072	1.075
N		10,680		10,630		9,735		9,718	
-2LL		-4956.9497		-4531.1882		-3521.5658		-3478.2718	
Pseudo R^2		.0964		.1675		.2884		.2960	

+ p<.10, * p<.05, ** p<.01

모형4는 모형3에 학교 특성인 중학교 설립유형, 소재지, 교사 열의, 진학 및 진로지도 등을 포함한 모형인데 모든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제1차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2015~2020)을 통해 중·고등학교 진로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준의 진학 및 진로지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진학에서 교사 열의가 유의미한 변수임을 밝힌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 결과에서 교사 열의는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OECD(2018)는 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12.7명, 한국 14.7명으로 발표하였다. 교사 열의는 교사역량과 더불어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물리적 여건과도 크게 관련된다.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커버리지 측면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더욱 개선된다면 교사 열의는 중학생의 고교 유형별 진학에서 더욱 유의미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가정 및 학생 특성에 의한 부(-)적 영향 요인을 상쇄하고, 학생의 고교 유형별 진학 선택 기회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학교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교육 참여는 모형1~4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는데,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에서 사교육 참여 정도가 차별적 영향 요인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 선택에서 사교육 참여 정도가 유의한 음(-)의 영향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일반고 및 특수목적고 진학자들이 사교육에 다수 참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30]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2010년 도입된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 평가는 특수목적고 등이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을 금지하고, 학교별 필기고사 금지,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금지, 교내·외 각종 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등의 스펙 평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질문 등을 금지하여 사교육 유발 입학전형 요소를 배제하도록 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94). 지난 노무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및 학원비 안정화,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등 사교육 경감 정책, 나아가 고입전형 개선의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실효성은 미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에 미치는 가정 특성 변수는 학생 특성을 매개한 간접효과로 나타나며,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은 중1 시기 고교 진학 계획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판단된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10년 전후 공히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을 계획하고 선택함에 있어 공고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으며, SES 및 부모의 교육기대 등이 반영된 학생들의 고교 진학 계획은 실제 고등학교 진학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학생 특성 대비 학교 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이 특수목적고 진학에서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시 말해서 특수목적고 진학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적 교육기회에 따른 교육성과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사 및 학교 특성 영향력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평등한 학교 선택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학교 특성 중 재정요인을 포함한 추가적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중학교 재정 수준이 고교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단위학교별 재정 분석이 2010년 이후 시작되어 2005 코호트 자료의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적 제약이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 결산이 완료된 2016회계연도 자료인 2013 코호트 중2 시점의 당해 연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6회계연도 학교별 세출결산 자료를 통해 단위학교별 재정수준에 의한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해 본 결과, 단위학교 재정수준이 1단위 증가할수록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에 진학할 상대적 확률이 약 2.268배 높았다. 가정, 학생 및 학교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단위학교 재정수준 1단위 증가가 일반

3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6.12.20.)(법률 제14392호, 2016.12.20.,일부개정)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고 대신 특수목적고에 진학하는 상대적 확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형4에서 학교 특성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크게 대비되는 분석 결과이다.

지금까지 두 코호트 간 SES에 따른 중학생의 고교 유형별 진학 영향 요인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지난 10년 전후 고교 유형별 진학결과를 비교함에 있어 2013 코호트에만 존재하는 자율형 사립고 및 마이스터고 진학의 차별적 영향 요인을 분석하지 못한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2013 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 차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 확률 분석 결과를 함께 비교하였다. 2013 코호트 분석대상은 일반고 4,666명(74.0%), 특수목적고 136명(2.2%), 특성화고 1,149명(18.2%), 자율형 사립고 264명(4.2%), 마이스터고 89명(1.4%)을 포함한 총 6,304명이다. 이는 2018년 교육통계를 통해 확인한 고교 유형별 학생수 비중과 거의 유사한 분포임을 확인하였다(일반고 73.1%, 특수목적고 2.1%, 특성화고 18.9%, 자율형 사립고 3.0%, 마이스터고 1.4%). 2013 코호트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 진학 확률은 4.19%, 특수목적고 진학 확률은 2.16%로 예측되었다. 다른 조건이 평균수준일 때 SES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 진학 확률은 2.84%p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 확률 1.42%p 증가 보다 높았다. 모형A는 가정특성에 따른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 진학 확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SES 1단위 변화에 따른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할 상대적 확률이 약 2.215배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인 약 2.084배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SES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일반고 보다는 자율형 사립고로 진학할 확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나 최근 자율형 사립고 진학 열풍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다. 가정특성 변수들의 표준화계수를 보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모두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1이상의 값을 보였다. 모형B에서 보듯이 SES 외 가정특성 변수들이 포함되면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SES 영향력은 다소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사교육 참여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은 약 1.077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율형 사립고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들의 사교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에 사교육 참여 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주요 변수였던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 참여시간이 아닌 중학교 3년간 사교육 참여 정도가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 차이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표 Ⅳ-7〉 가정 특성에 따른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진학 확률

구분		모형A				모형B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상수		-3.790**		-3.168**		-10.556**		-6.133**	
가정 특성	SES	.734**	2.084	.795**	2.215	.396**	1.486	.633**	1.883
	사교육 참여					.044	1.045	.074*	1.077
	부모의 교육기대					.381**	1.464	.153**	1.165
N		6,304				6,267			
-2LL		-4728.697				-4403.9242			
Pseudo R^2		.0725				.1310			

+ p〈.10, * p〈.05, ** p〈.01, 기준범주(일반고)

모형C는 학생 특성을 추가한 모형으로,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 진학에서 SES가 여전히 유의했던 반면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 상대적 확률에서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SES 1단위 증가에 따라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은 약 1.482배 높았다. 한편, 성별은 특수목적고 진학에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자율형 사립고 진학에서는 매우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여학생 보다 남학생일 때 약 2.703배 높았다. 영어 학업성취도 1단위 증가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에 약 1.094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수학 학업성취도 1단위 증가는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 진학 확률에 약 1.038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진학자의 과목별 학업성취도 차이가 확인되었다. 영어 수업 이해도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을 약 5.617배로 크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율형 사립고 진학에서 과목별 수업 이해도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학업 자아개념은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진학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니었다. 중학교 1학년 시기 특수목적고 진학을 계획한 학생들이

실제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에 진학하는 상대적 확률은 약 5.420배, 자율형 사립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은 약 3.253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교 진학 계획은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진학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확인되었다.

〈표 Ⅳ-8〉 학생 및 학교 특성에 따른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진학 확률

구분			모형C				모형D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상수			-22.134**		-10.092**		-42.357**		-20.326**	
가정 특성	SES		-.052	.949	.393**	1.482	-.109	0.897	.220*	1.246
	사교육 참여		-.065	.938	.020	1.020	-.058	0.944	-.009	.991
	부모의 교육기대		.226**	1.254	.009	1.009	.224**	1.252	.007	1.007
학생 특성	성별 (기준: 여학생)	남학생	-.290	.748	.994**	2.703	-.357+	0.700	1.178**	3.249
	학업 성취도	국어	-.018	.982	.004	1.004	-.014	0.986	.016	1.016
		영어	.090**	1.094	.016	1.016	.089**	1.093	.003	1.003
		수학	.015	1.015	.037**	1.038	.015	1.015	.033**	1.033
	수업 이해도	국어	.019	1.020	.234	1.263	.023	1.024	.302+	1.353
		영어	1.726**	5.617	.109	1.116	1.741**	5.702	.196	1.217
		수학	-.282	.754	-.031	.969	-.287	0.751	.003	1.003
	학업 자아개념		-.004	.996	.103	1.109	-.082	0.922	.039	1.040
	고교진학 계획 (기준: 일반고)	특성화고	.535	1.707	.538	1.712	.501	1.650	.375	1.455
		특수 목적고	1.690**	5.420	1.179**	3.253	1.690**	5.421	1.002**	2.725
		예체능고	.276	1.318	.982**	2.669	.216	1.241	.921**	2.511
	공부시간		.141	1.151	.035	1.035	.151	1.163	.033	1.034
	시간관리		.667**	1.949	.196	1.216	.632**	1.880	.270*	1.310
학교 특성	설립유형 (기준: 국·공립)	사립					-.984*	0.374	.446+	1.563
	중학교 소재지 (기준: 특별시)	대도시					.006	1.006	-1.089**	.336
		중소도시					.123	1.131	-1.189**	.304
		읍면지역					.448	1.566	-2.730**	.065
	교사 열의						.161	1.175	-.129	.879
	진학 및 진로지도						.073	1.076	.044	1.045
	로그세출결산액						.914**	2.494	.518*	1.679

구분	모형C				모형D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b	exp(b)	b	exp(b)	b	exp(b)	b	exp(b)
N	5,804				5,789			
-2LL	-3552.8496				-3439.0668			
Pseudo R^2	.2457				.2685			

+ p<.10, * p<.05, ** p<.01, 기준범주(일반고)

모형D는 모형C에서 학교 특성을 추가한 모형이다. 국·공립 대비 사립 중학교 졸업자일 때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이 약 1.563배 높은 반면 학교소재지가 특별시 대비 그 외 소재지일 때 진학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교육통계 기준 자율형 사립고 43개교 중 서울소재 자율형 사립고는 23개교로 전체의 약 53.5%를 차지한다. 따라서 중학교 소재지가 특별시일 때 타 지역과 비교해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 진학 확률이 높다는 점은 자율형 사립고 진학에서 지역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교사 열의, 진학 및 진로지도는 유의한 수준의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중학교 2학년 시점의 단위학교별 세출결산액은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에 약 1.679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나. 특성화고 진학 영향 요인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 결과에 유의한 설명변수들을 검토하였다. 상대적 위험비로 변환된 코호트 계수 추정치를 보면, 모형1~2에서 각각 약 2.130배, 약 1.486배로 나타나 2005 대비 2013 코호트 중학생들이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에 진학할 상대적 확률이 높았다. 또한, 모형1~4에서 SES 표준화계수는 일관되게 1미만의 값으로 나타났다. 가정, 학생 및 학교 특성이 모두 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ES 1단위 증가에 따라 일반고 대신 특성화고에 진학할 상대적 확률이 SES 변화 이전 수준에 비해 각각 약 0.410배, 약 0.614배, 약 0.586배, 약 0.561배로 일정하게 감소하였다. 즉, 다른 조건이 평균수준일 때 SES 증가에 따른 특성화고 진학 확률은 모형1~4에서 9.55%p, 4.24%p, 3.65%p, 3.83%p 낮아져 특성화고 진학을 유의하게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지난 10년 동안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의 자녀들이 일반고 보다는 특성화고로 진학했을 가능성

을 추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득격차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접근을 저해하는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조가 확인되는 지점이다. 한편, 코호트와 SES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10년 전후 일관되게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일 때 일반고 보다 특성화고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향이 지난 10년간 유지되었음을 말해준다. “교육의 평등 개념이 산출의 평등까지 이르게 되면 교육의 평등은 곧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재윤, 2002: 9; 김용일, 2010: 214 재인용). 고교 유형별 진학 또한 일종의 교육 산출물이다. 즉, 소득수준에 따른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은 교육 불평등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질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었음을 반증하는 결과일 수 있다.

모형2~4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가정특성 변수들의 계수 및 상대적 위험비로 변환된 계수 추정치는 모두 1미만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및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 1단위 변화에 따라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로 진학할 상대적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등의 형태로 자녀의 특성화고 진학에 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교적 소득이 높은 집단에게 기회비용은 사소한 것인데 반하여, 소득이 낮은 집단에게 교육의 기회비용은 종종 엄청나게 큰 것이다”(O'Donnell, Margaret G, 1985/2002: 102). 이는 당시 아동이 벌어오는 수입과 교육의 기회비용을 언급한 것이지만,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서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특성화고로 진학할 확률이 높다는 본 연구결과와 관련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특성화고 진학을 선택한 것이고, 특성화고 외의 고교 유형에 진학하기 위해 큰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손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형3에 포함된 학생 특성 중 성별은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분석 결과와 반대로 남학생일 때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 가능성이 약 1.178배 높았다. 한편, 학업성취도는 국어와 수학이 유의하게 1미만의 표준화 계수를 나타냈고, 국어·영어·수학 수업 이해도 또한 모두 1보다 낮았다. 결국 학업수준 차이를 의미하는 학업성취도 및 수업 이해도 1단위 증가에 따라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유의한 수준으로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처럼 SES 및 학업성취도 요인에 따라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 확률이 음(-)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 상대적으로 특성화고 진학이 소득수준 및 성적에 따라 차별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시기 다른 고교유형 대비 특성화고 진학을 계획한 학생일 때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로 진학할 상대적 확률이 약 2.663배 높았다. 이처럼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고교 진학 계획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확인되었다.

모형4에 포함된 학교 특성 중 설립유형, 소재지, 교사 열의, 진학 및 진로지도 모두 특성화고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공립 대비 사립 중학교 졸업자일 때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에 진학할 상대적 확률이 약 1.355배 높았다. 중학교 소재지가 특별시 대비 대도시일 때 특성화고 진학 확률을 높이는 반면,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일 때 특성화고 진학 확률이 낮아졌다. 다른 조건이 평균수준일 때 교사 열의 1단위 증가에 따라 특성화고 진학이 약 1.107배 증가했고, 진학 및 진로지도 1단위 증가는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에 약 1.047배의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학업 자아개념 1단위 증가는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을 약 0.852배 낮추는 요인이었다. 즉, 학업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특성화고 보다는 일반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조건들이 평균일 때 공부시간 증가는 특성화고 진학 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업 자아개념이 낮고 시간관리가 미흡한 등 자기주도학습 행동특성이 음(-)인 경우, 일반고 보다는 특성화고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9〉 특성화고 진학 영향 요인

구분			특성화고(기준범주: 일반고)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상수			-2.437**	·	5.726**	·	8.492**	·	8.485**	·
코호트 (기준: 2005)		2013	.802**	2.230	.438**	1.549	.151	1.162	.138	1.148
가정 특성	SES		-.890**	.410	-.488**	.614	-.535**	.586	-.578**	.561
	코호트*SES		.037	1.038	.001	1.001	.126	1.135	.152	1.164
	사교육참여		·	·	-.169**	.845	-.071**	.932	-.071**	.931
	부모의 교육기대		·	·	-.433**	.649	-.272**	.762	-.276**	.759

구분			특성화고(기준범주: 일반고)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exp(b)	b	exp(b)	b	exp(b)	b	exp(b)
학생 특성	성별 (기준: 여학생)	남학생	·	·	·	·	.164+	1.178	.149+	1.161
	학업 성취도	국어	·	·	·	·	-.017*	.983	-.018**	.982
		영어	·	·	·	·	-.006	.994	-.008	.992
		수학	·	·	·	·	-.040**	.961	-.040**	.960
	수업 이해도	국어	·	·	·	·	-.139+	.870	-.135+	.873
		영어	·	·	·	·	-.302**	.739	-.317**	.729
		수학	·	·	·	·	-.180**	.835	-.171**	.842
	학업 자아개념		·	·	·	·	-.100	.905	-.160+	.852
	고교진학 계획 (기준: 일반고)	특성화고	·	·	·	·	.979**	2.663	.969**	2.636
		특수 목적고	·	·	·	·	.064	1.066	.081	1.085
		예체능고	·	·	·	·	.334**	1.397	.315*	1.370
	공부시간		·	·	·	·	-.083	.921	-.092+	.912
	시간관리		·	·	·	·	.040	1.041	.035	1.036
학교 특성	설립유형 (기준: 국·공립)	사립	·	·	·	·	·	·	.304**	1.355
	중학교 소재지 (기준: 특별시)	대도시	·	·	·	·	·	·	.253+	1.288
		중소도시	·	·	·	·	·	·	-.256+	.774
		읍면지역	·	·	·	·	·	·	-.268+	.765
	교사 열의		·	·	·	·	·	·	.102+	1.107
	진학 및 진로지도		·	·	0	·	·	·	.046+	1.047
N			10,680		10,630		9,735		9,718	
-2LL			-4956.9497		-4531.1882		-3521.5658		-3478.2718	
Pseudo R^2			.0964		.1675		.2884		.2960	

+ p<.10, * p<.05, ** p<.01

이상의 분석을 통해 지난 10년 전후 공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로 진학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교육부가 발표한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은 이러한 음(-)의 영향 요인에 따라

중학생의 고교 유형별 진학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 및 수업 이해도, 학업 자아개념 등 학생 특성 추정계수가 음(-)의 값이고 동시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 참여 정도,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 등이 음(-)의 값을 가진 중학생들은 일반고 보다는 특성화고로 진학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13 코호트 자료를 통한 일반고 대비 마이스터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 차이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 확률을 함께 제시하였다. 다만, 2013 코호트의 마이스터고 샘플 수에 따른 독립변수 투입 제약에 따라 SES 등의 가정특성에 따른 진학 확률 차이만을 분석하였다. 2013 코호트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마이스터고 진학 확률은 1.14%, 특성화고 진학 확률은 18.2%로 예측되었다. 다른 조건이 평균수준일 때 SES 1단위 증가에 따라 일반고 대비 마이스터고 진학 확률은 0.60%p,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 확률은 11.24%p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학에서 가정특성 변수들의 표준화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1미만의 값을 나타냈다. SES 1단위 증가에 따른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은 0.444배였고, 일반고 대비 마이스터고 진학 상대적 확률은 0.589배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모형B에서는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학에서 SES 영향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교육 참여 및 부모의 교육기대에 따른 유의한 부적 영향 요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표 Ⅳ-10〉 가정특성에 따른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학 확률

구분		모형A				모형B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상수		-1.633**		-4.048**		6.856**		3.448*	
가정 특성	SES	-.811**	.444	-.529**	.589	-.463**	.630	-.266*	.767
	사교육 참여					-.179**	.836	-.104*	.901
	부모의 교육기대					-.473**	.623	-.429**	.651
N		6,304				6,267			
-2LL		-4728.697				-4403.9242			
Pseudo R^2		.0725				.1310			

+ p<.10, * p<.05, ** p<.01, 기준범주(일반고)

5 요약 및 논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와 비교하여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진학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 전후 시점 모두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되게 높았다. 다른 조건들이 평균수준일 때,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에 진학할 상대적 확률이 약 1.41%p 증가했다. 또한, 2005 대비 2013 코호트일 때 특수목적고에 진학할 상대적 확률이 약 2배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 전후 시점 동일하게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특수목적고에 진학했고, 10년 전과 비교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1단위 증가가 특수목적고 진학 확률에 미치는 양(+)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에 진학할 확률은 다른 조건들이 평균일 때,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1단위 변화에 따라 2005 코호트 약 6.05%p, 2013 코호트 약 11.62%p 감소했다. 결국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학생들이 일반고 보다는 특성화고로 진학했고, 2005 대비 2013 코호트 학생의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 상대적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지난 10년 전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고교 유형별 진학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되게 컸고, 특히, 10년 전과 비교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1단위 증가가 특성화고 진학 상대적 확률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학생의 고교 진학 계획은 고교 유형별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확인되었다. 중학교 1학년 시기 다른 고교유형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을 계획하였던 학생이 실제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에 진학할 확률이 약 5.8배 높았다. 또한, 특성화고 진학을 계획한 학생이 실제 일반고 보다 특성화고로 진학할 확률은 약 2.7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 등 가정배경의 직접적 영향력이 학생 특성인 고교 진학 계획에 매개되어 고교 유형별 진학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특수목적고 진학을 계획한 학생의 실제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

고 진학 확률에 약 6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중학생의 고교 유형별 진학 기회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매우 차별적일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셋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고교 진학 계획 외에도 가정 및 학생 특성 요인 중 부모의 교육기대, 영어 학업성취도 및 수업 이해도, 공부시간, 시간관리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교육 참여, 부모의 교육기대, 학업성취도, 수업 이해도, 학업 자아개념, 공부시간은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참여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사교육 참여 정도 1단위 증가에 따라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로 진학할 확률은 일관되게 낮아졌다. 사교육 참여 정도는 일반고 및 특수목적고 진학에 차별적 영향 요인이 아니지만,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에는 유의한 음(-)의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가정 및 학생 특성 추정값이 양(+)일 때 일반고 보다 특수목적고에 진학할 상대적 확률이 높고, 반면 음(-)일 때에는 일반고 보다 특성화고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결과의 차이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정치하게 종속된 결과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과 관련하여 학교 특성 변수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에서 학교 특성 변수들 모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교사 열의, 진학 및 진로지도는 특성화고 진학 가능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또한, 학업 자아개념, 공부시간 등 자기주도 학습특성이 낮을 때 일반고 보다 특성화고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은 가정 및 학생 특성의 부적(-) 영향과 학교 특성의 정적(+)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교 특성이 가정 및 학생 특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을 상쇄하고 평등한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제한적 수준이지만 2013 코호트에 한해 중학교 2학년 시점의 단위학교별 재정수준을 분석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단위학교의 재정수준 1단위 증가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에 진학할 상대적 확률을 약 2.494배 증가시키는 매우 유의미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2013 코호트의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 진학의 상대적 확률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른 조건이 평균수준일 때 SES 1단위 증가에 따라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 진학

확률은 약 2.84%p 증가했고, 상대적 확률은 약 2.215배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 확률 약 1.42%p 및 상대적 확률 약 2.084배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서 2013 코호트 중학생의 경우,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 진학에 미치는 SES 영향 정도가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에 미치는 SES 영향력 보다 컸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V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2. 정책적 제언

V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최근 학생들은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갈등과 혼란을 겪는 사춘기의 시기도 점차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중학생의 성장·발달 상황이 지난 10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현 문재인 정부로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면서 중학교 교육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한편, 한국 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정배경이나 학교 교육활동들이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상급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2005 코호트 중학교 1~3학년(2005~2007년) 및 2013 코호트 중학교 1~3학년(2015~2017년) 시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10년 사이에 추진되어온 다양한 교육정책의 변화 속에서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교육정책의 변화 속에서 대표적인 가정배경 변수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도 이에 영향을 미친 학생 및 학교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가정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학업성취도 격차와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 전반에 대한 10년 사이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학교생활과 경험, 인지적 성취와 학습, 정의적 특성과 진로 등 네 영역으로 나누어 10년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은 물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버지의 교육수준, 학생 성별, 거주 지역의 지역규모 등 학생 개인 특성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영역 중 부모의 학업적·정서적 지원은 10년 전에 비해 더 높아졌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정도도 높았다. 사교육 참여 시간은 국어·영어·수학 교과 모두 10년 전에 비해 더 줄었지만 사교육 참여 비용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사교육을 많이 받던 10년 전과는 달리 중학교 1학년부터 꾸준히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평균 교육비도 사교육 비용과 마찬가지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높았는데,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비용 및 월평균 교육비가 높은 경향이 10년 전보다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용 조사에 있어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해석시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 모두 10년 전과 비교하여 높아졌지만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10년 전과 달리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생활과 경험 영역 중 수업 이해도는 국어·영어·수학 교과 모두 10년 전에 비해 높아졌으며, 수업 분위기 또한 학생들이 더욱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교사의 성취압력은 2학년 시기에 주춤했다가 3학년 때 다시 증가하는 브이형 모양이었던 10년 전과는 달리 2013 코호트에서는 오히려 2학년 시기에 다소 증가했다가 3학년 때 다시 감소하는 역브이형태였다. 학생이 느끼는 교사의 열정 및 지식은 10년 전과는 달리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내 폭력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조금 줄어들었으나 학년에 따라 증가하는 패턴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또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내 폭력 정도에 대해 더 높게 응답하였으나, 2013 코호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은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확대되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비율로 참여했던 과거와는 달리 2013 코호트에서는 그러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월간 독서량과 독서 향유 정도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인지적 성취와 학습 영역 중 낮을수록 더 좋은 외적 조절동기, 부과된 조절동기, 무동기

는 10년 전에 비해 그 정도가 낮아졌고, 확인된 조절동기와 내재적 조절동기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10년 전과 비슷하거나 줄어들었다. 학습목표지향성 중 하나인 숙달접근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높아졌으나, 수행접근은 더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와 더불어 학생들은 인지조절 전략인 시연, 정교화, 조직화, 초인지를 10년 전보다 더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10년 전에 비해 행동조절 전략 또한 잘 활용하고 있었다. 노력조절은 물론이고 시간 및 공간관리 정도가 증가하고, 교사나 친구들의 도움을 더 잘 받고 있었으며, 학습활동을 위해 주변 정보를 활용하는 자원 활용 정도 또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자기효능감도 국어·영어·수학 모두 10년 전보다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중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적 특성들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정도도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학생들은 10년 전에 비해 협동학습을 더 선호하고, 경쟁학습은 덜 선호하였다. 10년 전에는 모든 학년에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이 협동학습을 선호하는 추세가 명확했었으나, 2013 코호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의적 특성과 진로 영역 중 시험 스트레스는 10년 전보다 조금 낮아지고, 자아개념은 가족, 사회, 신체, 학업 모두 10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학생의 교육포부와 학부모의 교육 기대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까지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가 가장 많았지만, 10년 사이에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까지의 진학을 원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대학원 석사 및 박사까지의 진학을 원하는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진학 계획은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 10년 전과 비교하여 새롭게 생겨난 학교의 유형들이 있어 두 코호트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다만,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일반계고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특성화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Ⅲ장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cohort×SES)은 10년 전에 비해 더욱 커졌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어·수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bcohort×SES)

도 10년 전후 간 차이를 보였지만, 모형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별 특성에 의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어·영어·수학 성취도의 성장률에 대한 코호트 간 차이(cohort×year×SES)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수학 성취도의 성장률(year×SES)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국어와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학 성취도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및 학교 배경 요인 중 부모의 교육기대는 국어·영어·수학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의 경우 읍면지역에서 특별시 또는 중소도시로 이동한 경우 국어 성취도가 낮아졌고, 대도시는 읍면지역에 비해 국어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읍면지역에 비해 특별시와 대도시는 영어 성취도가 높았다.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에 비해 국어·영어·수학 성취도가 일관되게 높았으며, 남녀공학에서 여학교로 이동한 경우 국어 성취도가 높았다.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전학 등의 이유로 늘어나는 경우 영어와 수학 성취도는 낮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국어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 및 학교 과정 요인 중 학생의 학업 자아개념과 독서 향유 정도는 국어 성취도에, 시험 스트레스는 국어·영어·수학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시간(자기주도학습시간)은 수학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학 성취도는 국어와 영어에 비해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의 수업 이해도와 교사 열의는 국어·영어·수학 성취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교사 성취압력은 국어 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Ⅳ장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10년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반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의 자녀들은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10년간 유지되었다.

중학생의 고교 진학 계획은 실제 고교 유형별 진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수로 확인되었다. 중학교 1학년 시기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 진학을 계획한 학생이 실제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로 진학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기대 등 가정배경의 직접적 영향력이 학생 특성인 고교 진학 계획에 매개되어 고교 유형별 진학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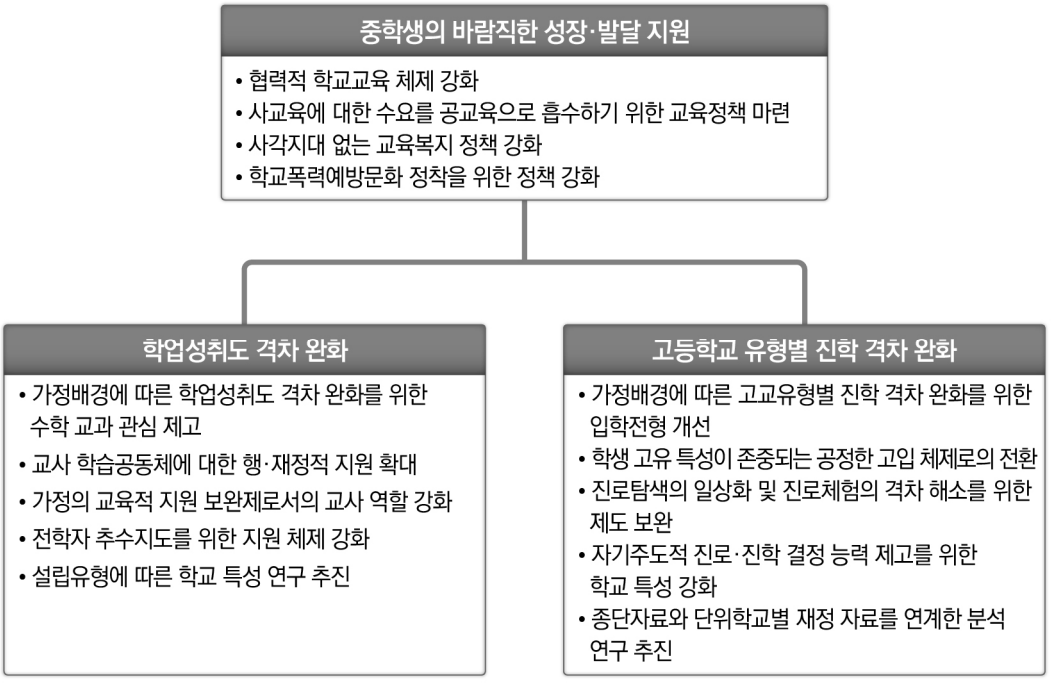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고교 진학 계획 외에도 가정 및 학생 특성 요인 중 부모의 교육기대, 영어 학업성취도 및 수업 이해도, 공부시간, 시간관리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교육 참여, 부모의 교육기대, 학업성취도, 수업 이해도, 학업 자아개념, 공부시간은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참여 정도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 확률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학교 특성 요인 중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교사 열의, 진학 및 진로지도가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열의, 진학 및 진로지도와 같은 학교 특성이 가정 및 학생 특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을 상쇄하고 평등한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2013 코호트에 한하여 중학교 2학년 시점 학교재정 변수를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단위학교의 재정수준 증가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 확률을 증가시키는 매우 유의미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변화된 2013 코호트의 고교유형을 고려한 추가분석 결과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지난 10년 사이에 추진되어온 다양한 교육정책의 변화 속에서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가정배경 변수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가정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학업성취도 격차와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V-1] 중학생의 바람직한 성장·발달 지원 및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 모형

위의 그림은 가정에서의 교육경험과 지원, 학교생활과 경험, 학생의 인지적 성취와 학습, 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진로 등 교육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중학생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학교가 통제할 수 없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물론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결과에도 격차를 유발하고 있는바, 가정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학업성취도 격차와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및 학교 차원의 교육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먼저, 중학생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학교교육 체제 강화,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한 교육정책 마련,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정책 강화, 학교폭력예방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가정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완화하고,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 완화를 위한 수학 교과 관심 제고, 교사 학습공동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가정의 교육적 지원 보완제로서의 교사 역할 강화, 전학자 추수지도를 위한 지원 체제 강화, 설립유형에 따른 학교 특성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격차 완화를 통해 평등한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바람직한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정배경에 따른 고교유형별 진학 격차 완화를 위한 입학전형 개선, 학생 고유 특성이 존중되는 공정한 고입 체제로의 전환, 진로탐색의 일상화 및 진로체험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결정 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 특성 강화, 종단자료와 단위학교별 재정 자료를 연계한 분석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

가. 중학생의 바람직한 성장·발달 지원

중학생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방안(1) : 협력적 학교교육 체제 강화

학교교육의 원리를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하여 이에 기초한 학교교육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05 코호트(2005~2007년)와 2013 코호트(2015~2017년)를 활용하여 중학교 시기 학생들의 학습양식을 비교하여 본 결과, 현재의 중학생들은 10년 전 학생들에

비해 경쟁적 학습태도가 줄고 협력적 학습태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범 운영 시기를 거쳐 2016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은 진로탐색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을 참여 활동형 프로그램으로 확대 강화하고, 토론, 실험, 실습, 현장 체험, 프로젝트 학습 등의 교수학습 방법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중간·기말고사는 실시하지 않고 과정중심의 평가를 시행하는 등 학교 교육방법을 혁신하는 프로그램이다(교육부, 2013.5.28.).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의 교수-학습 내용, 방법, 평가의 큰 틀에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경쟁적 학교교육 체제를 협력적 학교교육 체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에서도 협력적 학습태도는 중학생들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고르게 우수한 교육성과를 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임이 밝혀진바 있다(남궁지영 외, 2017). 이는 협력에 기초한 학교교육 체제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교육활동, 교육평가 전반을 통해 협력적 학습이 체화될 수 있도록 협력적 학교교육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정책 방안(2) :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한 교육정책 마련

공교육이 사교육 시장의 장점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사교육이 교육격차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막고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김진영, 2011; 여영기·엄문영, 2015).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 양상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사교육을 많이 받았던 10년 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사교육에 노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지역규모에 따른 사교육 참여 시간 및 비용의 격차가 10년 전에 비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면서 자본력을 확보한 기업화된 사교육 학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업화된 사교육 학원은 타 학원과 차별화된 고유한 콘텐츠의 개발, 강사 관리, 전문적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 사교육 시장을 확장해 나갔다(여영기·엄문

영, 2015).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은 사교육을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시기에 사교육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방과후학교 정책은 사교육의 장점을 공교육으로 흡수한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의 교육정책이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사교육 시장은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체계적·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통해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왔다. 반면, 학교교육 체제는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정책에 탄력적이지 못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필요를 적절히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수요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사교육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여영기·엄문영, 2015). 앞으로의 공교육은 사교육 시장과 같이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탄력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학교별·지역별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인 동시에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정책 방안(3) :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정책 강화

지역 및 가정배경에 따른 격차가 학생들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누적되고 심화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복지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학부모의 비율이 줄고 대졸 이상 학부모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학부모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열도 높아져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업적·정서적 지원은 물론 사교육과 같은 물질적 지원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적 특성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즉, 학습동기 중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외재적 조절동기, 부과된 조절동기, 무동기가 10년 전에 비해 더 낮아지고, 국어·영어·수학 교과에 대한 자기효능감, 수업 이해도 등의 수준은 10년 전에 비해 더 높게 향상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녀에 대한 지원 수준과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적 수준은 더 높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10년 전과

유사하게 유지되거나 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이 낮은 집단의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하위 집단과 상위 집단 간 격차는 과거 그대로 유지되거나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읍면지역과 도시지역 간 격차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강화해 나가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후 교육복지 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 학생, 농산어촌 학생, 도시 저소득층 학생, 위기 학생, 장애 학생 등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단까지 확대 보완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장덕호 외, 2012).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도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등을 국정과제로 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 등 가정배경이 낮은 학생이나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강화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를 포괄하는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책 방안(4) : 학교폭력예방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강화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친화적 학교풍토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예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 학생들이 학교 내 폭력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10년 전과는 달리 학교 내 폭력에 대한 인식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4년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4.1.29.)'과 시행령(2004.7.30.)을 제정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고, 2005년 이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여 오고 있다(박효정·정미경·박종효, 2006: 3; 교육과학기술부, 2010.1.13.; 국무조정실·교육부, 2014.12.22.). 그리고 교육부는 2013년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2013.07.23.)을 통해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적용과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운영 등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과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박효정, 2015: iii). 무엇보다도 어울림 프로그램이나 어깨동무 프로그램 등과 같은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들은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며, 교사와 학생 간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바 있다(박효정 외, 2016: 183~184). 본 연구 결과, 10년 전에 비해 학교 내 폭력 정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다는 것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실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동아리활동도 10년 전에 비해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아리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0년 전 약 40%에서 50%p 가량 증가한 것이다.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이나 또래조정, 또래상담, 자치법정 등과 같은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 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여 친밀감을 형성하며, 문제발생시 학생 스스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박효정 외, 2016: 182). 이러한 선행연구로 미루어볼 때, 10년 전 대비 동아리활동 경험의 증가 또한 중학생의 학교폭력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년 전에 비해 학생들의 학교 내 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낮아졌으나, 10년 전과는 달리 학교 내 폭력에 대한 인식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패턴이 새롭게 보이고 있으므로, 동아리활동은 물론 학생자치활동, 체육·예술활동과 같이 학생 간 친화적인 학교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나. 학업성취도 격차 완화

가정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완화하고,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방안(1) :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 완화를 위한 수학 교과 관심 제고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수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학생의 경우 수학 성취도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학교와 학원(과외)의 수업 및 숙제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조사된 공부시간 즉,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늘어날수록 수학 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어와 영어 성취도의 경우 학년이 높아짐에 따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고 자기주도학습의 효과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의 경우 중학교 입학 전까지 축적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중학교 과정을 통해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국어와 영어의 경우 언어 능력이 계층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는 Rousseau(1755: 57)와 Bernstein(1971: 45-51)의 지적(박경호 외, 2017: 21 재인용)을 다시금 주목하게 한다.

정책 방안(2) : 교사 학습공동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학생의 수업 이해도와 교사의 열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사 학습공동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국어·영어·수학에 대한 수업 이해도는 각 교과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변수이면서 일관되게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신다' 등으로 조사된 교사 열의 역시 국어·영어·수학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교사 공동체가 수업 개선, 학생의 학습 증진, 교사 전문성 개발 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와 교사 열의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박영숙 외, 2016: 21-22).

정책 방안(3) : 가정의 교육적 지원 보완제로서의 교사 역할 강화

가정에서 학업에 대한 강조가 부족한 학생의 경우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수준(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으로 파악한 부모의 교육기대가 높을수록 국어·영어·수학 성취도가 일관되게 높았다. 그리고 시험 스트레스 역시 국어·영어·수학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삶에서 성공적인 학생 주변에는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한두 명의 성인이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높은 도덕적 기준과 학업적 포부를 갖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관점과 연계할 때 교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Eggen & Kauchak, 2006: 201).

정책 방안(4) : 전학자 추수지도를 위한 지원 체제 강화

중학교에서는 전학이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학으로 인한 미이수 과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수지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소재지가 읍면지역에서 특별시 또는 중소도시로 변경된 경우 국어 성취도가 낮아지는 것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전학 등의 이유로 늘어난 경우 영어와 수학 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녀공학에서 여학교로 변경된 경우에는 국어 성취도가 향상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2병, 질풍노도의 시기 등으로 일컬어지는 중학생 때 교우관계, 주변 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는 학업에 몰입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학으로 인해 학교 간 교육과정이 달라 이수하지 못하거나,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을 통해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31].

31) 온라인학습(http://ms.onlineschool.or.kr/main.do, 검색일: 2018년 10월 26일)

정책 방안(5) : 설립유형에 따른 학교 특성 연구 추진

중학생의 경우,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학업성취도의 일관된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설립유형에 따른 학교 특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학생은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학생에 비해 국어·영어·수학 성취도가 일관되게 높았다. 본 연구가 중1부터 중3까지 2005 코호트(2005년~2007년)와 2013 코호트(2015년~2017년)를 활용한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학업성취도 차이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교수-학습 활동, 학교의 구조, 학교의 구성원, 학교의 문화와 풍토, 학교의 권력과 정치, 학교의 외부 환경 등이 설립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같은 다양한 연구가 기대된다(Hoy & Miskel, 2008).

다.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격차 완화

가정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중학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차이 완화를 통해 평등한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바람직한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방안(1) : 가정배경에 따른 고교유형별 진학 격차 완화를 위한 입학전형 개선

지난 10년 전후 일관되게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자녀들은 일반고 보다 특수목적고 진학 확률이 높았고, 반대의 경우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0년부터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토록 하였고, 대입전형에서는 기회균형 선발, 고른기회 특별전형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추진된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다. 더욱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선발 의무화, 블라인드 채용 확산 등 노동시장 이행 단계에서의

격차 해소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 학벌주의에 대해 약 80%가 부정적 전망을 나타냈고, 특히,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학부모들이 한국사회 학벌체제 개선에 더욱 비관적이었다(임소현 외, 2017). 2016~2019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선발 비율이 70.5%, 74.0%, 76.2%로 점차 커져 부모의 정보 및 전략 등에 따라 대입의 공정한 기회가 매우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격차를 유발하는 가정배경 영향력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입 및 대입 전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책 방안(2) : 학생 고유 특성이 존중되는 공정한 고입 체제로의 전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경제, 문화, 사회자본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 특성에 매개되어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 확률은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유의하였던 반면 학교 특성 요인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 확률은 학업 자아개념이 낮고 시간관리가 미흡한 등의 자기주도학습 행동 특성이 낮을 때 높은 반면, 학교 특성 요인들은 모두 정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상반된 특성을 보였지만 이러한 차이가 가정배경에 매개된 학생 특성에 따른 결과임을 견지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비교적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이 특성화고로 진학할 확률이 높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특성화고에 진학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가 전체의 손실일 수 있다. 따라서 고입경쟁 체제는 학생 고유 특성이 존중되는 공정한 학교선택 과정이어야 한다. 가정배경의 영향이 최소화되는 동시에 학생이 주체가 되고, 자기주도적인 진로결정권이 보장되는 고입 경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 고유 특성을 존중하는 진로·진학지도와 함께 가정배경의 차별적 영향력을 상쇄하는 공정한 고입 체제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 나아가 대학입학 고른기회전형 등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른 중학생의 고교 유형별 진학 격차가 확인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읍면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

접근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물리적 교육여건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방안(3) : 진로탐색의 일상화 및 진로체험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중학교 시기의 고교 진학 계획은 고교 유형별 진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시기 다른 고교유형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을 계획한 학생이 실제 일반고 보다 특수목적고 진학 확률이 약 6배, 특성화고 경우에는 약 3배 높았다. 한편, 다른 고교유형과 달리 특성화고 진학에 교사 열의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어 가정배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전환기 학생들에게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이 더욱 결정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1차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 진로교육법 제정,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2017년 진로교육 세부시행계획 등 진로교육이 정부의 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 단계별로 초등학교 5~6학년 시기 진로인식, 중학교 시기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탐색, 고등학교 1학년 시기 진학 및 직업결정 등의 프로세스로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이 특정시기에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진로를 인식하고 다양한 탐색 및 설계의 반복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진로결정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보다 일상화된 형태의 진로탐색이 가능해져야 한다. 즉, 조기의 진로설계와 진로탐색의 일상화를 지원하고 더불어 진로체험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화되지 않도록 진로·진학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정책 방안(4) :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결정 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 특성 강화

포용국가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공성이 확대되면서 교사 역할은 더욱 중요한 학교 특성이 되고 있다.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코호트 1~4차 자료를 분석한 남궁지영

외(2017)에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진로관련 자기이해 및 진로계획 등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교육비 지원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가정배경의 차별적 특성이 교사 열의, 수업 분위기 등 학교 특성에 의해 상쇄·보완되고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감을 유의하게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학교 특성 변수들은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특히, 교사 열의, 진학 및 진로지도는 특성화고 진학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학업 자아개념 및 시간관리 미흡 등 자기주도 학습 특성이 낮을 때 일반고 보다 특성화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은 가정 및 학생 특성의 부적 영향과 학교 특성의 정적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다. 가정배경 특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기회, 과정 및 성과 측면에서 소외되거나 높은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에 크게 위배된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과 진학계획을 지원하는 학교 특성 강화가 필요하다.

정책 방안(5) : 종단자료와 단위학교별 재정 자료를 연계한 분석 연구 추진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이 가능한 2013 코호트 중학교 2학년 시점의 2016 회계연도 단위학교별 세출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별 재정수준이 중학생의 고교 유형별 진학 확률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정, 학생 및 학교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단위학교 재정수준 1단위 증가에 따라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 확률이 약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일반고 대비 특수목적고 진학 영향 요인 분석에서 학교 특성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크게 대조적이다. 따라서 단위학교별 재정수준이 매우 유의미한 분석변수일 수 있고, 특히 종단자료와 결합됨으로써 단위학교별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 내용 및 예·결산 자료 등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종단효과 분석을 통해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단위학교별 재정 분석이 시작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 과거자료의 활용은 제한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자료와 단위학교별 재

정 자료의 연계 분석을 통해 보다 풍부한 정책효과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지난 10년간의 다양한 교육정책과 함께 변화되어온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중학생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과 가정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학업성취도 격차 및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무현 정부 이후 다양한 교육정책들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복지를 통한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되어왔다. 즉, 지난 10년간 교육정책들은 정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어 추진되기도 하고, 이전 정부의 교육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각 정부별 교육정책들은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지향하는 바가 동일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중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활동 내실화, 교육성과 향상을 가져왔으나,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정책들은 개발하고, 기존의 교육정책 중에서 성과가 입증된 정책들은 강화하여 추진하면서 중학교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중학교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혜·박소영·김용(2011). **일반계 고교 다양화 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양승실·유성상·박현정(2011).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경향신문(2015.7.14.). 정부, 세계 유일 '인성교육법' 이달 21일 시행... 효·정직·협동 전문강사 등장 '인증제 돈벌이' 우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201507142200005&code=940401, (검색일: 2018년 5월 17일).

고입정보포털. [자기주도 학습전형]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http://www.hichschool.go.kr/question/faq/index.do?menu=5&submenu=1#, (검색일: 2018년 8월 23일).

관계부처합동(2012.2.5.). "학교폭력, 이제 그만!" 7대 실천 정책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2013.5.2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보도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교육과학기술부(2009.6.8.). '06년~'08년 학교건강검사 실시 결과: 치아우식증 예방과 시력관리가 가장 필요.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1.13.). 학교폭력! 유·초등학교 단계부터 조기 예방 강화.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2). 2010 초·중등 진로교육 시행계획.

교육과학기술부(2011.12.22.).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 개발·보급.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2.9.). 창의적 교실수업 구현을 위한『교과교실제』전면 확대 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2012.1.15.). 학교폭력 가해 사실 2012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보도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1.18.).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실태 전수 조사 실시.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4.20.)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마련!.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7.18.). 기초학력 보장체제의 구축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주요 내용과 성과.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7.9.). 초·중등학교 인성교육 대폭 확대된다! : 인성교육을 강화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9.3.). 대한민국 인성교육 비전 선포식 개최: 21세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성, 감성, 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다짐과 약속. 동정자료.

교육과학기술부·서울특별시교육청(2010).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중학교 진로교육 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대구광역시교육청(2011).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생 선발방식! 자기주도 학습전형 바로 알기.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자율고·자율학교. 2012학년도 자기주도 학습전형 설명 자료.

교육부(1997.12.).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육부(2007.02.).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육부(2013.1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증보편.

교육부(2013.5.28.). 행복한 학교생활로 학생의 꿈과 끼를 찾는다 :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2015.11.2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확정. 보도 자료.

교육부(2015.12.15.).「진로교육법 시행령」제정 :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체험 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진로교육 발전 기반 마련. 보도자료.

교육부(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2016~2020) 기본계획 발표 : 초등에서 대학까지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설계 실현 : 4개 영역 8개 추진과제 20개 세부과제 제시. 보도자료.

교육부(2017.2.13.). 국가진로교육센터 개소식 개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교육의 기반 마련. 보도자료.

교육부(2017.2.24.).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진로교육을 위해 기관·단체 힘 모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17년 진로교육 세부시행계획 수립·발표. 보도자료.

교육부(2017.3.28.). 취약계층 일반고 진학기회 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 보도자료.

교육부(2017.3.8.).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부(2017.5.1.).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매직] 사업, 100개교 선정. 보도자료.

교육부(2018.3.15.).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 초·중·고생 신체발달, 건강생활 실천, 주요 질환 등 분석. 보도자료.

교육부(2018.9.11.). 「OECD 교육지표 2018」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2016.1.19.).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106~2020).

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2017.12.22.). 청소년 폭력은 예방하고 재발은 막는다. "정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마련. 보도자료.

교육부·푸른나무 청예단(2014.9.16.). 안테나, 안전한 테두리를 찾아주는 나침반: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 개시. 보도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8). 1998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청소년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여성부·대검찰청·경찰청(2005.2).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

국무조정실·교육부(2014.12.22.). 정부, 인성을 함양하는 학교문화 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화. 보도자료.

국무조정실·교육부(2014.3.4.).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2011.7.29.). 범정부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보도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김경근·변수용(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4)**, 1-27.

김경근·김성식·성열관(2015). **교육격차와 공교육의 신뢰 회복에 대한 패널분석**.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김광혁(2007).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도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아동학회지, 28(5)**, 127-141.

김도진(2011).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입학동기 및 개인배경 비교연구. **교육연구논총, 32(2)**, 55-80.

김상봉(2005). **도덕교육과 파시즘**. 도서출판 길.

김선숙·고미선(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청소년연구, 18(3)**, 5-29.

김성식·김양분·강상진·김현철·신종호·박성호·민병철(2007). **한국교육종단연구2005(Ⅲ):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성식·김양분·강상진·김현철·신종호·박성호·민병철(2007). **한국교육종단연구2005(Ⅲ): 조사개요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성식·남궁지영·이애리·성나해·강혜윤(2008). **한국교육종단연구2005(Ⅳ)**. 한국교육개발원.

김성식·류방란(2008).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가정 배경, 학생 노력, 학교 경험의 영향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8(2)**, 31-51.

김세리·남창우·장선영(2012). 학생의 EBS 및 컴퓨터 활용과 교사의 ICT 활용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28(4)**, 849-877.

김신영·지은림·양길석·송미영·김준엽(2010). **5.31 이후 교육평가 정책의 변화와 발전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아영(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16(4)**, 169-187.

김아영·오순애(2001).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른 동기유형의 분류. **교육심리연구, 15(4)**, 97-119.

김양분·강호수(2017). 중학생의 학업성취 변화 관련 요인 탐색. **한국교육, 44(1)**, 33-61.

김양분·김성식·박성호·민병철·강상진·김현철·신종호(2006). **한국교육종단연구2005(Ⅱ)**. 한국교육개발원.

김양분·남궁지영·박경호·김미숙·김위정·최보미·이영주·송승원·김난옥(2015). **2015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Ⅲ): 조사개요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양분·남궁지영·박경호·최인희·강호수·이규민·최보미·이영주·송승원(2016). **2016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Ⅳ): 조사개요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양분·신혜진·강호수(2016). 초등학교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취도 변화 관련 변인 비교 분석. **한국교육, 43(2)**, 33-66.

김용일(2010). **교육의 계급화를 너머**. 북이데아.

김위정(2012). 계층간 학력격차의 변화: 학교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3)**, 49-76.

김위정·김양분(2013). 대학진학에 대한 가정배경의 누적적 매개 효과 분석. **한국사회학, 47(4)**, 263-302.

김정숙·백병부(2010). 중3 학부모의 고등학교 선택 동기 결정요인. **한국교육, 37(3)**, 5-27.

김준엽·박인용·시기자(2014). 학업성취 변화에 기초한 학교 내 성취 격차 유형 분류 및 영향 요인. **교육평가연구, 27(5)**, 1057-1082.

김진영(2011). 사교육 의존도의 심화와 교육기회 불균등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응용경제, 13(2)**, 191-239.

김현진(2013). 교사·학교장 신념과 중학생의 자율성 및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관계 분석. **교육학연구, 51(2)**, 117-143.

김희삼(2017). **사회이동과 교육격차. 사회이동성과 교육해법 대외세미나 발표**. 한국경제연구원.

남궁지영·김위정·김양분·이석영·김도윤(2012).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1-3주기 초·중·고등학교 종합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남궁지영·박경호·김혜자·김양분·임현정·김정아·송승원·최유리·김진아·박미리(2017). **2017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Ⅱ)**. 한국교육개발원.

내일신문(2016.4.11). 외고 선호도, 10년새 절반으로 '뚝'.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91911. (검색일: 2018년 5월 25일).

도승이·김성식(2014). 중학생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 및 자기조절학습의 효과 분석. **교육학연구, 52(1)**, 59-87.

류동민(2011). **학벌경쟁게임의 경제심리학.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 김상곤·김윤자·강남훈 외, 15-32. 창비.

류한구·김양분·현주·김일혁·강상진·김현철·박성호(2005). **한국교육종단연구2005(Ⅰ): 예비조사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문주희·백지숙(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학업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 비교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0(3)**, 39-50.

민인식·최필선(2012).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지필미디어.

박경호·김지수·김창환·남궁지영·백승주·양희준·김성식·김위정·하봉운·한금영(2017).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박균열·김순남·정미경·주영효·박호근·김진규(2015). **인성교육 진흥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도영·박정·김성숙(2001). 중학교 수학·과학 성취도에 대한 학교-학생수준 배경변수들의 효과. **교육평가연구, 14(1)**, 127-149.

박병영·김미란·김기헌·류기락(2010).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Ⅲ): 교육계층화와 사회이동 추이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박소영·민병철(2009). 특수목적고 진학 결정요인 분석. **한국교육, 36(4)**, 29-48.

박순흥·한기순(2013). 사교육과 영재교육 참여경험이 중학생의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영재교육연구, 23(1)**, 49-65.

박영숙·김순남·이동엽·허은정·허주·서경혜·전제상(2016). **학교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영신·박영균·김의철·한기혜(2011).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 : 지역, 부모의 기대, 부모자녀갈등,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2(3)**, 5-41.

박현정(2010).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와 수학 성취도 및 수학 수업이해도 간 관계에 대한 종단적 분석. **교육평가연구, 23(4)**, 887-907.

박현정·상경아·강주연(2008). 사교육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평가연구, 21(4)**, 107-127.

박현정·정동욱·이진실·박민호·조성경(2013). 서울시 초·중등교육의 교육격차 구조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4)**, 149-174.

박효정(2015). **학교폭력예방문화 정착방안연구(II) : 학교폭력예방문화 실태 및 수준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박효정·김현진·김종민·최지영(2016). **학교폭력예방문화 정착방안 연구(III): 학교폭력예방문화 지원체제 구축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한국교육개발원.

박효정·정미경·박종효(2006).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방하남·김기헌(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백선희·류방란·김용·남신동·장덕호·이지영·박진아(2015). **고등학교 입학전형 변천 및 실태**. 한국교육개발원.

변수용·주영효(2012). 학교선택 결정요인과 효과 분석: 서울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9(1)**, 5-33.

서미숙·홍은주(2018). 청소년기 고등학교 선택의 유형별 특성이 청년층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통계연구, 23(1),** 23-47.

성기선(2006). 우리나라 중학교의 학교효과에 관한 연구: Creemers의 학교효과 이론모델의 검증. **교육사회학연구, 16(4)**, 93-114.

성기선(2010).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가정배경의 영향력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중학생 1988년과 2007년 비교, **교육사회학연구, 20(3)**, 83-103.

송주미·강경미(2011). **청소년복지**. 대왕사.

신혜진(2017). 고교유형별 서울시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의 종단적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5(4)**, 259-285.

심현애·김경연(2014). 중학교 3학년생의 진학 고등학교 유형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중등교육연구, 62(4)**, 593-621.

안영은(2017). 고교다양화 정책에 따른 학교유형별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수학 성취도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5(1)**, 313-337.

양명희·이경아(2012).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의 관련성 : 변화추이 및 인과적 방향성 검토. **교육과학연구, 43(2)**, 175-195.

여영기·엄문영(2015). 사교육 진화의 양상과 원인을 통해 본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 **교육종합연구, 13(4)**, 157-183.

여유진·정해식·김미곤·김문길·강지원·우선희(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Ⅱ: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합뉴스(2006.6.29.). 교육.시민단체 "학생인권법안 제정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01&aid=0001904877. (검색일: 2018년 5월 23일).

오석영·임정만(2012). 중학생 진학진로 인식 분석: 서울지역 중학생 희망 고교계열별 비교. **아시아교육연구, 13(4)**, 275-296.

이은하·최은정(2015). 정의적 특성과 국어 학업성취도의 종단 관계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0(2)**, 270-305.

이인재(2009).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분석과 발전 방향**. (사)바른사회·바른정치 시민연합(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보고서).

이현철(2014).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종단 분석. **복음과 교육, 15**, 159-181.

이혜영(2015). **교육 다양화를 위한 정책 실태와 개선 방안: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포지션 페이퍼, 12(1).** 한국교육개발원.

임소현·김은영·백승주·황은희·황준성·김흥주·이수진(20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7)**. 한국교육개발원.

임현정(2013).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의 결정변인 탐색: 학교의 진로교육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40(1)**, 25-48.

임현정·김양분·김성식·이규민·이애리·윤은애(2009). **한국교육종단연구2005(V)**. 한국교육개발원.

임현정·시기자·김성은(2016). 학생 학업성취 변화의 영향 요인 탐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세 시점 연계자료 분석. **교육평가연구, 29(1)**, 123-145.

장덕호·김성기·박경호·손병덕·유기웅·윤철수·이덕난·하봉운(2012). **미래지향적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전은정·임현정·성태제(2015). 고교 유형별 진학에 대한 가정배경 및 개인특성의 영향. **교육학연구, 53(1)**, 1-27.

조선일보(2016. 8. 18). ‘중2병’ 저리가라, 공포의 ‘초4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8/2016081800215.html. (검색일: 2018년 7월 26일).

차동춘(2015). 중학교 수학 학업 성취도 성장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 **교원교육, 31(3)**, 247-272.

차성현·신혜숙·민병철(2011). 학력향상중점학교와 일반학교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설명하는 학생 및 학교 특성 분석 : 서울교육종단연구 중학교 자료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2(4)**, 335-356.

최돈민·윤여각·현영섭·강대중·이세정(2013). 가족구조가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1(4)**, 119-153.

통계청(2017.2.24.). 2016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보도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8학년도 자기주도 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황순길·김동민·강태훈·손재환·김화연·김지혜(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황준성·김흥주·김규식·임소현·윤나리·김성기·이덕난(2013). **고교 다양화 정책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Berk, L. E. (2009). **생애발달(II): 청소년기에서 후기 성인기까지**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4th]. (이옥경 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Cameron, A.C. & Trivedi, P.K. (2017). **Stata를 활용한 미시계량경제학**[Microeconometrics Using Stata, Revised Edition]. (강창희·박상곤 역). ㈜지필미디어. (원전은 2010년에 출판).

Eggen, P., & Kauchak, D. (2006). **교육심리학: 교육실제를 보는 창**. (신종호·김동민·김정섭·김종백·도승이·김지현 외 역.). 학지사. (원저출판: 2004).

Elliot, A. (1999). Approach and avoidance motivation and achievement goals. **Educational Psychologist, 24**, 169-190.

Hausman, J. A. (1978). Specification tests in econometrics. **Econometrica, 46**,

1251-1271.

Hoy, W, K., & Miskel, C, G. (2008).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8th ed)**. Boston: McGraw-Hill.

O'Donnell, Margaret G. (2002). **고전정치경제학자의 교육사상**[The educational thought of the classical political economists]. (손준종·구혜정 역). 원미사. (원전은 1985년에 출판).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8. http://www.oecd.org/ (검색일: 2018년 9월 28일)

Raudenbush, S, W.,& Bryk, A.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CA: Sage Publications, Inc.

Schunck, R. (2013). Within and between estimates in random-effects models: Advantages and drawbacks of correlated random effects and hybrid models. **The Stata Journal, 13(1)**, 65-76.

Abstract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8

Educational Experiences and Outcomes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Ⅲ): Comparison of Two 10-year Cycle Cohorts

Namgung, Jeeyeong
Kim, Hyeja
Park, Kyoungho
Song, Seungwon
Kim, Yangboon
Jeong, Minjoo
Choi, Youree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effective measures to support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growth and development by comparing changes of middle school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s and outcomes for the last ten years while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diverse educational policies. Also, the research overviews how influences from a family's social and economic status, one of the representative family background factors, impact a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high school entrance have changed for the last ten years and analyzes what other student's personal and school factors exist.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seek appropriate educational policies to reduce the gap of academic achievement and gap in quality of high school entranc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one's family background. For this research,

we extracted and utilized data from two cohort groups studies;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05 Cohort 1~3rd Grade of Middle School Students(2005~2007) and 2013 Cohort 1~3rd Grade of Middle School Students (2015~2017) which have been collected for the last ten years.

In Chapter Ⅱ, this study comprehensively compares and analyzes changes with regard to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s and outcomes for the last ten years. The factors vary from comprehensive changes in four major sectors including educational experiences and support from one's family, school life and experiences, cognitive achievement and learning, affective characteristics and career according to father's education level which is very closely related with a family's social and economic status and other individual backgrounds such as a student's gender and size of one's residential area.

Parents' academic and emotional support among educational experiences and support at home has grown since 10 years ago. In particular, the result was higher when one's father's education level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students. The number of hours to take private tutoring has shortened in three major subjects –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meanwhile private tutoring expenses has grown compared to 10 years ago. In the past, most students in 3rd grade started to take private tutoring, however, recently, most students start private tutoring relatively earlier from the 1st grade. In comparison to the past, monthly house hold expenses for private tutoring has increased. Above all, private tutoring expense and monthly expense for education soared when a father's education level is higher. However, careful interpretation is required, because the inflation rate was not reflected in terms of conducting the research regarding expenses. Also, parents' satisfaction of their children's school life and education grew compared to the last 10 years,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s according to a father's education level.

Student's understanding of major subjects such as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has improved compared to the past, and they feel more positive about the climate in their class. 10 years ago, teacher's pressure on academic achievement showed a V-shaped graph as it stagnated during the 2nd grade and started to rebound from the 3rd grade. However, in the 2013 cohort, the graph was a reversed V-shape as it slightly increased during the 2nd grade and started to decrease from the 3rd grade. Students feel that their teachers' enthusiasm and knowledge in class is reducing as they advance to older grades. Also, students feel that the amount of school violence has slightly decreased while at the same time a new pattern has developed in which violence tends to increase as students grow older. Students, ten years ago, with a father who had a higher level of education answered that they feel school violence increased. However, no meaningful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the 2013 cohort. Students' participation in club activities has largely increased and expanded for the last 10years. Students tended to more actively join activities correlating with their fathers have higher level of education, however, there was no similar patterns identified in the 2013 cohort. The quantity of monthly book reading and enjoyment was similar to the result in the past.

Extrinsic regulation motivation, prescribed regulation motivation and amotivation, the lower the better, among cognitive achievement and learning, decreased and was confirmed that regulation motivation and intrinsic regulation motivation was similar to its level 10 years ago. The differences of motivation according to one's father's education level was similar or diminished compared to the result 10 years ago. Mastery-approach was higher than the past, while performance-approach was much lower. In addition, students tend to utilize rehearsal, refinement, organization and metacognition which are parts of cognitive regulation strategies well compared to the past. Students also make good use of behavioral regulation strategies compared to the past. They can effectively manage and control their

efforts, time and space and are well supported by their teachers and friends. Students also utilize more resources surrounding them for learning activities. Also, self-efficacy in major subjects -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 has improved compared to the result 10 years ago. Current students prefer cooperative learning as opposed to competitive learning. 10 years ago, students with fathers who had a higher education level tended to prefer cooperative learning, however, it was not found in the 2013 cohort.

In comparison to 10 years ago, exam stress among affective characteristics and career has slightly reduced while self-concept such as family, society, body and learning has increased. In the meantime, most students and parents still want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to enter 4-year university just like ten years ago. However, the ratio of students and parents who want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to finish their education by high school or vocational college has gone up, while the ratio of finishing education by master's and doctor's degree has decreased. It was difficult to directly compare the two cohorts' plans to enter different types of high school according to each student's career path, since there are establishments of new types of high school due to Korea's high school education diversification policy. However, still, the ratio of students who want to enter general high school was the highest among many other school types and the ratio of students who want to enter vocational high school tends to get higher as they get older.

In Chapter Ⅲ, the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a household and what other personal or school factors have influences on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a household and its influences (cohort×SES) on Korean language subject has grown compared to the result 10 years ago.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in terms of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a household and its influences (cohort×SES) on English and mathematics, however, it is likely that the result might have been over estimated due to characteristics of some students who were not included in the model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horts in terms of the growth rate of achievement in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were not found in this research. Also, the growth rate of achievement in mathematics (year×SES) went down as a household's social and economic status improved. It means that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a household and its impact on mathematics is diminishing as a student is getting older compared to the influences on Korean and English.

Parents' expectations for students and school factors provides a positive impact on the students' achievement in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was also found to vary according to the regions where

their school is located; the students' achievement in English in metropolitan citie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Eup or Myeon (small town). If a student transfers from Eup or Myeon to a metropolitan or small-and-medium-sized city, their achievement in Korean diminished. Students at private middle school consistently have shown higher achievement in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than students at national or public middle schools. Also, a student who transfers from a co-education school to an all girl's school resulted in higher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n. If the number of students per one teacher increase due to transfer or other reasons, students' achievement in English and mathematics diminished. On the other hand, students' achievement in Korean improved where the number of students per one teacher increases.

Student's self-conception among students and academic procedure factors provides a positive effect to the achievement in Korean. Also, exam stress and reading enjoyment give positive influences to English, mathematics and Korean, respectively. The more time spent on self-directed learning, the more positive a student's achievement in mathematics.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students'

achievement particularly in mathematics can be improved by self-directed learning compared to other subjects such as Korean and English. Students' understanding and teacher's enthusiasm in class all provide positive impacts to improve achievements in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However, teacher'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n students provides a negative effect on a student's achievement in Korean.

In Chapter Ⅳ, this study analyzed how influences from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a household on students' entering different types of high school has changed and what other factors exist other than these factors.

For the last ten years, students from higher social and economic status are more likely to enter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than general high schools. On the other hand, students from relatively lower social and economic households tends to enter more vocational high schools than general high schools. This tendency has continued for the last ten years.

In this study, a middle school student's preliminary plan to enter a specific high school is verified as a decisive factor to influence on their real result of entering a different type of school. In other words, a student who firmly plans and decides to enter a vocational or special purpose high school are more highly likely to enter those schools than general high schools. It is interpreted that direct factors such as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a household and parents' expectations are combined with a student's plan or decision to enter a specific school type and decisively impacts one's final high school choice.

Also, parents' expectations on their children's education, achievement and understanding in English, studying hours and effective time management except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a household and one's plan to enter a specific high school provide a positive influence to a student's entering of a special purpose high school compared to a general high school. However, private education,

parents' expectations,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and studying hours give negative impact to a student's entering a vocational high school as compared to a general high school. In particular, private education does not make a meaningful impact on a student's entering a special purpose high school as compared to a general high school, while it reduces the probability of entering a vocational high school as compared to a general high school.

Among school characteristics, no meaningful variable was found to influence entering a special purpose high school as compared to a general high school was found, while teacher's enthusiasm and his/her guidance for students' career and entering high school provides a significant impact to students' choice to enter a vocational high school as compared to general high school. It is interpreted that teacher's enthusiasm and appropriate guidance for entering high school and choosing a career can reduce discriminative influences generated from one's family background and can secure students' equal rights to choose school. This research, which was conducted on a limited scale, also analyzed school finance at the 2nd grade of middle school in the 2013 cohort. As a result, the study found out that an improvement in a school's finances was a critical variable to increase their students' entering a special purpose high school as compared to a general high school. In addition, according to an additional analysis of 2013 cohort's entering high school pattern, the influence of a household's social and economic status on autonomous private highschool to general high school Is much larger than its influences on special purpose high school to general high school.

In Chapter V, the research proposed effective policy measures that can support proper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and reduce the gap in academic achievement and types of high schools entered among students.

First, the government needs to enlarge more cooperative school education, establish public education policies by taking advantages from private education

systems and improve education welfare by eradicating blind spots and build up strong polici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Second, education policies need to reduce the gap i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at are different from each family background and encourage students to put more interest in Mathematics. Also, it needs to increase mor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teaching community and raise teachers' status and roles as important educational supplementation for families as well as enforcing supportive systems in terms of providing follow-up services for transfer students. In addition, more effective research about care from home and school is necessary and studies about different school types and purpose are needed.

Third, education policies are required to secure each students' right to choose school by reducing the gap of quality in high school entrance that are generated from one's family background and to modify school admissions processes to reduce the gap according to one's family backgrounds and give appropriate guidance to students for choosing different types of high school. In conclusion, the education system in Korea needs to foster fair competition for entering high school by respecting each student's unique situation and to encourage students to continuously seek their goals and career aspirations in their everyday school lives and supplement systems to reduce the gap. Also, each school needs to utilize their own strengths to encourage their students to do more self-directed learning and decide their own career and high school. More research and studies that combine diverse factors from longitudinal and financial data also needs to be conducted.

❑ Key words: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05,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 comparison between cohorts, educational gap, academic achievement, entering high school

부 록

[부록 1]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 변화 양상
[부록 2] 교과별 CREM 모형 분석 결과

[부록 1]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 변화 양상[32)]

〈부록 표 1-1〉 부모의 학업적 지원 ····· 207
〈부록 표 1-2〉 부모의 정서적 지원 ····· 208
〈부록 표 1-3〉 사교육 참여 시간 ····· 209
〈부록 표 1-4〉 사교육 참여 시간: 국어 ····· 210
〈부록 표 1-5〉 사교육 참여 시간: 영어 ····· 211
〈부록 표 1-6〉 사교육 참여 시간: 수학 ····· 212
〈부록 표 1-7〉 사교육 참여 비용 ····· 213
〈부록 표 1-8〉 사교육 참여 비용: 국어 ····· 214
〈부록 표 1-9〉 사교육 참여 비용: 영어 ····· 215
〈부록 표 1-10〉 사교육 참여 비용: 수학 ····· 216
〈부록 표 1-11〉 월평균 교육비 ····· 217
〈부록 표 1-12〉 부모의 자녀 학교교육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 218
〈부록 표 1-13〉 부모의 자녀 학교교육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 219
〈부록 표 1-14〉 국어 수업 이해도 ····· 220
〈부록 표 1-15〉 영어 수업 이해도 ····· 222
〈부록 표 1-16〉 수학 수업 이해도 ····· 224
〈부록 표 1-17〉 수업 분위기 ····· 226
〈부록 표 1-18〉 교사의 성취압력 ····· 227
〈부록 표 1-19〉 교사의 열정 및 지식 ····· 228
〈부록 표 1-20〉 학교폭력 ····· 229
〈부록 표 1-21〉 동아리 활동 ····· 230
〈부록 표 1-22〉 독서량 ····· 231

32) 본 부록은 “Ⅱ.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 변화 양상”과 연결된다.

〈부록 표 1-23〉 독서 향유 ····· 232
〈부록 표 1-24〉 외적 조절동기 ····· 233
〈부록 표 1-25〉 부과된 조절동기 ····· 234
〈부록 표 1-26〉 확인된 조절동기 ····· 235
〈부록 표 1-27〉 내재적 조절동기 ····· 236
〈부록 표 1-28〉 무동기 ····· 237
〈부록 표 1-29〉 숙달접근 ····· 238
〈부록 표 1-30〉 수행접근 ····· 239
〈부록 표 1-31〉 시연 ····· 240
〈부록 표 1-32〉 정교화 ····· 241
〈부록 표 1-33〉 조직화 ····· 242
〈부록 표 1-34〉 초인지 ····· 243
〈부록 표 1-35〉 노력조절 ····· 244
〈부록 표 1-36〉 시간관리 ····· 245
〈부록 표 1-37〉 공간관리 ····· 246
〈부록 표 1-38〉 도움 및 자원활용: 교사 도움 ····· 247
〈부록 표 1-39〉 도움 및 자원활용: 친구 도움 ····· 248
〈부록 표 1-40〉 도움 및 자원활용: 자원활용 ····· 249
〈부록 표 1-41〉 자기효능감: 국어 ····· 250
〈부록 표 1-42〉 자기효능감: 영어 ····· 251
〈부록 표 1-43〉 자기효능감: 수학 ····· 252
〈부록 표 1-44〉 협동학습 선호 ····· 253
〈부록 표 1-45〉 경쟁학습 선호 ····· 254
〈부록 표 1-46〉 시험 스트레스 ····· 255
〈부록 표 1-47〉 가족 자아개념 ····· 256
〈부록 표 1-48〉 사회 자아개념 ····· 257
〈부록 표 1-49〉 신체 자아개념 ····· 258
〈부록 표 1-50〉 학업 자아개념 ····· 259
〈부록 표 1-51〉 학생의 교육 포부 ····· 260
〈부록 표 1-52〉 학부모의 교육 기대 ····· 262
〈부록 표 1-53〉 고등학교 진학 계획 ····· 264

〈부록 표 1-1〉 부모의 학업적 지원

(단위: 5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	-	-	-	-	6,786	3.35	.85	.01	-
	중2		6,430	3.12	.70	.01		6,659	3.29	.86	.01	
	중3		6,550	3.02	.74	.01		6,486	3.23	.87	.01	
성별	중1	남	-	-	-	-	-	3,557	3.44	.84	.01	-9.421***
		여	-	-	-	-		3,228	3.25	.85	.02	
	중2	남	3,409	3.19	.69	.01	-8.513***	3,484	3.38	.86	.01	-8.573***
		여	3,021	3.04	.70	.01		3,175	3.20	.84	.01	
	중3	남	3,468	3.10	.73	.01	-8.943***	3,394	3.32	.87	.01	-8.237***
		여	3,082	2.94	.75	.01		3,092	3.14	.86	.02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	-	-	-	-	1,130	3.50	.89	.03	28.047***
		대도시	-	-	-	-		1,697	3.43	.88	.02	
		중소도시	-	-	-	-		2,955	3.27	.83	.02	
		읍면지역	-	-	-	-		1,004	3.28	.81	.03	
	중2	특별시	1,213	3.16	.71	.02	3.825**	1,104	3.40	.89	.03	21.596***
		대도시	1,779	3.12	.68	.02		1,659	3.38	.87	.02	
		중소도시	2,679	3.11	.70	.01		2,914	3.23	.84	.02	
		읍면지역	760	3.05	.69	.03		981	3.19	.81	.03	
	중3	특별시	1,237	3.05	.75	.02	10.141***	1,065	3.31	.91	.03	8.666***
		대도시	1,820	3.08	.73	.02		1,619	3.28	.89	.02	
		중소도시	2,714	3.01	.75	.01		2,831	3.20	.85	.02	
		읍면지역	779	2.91	.75	.03		971	3.16	.82	.03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	-	-	-	-	107	3.02	.86	.08	112.511***
		고졸	-	-	-	-		2,398	3.14	.83	.02	
		대졸	-	-	-	-		3,476	3.45	.84	.01	
		대학원졸	-	-	-	-		611	3.71	.81	.03	
	중2	중졸 이하	588	2.78	.63	.03	142.481***	104	2.98	.82	.08	102.400***
		고졸	2,988	3.02	.67	.01		2,371	3.09	.83	.02	
		대졸	2,373	3.29	.69	.01		3,408	3.39	.83	.01	
		대학원졸	333	3.39	.65	.04		581	3.65	.87	.04	
	중3	중졸 이하	596	2.64	.69	.03	162.163***	106	2.90	.86	.08	102.911***
		고졸	3,022	2.91	.72	.01		2,333	3.02	.86	.02	
		대졸	2,412	3.21	.71	.01		3,321	3.34	.84	.01	
		대학원졸	353	3.35	.70	.04		544	3.58	.84	.04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2〉 부모의 정서적 지원

(단위: 5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	-	-	-	-	6,785	3.94	.92	.01	-
	중2		6,427	3.47	.90	.01		6,656	3.88	.92	.01	
	중3		6,546	3.43	.95	.01		6,479	3.91	.92	.01	
성별	중1	남	-	-	-	-	-	3,557	3.95	.92	.02	-.922
		여	-	-	-	-		3,228	3.93	.92	.02	
	중2	남	3,407	3.46	.88	.02	1.194	3,482	3.87	.91	.02	1.336
		여	3,020	3.48	.92	.02		3,174	3.90	.92	.02	
	중3	남	3,465	3.40	.94	.02	2.235*	3,390	3.91	.92	.02	-.198
		여	3,081	3.45	.96	.02		3,088	3.91	.93	.02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	-	-	-	-	1,130	4.05	.91	.03	16.423***
		대도시	-	-	-	-		1,697	4.02	.91	.02	
		중소도시	-	-	-	-		2,955	3.87	.94	.02	
		읍면지역	-	-	-	-		1,004	3.88	.87	.03	
	중2	특별시	1,213	3.16	.71	.02	3.825**	1,102	3.92	.96	.03	15.099***
		대도시	1,779	3.12	.68	.02		1,658	3.99	.91	.02	
		중소도시	2,679	3.11	.70	.01		2,914	3.84	.90	.02	
		읍면지역	760	3.05	.69	.03		981	3.78	.92	.03	
	중3	특별시	1,237	3.42	.96	.03	.476	1,065	3.92	.96	.03	3.130*
		대도시	1,819	3.45	.93	.02		1,616	3.96	.93	.02	
		중소도시	2,711	3.41	.95	.02		2,827	3.88	.92	.02	
		읍면지역	779	3.43	.97	.03		970	3.90	.87	.03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	-	-	-	-	107	3.73	.89	.09	21.071***
		고졸	-	-	-	-		2,398	3.86	.92	.02	
		대졸	-	-	-	-		3,475	3.97	.92	.02	
		대학원졸	-	-	-	-		611	4.16	.83	.03	
	중2	중졸 이하	588	3.29	.90	.04	15.382***	104	3.74	.97	.09	13.507***
		고졸	2,986	3.45	.89	.02		2,369	3.81	.92	.02	
		대졸	2,373	3.54	.89	.02		3,407	3.92	.90	.02	
		대학원졸	333	3.57	.87	.05		581	4.05	.91	.04	
	중3	중졸 이하	595	3.27	.92	.04	12.283***	106	3.83	.91	.09	7.126
		고졸	3,021	3.40	.96	.02		2,330	3.87	.93	.02	
		대졸	2,410	3.50	.94	.02		3,316	3.94	.91	.02	
		대학원졸	353	3.48	.92	.05		544	4.05	.90	.04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3〉 사교육 참여 시간

(단위: 주당 시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4,071	9.84	6.69	0.10	-	5,096	9.72	5.62	0.08	-
	중2		4,132	11.35	7.22	0.11		5,157	10.12	5.37	0.07	
	중3		4,098	13.41	16.32	0.26		4,822	10.35	5.68	0.08	
성별	중1	남	2,187	10.06	5.64	0.12	-2.223*	2,643	9.83	5.96	0.12	-1.433
		여	1,884	9.58	7.73	0.18		2,453	9.60	5.22	0.11	
	중2	남	2,246	11.86	7.28	0.15	-4.984***	2,674	10.18	5.57	0.11	-0.851
		여	1,886	10.74	7.11	0.16		2,483	10.06	5.14	0.10	
	중3	남	2,186	14.16	12.79	0.27	-3.145***	2,503	10.37	5.65	0.11	-0.149
		여	1,912	12.56	19.56	0.45		2,320	10.34	5.72	0.12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861	10.28	5.59	0.19	3.406*	852	10.90	5.20	0.18	22.098***
		대도시	1,219	9.70	5.76	0.17		1,327	9.88	5.34	0.15	
		중소도시	1,621	9.57	6.13	0.15		2,202	9.49	6.04	0.13	
		읍면지역	370	10.48	12.05	0.63		715	8.71	5.00	0.19	
	중2	특별시	853	11.55	6.96	0.24	3.591*	881	11.47	5.62	0.19	30.182***
		대도시	1,198	10.86	6.53	0.19		1,317	10.26	5.43	0.15	
		중소도시	1,708	11.68	7.51	0.18		2,258	9.84	5.25	0.11	
		읍면지역	373	10.95	8.42	0.44		701	9.09	4.92	0.19	
	중3	특별시	834	13.85	10.14	0.35	5.626**	815	11.60	6.34	0.22	22.085***
		대도시	1,185	12.08	10.51	0.31		1,243	10.65	5.25	0.15	
		중소도시	1,740	14.37	21.68	0.52		2,101	9.92	5.36	0.12	
		읍면지역	340	12.07	12.54	0.68		664	9.65	6.28	0.24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230	8.93	6.62	0.44	1.559	38	8.99	8.11	1.32	7.955***
		고졸	1,751	9.86	7.77	0.19		1,610	9.28	6.73	0.17	
		대졸	1,806	9.93	5.54	0.13		2,826	9.85	4.91	0.09	
		대학원졸	273	9.99	6.36	0.39		508	10.58	5.24	0.23	
	중2	중졸 이하	228	11.05	7.61	0.50	1.150	52	10.06	7.38	1.02	17.430***
		고졸	1,782	11.31	7.51	0.18		1,643	9.39	5.45	0.13	
		대졸	1,787	11.45	6.83	0.16		2,852	10.39	5.13	0.10	
		대학원졸	259	10.61	6.52	0.41		499	11.01	5.73	0.26	
	중3	중졸 이하	234	11.83	13.33	0.87	0.958	47	9.42	8.03	1.18	8.951***
		고졸	1,711	13.42	20.73	0.50		1,497	9.92	6.10	0.16	
		대졸	1,799	13.65	12.44	0.29		2,714	10.46	5.38	0.10	
		대학원졸	280	12.85	9.53	0.57		460	11.41	5.67	0.26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4〉 사교육 참여 시간: 국어

(단위: 주당 시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2,557	3.45	2.84	.06	-	1,865	2.45	1.78	.04	-
	중2		2,518	3.91	2.56	.05		1,885	2.68	2.04	.05	
	중3		2,506	4.57	4.74	.09		1,492	2.96	2.89	.07	
성별	중1	남	1,432	3.51	2.98	.08	-1.230	953	2.43	1.64	.05	.490
		여	1,124	3.37	2.64	.08		912	2.48	1.91	.06	
	중2	남	1,468	3.98	2.62	.07	-1.584***	966	2.77	2.25	.07	-1.909+
		여	1,049	3.82	2.46	.08		919	2.59	1.80	.06	
	중3	남	1,434	4.79	4.88	.13	-2.731**	801	3.00	2.25	.08	-.578
		여	1,072	4.27	4.53	.14		691	2.92	3.49	.13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572	3.36	2.42	.10	1.524	355	2.51	1.60	.08	2.126+
		대도시	756	3.32	3.07	.11		474	2.47	1.94	.09	
		중소도시	1,029	3.59	2.93	.09		768	2.35	1.58	.06	
		읍면지역	200	3.43	2.52	.18		268	2.65	2.19	.13	
	중2	특별시	546	3.84	2.65	.11	8.207***	363	2.69	1.66	.09	.016
		대도시	720	3.57	2.19	.08		449	2.66	2.02	.10	
		중소도시	1,073	4.16	2.66	.08		806	2.69	2.26	.08	
		읍면지역	179	4.03	2.84	.21		267	2.69	1.85	.11	
	중3	특별시	530	4.55	3.67	.16	2.414+	300	2.65	1.15	.07	1.780
		대도시	688	4.18	4.33	.16		381	2.96	2.63	.13	
		중소도시	1,120	4.78	5.30	.16		605	3.04	3.73	.15	
		읍면지역	168	4.81	5.30	.41		206	3.20	2.24	.16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152	3.85	3.73	.30	2.280+	17	2.73	3.83	.92	1.334
		고졸	1,151	3.53	3.23	.10		586	2.54	2.06	.08	
		대졸	1,112	3.34	2.26	.07		1,020	2.43	1.61	.05	
		대학원졸	137	3.18	2.40	.20		199	2.27	1.49	.11	
	중2	중졸 이하	153	3.89	2.34	.19	5.256**	29	3.38	3.80	.71	1.434
		고졸	1,149	4.10	2.78	.08		619	2.68	1.96	.08	
		대졸	1,043	3.76	2.32	.07		1,006	2.67	2.04	.06	
		대학원졸	125	3.37	2.22	.20		190	2.54	1.81	.13	
	중3	중졸 이하	155	4.56	5.17	.41	1.528	26	2.47	2.40	.47	2.813*
		고졸	1,072	4.76	5.01	.15		455	3.21	2.29	.11	
		대졸	1,083	4.42	4.60	.14		802	2.94	3.46	.12	
		대학원졸	146	4.02	2.93	.24		170	2.50	1.12	.09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5〉 사교육 참여 시간: 영어

(단위: 주당 시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3,667	4.27	3.24	.05	-	4,509	4.82	2.72	.04	-
	중2		3,805	4.80	2.98	.05		4,538	4.86	2.46	.04	
	중3		3,785	5.61	7.23	.12		4,121	4.98	2.43	.04	
성별	중1	남	1,996	4.27	2.32	.05	.168	2,324	4.89	2.87	.06	-1.749+
		여	1,671	4.28	4.08	.10		2,185	4.75	2.55	.05	
	중2	남	2,085	4.90	2.96	.06	-2.351*	2,343	4.90	2.57	.05	-1.088
		여	1,721	4.67	3.00	.07		2,195	4.82	2.33	.05	
	중3	남	2,049	5.74	4.70	.10	-1.129	2,134	4.96	2.38	.05	.669
		여	1,736	5.47	9.38	.23		1,987	5.01	2.48	.06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773	4.38	2.20	.08	5.339**	740	5.29	2.33	.09	14.732***
		대도시	1,116	4.22	2.44	.07		1,192	4.94	2.75	.08	
		중소도시	1,448	4.12	2.56	.07		1,930	4.72	2.94	.07	
		읍면지역	330	4.88	7.49	.41		647	4.38	2.26	.09	
	중2	특별시	773	4.91	2.79	.10	2.785*	756	5.35	2.43	.09	19.323***
		대도시	1,123	4.61	2.77	.08		1,161	5.00	2.45	.07	
		중소도시	1,582	4.82	2.99	.08		1,994	4.73	2.32	.05	
		읍면지역	328	5.07	3.84	.21		627	4.44	2.79	.11	
	중3	특별시	770	5.79	3.98	.14	3.516*	692	5.45	2.60	.10	13.014***
		대도시	1,080	5.15	4.06	.12		1,082	5.06	2.30	.07	
		중소도시	1,612	5.96	10.00	.25		1,778	4.82	2.16	.05	
		읍면지역	322	5.05	4.51	.25		569	4.78	3.07	.13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202	3.54	2.46	.17	6.163***	33	4.43	2.79	.48	3.363*
		고졸	1,564	4.20	4.01	.10		1,425	4.66	3.44	.09	
		대졸	1,647	4.36	2.45	.06		2,505	4.91	2.32	.05	
		대학원졸	247	4.78	2.90	.18		446	5.01	2.16	.10	
	중2	중졸 이하	206	4.56	3.06	.21	2.767*	47	4.62	3.09	.45	11.273***
		고졸	1,647	4.66	2.91	.07		1,428	4.57	2.79	.07	
		대졸	1,651	4.90	2.92	.07		2,548	4.96	2.24	.04	
		대학원졸	231	5.03	2.71	.18		426	5.22	2.31	.11	
	중3	중졸 이하	205	4.81	4.64	.32	1.207	35	4.72	3.69	.62	3.660*
		고졸	1,585	5.53	9.66	.24		1,267	4.84	2.61	.07	
		대졸	1,673	5.73	4.81	.12		2,344	5.04	2.32	.05	
		대학원졸	255	5.93	4.80	.30		388	5.26	2.38	.12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6〉 사교육 참여 시간: 수학

(단위: 주당 시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3,616	4.31	2.99	.05	-	4,584	5.06	2.94	.04	-
	중2		3,810	4.93	3.24	.05		4,738	5.29	2.89	.04	
	중3		3,869	5.76	7.46	.12		4,480	5.57	3.10	.05	
성별	중1	남	1,951	4.34	2.41	.05	-.728	2,380	5.16	3.15	.06	-2.378*
		여	1,665	4.27	3.55	.09		2,203	4.95	2.68	.06	
	중2	남	2,097	5.04	3.35	.07	-2.421*	2,453	5.33	2.96	.06	-.923
		여	1,714	4.79	3.09	.07		2,286	5.25	2.81	.06	
	중3	남	2,094	5.89	5.17	.11	-1.241	2,333	5.55	3.04	.06	.475
		여	1,775	5.59	9.48	.22		2,147	5.60	3.17	.07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788	4.49	2.98	.11	6.635***	770	5.82	2.84	.10	30.642***
		대도시	1,096	4.19	2.66	.08		1,200	5.05	2.62	.08	
		중소도시	1,409	4.16	2.48	.07		1,996	4.99	3.22	.07	
		읍면지역	323	4.88	5.18	.29		619	4.34	2.44	.10	
	중2	특별시	788	5.03	3.00	.11	2.310+	814	6.25	3.30	.12	48.723***
		대도시	1,116	4.73	3.05	.09		1,211	5.37	2.92	.08	
		중소도시	1,576	4.98	3.33	.08		2,082	5.10	2.75	.06	
		읍면지역	330	5.14	3.87	.21		631	4.55	2.37	.09	
	중3	특별시	798	5.87	4.01	.14	3.644*	762	6.41	3.76	.14	28.803***
		대도시	1,131	5.20	4.15	.12		1,167	5.69	2.93	.09	
		중소도시	1,640	6.13	10.36	.26		1,954	5.33	2.87	.06	
		읍면지역	300	5.53	4.76	.28		598	5.07	3.01	.1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197	3.82	3.50	.25	3.785**	33	4.40	3.39	.59	29.146***
		고졸	1,555	4.27	3.40	.09		1,469	4.63	3.28	.09	
		대졸	1,620	4.34	2.52	.06		2,534	5.15	2.61	.05	
		대학원졸	233	4.77	2.57	.17		443	6.06	3.26	.16	
	중2	중졸 이하	205	4.81	3.18	.22	1.670	46	4.48	2.62	.39	35.165***
		고졸	1,615	4.81	3.20	.08		1,510	4.79	2.80	.07	
		대졸	1,675	5.05	3.30	.08		2,631	5.44	2.77	.05	
		대학원졸	243	4.81	2.92	.19		446	6.25	3.56	.17	
	중3	중졸 이하	212	5.05	4.75	.33	.959	44	4.78	3.98	.60	21.427***
		고졸	1,605	5.67	9.84	.25		1,391	5.21	3.32	.09	
		대졸	1,719	5.92	5.35	.13		2,526	5.64	2.73	.05	
		대학원졸	261	5.77	4.24	.26		425	6.54	4.07	.20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7〉 사교육 참여 비용

(단위: 월, 만원)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3,969	24.14	18.02	.29	-	4,946	41.78	23.74	.34	-
	중2		3,987	30.41	21.38	.34		4,765	43.78	24.69	.36	
	중3		3,974	44.06	38.52	.61		4,481	48.72	28.21	.42	
성별	중1	남	2,145	25.14	19.02	.41	-3.856***	2,576	42.35	24.46	.48	-1.769+
		여	1,825	22.95	16.69	.39		2,371	41.16	22.92	.47	
	중2	남	2,157	31.62	22.61	.49	-3.959***	2,481	44.29	23.51	.47	-1.479
		여	1,830	28.97	19.74	.46		2,283	43.22	25.91	.54	
	중3	남	2,109	46.96	42.32	.92	-5.139***	2,352	49.44	28.64	.59	-1.796+
		여	1,866	40.78	33.42	.77		2,129	47.93	27.71	.60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827	29.37	20.29	.71	46.748***	837	53.85	31.60	1.09	114.010***
		대도시	1,177	25.20	18.83	.55		1,292	41.51	21.18	.59	
		중소도시	1,600	22.00	16.50	.41		2,143	39.98	21.54	.47	
		읍면지역	366	18.23	11.97	.63		674	33.03	17.18	.66	
	중2	특별시	831	37.04	25.07	.87	47.010***	827	56.91	33.43	1.16	117.181***
		대도시	1,142	30.25	21.88	.65		1,247	43.12	21.76	.62	
		중소도시	1,641	28.90	19.19	.47		2,067	41.51	21.24	.47	
		읍면지역	374	22.74	15.38	.80		623	35.18	20.40	.82	
	중3	특별시	814	51.72	49.01	1.72	21.057***	758	64.02	39.88	1.45	114.837***
		대도시	1,161	43.01	34.99	1.03		1,146	49.51	27.97	.83	
		중소도시	1,681	43.26	35.73	.87		1,983	45.25	22.16	.50	
		읍면지역	318	32.55	29.96	1.68		595	39.30	20.02	.8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222	13.78	8.46	.57	109.455***	35	28.87	12.20	2.06	140.359***
		고졸	1,686	20.17	14.77	.36		1,530	33.91	17.06	.44	
		대졸	1,780	27.80	18.31	.43		2,775	43.79	23.13	.44	
		대학원졸	271	33.64	27.72	1.68		495	56.41	33.86	1.52	
	중2	중졸 이하	233	21.27	15.31	1.00	91.894***	45	31.22	24.44	3.63	132.374***
		고졸	1,703	25.64	16.28	.39		1,470	35.17	17.72	.46	
		대졸	1,735	34.91	22.82	.55		2,670	46.33	23.85	.46	
		대학원졸	247	40.49	33.29	2.12		484	57.40	35.74	1.62	
	중3	중졸 이하	222	28.94	27.06	1.82	67.940***	34	28.58	15.96	2.72	112.922***
		고졸	1,678	36.51	28.11	.69		1,339	39.30	18.30	.50	
		대졸	1,736	50.63	43.63	1.05		2,587	51.44	27.89	.55	
		대학원졸	272	59.50	50.40	3.06		435	63.87	42.78	2.05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8〉 사교육 참여 비용: 국어

(단위: 월, 만원)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2,421	7.27	6.90	.14	-	1,761	10.18	7.26	.17	-
	중2		2,359	8.73	6.32	.13		1,656	11.08	7.75	.19	
	중3		2,299	12.67	13.52	.28		1,365	13.80	9.69	.26	
성별	중1	남	1,371	7.39	6.99	.19	-.967	902	10.24	7.24	.24	-0.339
		여	1,050	7.12	6.77	.21		859	10.12	7.28	.25	
	중2	남	1,382	8.97	6.67	.18	-2.218*	863	11.50	7.41	.25	-2.301*
		여	977	8.39	5.78	.19		793	10.63	8.08	.29	
	중3	남	1,320	13.63	15.56	.43	-4.220***	740	14.40	9.66	.36	-2.528*
		여	980	11.37	10.00	.32		625	13.08	9.67	.39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527	8.44	8.04	.35	6.964***	347	13.18	8.79	.47	31.612***
		대도시	716	7.01	6.64	.25		447	10.32	7.57	.36	
		중소도시	978	7.02	6.59	.21		731	9.39	6.42	.24	
		읍면지역	201	6.39	5.59	.40		236	7.95	4.90	.32	
	중2	특별시	521	10.50	7.46	.33	21.197***	336	14.42	9.52	.52	31.985***
		대도시	659	8.02	5.46	.21		412	11.06	7.69	.38	
		중소도시	1,007	8.56	5.98	.19		697	10.19	6.70	.25	
		읍면지역	171	7.04	6.45	.49		212	8.75	6.15	.42	
	중3	특별시	508	14.36	17.47	.78	3.777*	282	17.51	10.88	.65	24.489***
		대도시	633	12.22	13.67	.54		349	14.60	10.32	.55	
		중소도시	1,024	12.32	11.27	.35		562	12.14	8.18	.35	
		읍면지역	135	11.05	10.59	.91		173	11.51	8.92	.68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129	5.73	5.65	.50	3.101*	14	6.69	3.19	.84	33.832***
		고졸	1,087	7.16	7.12	.22		534	8.15	5.63	.24	
		대졸	1,069	7.49	6.85	.21		980	10.63	7.44	.24	
		대학원졸	130	8.00	6.49	.57		193	13.80	8.84	.64	
	중2	중졸 이하	152	7.32	5.61	.46	9.922***	22	7.99	9.12	1.93	41.713***
		고졸	1,051	8.29	6.03	.19		505	8.83	6.30	.28	
		대졸	992	9.16	6.47	.21		905	11.48	7.56	.25	
		대학원졸	119	10.77	7.88	.72		182	15.83	9.62	.71	
	중3	중졸 이하	140	11.25	10.93	.92	8.096***	16	6.73	4.18	1.04	36.443***
		고졸	992	11.37	9.99	.32		384	10.62	7.19	.37	
		대졸	990	13.53	15.98	.51		768	14.54	9.50	.34	
		대학원졸	133	16.28	17.65	1.53		168	18.93	12.74	.98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9〉 사교육 참여 비용: 영어

(단위: 월, 만원)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3,532	11.53	9.73	0.16	-	4,355	21.44	11.14	0.17	-
	중2		3,618	13.76	10.92	0.18		4,176	21.74	11.48	0.18	
	중3		3,642	19.55	16.90	0.28		3,849	23.85	12.39	0.20	
성별	중1	남	1,935	11.80	10.25	0.23	-1.815+	2,256	21.62	11.50	0.24	-1.078
		여	1,597	11.20	9.04	0.23		2,099	21.25	10.75	0.23	
	중2	남	1,978	13.93	11.50	0.26	-1.081	2,172	21.69	10.40	0.22	0.255
		여	1,640	13.54	10.19	0.25		2,004	21.78	12.55	0.28	
	중3	남	1,956	20.14	18.09	0.41	-2.311*	2,022	23.84	12.82	0.29	0.034
		여	1,687	18.86	15.37	0.37		1,827	23.86	11.89	0.28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736	13.59	11.02	0.41	22.361***	727	26.30	13.33	0.49	73.280***
		대도시	1,067	11.93	9.49	0.29		1,154	21.39	10.02	0.29	
		중소도시	1,418	10.72	9.48	0.25		1,867	20.77	10.75	0.25	
		읍면지역	311	8.98	7.01	0.40		607	17.80	9.45	0.38	
	중2	특별시	743	16.59	12.17	0.45	29.000***	706	27.40	14.27	0.54	83.482***
		대도시	1,050	13.87	11.94	0.37		1,099	21.52	10.05	0.30	
		중소도시	1,502	12.95	9.78	0.25		1,810	20.73	9.80	0.23	
		읍면지역	324	10.61	7.66	0.43		561	18.29	12.74	0.54	
	중3	특별시	741	22.61	21.00	0.77	14.258***	650	30.03	17.12	0.67	84.245***
		대도시	1,060	19.21	15.58	0.48		1,001	23.94	11.94	0.38	
		중소도시	1,542	19.07	15.73	0.40		1,686	22.73	10.34	0.25	
		읍면지역	299	15.61	14.46	0.84		513	19.55	8.97	0.40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181	6.48	5.02	0.37	106.138***	30	15.48	7.27	1.33	111.380***
		고졸	1,471	9.22	7.58	0.20		1,341	17.65	8.69	0.24	
		대졸	1,629	13.20	9.30	0.23		2,454	22.65	11.29	0.23	
		대학원졸	245	18.13	17.69	1.13		433	27.28	13.25	0.64	
	중2	중졸 이하	200	7.92	5.29	0.37	91.168***	40	15.27	10.37	1.63	107.433***
		고졸	1,545	11.41	8.22	0.21		1,267	17.81	8.72	0.24	
		대졸	1,588	16.07	11.84	0.30		2,379	23.00	11.61	0.24	
		대학원졸	219	19.30	17.17	1.16		409	27.71	14.21	0.70	
	중3	중졸 이하	185	13.05	11.06	0.81	67.404***	28	13.41	7.18	1.35	81.514***
		고졸	1,542	16.06	12.76	0.32		1,142	19.98	8.98	0.27	
		대졸	1,606	22.37	18.70	0.47		2,235	25.06	12.51	0.26	
		대학원졸	248	27.34	22.63	1.44		372	29.51	16.62	0.86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10〉 사교육 참여 비용: 수학

(단위: 월, 만원)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3,483	10.76	9.51	0.16	-	4,435	21.50	12.80	0.19	-
	중2		3,645	13.96	11.56	0.19		4,381	22.70	13.06	0.20	
	중3		3,722	20.09	18.53	0.30		4,182	25.76	14.90	0.23	
성별	중1	남	1,899	11.03	10.19	0.23	-1.915+	2,309	22.12	13.35	0.28	-3.389*
		여	1,584	10.42	8.61	0.22		2,126	20.83	12.13	0.26	
	중2	남	2,001	14.13	11.98	0.27	-0.974	2,279	23.18	12.91	0.27	-2.542
		여	1,644	13.75	11.03	0.27		2,102	22.18	13.20	0.29	
	중3	남	2,006	20.77	18.84	0.42	-2.402*	2,194	26.17	15.25	0.33	-1.866+
		여	1,717	19.30	18.14	0.44		1,987	25.30	14.50	0.33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757	13.00	10.44	0.38	28.325***	761	28.10	17.91	0.65	104.913***
		대도시	1,054	11.31	10.11	0.31		1,169	20.82	10.50	0.31	
		중소도시	1,367	9.60	8.64	0.23		1,931	20.75	11.52	0.26	
		읍면지역	306	8.49	7.08	0.41		574	16.67	9.25	0.39	
	중2	특별시	765	16.98	13.38	0.48	26.349***	772	29.64	17.16	0.62	112.548***
		대도시	1,050	13.99	11.96	0.37		1,153	22.18	11.10	0.33	
		중소도시	1,501	12.89	10.19	0.26		1,901	21.67	12.05	0.28	
		읍면지역	330	11.71	10.19	0.56		555	17.68	9.41	0.40	
	중3	특별시	774	23.33	22.34	0.80	14.788***	710	33.87	20.47	0.77	104.067***
		대도시	1,101	19.82	18.32	0.55		1,075	25.77	15.05	0.46	
		중소도시	1,572	19.54	17.01	0.43		1,855	24.04	11.44	0.27	
		읍면지역	275	15.27	13.96	0.84		542	20.97	12.25	0.53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186	6.16	4.62	0.34	82.226***	30	15.04	9.53	1.73	149.660***
		고졸	1,460	8.67	7.70	0.20		1,379	17.28	8.96	0.24	
		대졸	1,594	12.52	10.10	0.25		2,488	22.31	11.72	0.23	
		대학원졸	232	15.68	13.24	0.87		436	30.95	20.66	0.99	
	중2	중졸 이하	203	11.06	11.35	0.80	68.832***	40	15.43	10.64	1.67	135.196***
		고졸	1,526	11.34	8.72	0.22		1,352	18.24	9.86	0.27	
		대졸	1,619	16.03	12.47	0.31		2,463	23.78	12.39	0.25	
		대학원졸	229	19.55	16.34	1.08		435	31.13	18.61	0.89	
	중3	중졸 이하	195	12.48	10.51	0.75	72.531***	32	15.54	9.68	1.71	110.446***
		고졸	1,557	16.20	12.93	0.33		1,252	20.57	9.34	0.26	
		대졸	1,654	23.31	21.33	0.52		2,415	27.28	14.69	0.30	
		대학원졸	253	28.57	24.10	1.52		404	33.78	23.12	1.15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11〉 월평균 교육비

(단위: 만원)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	-	-	-	-	6,381	47.78	34.82	.44	-
	중2		5,276	37.54	27.33	.38		6,127	50.18	46.06	.59	
	중3		5,548	43.65	130.69	1.75		5,931	52.14	44.52	.58	
성별	중1	남	-	-	-	-	-	3,346	48.56	36.11	.62	-1.886+
		여	-	-	-	-		3,036	46.92	33.31	.60	
	중2	남	2,760	39.25	28.79	.55	-4.766***	3,211	50.58	43.62	.77	-.713
		여	2,515	35.66	25.50	.51		2,916	49.74	48.62	.90	
	중3	남	2,901	43.28	60.90	1.13	.218	3,095	52.97	47.70	.86	-1.508
		여	2,647	44.05	178.17	3.46		2,836	51.23	40.76	.77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	-	-	-	-	1,064	60.94	43.99	1.35	76.306***
		대도시	-	-	-	-		1,614	48.71	32.03	.80	
		중소도시	-	-	-	-		2,770	44.84	3.59	.58	
		읍면지역	-	-	-	-		933	39.89	35.31	1.16	
	중2	특별시	1,008	47.11	31.49	.99	95.652***	1,018	64.80	55.52	1.74	49.781***
		대도시	1,448	37.91	28.52	.75		1,548	50.64	39.32	1.00	
		중소도시	2,231	36.56	23.90	.51		2,673	47.27	45.09	.87	
		읍면지역	588	23.94	22.08	.91		887	41.37	44.18	1.48	
	중3	특별시	1,066	50.96	37.66	1.15	1.536	978	68.82	62.51	2.00	72.134***
		대도시	1,510	42.33	59.29	1.53		1,486	53.95	38.73	1.00	
		중소도시	2,321	40.84	63.74	1.32		2,599	48.45	41.60	.82	
		읍면지역	651	44.76	347.31	13.61		869	41.31	3.38	1.03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	-	-	-	-	91	28.79	26.71	2.80	173.497***
		고졸	-	-	-	-		2,185	37.40	24.59	.53	
		대졸	-	-	-	-		3,336	51.55	33.74	.58	
		대학원졸	-	-	-	-		601	68.80	54.01	2.20	
	중2	중졸 이하	415	22.30	15.87	.78	162.930***	87	35.17	103.38	11.06	115.269***
		고졸	2,418	32.27	21.65	.44		2,131	37.73	27.55	.60	
		대졸	2,052	44.98	29.71	.66		3,209	55.34	48.94	.86	
		대학원졸	299	51.58	41.54	2.40		551	72.21	59.06	2.52	
	중3	중졸 이하	466	51.67	409.96	18.99	8.762***	89	27.26	21.84	2.31	145.570***
		고졸	2,519	34.40	45.68	.91		2,057	38.91	25.05	.55	
		대졸	2,121	50.27	67.86	1.47		3,114	58.30	50.07	.90	
		대학원졸	325	62.65	51.85	2.88		514	75.53	56.12	2.47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12〉 부모의 자녀 학교교육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단위: 5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665	3.28	.74	.01	-	6,713	3.44	.71	.01	-
	중2		6,253	3.11	.70	.01		6,540	3.35	.71	.01	
	중3		6,227	3.11	.73	.01		6,278	3.44	.72	.01	
성별	중1	남	3,519	3.30	.74	.01	-2.523*	3,508	3.46	.69	.01	-1.772+
		여	3,146	3.26	.74	.01		3,204	3.42	.73	.01	
	중2	남	3,293	3.14	.70	.01	-3.104**	3,409	3.36	.71	.01	-1.595
		여	2,960	3.08	.70	.01		3,131	3.33	.71	.01	
	중3	남	3,290	3.11	.73	.01	-.833	3,274	3.45	.72	.01	-2.009*
		여	2,937	3.10	.73	.01		3,003	3.42	.72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58	3.21	.77	.02	6.955***	1,121	3.36	.76	.02	13.663***
		대도시	1,846	3.29	.72	.02		1,675	3.53	.71	.02	
		중소도시	2,738	3.29	.74	.01		2,922	3.43	.68	.01	
		읍면지역	823	3.36	.75	.03		995	3.43	.71	.02	
	중2	특별시	1,182	3.03	.67	.02	35.680***	1,086	3.30	.74	.02	7.632***
		대도시	1,715	3.12	.67	.02		1,632	3.40	.70	.02	
		중소도시	2,611	3.08	.69	.01		2,852	3.32	.69	.01	
		읍면지역	745	3.35	.78	.03		970	3.40	.74	.02	
	중3	특별시	1,178	3.02	.73	.02	31.216***	1,025	3.34	.71	.02	14.561***
		대도시	1,679	3.10	.68	.02		1,568	3.52	.71	.02	
		중소도시	2,629	3.09	.72	.01		2,751	3.42	.71	.01	
		읍면지역	741	3.34	.81	.03		933	3.45	.75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29	3.33	.75	.03	2.260	107	3.43	.71	.07	.644
		고졸	3,121	3.27	.73	.01		2,361	3.42	.70	.01	
		대졸	2,506	3.27	.75	.01		3,450	3.45	.71	.01	
		대학원졸	368	3.35	.79	.04		607	3.45	.77	.03	
	중2	중졸 이하	569	3.23	.68	.03	8.680***	105	3.28	.74	.07	1.061
		고졸	2,903	3.12	.68	.01		2,333	3.34	.70	.01	
		대졸	2,319	3.07	.71	.01		3,355	3.34	.71	.01	
		대학원졸	325	3.14	.71	.04		569	3.39	.73	.03	
	중3	중졸 이하	565	3.28	.80	.03	13.592***	102	3.49	.61	.06	.342
		고졸	2,861	3.11	.69	.01		2,245	3.43	.71	.02	
		대졸	2,309	3.07	.73	.02		3,228	3.44	.72	.01	
		대학원졸	341	3.08	.82	.04		535	3.45	.77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13〉 부모의 자녀 학교교육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5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646	3.23	.52	.01	-	6,724	3.54	.57	.01	-
	중2		6,301	3.13	.52	.01		6,519	3.49	.56	.01	
	중3		6,264	3.07	.54	.01		6,370	3.52	.59	.01	
성별	중1	남	3,501	3.26	.53	.01	-4.928***	3,514	3.55	.56	.01	-1.708+
		여	3,146	3.20	.52	.01		3,210	3.53	.57	.01	
	중2	남	3,327	3.17	.53	.01	-6.079***	3,397	3.51	.55	.01	-3.705***
		여	2,974	3.09	.51	.01		3,122	3.46	.58	.01	
	중3	남	3,308	3.08	.56	.01	-2.855**	3,327	3.55	.58	.01	-5.129***
		여	2,956	3.04	.52	.01		3,042	3.48	.60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53	3.18	.53	.01	13.677***	1,123	3.49	.57	.02	12.400***
		대도시	1,846	3.22	.52	.01		1,680	3.61	.58	.01	
		중소도시	2,730	3.24	.51	.01		2,928	3.52	.54	.01	
		읍면지역	819	3.33	.54	.02		993	3.52	.59	.02	
	중2	특별시	1,193	3.07	.50	.01	30.996***	1,082	3.45	.57	.02	11.743***
		대도시	1,723	3.12	.51	.01		1,626	3.54	.59	.01	
		중소도시	2,625	3.12	.52	.01		2,841	3.46	.54	.01	
		읍면지역	760	3.30	.58	.02		969	3.53	.58	.02	
	중3	특별시	1,189	2.98	.51	.01	44.771***	1,041	3.45	.58	.02	18.197***
		대도시	1,690	3.04	.53	.01		1,587	3.58	.60	.01	
		중소도시	2,636	3.06	.53	.01		2,789	3.48	.58	.01	
		읍면지역	748	3.26	.61	.02		952	3.58	.59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29	3.26	.56	.02	.928	107	3.54	.63	.06	.661
		고졸	3,105	3.23	.52	.01		2,367	3.53	.57	.01	
		대졸	2,502	3.22	.52	.01		3,454	3.54	.56	.01	
		대학원졸	370	3.23	.52	.03		606	3.56	.58	.02	
	중2	중졸 이하	582	3.17	.53	.02	1.413	105	3.45	.53	.05	1.003
		고졸	2,921	3.13	.51	.01		2,322	3.48	.56	.01	
		대졸	2,332	3.13	.52	.01		3,349	3.49	.57	.01	
		대학원졸	329	3.17	.62	.03		565	3.52	.57	.02	
	중3	중졸 이하	562	3.15	.57	.02	6.537***	105	3.57	.60	.06	.396
		고졸	2,881	3.05	.53	.01		2,281	3.52	.58	.01	
		대졸	2,326	3.05	.54	.01		3,270	3.52	.59	.01	
		대학원졸	342	3.11	.60	.03		540	3.50	.61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14〉 국어 수업 이해도

(단위: %)

구분				20% 이하	21-40%	41-60%	61-80%	81% 이상	가중 사례수	χ^2
2005 코호트 (2005 ~ 2007)	전체		중1	2.00	5.58	20.26	37.58	34.59	6,784	-
			중2	3.41	5.96	23.71	33.90	33.02	5,814	
			중3	4.67	7.76	22.92	32.62	32.02	6,471	
	성별	중1	남	2.34	6.23	21.55	37.49	32.39	3,598	27.466***
			여	1.61	4.84	18.80	37.68	37.07	3,186	
		중2	남	4.06	5.81	27.25	33.20	29.68	3,050	64.746***
			여	2.71	6.12	19.80	34.67	36.71	2,764	
		중3	남	5.31	9.21	25.76	30.57	29.15	3,423	79.521***
			여	3.96	6.14	19.72	34.92	35.25	3,048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54	4.66	19.01	34.73	40.06	1,278	63.252***
			대도시	1.52	4.94	20.98	36.99	35.57	1,873	
			중소도시	2.07	6.25	19.19	38.42	34.08	2,777	
			읍면지역	3.50	6.20	24.01	40.35	25.93	856	
		중2	특별시	3.74	5.88	22.94	30.21	37.23	1,066	78.465***
			대도시	3.24	4.20	21.47	34.95	36.15	1,615	
			중소도시	3.47	5.58	25.14	34.60	31.20	2,412	
			읍면지역	3.13	11.28	25.04	34.65	25.90	721	
		중3	특별시	4.03	7.95	20.70	30.04	37.29	1,221	76.818***
			대도시	4.32	6.57	21.74	36.38	30.99	1,804	
			중소도시	3.96	8.18	23.94	32.19	31.73	2,674	
			읍면지역	8.99	8.83	25.65	29.42	27.11	771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2.47	10.77	31.32	36.98	18.46	625	332.062***
			고졸	2.19	6.79	23.01	38.22	29.79	3,132	
			대졸	1.75	2.75	15.42	36.92	43.16	2,513	
			대학원졸	1.53	2.32	9.43	37.09	49.62	373	
		중2	중졸 이하	4.86	13.41	28.26	32.25	21.22	543	214.421***
			고졸	3.93	6.28	26.35	34.57	28.87	2,724	
			대졸	2.54	3.89	20.33	33.67	39.58	2,121	
			대학원졸	1.54	2.66	14.19	30.95	50.66	300	
		중3	중졸 이하	10.34	12.03	30.55	27.37	19.72	590	303.485***
			고졸	4.77	9.36	25.10	34.45	26.31	2,983	
			대졸	2.99	4.84	19.31	32.14	40.71	2,385	
			대학원졸	2.56	4.10	14.51	33.60	45.23	348	

구분				20% 이하	21-40%	41-60%	61-80%	81% 이상	가중 사례수	χ^2
2013 코호트 (2015 ~ 2017)	전체		중1	1.55	5.34	18.10	34.21	40.81	6,799	-
			중2	2.17	6.45	19.83	32.75	38.80	6,671	
			중3	3.09	6.87	19.81	32.17	38.06	6,509	
	성별	중1	남	2.18	5.72	19.70	34.61	37.80	3,559	48.132***
			여	0.86	4.92	16.34	33.77	44.11	3,240	
		중2	남	2.64	7.80	22.32	31.41	35.83	3,493	71.817***
			여	1.65	4.97	17.10	34.22	42.07	3,178	
		중3	남	4.01	7.82	21.96	31.93	34.28	3,413	73.078***
			여	2.06	5.83	17.45	32.44	42.22	3,096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54	4.46	17.74	32.20	44.05	1,129	63.859***
			대도시	1.13	4.27	14.43	34.25	45.91	1,701	
			중소도시	1.62	5.71	19.23	34.61	38.82	2,961	
			읍면지역	2.03	7.02	21.35	35.21	34.39	1,008	
		중2	특별시	2.60	7.04	19.33	31.31	39.72	1,103	42.372***
			대도시	1.58	5.19	17.54	35.42	40.27	1,665	
			중소도시	2.27	6.60	20.52	30.78	39.83	2,917	
			읍면지역	2.37	7.49	22.20	35.67	32.26	986	
		중3	특별시	2.97	5.74	19.69	30.02	41.57	1,070	40.868***
			대도시	3.45	6.09	18.76	32.79	38.91	1,624	
			중소도시	2.88	7.63	20.20	30.59	38.70	2,842	
			읍면지역	3.19	7.21	20.57	38.14	30.89	973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1.77	10.86	28.29	32.40	26.68	109	262.897***
			고졸	2.13	7.29	23.67	34.76	32.15	2,406	
			대졸	1.32	4.47	15.21	34.77	44.22	3,479	
			대학원졸	0.35	1.45	9.03	30.17	58.99	610	
		중2	중졸 이하	3.65	14.74	23.08	37.33	21.19	107	226.482***
			고졸	3.14	8.74	23.77	33.07	31.27	2,374	
			대졸	1.65	4.82	18.31	33.17	42.04	3,415	
			대학원졸	1.25	2.68	10.50	29.31	56.26	581	
		중3	중졸 이하	4.43	14.21	22.58	36.43	22.36	106	208.186***
			고졸	3.92	8.32	23.22	34.23	30.30	2,341	
			대졸	2.55	6.13	18.89	31.11	41.31	3,327	
			대학원졸	0.99	2.42	10.10	28.92	57.57	551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15〉 영어 수업 이해도

(단위: %)

구분				20% 이하	21-40%	41-60%	61-80%	81% 이상	가중 사례수	χ^2
2005 코호트 (2005 ~ 2007)	전체		중1	5.22	11.48	20.23	26.44	36.63	6,780	-
			중2	7.04	12.38	25.88	26.76	27.94	6,096	
			중3	10.86	14.77	23.83	24.25	26.29	6,491	
	성별	중1	남	5.85	12.50	19.09	25.43	37.14	3,595	20.865***
			여	4.52	10.33	21.51	27.57	36.06	3,185	
		중2	남	7.57	11.96	27.34	25.85	27.27	3,225	12.420**
			여	6.45	12.85	24.24	27.77	28.68	2,871	
		중3	남	12.37	15.84	22.70	23.15	25.94	3,438	29.124***
			여	9.15	13.56	25.10	25.50	26.69	3,053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5.11	8.76	17.89	26.46	41.78	1,276	86.364***
			대도시	4.40	12.02	18.57	25.52	39.48	1,874	
			중소도시	5.28	11.71	20.54	26.66	35.81	2,774	
			읍면지역	7.02	13.60	26.31	27.68	25.39	856	
		중2	특별시	7.17	11.51	25.79	25.50	30.04	1,127	21.370*
			대도시	6.57	11.74	25.25	25.84	30.59	1,704	
			중소도시	6.87	13.00	25.89	27.83	26.41	2,536	
			읍면지역	8.55	13.06	27.46	27.14	23.79	728	
		중3	특별시	10.82	12.91	22.22	22.66	31.38	1,228	81.788***
			대도시	9.48	14.02	22.37	26.06	28.08	1,806	
			중소도시	10.44	15.28	24.56	24.22	25.50	2,682	
			읍면지역	15.57	17.71	27.23	22.68	16.81	775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11.29	21.75	28.34	24.93	13.68	625	586.846***
			고졸	6.10	13.71	22.89	27.38	29.92	3,130	
			대졸	2.72	7.03	16.06	26.69	47.50	2,512	
			대학원졸	2.89	2.87	8.93	21.81	63.50	372	
		중2	중졸 이하	15.27	22.31	30.82	19.11	12.50	557	475.428***
			고졸	8.03	14.67	28.68	26.71	21.90	2,841	
			대졸	4.43	7.63	22.39	28.85	36.70	2,244	
			대학원졸	1.29	5.53	13.42	27.50	52.25	317	
		중3	중졸 이하	24.38	21.02	27.60	15.28	11.71	590	658.753***
			고졸	12.42	18.26	27.03	24.19	18.11	2,999	
			대졸	5.96	9.66	20.00	27.04	37.34	2,389	
			대학원졸	2.51	6.63	15.58	25.43	49.85	348	

구분				20% 이하	21-40%	41-60%	61-80%	81% 이상	가중 사례수	χ^2
2013 코호트 (2015 ~ 2017)	전체		중1	4.23	8.30	15.66	23.80	48.02	6,781	-
			중2	6.69	10.73	16.89	22.70	42.99	6,665	
			중3	8.96	12.14	18.93	24.08	35.88	6,509	
	성별	중1	남	4.85	9.03	16.00	23.33	46.79	3,550	15.294**
			여	3.54	7.49	15.28	24.32	49.37	3,231	
		중2	남	7.67	11.48	16.76	21.74	42.35	3,491	18.276**
			여	5.61	9.91	17.03	23.77	43.68	3,173	
		중3	남	9.89	11.95	18.86	23.89	35.41	3,413	7.690
			여	7.94	12.36	19.01	24.29	36.41	3,096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3.41	7.23	14.29	22.88	52.19	1,127	63.996***
			대도시	3.35	5.96	14.13	23.84	52.73	1,692	
			중소도시	4.39	9.86	16.54	23.90	45.31	2,957	
			읍면지역	6.14	8.84	17.17	24.49	43.36	1,006	
		중2	특별시	4.95	9.46	16.13	22.42	47.04	1,102	58.710***
			대도시	4.91	8.63	16.09	23.61	46.77	1,663	
			중소도시	7.72	12.17	16.90	22.55	40.66	2,916	
			읍면지역	8.61	11.45	19.06	21.95	38.93	983	
		중3	특별시	6.90	12.51	19.21	24.22	37.17	1,070	30.957**
			대도시	7.35	10.95	18.40	25.15	38.15	1,624	
			중소도시	10.78	12.60	18.81	23.05	34.77	2,842	
			읍면지역	8.64	12.39	19.85	25.17	33.95	973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14.02	18.44	26.39	17.97	23.18	109	432.928***
			고졸	6.22	12.49	19.64	25.04	36.60	2,400	
			대졸	2.97	5.85	13.56	24.13	53.49	3,471	
			대학원졸	1.29	1.95	7.78	18.58	70.39	608	
		중2	중졸 이하	21.24	17.42	23.35	20.80	17.19	107	534.547***
			고졸	10.24	15.62	21.64	22.65	29.84	2,370	
			대졸	4.39	8.07	14.67	23.05	49.82	3,412	
			대학원졸	1.44	2.89	8.65	21.45	65.57	581	
		중3	중졸 이하	22.27	20.15	16.42	25.44	15.72	106	421.192***
			고졸	12.64	16.80	22.19	24.00	24.37	2,341	
			대졸	6.88	9.64	17.65	24.07	41.76	3,327	
			대학원졸	1.55	4.88	12.37	24.40	56.80	551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16〉 수학 수업 이해도

(단위: %)

구분				20% 이하	21-40%	41-60%	61-80%	81% 이상	가중 사례수	χ^2
2005 코호트 (2005 ~ 2007)	전체		중1	4.63	10.84	20.37	26.06	38.10	6,779	-
			중2	6.29	9.70	24.73	27.40	31.88	6,092	
			중3	9.86	13.11	21.13	23.09	32.81	6,495	
	성별	중1	남	4.01	9.83	18.89	23.92	43.34	3,596	90.712***
			여	5.33	11.97	22.05	28.47	32.18	3,183	
		중2	남	5.33	8.66	23.94	26.35	35.72	3,225	53.939***
			여	7.37	10.87	25.61	28.58	27.57	2,867	
		중3	남	9.37	13.02	19.62	22.51	35.48	3,436	26.519***
			여	10.40	13.22	22.83	23.73	29.82	3,059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4.59	10.07	19.34	23.92	42.08	1,276	124.537***
			대도시	3.87	10.78	17.60	26.14	41.62	1,874	
			중소도시	3.93	10.27	20.60	27.39	37.80	2,774	
			읍면지역	8.62	13.96	27.23	24.76	25.43	855	
		중2	특별시	5.91	9.46	24.83	25.34	34.45	1,136	34.708**
			대도시	5.82	8.78	23.26	27.37	34.76	1,682	
			중소도시	6.09	9.84	24.91	28.85	30.31	2,547	
			읍면지역	8.65	11.69	27.30	25.61	26.74	728	
		중3	특별시	9.98	11.87	18.44	22.91	36.80	1,230	57.673***
			대도시	8.93	12.80	20.59	23.71	33.97	1,808	
			중소도시	9.31	13.10	22.15	22.45	33.00	2,682	
			읍면지역	13.72	15.88	23.16	24.11	23.12	775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9.78	19.58	32.35	23.59	14.69	624	526.226***
			고졸	5.47	13.13	22.97	26.19	32.25	3,129	
			대졸	2.56	6.56	15.52	26.36	49.00	2,512	
			대학원졸	1.64	5.24	9.35	25.34	58.43	372	
		중2	중졸 이하	9.69	21.22	29.78	24.40	14.92	565	388.219***
			고졸	7.31	11.00	28.34	26.85	26.50	2,832	
			대졸	4.53	5.61	19.92	28.78	41.16	2,242	
			대학원졸	2.50	4.03	16.24	28.15	49.08	320	
		중3	중졸 이하	18.71	20.94	26.94	18.54	14.87	590	509.366***
			고졸	11.38	15.72	23.57	23.93	25.40	2,994	
			대졸	6.01	8.61	17.75	23.53	44.10	2,393	
			대학원졸	5.06	4.88	12.22	20.91	56.94	351	

구분				20% 이하	21-40%	41-60%	61-80%	81% 이상	가중 사례수	χ^2
2013 코호트 (2015 ~ 2017)	전체		중1	3.94	8.87	15.06	25.15	46.97	6,775	-
			중2	5.23	9.58	15.74	23.80	45.65	6,660	
			중3	8.57	9.20	17.19	22.30	42.75	6,509	
	성별	중1	남	4.19	8.39	14.60	23.57	49.25	3,546	19.633**
			여	3.68	9.41	15.57	26.87	44.47	3,229	
		중2	남	5.30	8.51	15.49	22.30	48.40	3,489	28.264***
			여	5.15	10.77	16.02	25.45	42.62	3,171	
		중3	남	8.48	8.51	16.32	21.45	45.23	3,413	19.447**
			여	8.66	9.95	18.14	23.24	40.01	3,096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3.24	8.83	13.41	22.46	52.05	1,127	69.158***
			대도시	3.08	6.46	13.80	27.05	49.61	1,690	
			중소도시	4.45	9.41	15.14	24.80	46.20	2,953	
			읍면지역	4.70	11.40	18.79	25.99	39.13	1,006	
		중2	특별시	4.19	8.57	14.71	23.98	48.55	1,101	64.769***
			대도시	3.78	7.72	14.57	25.18	48.74	1,661	
			중소도시	6.17	10.33	15.11	23.37	45.02	2,915	
			읍면지역	6.04	11.66	20.75	22.51	39.03	983	
		중3	특별시	7.36	9.21	17.04	23.72	42.67	1,070	21.953*
			대도시	7.51	8.92	16.75	22.70	44.12	1,624	
			중소도시	9.47	8.70	16.65	21.82	43.36	2,842	
			읍면지역	9.02	11.11	19.64	21.48	38.74	973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7.82	16.30	27.05	23.83	25.01	109	411.429***
			고졸	6.53	12.97	18.44	26.34	35.72	2,399	
			대졸	2.33	6.73	13.72	25.02	52.21	3,468	
			대학원졸	0.99	2.74	6.00	21.03	69.24	607	
		중2	중졸 이하	10.19	20.12	29.74	16.24	23.71	107	408.993***
			고졸	8.42	14.34	18.45	23.53	35.26	2,368	
			대졸	3.45	6.43	14.71	24.44	50.98	3,410	
			대학원졸	1.53	3.51	7.24	22.77	64.95	581	
		중3	중졸 이하	14.84	17.70	25.44	20.57	21.44	106	357.576***
			고졸	13.27	11.86	20.66	20.87	33.33	2,341	
			대졸	5.66	7.73	15.33	23.65	47.63	3,327	
			대학원졸	1.84	2.55	12.71	21.03	61.86	551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17〉 수업 분위기

(단위: 5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87	3.05	.81	.01	-	-	-	-	-	-
	중2		6,460	2.84	.78	.01		6,656	3.35	1.08	.01	
	중3		-	-	-	-		6,508	3.23	1.10	.01	
성별	중1	남	3,595	3.06	.83	.01	-1.464	-	-	-	-	-
		여	3,192	3.03	.78	.01		-	-	-	-	
	중2	남	3,435	2.88	.80	.01	-3.926***	3,486	3.40	1.07	.02	-4.299***
		여	3,024	2.80	.75	.01		3,171	3.29	1.08	.02	
	중3	남	-	-	-	-	-	3,412	3.27	1.10	.02	-2.726**
		여	-	-	-	-		3,096	3.19	1.10	.02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75	2.99	.86	.02	21.056***	-	-	-	-	-
		대도시	1,874	2.99	.80	.02		-	-	-	-	
		중소도시	2,778	3.06	.81	.02		-	-	-	-	
		읍면지역	859	3.23	.69	.02		-	-	-	-	
	중2	특별시	1,216	2.76	.74	.02	30.602***	1,102	3.31	1.10	.03	18.158***
		대도시	1,785	2.82	.75	.02		1,661	3.51	1.07	.03	
		중소도시	2,691	2.83	.79	.02		2,909	3.28	1.07	.02	
		읍면지역	769	3.08	.82	.03		984	3.33	1.06	.03	
	중3	특별시	-	-	-	-	-	1,070	3.24	1.11	.03	11.381***
		대도시	-	-	-	-		1,625	3.36	1.12	.03	
		중소도시	-	-	-	-		2,840	3.16	1.08	.02	
		읍면지역	-	-	-	-		973	3.23	1.08	.03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27	3.04	.74	.03	1.014	-	-	-	-	-
		고졸	3,138	3.04	.77	.01		-	-	-	-	
		대졸	2,506	3.07	.84	.02		-	-	-	-	
		대학원졸	372	3.01	.91	.05		-	-	-	-	
	중2	중졸 이하	595	2.95	.74	.03	7.487***	106	3.46	1.00	.10	.530
		고졸	2,993	2.84	.76	.01		2,369	3.35	1.06	.02	
		대졸	2,389	2.83	.80	.02		3,407	3.36	1.09	.02	
		대학원졸	335	2.71	.81	.04		581	3.32	1.13	.05	
	중3	중졸 이하	-	-	-	-	-	106	3.30	1.04	.10	.561
		고졸	-	-	-	-		2,339	3.25	1.08	.02	
		대졸	-	-	-	-		3,328	3.23	1.10	.02	
		대학원졸	-	-	-	-		551	3.19	1.18	.05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18〉 교사의 성취압력

(단위: 5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66	3.45	.72	.01	-	6,803	3.41	.67	.01	-
	중2		6,455	3.39	.72	.01		6,662	3.46	.66	.01	
	중3		6,558	3.58	.61	.01		6,499	3.41	.68	.01	
성별	중1	남	3,586	3.52	.72	.01	-8.209***	3,560	3.48	.69	.01	-8.758***
		여	3,180	3.37	.72	.01		3,243	3.34	.64	.01	
	중2	남	3,432	3.41	.73	.01	-2.026*	3,489	3.50	.69	.01	-5.996***
		여	3,023	3.37	.70	.01		3,173	3.41	.62	.01	
	중3	남	3,475	3.60	.65	.01	-2.254*	3,404	3.44	.70	.01	-4.249***
		여	3,083	3.56	.57	.01		3,094	3.37	.64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65	3.38	.73	.02	5.724***	1,131	3.53	.69	.02	29.073***
		대도시	1,874	3.48	.72	.02		1,699	3.47	.69	.02	
		중소도시	2,770	3.45	.73	.01		2,965	3.34	.66	.01	
		읍면지역	858	3.48	.68	.02		1,008	3.37	.64	.02	
	중2	특별시	1,216	3.30	.71	.02	13.242***	1,103	3.57	.65	.02	26.898***
		대도시	1,786	3.41	.70	.02		1,661	3.52	.67	.02	
		중소도시	2,689	3.39	.75	.01		2,914	3.40	.65	.01	
		읍면지역	764	3.50	.66	.02		984	3.40	.64	.02	
	중3	특별시	1,240	3.50	.63	.02	9.355***	1,070	3.51	.68	.02	24.274***
		대도시	1,819	3.59	.60	.01		1,621	3.47	.69	.02	
		중소도시	2,718	3.59	.60	.01		2,837	3.34	.67	.01	
		읍면지역	781	3.63	.63	.02		970	3.36	.66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23	3.46	.67	.03	1.250	109	3.35	.66	.06	13.627***
		고졸	3,124	3.43	.72	.01		2,408	3.35	.67	.01	
		대졸	2,504	3.47	.74	.01		3,481	3.43	.67	.01	
		대학원졸	373	3.47	.74	.04		611	3.53	.67	.03	
	중2	중졸 이하	595	3.39	.68	.03	.868	106	3.41	.69	.07	7.525***
		고졸	2,989	3.40	.70	.01		2,369	3.42	.66	.01	
		대졸	2,388	3.38	.74	.02		3,411	3.47	.65	.01	
		대학원졸	335	3.44	.78	.04		581	3.56	.65	.03	
	중3	중졸 이하	596	3.56	.64	.03	1.743	106	3.30	.71	.07	8.663***
		고졸	3,027	3.57	.59	.01		2,333	3.38	.68	.01	
		대졸	2,416	3.58	.62	.01		3,326	3.41	.68	.01	
		대학원졸	352	3.65	.61	.03		551	3.54	.64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19〉 교사의 열정 및 지식

(단위: 5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68	3.68	.77	.01	-	6,795	4.15	.68	.01	-
	중2		6,463	3.33	.81	.01		6,661	4.09	.72	.01	
	중3		6,557	3.51	.78	.01		6,498	4.01	.74	.01	
성별	중1	남	3,579	3.72	.81	.01	-5.219***	3,560	4.17	.69	.01	-2.656**
		여	3,189	3.62	.72	.01		3,236	4.12	.68	.01	
	중2	남	3,435	3.36	.88	.01	-2.657**	3,489	4.13	.72	.01	-5.192***
		여	3,028	3.30	.73	.01		3,173	4.04	.71	.01	
	중3	남	3,474	3.55	.84	.01	-4.146***	3,403	4.07	.75	.01	-7.452***
		여	3,083	3.47	.70	.01		3,094	3.93	.73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71	3.64	.75	.02	11.562***	1,130	4.21	.67	.02	19.269***
		대도시	1,876	3.67	.77	.02		1,698	4.23	.68	.02	
		중소도시	2,773	3.65	.77	.01		2,956	4.09	.69	.01	
		읍면지역	848	3.82	.79	.03		1,012	4.10	.67	.02	
	중2	특별시	1,219	3.23	.81	.02	61.619***	1,103	4.14	.70	.02	15.629***
		대도시	1,784	3.32	.80	.02		1,661	4.17	.71	.02	
		중소도시	2,693	3.28	.82	.02		2,914	4.03	.73	.01	
		읍면지역	768	3.69	.76	.03		984	4.06	.70	.02	
	중3	특별시	1,240	3.44	.76	.02	28.335***	1,069	4.01	.75	.02	11.588***
		대도시	1,819	3.50	.76	.02		1,621	4.10	.74	.02	
		중소도시	2,718	3.48	.80	.02		2,837	3.96	.75	.01	
		읍면지역	781	3.74	.75	.03		970	3.97	.72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24	3.81	.71	.03	7.985***	109	4.06	.59	.06	2.986*
		고졸	3,130	3.66	.76	.01		2,403	4.14	.66	.01	
		대졸	2,503	3.65	.78	.02		3,479	4.14	.69	.01	
		대학원졸	370	3.72	.79	.04		609	4.22	.71	.03	
	중2	중졸 이하	594	3.46	.77	.03	8.594***	106	4.18	.66	.06	2.917*
		고졸	2,998	3.35	.80	.01		2,369	4.08	.71	.01	
		대졸	2,389	3.28	.82	.02		3,410	4.08	.73	.01	
		대학원졸	334	3.30	.87	.05		581	4.17	.70	.03	
	중3	중졸 이하	596	3.64	.79	.03	7.199***	105	4.00	.76	.07	.967
		고졸	3,027	3.51	.77	.01		2,333	4.01	.72	.01	
		대졸	2,415	3.48	.78	.02		3,326	4.00	.75	.01	
		대학원졸	352	3.47	.80	.04		551	4.05	.78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20〉 학교폭력

(단위: 5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88	2.60	.93	.01	-	6,799	2.41	.81	.01	-
	중2		6,457	2.85	.92	.01		6,661	2.47	.83	.01	
	중3		6,557	2.81	.87	.01		6,504	2.57	.84	.01	
성별	중1	남	3,596	2.58	.96	.02	1.435	3,562	2.43	.83	.01	-2.208*
		여	3,192	2.62	.91	.02		3,237	2.39	.79	.01	
	중2	남	3,433	2.85	.96	.02	-.138	3,487	2.47	.84	.01	-.547
		여	3,024	2.84	.87	.02		3,174	2.46	.81	.01	
	중3	남	3,474	2.84	.91	.02	-3.210**	3,410	2.54	.84	.01	3.602***
		여	3,082	2.77	.83	.01		3,093	2.61	.84	.02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77	2.92	.91	.03	197.840***	1,131	2.49	.86	.03	7.106***
		대도시	1,874	2.67	.93	.02		1,700	2.36	.82	.02	
		중소도시	2,778	2.60	.89	.02		2,957	2.42	.79	.01	
		읍면지역	859	1.97	.78	.03		1,011	2.37	.78	.02	
	중2	특별시	1,216	3.12	.84	.02	240.934***	1,102	2.56	.84	.03	13.222***
		대도시	1,784	2.94	.88	.02		1,663	2.41	.84	.02	
		중소도시	2,689	2.88	.88	.02		2,911	2.49	.80	.01	
		읍면지역	769	2.09	.88	.03		985	2.37	.84	.03	
	중3	특별시	1,239	2.97	.81	.02	156.918***	1,070	2.63	.85	.03	5.932***
		대도시	1,820	2.88	.84	.02		1,625	2.54	.86	.02	
		중소도시	2,717	2.87	.84	.02		2,836	2.59	.82	.02	
		읍면지역	781	2.20	.93	.03		973	2.49	.83	.03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30	2.41	.91	.04	24.657***	109	2.36	.78	.07	1.015
		고졸	3,136	2.54	.94	.02		2,406	2.39	.80	.02	
		대졸	2,507	2.70	.92	.02		3,481	2.43	.81	.01	
		대학원졸	372	2.74	.95	.05		607	2.39	.84	.03	
	중2	중졸 이하	594	2.62	.94	.04	44.758***	107	2.41	.89	.09	.757
		고졸	2,992	2.76	.91	.02		2,375	2.46	.81	.02	
		대졸	2,389	2.99	.90	.02		3,406	2.48	.84	.01	
		대학원졸	334	3.00	.93	.05		579	2.43	.79	.03	
	중3	중졸 이하	594	2.56	.89	.04	36.687***	106	2.54	.84	.08	.139
		고졸	3,027	2.76	.87	.02		2,333	2.57	.85	.02	
		대졸	2,416	2.92	.85	.02		3,330	2.57	.83	.01	
		대학원졸	352	2.94	.87	.05		551	2.59	.86	.04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21〉 동아리 활동

(단위: %, 명)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가중 사례수	χ^2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가중 사례수	χ^2
전체	중1		37.84	62.16	6,802	-	86.09	13.91	5,640	-
	중2		39.97	60.03	6,465		88.07	11.93	5,491	
	중3		38.46	61.54	6,547		85.75	14.25	5,373	
성별	중1	남	37.59	62.41	3,610	.207	88.89	11.11	2,988	41.800***
		여	38.13	61.87	3,193		82.93	17.07	2,652	
	중2	남	40.07	59.93	3,439	0.031	90.54	9.46	2,927	36.320***
		여	39.85	60.15	3,026		85.24	14.76	2,564	
	중3	남	40.09	59.91	3,472	8.317**	87.96	12.04	2,804	23.376***
		여	36.61	63.39	3,074		83.34	16.66	2,568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42.51	57.49	1,277	18.804***	81.60	18.40	930	31.864***
		대도시	35.47	64.53	1,881		87.15	12.85	1,402	
		중소도시	38.06	61.94	2,779		85.60	14.40	2,448	
		읍면지역	35.37	64.63	866		90.58	9.42	860	
	중2	특별시	42.04	57.96	1,218	16.137***	90.31	9.69	900	5.825
		대도시	38.50	61.50	1,788		88.16	11.84	1,389	
		중소도시	38.43	61.57	2,690		87.50	12.50	2,347	
		읍면지역	45.48	54.52	770		87.13	12.87	855	
	중3	특별시	36.05	63.95	1,237	98.525***	89.64	10.36	902	17.854***
		대도시	35.49	64.51	1,819		85.27	14.73	1,332	
		중소도시	36.91	63.09	2,712		84.11	15.89	2,312	
		읍면지역	54.64	45.36	778		86.89	13.11	826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28.89	71.11	636	53.709***	90.12	9.88	93	1.754
		고졸	35.80	64.20	3,142		85.89	14.11	1,972	
		대졸	41.10	58.90	2,511		86.24	13.76	2,885	
		대학원졸	47.80	52.20	371		85.33	14.67	525	
	중2	중졸 이하	36.60	63.40	593	16.600**	90.75	9.25	83	13.623**
		고졸	38.23	61.77	2,999		86.23	13.77	1,962	
		대졸	41.96	58.04	2,391		88.62	11.38	2,816	
		대학원졸	46.52	53.48	335		91.81	8.19	472	
	중3	중졸 이하	32.82	67.18	595	8.672*	81.02	18.98	90	3.762
		고졸	38.68	61.32	3,021		85.76	14.24	1,936	
		대졸	39.11	60.89	2,414		85.44	14.56	2,718	
		대학원졸	39.20	60.80	351		88.02	11.98	475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22〉 독서량

(단위: 권)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	-	-	-	-	6,766	3.94	3.18	.04	-
	중2		6,456	2.91	2.84	.04		6,659	3.12	2.91	.04	
	중3		6,539	2.60	2.73	.03		6,496	2.54	2.64	.03	
성별	중1	남	-	-	-	-	-	3,537	4.27	3.32	.06	-9.165***
		여	-	-	-	-		3,230	3.57	2.98	.05	
	중2	남	3,430	3.15	3.07	.05	-7.510***	3,488	3.46	3.13	.05	-10.192***
		여	3,026	2.63	2.53	.05		3,172	2.75	2.59	.05	
	중3	남	3,464	2.80	3.00	.05	-6.287***	3,410	2.83	2.91	.05	-9.500***
		여	3,075	2.38	2.37	.04		3,086	2.22	2.25	.04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	-	-	-	-	1,123	4.05	3.13	.09	4.103**
		대도시	-	-	-	-		1,693	3.95	3.17	.08	
		중소도시	-	-	-	-		2,946	4.00	3.21	.06	
		읍면지역	-	-	-	-		1,005	3.62	3.13	.10	
	중2	특별시	1,215	2.80	2.79	.08	3.418*	1,102	3.21	2.95	.09	.830
		대도시	1,783	2.82	2.78	.07		1,662	3.17	2.93	.07	
		중소도시	2,688	2.94	2.92	.06		2,911	3.08	2.86	.05	
		읍면지역	769	3.17	2.79	.10		984	3.07	2.95	.09	
	중3	특별시	1,234	2.51	2.73	.08	2.229+	1,067	2.48	2.66	.08	.273
		대도시	1,815	2.53	2.73	.06		1,621	2.56	2.70	.07	
		중소도시	2,709	2.63	2.76	.05		2,836	2.56	2.62	.05	
		읍면지역	781	2.79	2.61	.09		971	2.55	2.56	.08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	-	-	-	-	109	3.05	3.00	.29	4.711***
		고졸	-	-	-	-		2,393	3.45	3.03	.06	
		대졸	-	-	-	-		3,462	4.18	3.23	.05	
		대학원졸	-	-	-	-		609	4.70	3.16	.13	
	중2	중졸 이하	594	2.49	2.52	.10	23.590***	107	2.66	2.98	.29	3.750***
		고졸	2,991	2.70	2.75	.05		2,370	2.74	2.83	.06	
		대졸	2,390	3.16	2.93	.06		3,407	3.30	2.92	.05	
		대학원졸	332	3.65	3.19	.17		580	3.84	2.90	.12	
	중3	중졸 이하	594	2.26	2.61	.11	16.904***	106	2.15	2.51	.24	23.252***
		고졸	3,018	2.44	2.65	.05		2,328	2.26	2.49	.05	
		대졸	2,407	2.79	2.78	.06		3,328	2.63	2.64	.05	
		대학원졸	352	3.23	2.98	.16		550	3.22	2.95	.1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23〉 독서 향유

(단위: 5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65	3.06	.80	.01	-	6,776	3.05	.99	.01	-
	중2		6,464	3.00	.79	.01		6,651	3.02	1.01	.01	
	중3		6,550	3.07	.79	.01		6,499	3.08	1.02	.01	
성별	중1	남	3,571	2.99	.79	.01	6.884***	3,544	2.98	.99	.02	5.599***
		여	3,194	3.13	.82	.01		3,232	3.12	.98	.02	
	중2	남	3,437	2.94	.78	.01	6.936***	3,477	2.94	1.02	.02	7.240***
		여	3,027	3.07	.81	.01		3,173	3.12	.98	.02	
	중3	남	3,468	2.97	.77	.01	10.321***	3,407	2.97	1.03	.02	9.340***
		여	3,082	3.17	.80	.01		3,092	3.20	1.00	.02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70	3.10	.83	.02	1.919*	1,126	3.19	1.02	.03	11.954***
		대도시	1,871	3.04	.82	.02		1,695	3.07	1.01	.02	
		중소도시	2,776	3.04	.80	.02		2,949	3.01	.99	.02	
		읍면지역	849	3.07	.73	.03		1,006	2.97	.94	.03	
	중2	특별시	1,219	3.04	.77	.02	3.379*	1,098	3.09	1.07	.03	4.198**
		대도시	1,786	2.97	.78	.02		1,658	3.05	1.01	.02	
		중소도시	2,689	2.98	.81	.02		2,913	3.01	1.00	.02	
		읍면지역	769	3.06	.78	.03		981	2.95	.94	.03	
	중3	특별시	1,238	3.11	.80	.02	4.202**	1,070	3.13	1.05	.03	2.608*
		대도시	1,818	3.04	.80	.02		1,622	3.07	1.05	.03	
		중소도시	2,713	3.05	.78	.01		2,836	3.09	1.01	.02	
		읍면지역	781	3.13	.78	.03		971	3.01	.99	.03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28	2.91	.72	.03	55.335***	109	2.84	.87	.08	83.603***
		고졸	3,129	2.97	.80	.01		2,401	2.84	.95	.02	
		대졸	2,495	3.15	.80	.02		3,463	3.12	.99	.02	
		대학원졸	371	3.42	.79	.04		607	3.48	.98	.04	
	중2	중졸 이하	595	2.87	.72	.03	41.609***	107	2.78	.92	.09	60.114***
		고졸	2,998	2.93	.78	.01		2,365	2.86	.98	.02	
		대졸	2,389	3.08	.81	.02		3,406	3.09	1.01	.02	
		대학원졸	334	3.32	.80	.04		580	3.41	.97	.04	
	중3	중졸 이하	593	2.94	.76	.03	44.153***	106	2.81	.89	.09	45.445***
		고졸	3,023	2.99	.78	.01		2,333	2.94	1.00	.02	
		대졸	2,413	3.15	.79	.02		3,327	3.13	1.02	.02	
		대학원졸	353	3.40	.78	.04		549	3.46	1.02	.04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24〉 외적 조절동기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	-	-	-	-	6,810	1.80	.59	.01	-
	중2		6,428	2.08	.59	.01		-	-	-	-	
	중3		6,519	1.98	.60	.01		6,483	1.70	.60	.01	
성별	중1	남	-	-	-	-	-	3,562	1.85	.61	.01	-6.783***
		여	-	-	-	-		3,248	1.75	.57	.01	
	중2	남	3,407	2.09	.61	.01	-2.074*	-	-	-	-	-
		여	3,021	2.06	.56	.01		-	-	-	-	
	중3	남	3,456	2.00	.61	.01	-2.982**	3,399	1.73	.62	.01	-3.809***
		여	3,063	1.96	.58	.01		3,084	1.67	.58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	-	-	-	-	1,133	1.78	.60	.02	4.883**
		대도시	-	-	-	-		1,698	1.77	.61	.01	
		중소도시	-	-	-	-		2,966	1.80	.58	.01	
		읍면지역	-	-	-	-		1,013	1.86	.59	.02	
	중2	특별시	1,198	2.03	.58	.02	3.968**	-	-	-	-	-
		대도시	1,783	2.09	.59	.01		-	-	-	-	
		중소도시	2,679	2.09	.59	.01		-	-	-	-	
		읍면지역	768	2.08	.58	.02		-	-	-	-	
	중3	특별시	1,226	2.01	.62	.02	1.534	1,069	1.72	.61	.02	4.049**
		대도시	1,815	1.98	.58	.01		1,616	1.65	.62	.02	
		중소도시	2,700	1.97	.60	.01		2,829	1.71	.59	.01	
		읍면지역	779	1.97	.61	.02		968	1.72	.59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	-	-	-	-	109	1.87	.54	.05	11.564***
		고졸	-	-	-	-		2,417	1.83	.58	.01	
		대졸	-	-	-	-		3,483	1.79	.60	.01	
		대학원졸	-	-	-	-		607	1.68	.58	.02	
	중2	중졸 이하	593	2.14	.57	.02	9.741***	-	-	-	-	-
		고졸	2,982	2.10	.58	.01		-	-	-	-	
		대졸	2,374	2.05	.59	.01		-	-	-	-	
		대학원졸	333	1.95	.57	.03		-	-	-	-	
	중3	중졸 이하	590	2.00	.61	.03	4.122**	106	1.66	.58	.06	3.449**
		고졸	3,010	2.01	.60	.01		2,329	1.71	.60	.01	
		대졸	2,400	1.95	.59	.01		3,313	1.69	.59	.01	
		대학원졸	352	1.94	.58	.03		551	1.62	.63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25〉 부과된 조절동기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	-	-	-	-	6,810	2.15	.68	.01	-
	중2		6,428	2.61	.60	.01		-	-	-	-	
	중3		6,522	2.54	.58	.01		6,482	2.10	.67	.01	
성별	중1	남	-	-	-	-	-	3,562	2.13	.69	.01	2.677**
		여	-	-	-	-		3,248	2.18	.67	.01	
	중2	남	3,407	2.57	.62	.01	5.765***	-	-	-	-	-
		여	3,021	2.65	.57	.01		-	-	-	-	
	중3	남	3,457	2.48	.60	.01	8.381***	3,398	2.06	.68	.01	4.991***
		여	3,064	2.60	.56	.01		3,084	2.15	.65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	-	-	-	-	1,133	2.19	.69	.02	4.519**
		대도시	-	-	-	-		1,698	2.12	.69	.02	
		중소도시	-	-	-	-		2,966	2.15	.67	.01	
		읍면지역	-	-	-	-		1,013	2.20	.66	.02	
	중2	특별시	1,198	2.60	.63	.02	.678	-	-	-	-	-
		대도시	1,783	2.61	.57	.01		-	-	-	-	
		중소도시	2,679	2.61	.60	.01		-	-	-	-	
		읍면지역	768	2.64	.58	.02		-	-	-	-	
	중3	특별시	1,226	2.56	.59	.02	1.289	1,069	2.13	.67	.02	4.003**
		대도시	1,815	2.52	.56	.01		1,615	2.05	.68	.02	
		중소도시	2,702	2.54	.59	.01		2,829	2.11	.65	.01	
		읍면지역	779	2.54	.60	.02		968	2.12	.66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	-	-	-	-	109	2.14	.64	.06	2.705*
		고졸	-	-	-	-		2,417	2.13	.65	.01	
		대졸	-	-	-	-		3,483	2.18	.69	.01	
		대학원졸	-	-	-	-		607	2.13	.70	.03	
	중2	중졸 이하	593	2.56	.56	.02	13.303***	-	-	-	-	-
		고졸	2,982	2.57	.58	.01		-	-	-	-	
		대졸	2,374	2.67	.61	.01		-	-	-	-	
		대학원졸	333	2.63	.63	.03		-	-	-	-	
	중3	중졸 이하	590	2.43	.58	.02	16.179***	106	1.93	.62	.06	7.297***
		고졸	3,012	2.51	.56	.01		2,329	2.07	.66	.01	
		대졸	2,400	2.59	.59	.01		3,313	2.12	.66	.01	
		대학원졸	352	2.60	.61	.03		551	2.16	.70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26〉 확인된 조절동기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	-	-	-	-	6,814	2.95	.63	.01	-
	중2		6,428	2.82	.62	.01		-	-	-	-	
	중3		6,522	2.79	.59	.01		6,478	2.80	.66	.01	
성별	중1	남	-	-	-	-	-	3,566	2.94	.65	.01	1.038
		여	-	-	-	-		3,249	2.96	.61	.01	
	중2	남	3,407	2.80	.64	.01	2.801**	-	-	-	-	-
		여	3,021	2.84	.59	.01		-	-	-	-	
	중3	남	3,457	2.74	.62	.01	7.152***	3,394	2.77	.70	.01	3.737***
		여	3,064	2.85	.55	.01		3,084	2.83	.62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	-	-	-	-	1,136	3.01	.63	.02	12.941***
		대도시	-	-	-	-		1,699	3.00	.63	.02	
		중소도시	-	-	-	-		2,966	2.91	.64	.01	
		읍면지역	-	-	-	-		1,013	2.89	.62	.02	
	중2	특별시	1,198	2.80	.62	.02	6.229***	-	-	-	-	-
		대도시	1,783	2.80	.59	.01		-	-	-	-	
		중소도시	2,679	2.81	.62	.01		-	-	-	-	
		읍면지역	768	2.91	.62	.02		-	-	-	-	
	중3	특별시	1,226	2.85	.58	.02	4.950**	1,069	2.79	.68	.02	4.379**
		대도시	1,815	2.78	.58	.01		1,615	2.85	.69	.02	
		중소도시	2,702	2.77	.60	.01		2,829	2.79	.65	.01	
		읍면지역	779	2.81	.61	.02		965	2.76	.64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	-	-	-	-	109	2.85	.61	.06	22.668***
		고졸	-	-	-	-		2,417	2.89	.63	.01	
		대졸	-	-	-	-		3,487	2.96	.63	.01	
		대학원졸	-	-	-	-		607	3.12	.60	.02	
	중2	중졸 이하	593	2.80	.63	.03	5.841**	-	-	-	-	-
		고졸	2,982	2.79	.60	.01		-	-	-	-	
		대졸	2,374	2.85	.62	.01		-	-	-	-	
		대학원졸	333	2.88	.66	.04		-	-	-	-	
	중3	중졸 이하	590	2.74	.62	.03	11.679***	106	2.69	.74	.07	14.470***
		고졸	3,012	2.76	.57	.01		2,329	2.75	.66	.01	
		대졸	2,400	2.84	.60	.01		3,313	2.82	.66	.01	
		대학원졸	352	2.88	.60	.03		551	2.95	.66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27〉 내재적 조절동기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	-	-	-	-	6,794	2.55	.71	.01	-
	중2		6,428	2.35	.58	.01		-	-	-	-	
	중3		6,521	2.33	.60	.01		6,478	2.39	.73	.01	
성별	중1	남	-	-	-	-	-	3,547	2.59	.72	.01	-5.042***
		여	-	-	-	-		3,247	2.50	.70	.01	
	중2	남	3,407	2.36	.59	.01	-.545	-	-	-	-	-
		여	3,021	2.35	.56	.01		-	-	-	-	
	중3	남	3,457	2.33	.62	.01	.888	3,394	2.41	.76	.01	-2.000***
		여	3,064	2.34	.58	.01		3,084	2.37	.70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	-	-	-	-	1,131	2.58	.73	.02	10.138***
		대도시	-	-	-	-		1,697	2.61	.73	.02	
		중소도시	-	-	-	-		2,955	2.51	.70	.01	
		읍면지역	-	-	-	-		1,012	2.52	.69	.02	
	중2	특별시	1,198	2.37	.58	.02	5.841**	-	-	-	-	-
		대도시	1,783	2.32	.56	.01		-	-	-	-	
		중소도시	2,679	2.35	.58	.01		-	-	-	-	
		읍면지역	768	2.42	.59	.02		-	-	-	-	
	중3	특별시	1,226	2.39	.62	.02	8.155***	1,069	2.38	.76	.02	3.265*
		대도시	1,815	2.32	.59	.01		1,615	2.44	.76	.02	
		중소도시	2,701	2.31	.61	.01		2,829	2.38	.72	.01	
		읍면지역	779	2.38	.60	.02		965	2.37	.69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	-	-	-	-	108	2.49	.69	.07	34.767***
		고졸	-	-	-	-		2,412	2.46	.68	.01	
		대졸	-	-	-	-		3,477	2.57	.72	.01	
		대학원졸	-	-	-	-		604	2.77	.74	.03	
	중2	중졸 이하	593	2.26	.55	.02	19.834***	-	-	-	-	-
		고졸	2,982	2.32	.55	.01		-	-	-	-	
		대졸	2,374	2.40	.59	.01		-	-	-	-	
		대학원졸	333	2.48	.62	.03		-	-	-	-	
	중3	중졸 이하	590	2.21	.57	.02	31.087***	106	2.28	.70	.07	29.988***
		고졸	3,012	2.29	.57	.01		2,329	2.31	.69	.01	
		대졸	2,399	2.41	.62	.01		3,313	2.42	.74	.01	
		대학원졸	352	2.46	.65	.03		551	2.62	.79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28〉 무동기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	-	-	-	-	6,789	1.81	0.68	0.01	-
	중2		6,422	2.01	0.65	0.01		-	-	-	-	
	중3		6,521	2.05	0.67	0.01		6,477	1.93	0.74	0.01	
성별	중1	남	-	-	-	-	-	3,544	1.82	0.70	0.01	-1.018
		여	-	-	-	-		3,245	1.81	0.66	0.01	
	중2	남	3,402	2.02	0.67	0.01	-0.549	-	-	-	-	-
		여	3,021	2.01	0.62	0.01		-	-	-	-	
	중3	남	3,457	2.06	0.69	0.01	-2.127*	3,393	1.90	0.75	0.01	2.964**
		여	3,064	2.03	0.64	0.01		3,084	1.96	0.72	0.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	-	-	-	-	1,130	1.75	0.69	0.02	8.444***
		대도시	-	-	-	-		1,695	1.78	0.69	0.02	
		중소도시	-	-	-	-		2,953	1.84	0.67	0.01	
		읍면지역	-	-	-	-		1,011	1.88	0.68	0.02	
	중2	특별시	1,198	2.00	0.66	0.02	1.073	-	-	-	-	-
		대도시	1,781	2.01	0.64	0.02		-	-	-	-	
		중소도시	2,676	2.02	0.65	0.01		-	-	-	-	
		읍면지역	768	1.98	0.65	0.02		-	-	-	-	
	중3	특별시	1,226	2.08	0.67	0.02	4.550**	1,068	1.91	0.76	0.02	6.411***
		대도시	1,815	2.04	0.66	0.02		1,615	1.87	0.74	0.02	
		중소도시	2,701	2.06	0.67	0.01		2,829	1.95	0.73	0.01	
		읍면지역	779	1.97	0.66	0.02		965	1.98	0.71	0.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	-	-	-	-	108	1.81	0.63	0.06	22.396***
		고졸	-	-	-	-		2,410	1.89	0.67	0.01	
		대졸	-	-	-	-		3,475	1.78	0.69	0.01	
		대학원졸	-	-	-	-		604	1.66	0.65	0.03	
	중2	중졸 이하	592	2.07	0.62	0.03	12.163***	-	-	-	-	-
		고졸	2,980	2.05	0.64	0.01		-	-	-	-	
		대졸	2,371	1.96	0.65	0.01		-	-	-	-	
		대학원졸	333	1.91	0.64	0.04		-	-	-	-	
	중3	중졸 이하	590	2.06	0.66	0.03	4.000**	106	1.85	0.62	0.06	14.014***
		고졸	3,012	2.07	0.67	0.01		2,329	1.99	0.75	0.02	
		대졸	2,399	2.01	0.67	0.01		3,311	1.91	0.73	0.01	
		대학원졸	352	2.00	0.70	0.04		551	1.78	0.71	0.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29〉 숙달접근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	-	-	-	-	6,795	3.15	.59	.01	-
	중2		6,422	2.86	.61	.01		-	-	-	-	
	중3		6,516	2.82	.60	.01		6,478	3.10	.61	.01	
성별	중1	남	-	-	-	-	-	3,548	3.13	.61	.01	2.629
		여	-	-	-	-		3,247	3.17	.56	.01	
	중2	남	3,403	2.87	.63	.01	-1.339	-	-	-	-	-
		여	3,020	2.85	.59	.01		-	-	-	-	
	중3	남	3,453	2.81	.62	.01	1.248	3,393	3.08	.64	.01	2.354*
		여	3,063	2.83	.58	.01		3,085	3.12	.57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	-	-	-	-	1,132	3.22	.61	.02	13.700***
		대도시	-	-	-	-		1,697	3.19	.58	.01	
		중소도시	-	-	-	-		2,955	3.11	.59	.01	
		읍면지역	-	-	-	-		1,012	3.11	.57	.02	
	중2	특별시	1,197	2.89	.60	.02	6.611***	-	-	-	-	-
		대도시	1,781	2.84	.60	.01		-	-	-	-	
		중소도시	2,677	2.84	.61	.01		-	-	-	-	
		읍면지역	768	2.93	.64	.02		-	-	-	-	
	중3	특별시	1,225	2.85	.59	.02	2.964*	1,069	3.12	.62	.02	8.189***
		대도시	1,815	2.83	.58	.01		1,615	3.16	.63	.02	
		중소도시	2,699	2.80	.62	.01		2,828	3.08	.59	.01	
		읍면지역	777	2.85	.63	.02		965	3.05	.57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	-	-	-	-	108	3.04	.56	.05	43.871***
		고졸	-	-	-	-		2,412	3.06	.59	.01	
		대졸	-	-	-	-		3,478	3.18	.58	.01	
		대학원졸	-	-	-	-		604	3.34	.56	.02	
	중2	중졸 이하	592	2.78	.60	.02	18.451***	-	-	-	-	-
		고졸	2,981	2.82	.61	.01		-	-	-	-	
		대졸	2,370	2.91	.60	.01		-	-	-	-	
		대학원졸	333	2.99	.63	.03		-	-	-	-	
	중3	중졸 이하	589	2.75	.60	.02	24.795***	106	3.02	.62	.06	30.006***
		고졸	3,009	2.78	.60	.01		2,328	3.03	.61	.01	
		대졸	2,398	2.89	.59	.01		3,314	3.13	.59	.01	
		대학원졸	352	2.95	.59	.03		551	3.28	.59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30〉 수행접근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	-	-	-	-	6,795	2.70	.72	.01	-
	중2		6,421	2.83	.66	.01		-	-	-	-	
	중3		6,515	2.75	.65	.01		6,480	2.63	.73	.01	
성별	중1	남	-	-	-	-	-	3,548	2.74	.72	.01	-4.332***
		여	-	-	-	-		3,247	2.66	.72	.01	
	중2	남	3,402	2.85	.67	.01	-2.435*	-	-	-	-	-
		여	3,020	2.81	.64	.01		-	-	-	-	
	중3	남	3,454	2.75	.66	.01	.454	3,394	2.65	.74	.01	-2.620**
		여	3,062	2.76	.63	.01		3,085	2.61	.71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	-	-	-	-	1,132	2.80	.73	.02	13.773***
		대도시	-	-	-	-		1,697	2.74	.74	.02	
		중소도시	-	-	-	-		2,955	2.65	.71	.01	
		읍면지역	-	-	-	-		1,012	2.69	.69	.02	
	중2	특별시	1,196	2.79	.67	.02	1.876	-	-	-	-	-
		대도시	1,781	2.85	.65	.02		-	-	-	-	
		중소도시	2,677	2.83	.65	.01		-	-	-	-	
		읍면지역	768	2.84	.66	.02		-	-	-	-	
	중3	특별시	1,225	2.75	.65	.02	1.848	1,069	2.67	.74	.02	4.690**
		대도시	1,815	2.78	.62	.01		1,615	2.67	.74	.02	
		중소도시	2,699	2.73	.66	.01		2,830	2.59	.72	.01	
		읍면지역	778	2.77	.66	.02		965	2.63	.69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	-	-	-	-	108	2.51	.68	.07	29.748***
		고졸	-	-	-	-		2,412	2.62	.71	.01	
		대졸	-	-	-	-		3,478	2.74	.72	.01	
		대학원졸	-	-	-	-		604	2.89	.72	.03	
	중2	중졸 이하	592	2.73	.63	.03	23.356***	-	-	-	-	-
		고졸	2,981	2.78	.65	.01		-	-	-	-	
		대졸	2,369	2.90	.65	.01		-	-	-	-	
		대학원졸	333	2.95	.65	.04		-	-	-	-	
	중3	중졸 이하	589	2.60	.63	.03	24.432***	106	2.46	.79	.08	36.486***
		고졸	3,009	2.72	.65	.01		2,329	2.53	.72	.01	
		대졸	2,398	2.82	.65	.01		3,314	2.69	.72	.01	
		대학원졸	352	2.86	.63	.03		551	2.81	.73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31〉 시연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78	2.44	.55	.01	-	6,784	2.49	.63	.01	-
	중2		6,426	2.36	.56	.01		-	-	-	-	
	중3		6,508	2.35	.55	.01		6,464	2.49	.65	.01	
성별	중1	남	3,587	2.46	.56	.01	-3.316**	3,541	2.52	.66	.01	-4.263***
		여	3,191	2.41	.55	.01		3,243	2.45	.60	.01	
	중2	남	3,405	2.38	.57	.01	-2.937**	-	-	-	-	-
		여	3,020	2.34	.54	.01		-	-	-	-	
	중3	남	3,453	2.37	.57	.01	-2.428*	3,378	2.49	.67	.01	.626
		여	3,054	2.34	.53	.01		3,086	2.50	.63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74	2.47	.57	.02	15.198***	1,129	2.48	.67	.02	5.205**
		대도시	1,878	2.40	.54	.01		1,692	2.53	.66	.02	
		중소도시	2,774	2.42	.55	.01		2,954	2.45	.62	.01	
		읍면지역	852	2.54	.57	.02		1,008	2.51	.59	.02	
	중2	특별시	1,197	2.36	.58	.02	.696	-	-	-	-	-
		대도시	1,783	2.37	.54	.01		-	-	-	-	
		중소도시	2,678	2.37	.55	.01		-	-	-	-	
		읍면지역	767	2.34	.56	.02		-	-	-	-	
	중3	특별시	1,226	2.38	.54	.02	3.667*	1,070	2.49	.69	.02	1.292
		대도시	1,812	2.37	.57	.01		1,609	2.49	.68	.02	
		중소도시	2,698	2.35	.54	.01		2,820	2.48	.64	.01	
		읍면지역	770	2.30	.57	.02		965	2.53	.62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27	2.39	.52	.02	2.924*	108	2.49	.69	.07	3.394*
		고졸	3,137	2.43	.55	.01		2,407	2.45	.62	.01	
		대졸	2,500	2.46	.56	.01		3,469	2.50	.64	.01	
		대학원졸	370	2.41	.55	.03		605	2.52	.64	.03	
	중2	중졸 이하	593	2.32	.53	.02	8.545***	-	-	-	-	-
		고졸	2,982	2.35	.55	.01		-	-	-	-	
		대졸	2,372	2.40	.56	.01		-	-	-	-	
		대학원졸	333	2.29	.64	.04		-	-	-	-	
	중3	중졸 이하	586	2.27	.57	.02	9.890***	106	2.47	.62	.06	6.177***
		고졸	3,003	2.35	.55	.01		2,321	2.46	.64	.01	
		대졸	2,399	2.39	.54	.01		3,309	2.51	.65	.01	
		대학원졸	352	2.29	.59	.03		548	2.59	.73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32〉 정교화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76	2.69	.58	.01	-	6,784	2.79	.64	.01	-
	중2		6,426	2.63	.59	.01		-	-	-	-	
	중3		6,508	2.65	.59	.01		6,464	2.76	.64	.01	
성별	중1	남	3,586	2.70	.58	.01	-1.863	3,541	2.82	.64	.01	-4.392***
		여	3,190	2.67	.58	.01		3,243	2.75	.64	.01	
	중2	남	3,405	2.64	.60	.01	-1.006	-	-	-	-	-
		여	3,020	2.62	.57	.01		-	-	-	-	
	중3	남	3,453	2.65	.61	.01	.345	3,378	2.78	.65	.01	-2.545*
		여	3,054	2.66	.57	.01		3,086	2.74	.62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74	2.75	.59	.02	8.714***	1,129	2.84	.69	.02	18.773***
		대도시	1,877	2.70	.58	.01		1,692	2.87	.63	.02	
		중소도시	2,773	2.66	.59	.01		2,954	2.75	.64	.01	
		읍면지역	852	2.64	.55	.02		1,008	2.72	.61	.02	
	중2	특별시	1,197	2.65	.58	.02	1.438	-	-	-	-	-
		대도시	1,783	2.63	.57	.01		-	-	-	-	
		중소도시	2,678	2.63	.59	.01		-	-	-	-	
		읍면지역	767	2.59	.61	.02		-	-	-	-	
	중3	특별시	1,226	2.68	.59	.02	1.281	1,070	2.78	.69	.02	5.563***
		대도시	1,812	2.66	.57	.01		1,609	2.81	.67	.02	
		중소도시	2,698	2.65	.59	.01		2,820	2.74	.61	.01	
		읍면지역	770	2.63	.63	.02		965	2.71	.59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27	2.56	.57	.02	49.112***	108	2.62	.64	.06	36.777***
		고졸	3,137	2.63	.57	.01		2,407	2.71	.62	.01	
		대졸	2,498	2.76	.58	.01		3,469	2.82	.65	.01	
		대학원졸	370	2.90	.55	.03		605	2.99	.63	.03	
	중2	중졸 이하	593	2.50	.60	.02	46.892***	-	-	-	-	-
		고졸	2,982	2.57	.58	.01		-	-	-	-	
		대졸	2,372	2.71	.57	.01		-	-	-	-	
		대학원졸	333	2.80	.64	.03		-	-	-	-	
	중3	중졸 이하	586	2.50	.60	.02	45.780***	106	2.64	.67	.07	38.029***
		고졸	3,003	2.61	.59	.01		2,321	2.67	.64	.01	
		대졸	2,399	2.73	.56	.01		3,309	2.80	.63	.01	
		대학원졸	352	2.84	.61	.03		548	2.95	.63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33〉 조직화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	-	-	-	-	6,783	2.85	.64	.01	-
	중2		6,426	2.68	.60	.01		-	-	-	-	
	중3		6,510	2.66	.60	.01		6,463	2.85	.67	.01	
성별	중1	남	-	-	-	-	-	3,541	2.81	.65	.01	5.225***
		여	-	-	-	-		3,242	2.89	.64	.01	
	중2	남	3,405	2.62	.60	.01	8.670***	-	-	-	-	-
		여	3,020	2.74	.58	.01		-	-	-	-	
	중3	남	3,455	2.57	.61	.01	12.309***	3,378	2.78	.68	.01	8.737***
		여	3,055	2.75	.57	.01		3,085	2.93	.65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	-	-	-	-	1,129	2.88	.67	.02	16.713***
		대도시	-	-	-	-		1,692	2.94	.65	.02	
		중소도시	-	-	-	-		2,954	2.81	.63	.01	
		읍면지역	-	-	-	-		1,008	2.79	.62	.02	
	중2	특별시	1,197	2.70	.63	.02	5.797**	-	-	-	-	-
		대도시	1,783	2.68	.57	.01		-	-	-	-	
		중소도시	2,678	2.68	.59	.01		-	-	-	-	
		읍면지역	767	2.60	.64	.02		-	-	-	-	
	중3	특별시	1,226	2.73	.58	.02	16.114***	1,069	2.85	.71	.02	6.533***
		대도시	1,814	2.68	.59	.01		1,609	2.91	.70	.02	
		중소도시	2,699	2.65	.60	.01		2,820	2.84	.65	.01	
		읍면지역	770	2.54	.64	.02		965	2.81	.63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	-	-	-	-	108	2.68	.68	.07	34.726***
		고졸	-	-	-	-		2,406	2.77	.62	.01	
		대졸	-	-	-	-		3,469	2.89	.65	.01	
		대학원졸	-	-	-	-		605	3.03	.63	.03	
	중2	중졸 이하	593	2.54	.59	.02	22.073***	-	-	-	-	-
		고졸	2,982	2.65	.58	.01		-	-	-	-	
		대졸	2,372	2.74	.60	.01		-	-	-	-	
		대학원졸	333	2.75	.69	.04		-	-	-	-	
	중3	중졸 이하	587	2.50	.65	.03	25.909***	106	2.70	.71	.07	33.677***
		고졸	3,004	2.63	.60	.01		2,321	2.77	.67	.01	
		대졸	2,399	2.72	.58	.01		3,309	2.89	.65	.01	
		대학원졸	352	2.73	.61	.03		547	3.05	.66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34〉 초인지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76	2.79	.56	.01	-	6,775	2.88	.65	.01	-
	중2		6,425	2.70	.59	.01		-	-	-	-	
	중3		6,509	2.70	.58	.01		6,448	2.95	.65	.01	
성별	중1	남	3,586	2.79	.56	.01	-.516	3,539	2.87	.65	.01	1.609
		여	3,190	2.78	.56	.01		3,236	2.89	.64	.01	
	중2	남	3,405	2.68	.60	.01	1.874+	-	-	-	-	-
		여	3,020	2.71	.59	.01		-	-	-	-	
	중3	남	3,454	2.66	.60	.01	5.053***	3,372	2.90	.66	.01	5.732***
		여	3,055	2.74	.56	.01		3,076	2.99	.62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74	2.83	.56	.02	3.791+	1,128	2.95	.65	.02	19.946***
		대도시	1,877	2.79	.56	.01		1,689	2.95	.65	.02	
		중소도시	2,773	2.78	.56	.01		2,950	2.83	.65	.01	
		읍면지역	852	2.75	.54	.02		1,008	2.82	.61	.02	
	중2	특별시	1,197	2.75	.61	.02	7.338***	-	-	-	-	-
		대도시	1,782	2.70	.58	.01		-	-	-	-	
		중소도시	2,678	2.69	.58	.01		-	-	-	-	
		읍면지역	767	2.63	.65	.02		-	-	-	-	
	중3	특별시	1,225	2.75	.58	.02	12.418***	1,064	2.96	.68	.02	5.542***
		대도시	1,814	2.72	.55	.01		1,605	2.99	.66	.02	
		중소도시	2,699	2.69	.59	.01		2,815	2.93	.63	.01	
		읍면지역	770	2.59	.63	.02		964	2.90	.62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27	2.63	.54	.02	40.341***	106	2.64	.71	.07	51.022***
		고졸	3,137	2.75	.57	.01		2,406	2.78	.64	.01	
		대졸	2,498	2.86	.55	.01		3,464	2.92	.64	.01	
		대학원졸	370	2.91	.51	.03		605	3.09	.63	.03	
	중2	중졸 이하	592	2.48	.58	.02	58.434***	-	-	-	-	-
		고졸	2,982	2.65	.58	.01		-	-	-	-	
		대졸	2,372	2.79	.58	.01		-	-	-	-	
		대학원졸	333	2.81	.63	.03		-	-	-	-	
	중3	중졸 이하	587	2.50	.62	.03	53.899***	105	2.83	.67	.07	49.899***
		고졸	3,003	2.66	.58	.01		2,314	2.84	.65	.01	
		대졸	2,399	2.80	.56	.01		3,302	3.00	.63	.01	
		대학원졸	352	2.79	.59	.03		547	3.16	.62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35〉 노력조절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82	2.91	.58	.01	-	6,782	3.12	.57	.01	-
	중2		6,415	2.85	.56	.01		-	-	-	-	
	중3		6,513	2.78	.58	.01		6,462	3.06	.61	.01	
성별	중1	남	3,590	2.90	.58	.01	1.744+	3,540	3.13	.58	.01	-1.485
		여	3,192	2.92	.59	.01		3,242	3.11	.57	.01	
	중2	남	3,401	2.85	.57	.01	-.273	-	-	-	-	-
		여	3,014	2.85	.54	.01		-	-	-	-	
	중3	남	3,453	2.77	.59	.01	.789	3,377	3.05	.63	.01	.818
		여	3,059	2.78	.56	.01		3,085	3.06	.59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70	2.95	.57	.02	3.190*	1,130	3.19	.56	.02	20.846***
		대도시	1,875	2.89	.57	.01		1,691	3.18	.57	.01	
		중소도시	2,774	2.90	.59	.01		2,955	3.07	.57	.01	
		읍면지역	862	2.91	.61	.02		1,005	3.06	.57	.02	
	중2	특별시	1,196	2.86	.56	.02	.620	-	-	-	-	-
		대도시	1,782	2.85	.55	.01		-	-	-	-	
		중소도시	2,677	2.85	.56	.01		-	-	-	-	
		읍면지역	760	2.83	.59	.02		-	-	-	-	
	중3	특별시	1,225	2.80	.56	.02	2.213+	1,070	3.06	.63	.02	6.277***
		대도시	1,813	2.79	.56	.01		1,608	3.11	.62	.02	
		중소도시	2,698	2.76	.58	.01		2,820	3.04	.61	.01	
		읍면지역	776	2.76	.64	.02		965	3.01	.59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36	2.74	.54	.02	33.915***	108	2.99	.62	.06	35.241***
		고졸	3,135	2.88	.60	.01		2,408	3.04	.57	.01	
		대졸	2,497	2.96	.57	.01		3,467	3.15	.57	.01	
		대학원졸	371	3.04	.56	.03		605	3.26	.53	.02	
	중2	중졸 이하	591	2.71	.55	.02	37.886***	-	-	-	-	-
		고졸	2,973	2.81	.56	.01		-	-	-	-	
		대졸	2,372	2.92	.54	.01		-	-	-	-	
		대학원졸	332	2.98	.57	.03		-	-	-	-	
	중3	중졸 이하	587	2.59	.56	.02	49.760***	106	2.99	.70	.07	31.633***
		고졸	3,008	2.74	.58	.01		2,321	2.98	.63	.01	
		대졸	2,397	2.86	.56	.01		3,308	3.09	.59	.01	
		대학원졸	352	2.90	.55	.03		548	3.24	.58	.02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36〉 시간관리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70	2.41	.54	.01	-	6,780	2.67	.64	.01	-
	중2		6,419	2.36	.55	.01		-	-	-	-	
	중3		6,520	2.34	.55	.01		6,461	2.60	.68	.01	
성별	중1	남	3,581	2.40	.55	.01	.735	3,539	2.71	.66	.01	-5.147***
		여	3,190	2.41	.53	.01		3,241	2.63	.63	.01	
	중2	남	3,399	2.38	.56	.01	-2.696**	-	-	-	-	-
		여	3,020	2.34	.52	.01		-	-	-	-	
	중3	남	3,457	2.35	.57	.01	-2.488*	3,375	2.60	.70	.01	-1.000
		여	3,063	2.32	.52	.01		3,086	2.59	.65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71	2.46	.53	.01	6.969***	1,130	2.73	.66	.02	27.191***
		대도시	1,874	2.37	.54	.01		1,690	2.77	.66	.02	
		중소도시	2,773	2.40	.53	.01		2,951	2.61	.63	.01	
		읍면지역	852	2.43	.55	.02		1,008	2.65	.61	.02	
	중2	특별시	1,195	2.37	.53	.02	.466	-	-	-	-	-
		대도시	1,781	2.35	.53	.01		-	-	-	-	
		중소도시	2,677	2.37	.55	.01		-	-	-	-	
		읍면지역	767	2.37	.58	.02		-	-	-	-	
	중3	특별시	1,226	2.36	.55	.02	2.654*	1,070	2.59	.70	.02	6.030***
		대도시	1,815	2.34	.53	.01		1,609	2.66	.69	.02	
		중소도시	2,700	2.33	.55	.01		2,817	2.57	.68	.01	
		읍면지역	779	2.29	.59	.02		966	2.58	.61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26	2.31	.49	.02	15.574***	108	2.60	.66	.06	22.089***
		고졸	3,133	2.39	.54	.01		2,407	2.61	.64	.01	
		대졸	2,498	2.45	.55	.01		3,465	2.70	.64	.01	
		대학원졸	370	2.47	.55	.03		605	2.82	.66	.03	
	중2	중졸 이하	592	2.28	.51	.02	26.825***	-	-	-	-	-
		고졸	2,979	2.32	.53	.01		-	-	-	-	
		대졸	2,371	2.43	.56	.01		-	-	-	-	
		대학원졸	332	2.45	.61	.03		-	-	-	-	
	중3	중졸 이하	590	2.16	.56	.02	43.529***	106	2.51	.63	.06	42.067***
		고졸	3,011	2.30	.53	.01		2,319	2.49	.66	.01	
		대졸	2,399	2.41	.54	.01		3,309	2.64	.68	.01	
		대학원졸	352	2.44	.60	.03		548	2.80	.68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37〉 공간관리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70	2.79	.61	.01	-	6,783	2.98	.61	.01	-
	중2		6,419	2.77	.61	.01		-	-	-	-	
	중3		6,518	2.75	.60	.01		6,461	3.00	.62	.01	
성별	중1	남	3,581	2.77	.60	.01	2.244*	3,542	2.95	.62	.01	3.247**
		여	3,190	2.81	.62	.01		3,241	3.00	.60	.01	
	중2	남	3,399	2.73	.63	.01	4.727***	-	-	-	-	-
		여	3,020	2.81	.59	.01		-	-	-	-	
	중3	남	3,455	2.71	.62	.01	5.185***	3,375	2.95	.65	.01	6.599***
		여	3,063	2.79	.58	.01		3,086	3.05	.59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71	2.85	.61	.02	7.428***	1,130	3.05	.63	.02	23.855***
		대도시	1,874	2.80	.63	.01		1,690	3.05	.59	.01	
		중소도시	2,773	2.78	.60	.01		2,954	2.92	.62	.01	
		읍면지역	852	2.73	.58	.02		1,008	2.93	.58	.02	
	중2	특별시	1,195	2.81	.61	.02	4.709**	-	-	-	-	-
		대도시	1,781	2.79	.60	.01		-	-	-	-	
		중소도시	2,677	2.76	.61	.01		-	-	-	-	
		읍면지역	767	2.71	.63	.02		-	-	-	-	
	중3	특별시	1,226	2.79	.60	.02	13.049***	1,070	3.00	.66	.02	6.470***
		대도시	1,813	2.78	.57	.01		1,609	3.06	.64	.02	
		중소도시	2,700	2.75	.60	.01		2,817	2.98	.61	.01	
		읍면지역	779	2.63	.68	.02		966	2.96	.58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26	2.66	.57	.02	35.524***	108	2.77	.68	.07	33.423***
		고졸	3,133	2.75	.62	.01		2,408	2.91	.62	.01	
		대졸	2,498	2.86	.60	.01		3,467	3.01	.60	.01	
		대학원졸	370	2.95	.59	.03		605	3.15	.60	.02	
	중2	중졸 이하	592	2.60	.59	.02	40.288***	-	-	-	-	-
		고졸	2,979	2.72	.61	.01		-	-	-	-	
		대졸	2,371	2.85	.59	.01		-	-	-	-	
		대학원졸	332	2.91	.66	.04		-	-	-	-	
	중3	중졸 이하	590	2.56	.64	.03	43.535***	106	2.88	.52	.05	35.037***
		고졸	3,011	2.71	.60	.01		2,319	2.91	.64	.01	
		대졸	2,398	2.83	.57	.01		3,309	3.05	.60	.01	
		대학원졸	352	2.85	.61	.03		548	3.15	.62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38〉 도움 및 자원활용: 교사 도움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	-	-	-	-	6,783	2.84	.67	.01	-
	중2		6,419	2.57	.66	.01		-	-	-	-	
	중3		6,518	2.55	.65	.01		6,461	2.80	.70	.01	
성별	중1	남	-	-	-	-	-	3,542	2.88	.67	.01	-6.086***
		여	-	-	-	-		3,241	2.78	.68	.01	
	중2	남	3,399	2.58	.66	.01	-1.159	-	-	-	-	-
		여	3,020	2.56	.65	.01		-	-	-	-	
	중3	남	3,455	2.55	.66	.01	-.147	3,375	2.81	.70	.01	-1.622
		여	3,063	2.55	.64	.01		3,086	2.78	.70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	-	-	-	-	1,130	2.87	.70	.02	21.843***
		대도시	-	-	-	-		1,690	2.93	.67	.02	
		중소도시	-	-	-	-		2,954	2.80	.67	.01	
		읍면지역	-	-	-	-		1,008	2.75	.65	.02	
	중2	특별시	1,195	2.59	.66	.02	1.390	-	-	-	-	-
		대도시	1,781	2.55	.64	.02		-	-	-	-	
		중소도시	2,677	2.58	.66	.01		-	-	-	-	
		읍면지역	767	2.56	.67	.02		-	-	-	-	
	중3	특별시	1,226	2.60	.66	.02	4.584**	1,070	2.82	.75	.02	6.731***
		대도시	1,813	2.55	.65	.02		1,609	2.86	.70	.02	
		중소도시	2,700	2.55	.66	.01		2,817	2.77	.69	.01	
		읍면지역	779	2.49	.64	.02		966	2.76	.65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	-	-	-	-	108	2.72	.70	.07	16.605***
		고졸	-	-	-	-		2,408	2.78	.66	.01	
		대졸	-	-	-	-		3,467	2.86	.68	.01	
		대학원졸	-	-	-	-		605	2.97	.70	.03	
	중2	중졸 이하	592	2.43	.62	.03	25.860***	-	-	-	-	-
		고졸	2,980	2.54	.64	.01		-	-	-	-	
		대졸	2,371	2.65	.66	.01		-	-	-	-	
		대학원졸	332	2.65	.70	.04		-	-	-	-	
	중3	중졸 이하	590	2.44	.65	.03	24.421***	106	2.59	.71	.07	35.624***
		고졸	3,011	2.51	.66	.01		2,319	2.71	.70	.01	
		대졸	2,398	2.63	.64	.01		3,309	2.84	.68	.01	
		대학원졸	352	2.66	.61	.03		548	3.01	.69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39〉 도움 및 자원활용: 친구 도움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69	3.00	.59	.01		6,783	3.08	.63	.01	
	중2		6,419	2.72	.57	.01		-	-	-	-	-
	중3		6,519	2.68	.56	.01		6,460	3.14	.63	.01	
성별	중1	남	3,581	2.95	.61	.01	8.020***	3,542	3.04	.64	.01	6.047***
		여	3,188	3.06	.56	.01		3,241	3.13	.61	.01	
	중2	남	3,399	2.71	.59	.01	2.060*	-	-	-	-	-
		여	3,020	2.74	.54	.01		-	-	-	-	
	중3	남	3,455	2.66	.59	.01	3.336**	3,375	3.07	.66	.01	9.165***
		여	3,063	2.70	.53	.01		3,085	3.21	.59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71	3.00	.60	.02	13.654***	1,130	3.12	.65	.02	17.702***
		대도시	1,872	3.07	.59	.01		1,690	3.16	.62	.01	
		중소도시	2,773	2.98	.58	.01		2,954	3.03	.63	.01	
		읍면지역	852	2.92	.55	.02		1,008	3.05	.60	.02	
	중2	특별시	1,195	2.74	.57	.02	1.271	-	-	-	-	-
		대도시	1,781	2.71	.55	.01		-	-	-	-	
		중소도시	2,677	2.72	.57	.01		-	-	-	-	
		읍면지역	767	2.70	.58	.02		-	-	-	-	
	중3	특별시	1,226	2.70	.56	.02	11.091***	1,070	3.15	.66	.02	6.485***
		대도시	1,813	2.71	.54	.01		1,608	3.19	.65	.02	
		중소도시	2,700	2.68	.57	.01		2,817	3.12	.62	.01	
		읍면지역	779	2.58	.59	.02		966	3.10	.60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26	2.94	.55	.02	7.681***	108	2.92	.63	.06	9.785***
		고졸	3,131	2.99	.59	.01		2,408	3.04	.62	.01	
		대졸	2,498	3.05	.58	.01		3,467	3.10	.63	.01	
		대학원졸	370	2.98	.61	.03		605	3.15	.65	.03	
	중2	중졸 이하	592	2.59	.56	.02	2.676***	-	-	-	-	-
		고졸	2,980	2.70	.56	.01		-	-	-	-	
		대졸	2,371	2.78	.55	.01		-	-	-	-	
		대학원졸	332	2.77	.60	.03		-	-	-	-	
	중3	중졸 이하	590	2.55	.59	.02	27.312***	106	3.04	.67	.07	17.098***
		고졸	3,011	2.65	.57	.01		2,319	3.08	.65	.01	
		대졸	2,398	2.75	.53	.01		3,308	3.17	.62	.01	
		대학원졸	352	2.75	.54	.03		548	3.27	.62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40〉 도움 및 자원활용: 자원활용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	-	-	-	-	6,777	2.71	.65	.01	-
	중2		6,418	2.47	.61	.01		-	-	-	-	
	중3		6,511	2.51	.61	.01		6,455	2.71	.66	.01	
성별	중1	남	-	-	-	-	-	3,538	2.73	.67	.01	-2.374+
		여	-	-	-	-		3,238	2.69	.64	.01	
	중2	남	3,398	2.49	.63	.01	-3.658***	-	-	-	-	-
		여	3,019	2.44	.58	.01		-	-	-	-	
	중3	남	3,451	2.52	.63	.01	-1.945+	3,373	2.70	.70	.01	1.488
		여	3,060	2.49	.59	.01		3,082	2.72	.62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	-	-	-	-	1,130	2.72	.67	.02	16.987***
		대도시	-	-	-	-		1,686	2.81	.67	.02	
		중소도시	-	-	-	-		2,953	2.67	.64	.01	
		읍면지역	-	-	-	-		1,008	2.67	.61	.02	
	중2	특별시	1,194	2.48	.61	.02	1.733	-	-	-	-	-
		대도시	1,782	2.44	.60	.01		-	-	-	-	
		중소도시	2,675	2.46	.61	.01		-	-	-	-	
		읍면지역	767	2.49	.64	.02		-	-	-	-	
	중3	특별시	1,226	2.52	.61	.02	2.341+	1,067	2.74	.66	.02	5.823***
		대도시	1,809	2.50	.59	.01		1,608	2.76	.69	.02	
		중소도시	2,698	2.49	.61	.01		2,817	2.70	.64	.01	
		읍면지역	779	2.55	.65	.02		964	2.65	.65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	-	-	-	-	108	2.63	.60	.06	14.340***
		고졸	-	-	-	-		2,406	2.65	.63	.01	
		대졸	-	-	-	-		3,465	2.74	.66	.01	
		대학원졸	-	-	-	-		604	2.81	.70	.03	
	중2	중졸 이하	591	2.40	.62	.03	7.784***	-	-	-	-	-
		고졸	2,979	2.44	.61	.01		-	-	-	-	
		대졸	2,369	2.50	.60	.01		-	-	-	-	
		대학원졸	333	2.55	.66	.04		-	-	-	-	
	중3	중졸 이하	590	2.42	.60	.02	8.199***	106	2.59	.60	.06	24.581***
		고졸	3,008	2.49	.61	.01		2,317	2.65	.65	.01	
		대졸	2,394	2.54	.61	.01		3,306	2.74	.66	.01	
		대학원졸	352	2.55	.58	.03		547	2.89	.67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41〉 자기효능감: 국어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82	2.76	.61	.01	-	6,784	2.86	.67	.01	-
	중2		6,422	2.74	.62	.01		-	-	-	-	
	중3		6,518	2.72	.64	.01		6,475	2.89	.68	.01	
성별	중1	남	3,591	2.74	.61	.01	2.498*	3,539	2.87	.67	.01	-.648
		여	3,191	2.78	.61	.01		3,244	2.86	.66	.01	
	중2	남	3,402	2.73	.64	.01	1.283	-	-	-	-	-
		여	3,019	2.75	.61	.01		-	-	-	-	
	중3	남	3,455	2.71	.65	.01	2.249*	3,390	2.87	.70	.01	2.083*
		여	3,062	2.74	.62	.01		3,085	2.91	.67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71	2.81	.61	.02	7.204***	1,132	2.92	.68	.02	16.935***
		대도시	1,875	2.76	.61	.01		1,697	2.93	.66	.02	
		중소도시	2,773	2.76	.61	.01		2,949	2.82	.67	.01	
		읍면지역	862	2.69	.63	.02		1,007	2.79	.63	.02	
	중2	특별시	1,197	2.80	.63	.02	7.780***	-	-	-	-	-
		대도시	1,781	2.75	.62	.01		-	-	-	-	
		중소도시	2,676	2.73	.63	.01		-	-	-	-	
		읍면지역	767	2.66	.62	.02		-	-	-	-	
	중3	특별시	1,226	2.81	.63	.02	22.294***	1,069	2.95	.69	.02	13.570***
		대도시	1,815	2.73	.62	.01		1,612	2.95	.70	.02	
		중소도시	2,700	2.72	.63	.01		2,829	2.87	.67	.01	
		읍면지역	778	2.58	.69	.02		965	2.79	.66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36	2.64	.61	.02	16.805***	109	2.69	.66	.06	33.276***
		고졸	3,134	2.75	.61	.01		2,410	2.78	.66	.01	
		대졸	2,498	2.80	.61	.01		3,470	2.90	.66	.01	
		대학원졸	371	2.86	.61	.03		601	3.04	.66	.03	
	중2	중졸 이하	592	2.62	.62	.03	18.693***	-	-	-	-	-
		고졸	2,982	2.71	.62	.01		-	-	-	-	
		대졸	2,369	2.79	.62	.01		-	-	-	-	
		대학원졸	333	2.85	.67	.04		-	-	-	-	
	중3	중졸 이하	589	2.56	.67	.03	31.729***	106	2.73	.77	.07	20.285***
		고졸	3,010	2.69	.63	.01		2,325	2.83	.68	.01	
		대졸	2,399	2.80	.62	.01		3,314	2.91	.68	.01	
		대학원졸	352	2.81	.62	.03		551	3.06	.63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42〉 자기효능감: 영어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91	2.60	.71	.01	-	6,788	2.80	.78	.01	-
	중2		6,421	2.47	.73	.01		-	-	-	-	
	중3		6,518	2.46	.71	.01		6,475	2.65	.81	.01	
성별	중1	남	3,598	2.61	.71	.01	-1.051	3,543	2.84	.78	.01	-4.088***
		여	3,193	2.59	.71	.01		3,246	2.76	.79	.01	
	중2	남	3,401	2.49	.75	.01	-1.581	-	-	-	-	-
		여	3,021	2.46	.71	.01		-	-	-	-	
	중3	남	3,455	2.47	.73	.01	-1.352	3,390	2.68	.82	.01	-4.045***
		여	3,062	2.44	.70	.01		3,085	2.60	.80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74	2.70	.72	.02	14.441***	1,132	2.89	.78	.02	16.662***
		대도시	1,879	2.60	.70	.02		1,697	2.87	.77	.02	
		중소도시	2,776	2.59	.71	.01		2,954	2.75	.79	.01	
		읍면지역	862	2.50	.68	.02		1,007	2.72	.77	.02	
	중2	특별시	1,196	2.52	.74	.02	3.041*	-	-	-	-	-
		대도시	1,779	2.47	.72	.02		-	-	-	-	
		중소도시	2,679	2.47	.73	.01		-	-	-	-	
		읍면지역	768	2.42	.72	.03		-	-	-	-	
	중3	특별시	1,226	2.55	.72	.02	19.935***	1,069	2.70	.82	.02	8.822***
		대도시	1,815	2.49	.70	.02		1,612	2.71	.83	.02	
		중소도시	2,700	2.43	.71	.01		2,829	2.60	.81	.02	
		읍면지역	778	2.32	.72	.03		965	2.63	.78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37	2.28	.66	.03	133.254***	109	2.40	.75	.07	11.249***
		고졸	3,140	2.51	.68	.01		2,410	2.62	.78	.02	
		대졸	2,500	2.75	.69	.01		3,473	2.89	.76	.01	
		대학원졸	371	2.96	.68	.04		604	3.13	.74	.03	
	중2	중졸 이하	593	2.14	.66	.03	127.237***	-	-	-	-	-
		고졸	2,981	2.38	.69	.01		-	-	-	-	
		대졸	2,369	2.63	.74	.02		-	-	-	-	
		대학원졸	333	2.82	.71	.04		-	-	-	-	
	중3	중졸 이하	589	2.15	.68	.03	136.876***	106	2.28	.77	.07	92.905***
		고졸	3,010	2.35	.69	.01		2,325	2.47	.80	.02	
		대졸	2,399	2.63	.70	.01		3,314	2.74	.80	.01	
		대학원졸	352	2.78	.69	.04		551	2.99	.78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43〉 자기효능감: 수학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74	2.60	.65	.01	-	6,788	2.73	.75	.01	-
	중2		6,422	2.50	.66	.01		-	-	-	-	
	중3		6,518	2.49	.68	.01		6,479	2.66	.79	.01	
성별	중1	남	3,587	2.69	.64	.01	-12.362***	3,543	2.85	.75	.01	-13.541***
		여	3,188	2.50	.63	.01		3,246	2.61	.73	.01	
	중2	남	3,402	2.61	.67	.01	-13.626***	-	-	-	-	-
		여	3,021	2.39	.64	.01		-	-	-	-	
	중3	남	3,455	2.59	.69	.01	-12.025***	3,393	2.77	.80	.01	-11.912***
		여	3,062	2.39	.65	.01		3,085	2.53	.77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74	2.66	.64	.02	13.744***	1,132	2.82	.78	.02	21.619***
		대도시	1,877	2.64	.66	.02		1,697	2.81	.74	.02	
		중소도시	2,764	2.59	.64	.01		2,954	2.70	.75	.01	
		읍면지역	860	2.49	.64	.02		1,007	2.62	.72	.02	
	중2	특별시	1,197	2.53	.68	.02	2.333+	-	-	-	-	-
		대도시	1,779	2.51	.66	.02		-	-	-	-	
		중소도시	2,679	2.50	.66	.01		-	-	-	-	
		읍면지역	768	2.45	.66	.02		-	-	-	-	
	중3	특별시	1,226	2.58	.68	.02	2.654***	1,069	2.67	.82	.02	7.189***
		대도시	1,815	2.54	.67	.02		1,615	2.72	.81	.02	
		중소도시	2,700	2.47	.67	.01		2,829	2.65	.79	.01	
		읍면지역	778	2.36	.68	.02		965	2.57	.75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35	2.33	.57	.02	117.603***	109	2.40	.71	.07	93.879***
		고졸	3,130	2.53	.63	.01		2,410	2.58	.72	.01	
		대졸	2,497	2.74	.64	.01		3,473	2.81	.75	.01	
		대학원졸	371	2.88	.65	.03		604	3.05	.73	.03	
	중2	중졸 이하	593	2.25	.61	.02	81.504***	-	-	-	-	-
		고졸	2,982	2.44	.64	.01		-	-	-	-	
		대졸	2,369	2.62	.68	.01		-	-	-	-	
		대학원졸	333	2.76	.69	.04		-	-	-	-	
	중3	중졸 이하	589	2.24	.65	.03	88.864***	106	2.34	.77	.07	76.566***
		고졸	3,010	2.42	.66	.01		2,328	2.50	.78	.02	
		대졸	2,399	2.63	.68	.01		3,314	2.74	.78	.01	
		대학원졸	352	2.75	.66	.04		551	2.96	.77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44〉 협동학습 선호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07	2.72	.67	.01	-	6,764	2.89	.71	.01	-
	중2		6,418	2.59	.66	.01		-	-	-	-	
	중3		6,518	2.55	.65	.01		6,465	2.77	.72	.01	
성별	중1	남	3,544	2.75	.67	.01	-3.191**	3,533	2.92	.72	.01	-3.677***
		여	3,163	2.69	.67	.01		3,230	2.86	.71	.01	
	중2	남	3,399	2.64	.67	.01	-6.531***	-	-	-	-	-
		여	3,019	2.54	.64	.01		-	-	-	-	
	중3	남	3,455	2.60	.65	.01	-6.887***	3,378	2.82	.74	.01	-6.551***
		여	3,062	2.49	.65	.01		3,087	2.70	.69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58	2.71	.69	.02	1.902	1,128	2.94	.72	.02	9.820***
		대도시	1,861	2.72	.68	.02		1,679	2.95	.72	.02	
		중소도시	2,745	2.71	.67	.01		2,950	2.85	.71	.01	
		읍면지역	843	2.77	.61	.02		1,006	2.86	.68	.02	
	중2	특별시	1,194	2.57	.67	.02	.729	-	-	-	-	-
		대도시	1,781	2.60	.65	.02		-	-	-	-	
		중소도시	2,676	2.59	.66	.01		-	-	-	-	
		읍면지역	767	2.61	.65	.02		-	-	-	-	
	중3	특별시	1,226	2.55	.67	.02	.184	1,070	2.81	.72	.02	4.840**
		대도시	1,813	2.56	.64	.02		1,609	2.80	.73	.02	
		중소도시	2,699	2.55	.65	.01		2,820	2.74	.71	.01	
		읍면지역	779	2.54	.66	.02		966	2.73	.70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23	2.83	.63	.03	15.301***	107	2.79	.73	.07	1.690
		고졸	3,097	2.75	.65	.01		2,396	2.88	.69	.01	
		대졸	2,478	2.67	.68	.01		3,460	2.91	.72	.01	
		대학원졸	370	2.61	.74	.04		605	2.86	.79	.03	
	중2	중졸 이하	591	2.64	.66	.03	7.616***	-	-	-	-	-
		고졸	2,977	2.62	.65	.01		-	-	-	-	
		대졸	2,371	2.56	.66	.01		-	-	-	-	
		대학원졸	333	2.49	.70	.04		-	-	-	-	
	중3	중졸 이하	590	2.65	.63	.03	7.504***	106	2.76	.68	.07	2.503+
		고졸	3,011	2.56	.65	.01		2,321	2.75	.72	.01	
		대졸	2,397	2.53	.65	.01		3,310	2.77	.72	.01	
		대학원졸	352	2.47	.69	.04		548	2.85	.72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45〉 경쟁학습 선호

(단위: 4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03	2.83	.61	.01	-	6,763	2.65	.76	.01	-
	중2		6,418	2.75	.62	.01		-	-	-	-	
	중3		6,515	2.67	.62	.01		6,465	2.54	.77	.01	
성별	중1	남	3,541	2.86	.60	.01	-5.202***	3,533	2.70	.76	.01	-6.295***
		여	3,163	2.78	.62	.01		3,229	2.59	.75	.01	
	중2	남	3,399	2.78	.62	.01	-4.058***	-	-	-	-	-
		여	3,019	2.71	.61	.01		-	-	-	-	
	중3	남	3,455	2.69	.63	.01	-2.177*	3,378	2.60	.79	.01	-7.168***
		여	3,061	2.66	.60	.01		3,087	2.47	.74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57	2.87	.62	.02	2.924*	1,128	2.73	.78	.02	17.932***
		대도시	1,860	2.83	.61	.01		1,678	2.72	.77	.02	
		중소도시	2,744	2.81	.62	.01		2,951	2.58	.74	.01	
		읍면지역	843	2.81	.58	.02		1,006	2.62	.73	.02	
	중2	특별시	1,194	2.75	.63	.02	.659	-	-	-	-	-
		대도시	1,781	2.76	.61	.01		-	-	-	-	
		중소도시	2,677	2.74	.61	.01		-	-	-	-	
		읍면지역	767	2.75	.64	.02		-	-	-	-	
	중3	특별시	1,225	2.69	.62	.02	7.799***	1,070	2.56	.80	.02	1.921
		대도시	1,813	2.70	.61	.01		1,609	2.57	.77	.02	
		중소도시	2,698	2.68	.62	.01		2,820	2.52	.77	.01	
		읍면지역	779	2.58	.64	.02		966	2.51	.72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23	2.60	.59	.02	74.230***	107	2.44	.66	.06	25.162***
		고졸	3,096	2.77	.60	.01		2,395	2.57	.75	.02	
		대졸	2,475	2.93	.61	.01		3,460	2.68	.76	.01	
		대학원졸	370	3.03	.61	.03		605	2.82	.78	.03	
	중2	중졸 이하	591	2.60	.62	.03	35.716***	-	-	-	-	-
		고졸	2,978	2.70	.61	.01		-	-	-	-	
		대졸	2,371	2.83	.62	.01		-	-	-	-	
		대학원졸	333	2.85	.60	.03		-	-	-	-	
	중3	중졸 이하	590	2.47	.63	.03	47.373***	106	2.39	.68	.07	27.473***
		고졸	3,011	2.63	.62	.01		2,321	2.45	.75	.02	
		대졸	2,395	2.77	.60	.01		3,310	2.58	.77	.01	
		대학원졸	352	2.75	.64	.03		548	2.74	.80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46〉 시험 스트레스

(단위: 5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773	3.34	1.01	.01	-	6,800	2.93	1.14	.01	-
	중2		6,384	3.29	.92	.01		6,665	3.08	1.09	.01	
	중3		6,544	3.04	.91	.01		6,501	2.95	1.14	.01	
성별	중1	남	3,579	3.34	1.03	.02	-.062	3,562	2.79	1.16	.02	10.843***
		여	3,194	3.33	.98	.02		3,238	3.09	1.10	.02	
	중2	남	3,385	3.27	.95	.02	1.279	3,489	2.92	1.12	.02	12.332***
		여	2,998	3.30	.89	.02		3,176	3.25	1.04	.02	
	중3	남	3,465	3.00	.90	.02	3.847***	3,413	2.75	1.16	.02	15.177***
		여	3,080	3.08	.91	.02		3,089	3.17	1.07	.02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79	3.29	1.02	.03	2.327+	1,132	2.98	1.15	.03	2.842*
		대도시	1,872	3.38	1.01	.02		1,700	2.86	1.17	.03	
		중소도시	2,774	3.33	1.01	.02		2,957	2.95	1.13	.02	
		읍면지역	849	3.31	.99	.03		1,011	2.94	1.09	.03	
	중2	특별시	1,210	3.23	.91	.03	2.486+	1,102	3.13	1.14	.03	2.039
		대도시	1,767	3.32	.93	.02		1,664	3.03	1.10	.03	
		중소도시	2,659	3.30	.91	.02		2,913	3.09	1.09	.02	
		읍면지역	748	3.30	.94	.03		986	3.06	1.03	.03	
	중3	특별시	1,238	2.88	.91	.03	17.883***	1,071	2.95	1.14	.03	2.983*
		대도시	1,817	3.06	.90	.02		1,624	2.87	1.16	.03	
		중소도시	2,710	3.06	.89	.02		2,837	2.97	1.13	.02	
		읍면지역	779	3.16	.95	.03		970	2.99	1.10	.04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25	3.29	.96	.04	3.148*	109	2.60	1.13	.11	11.956***
		고졸	3,131	3.31	1.01	.02		2,407	2.84	1.15	.02	
		대졸	2,508	3.39	1.02	.02		3,481	2.99	1.13	.02	
		대학원졸	371	3.30	1.04	.05		607	2.96	1.12	.05	
	중2	중졸 이하	585	3.14	.87	.04	13.366***	107	2.73	1.08	.10	11.267***
		고졸	2,962	3.25	.91	.02		2,376	3.01	1.10	.02	
		대졸	2,363	3.37	.92	.02		3,409	3.13	1.10	.02	
		대학원졸	330	3.32	.98	.05		579	3.18	1.04	.04	
	중3	중졸 이하	596	2.92	.89	.04	6.524***	106	2.77	1.11	.11	8.403***
		고졸	3,016	3.02	.90	.02		2,336	2.87	1.16	.02	
		대졸	2,412	3.09	.91	.02		3,324	3.01	1.12	.02	
		대학원졸	353	3.06	.91	.05		551	2.97	1.12	.05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47〉 가족 자아개념

(단위: 5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815	3.92	.67	.01	-	6,796	4.32	.72	.01	-
	중2		6,471	3.92	.67	.01		6,663	4.29	.74	.01	
	중3		6,560	3.91	.66	.01		6,513	4.28	.76	.01	
성별	중1	남	3,615	3.88	.68	.01	5.504***	3,553	4.36	.71	.01	-3.712***
		여	3,200	3.97	.65	.01		3,243	4.29	.74	.01	
	중2	남	3,440	3.89	.69	.01	4.747***	3,489	4.32	.73	.01	-2.647**
		여	3,031	3.97	.65	.01		3,173	4.27	.75	.01	
	중3	남	3,479	3.86	.68	.01	6.736***	3,413	4.31	.75	.01	-3.513***
		여	3,081	3.97	.62	.01		3,100	4.24	.76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83	3.95	.68	.02	12.256***	1,131	4.35	.72	.02	23.351***
		대도시	1,885	3.95	.65	.02		1,694	4.43	.68	.02	
		중소도시	2,787	3.93	.67	.01		2,958	4.25	.75	.01	
		읍면지역	860	3.79	.66	.02		1,013	4.32	.71	.02	
	중2	특별시	1,218	3.94	.66	.02	.789	1,102	4.32	.75	.02	20.999***
		대도시	1,789	3.91	.66	.02		1,664	4.41	.71	.02	
		중소도시	2,694	3.93	.67	.01		2,910	4.24	.75	.01	
		읍면지역	770	3.93	.71	.03		986	4.25	.72	.02	
	중3	특별시	1,240	3.92	.65	.02	.741	1,073	4.29	.80	.02	9.406***
		대도시	1,821	3.90	.65	.02		1,624	4.36	.74	.02	
		중소도시	2,718	3.91	.66	.01		2,843	4.24	.75	.01	
		읍면지역	781	3.94	.66	.02		973	4.24	.75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30	3.75	.69	.03	17.303***	109	4.04	.80	.08	22.285***
		고졸	3,150	3.92	.67	.01		2,413	4.27	.74	.01	
		대졸	2,519	3.96	.66	.01		3,470	4.36	.72	.01	
		대학원졸	373	3.98	.69	.04		608	4.47	.65	.03	
	중2	중졸 이하	595	3.82	.72	.03	7.515***	107	4.09	.82	.08	7.416***
		고졸	3,001	3.92	.67	.01		2,373	4.27	.74	.02	
		대졸	2,392	3.96	.67	.01		3,411	4.32	.73	.01	
		대학원졸	335	3.92	.65	.04		580	4.39	.74	.03	
	중3	중졸 이하	596	3.84	.69	.03	2.579+	106	4.11	.80	.08	5.988***
		고졸	3,027	3.93	.65	.01		2,341	4.26	.77	.02	
		대졸	2,416	3.91	.66	.01		3,331	4.30	.74	.01	
		대학원졸	354	3.92	.64	.03		551	4.38	.71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48〉 사회 자아개념

(단위: 5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815	3.96	.80	.01	-	6,800	4.19	.64	.01	-
	중2		6,470	3.78	.81	.01		6,664	4.17	.67	.01	
	중3		6,559	3.75	.81	.01		6,513	4.16	.69	.01	
성별	중1	남	3,615	3.99	.77	.01	-2.897**	3,556	4.19	.66	.01	.524
		여	3,200	3.93	.84	.01		3,243	4.20	.62	.01	
	중2	남	3,440	3.80	.80	.01	-1.097	3,490	4.17	.69	.01	.059
		여	3,029	3.77	.82	.01		3,174	4.17	.66	.01	
	중3	남	3,478	3.74	.81	.01	1.306	3,413	4.16	.71	.01	-.794
		여	3,081	3.77	.82	.01		3,100	4.15	.68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83	3.94	.80	.02	.797	1,131	4.30	.63	.02	40.643***
		대도시	1,885	3.95	.82	.02		1,698	4.28	.63	.02	
		중소도시	2,787	3.98	.80	.02		2,958	4.13	.63	.01	
		읍면지역	860	3.98	.79	.03		1,013	4.09	.65	.02	
	중2	특별시	1,218	3.74	.80	.02	7.006***	1,103	4.23	.66	.02	36.597***
		대도시	1,787	3.79	.79	.02		1,664	4.28	.66	.02	
		중소도시	2,694	3.77	.82	.02		2,911	4.11	.67	.01	
		읍면지역	770	3.90	.81	.03		986	4.06	.69	.02	
	중3	특별시	1,240	3.71	.80	.02	6.242***	1,073	4.22	.68	.02	2.356***
		대도시	1,821	3.74	.81	.02		1,624	4.25	.68	.02	
		중소도시	2,717	3.75	.82	.02		2,843	4.11	.69	.01	
		읍면지역	781	3.87	.79	.03		973	4.08	.71	.02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30	3.75	.83	.03	20.590***	109	3.95	.67	.06	22.224***
		고졸	3,150	3.95	.79	.01		2,413	4.13	.64	.01	
		대졸	2,519	4.03	.79	.02		3,474	4.23	.63	.01	
		대학원졸	373	4.03	.85	.04		608	4.28	.65	.03	
	중2	중졸 이하	595	3.65	.85	.03	9.528***	107	3.99	.73	.07	8.614***
		고졸	2,999	3.78	.80	.01		2,373	4.13	.67	.01	
		대졸	2,392	3.83	.80	.02		3,412	4.20	.67	.01	
		대학원졸	335	3.88	.77	.04		580	4.20	.65	.03	
	중3	중졸 이하	596	3.67	.78	.03	4.094**	106	4.02	.76	.07	5.970***
		고졸	3,027	3.75	.81	.01		2,341	4.14	.69	.01	
		대졸	2,416	3.77	.83	.02		3,331	4.17	.69	.01	
		대학원졸	353	3.85	.75	.04		551	4.26	.67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49〉 신체 자아개념

(단위: 5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815	2.85	.84	.01	-	6,800	3.52	.80	.01	-
	중2		6,470	2.87	.83	.01		6,663	3.55	.82	.01	
	중3		6,558	2.97	.83	.01		6,513	3.53	.86	.01	
성별	중1	남	3,615	2.99	.83	.01	-15.256***	3,556	3.65	.81	.01	-13.837***
		여	3,200	2.68	.83	.01		3,243	3.38	.77	.01	
	중2	남	3,440	3.02	.85	.01	-15.381***	3,490	3.68	.83	.01	-14.552***
		여	3,029	2.70	.78	.01		3,174	3.40	.78	.01	
	중3	남	3,477	3.12	.83	.01	-16.180***	3,413	3.69	.87	.01	-16.315***
		여	3,081	2.80	.79	.01		3,100	3.35	.82	.0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83	2.87	.84	.02	5.663**	1,131	3.63	.82	.02	28.421***
		대도시	1,885	2.86	.84	.02		1,698	3.62	.80	.02	
		중소도시	2,787	2.86	.85	.02		2,958	3.44	.80	.01	
		읍면지역	860	2.74	.83	.03		1,013	3.48	.76	.02	
	중2	특별시	1,218	2.89	.84	.02	.591	1,103	3.58	.81	.02	15.827***
		대도시	1,787	2.87	.81	.02		1,664	3.65	.82	.02	
		중소도시	2,694	2.86	.84	.02		2,910	3.49	.81	.02	
		읍면지역	770	2.88	.86	.03		986	3.51	.80	.03	
	중3	특별시	1,240	2.99	.83	.02	.613	1,073	3.58	.86	.03	15.329***
		대도시	1,821	2.95	.81	.02		1,624	3.63	.86	.02	
		중소도시	2,716	2.97	.84	.02		2,843	3.46	.86	.02	
		읍면지역	781	2.99	.83	.03		973	3.48	.86	.03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30	2.76	.83	.03	6.374***	109	3.41	.77	.07	14.818***
		고졸	3,150	2.82	.83	.01		2,413	3.46	.80	.02	
		대졸	2,519	2.88	.85	.02		3,474	3.55	.81	.01	
		대학원졸	373	2.95	.87	.04		608	3.69	.77	.03	
	중2	중졸 이하	595	2.78	.90	.04	9.470***	107	3.42	.85	.08	8.810***
		고졸	2,999	2.83	.80	.01		2,373	3.49	.82	.02	
		대졸	2,392	2.93	.83	.02		3,412	3.58	.82	.01	
		대학원졸	335	2.93	.91	.05		580	3.63	.79	.03	
	중3	중졸 이하	596	2.87	.84	.03	8.786***	106	3.35	.91	.09	9.086***
		고졸	3,027	2.93	.82	.01		2,341	3.48	.87	.02	
		대졸	2,415	3.02	.83	.02		3,331	3.55	.86	.01	
		대학원졸	353	3.03	.83	.04		551	3.66	.82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50〉 학업 자아개념

(단위: 5점 척도)

구분			2005 코호트(2005~2007년)					2013 코호트(2015~2017년)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가중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t/F
전체	중1		6,815	3.28	.78	.01	-	6,799	3.73	.80	.01	-
	중2		6,470	3.15	.79	.01		6,662	3.64	.84	.01	
	중3		6,559	3.10	.80	.01		6,512	3.59	.88	.01	
성별	중1	남	3,614	3.29	.78	.01	-1.534	3,556	3.77	.81	.01	-4.554***
		여	3,200	3.26	.77	.01		3,243	3.68	.78	.01	
	중2	남	3,440	3.17	.80	.01	-2.199*	3,488	3.70	.86	.01	-5.476***
		여	3,029	3.13	.76	.01		3,174	3.58	.82	.01	
	중3	남	3,478	3.11	.82	.01	-1.061	3,412	3.67	.89	.02	-7.210***
		여	3,081	3.09	.77	.01		3,100	3.51	.86	.02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283	3.34	.77	.02	7.251***	1,131	3.88	.79	.02	55.018***
		대도시	1,885	3.30	.76	.02		1,698	3.86	.81	.02	
		중소도시	2,787	3.26	.79	.02		2,958	3.63	.80	.01	
		읍면지역	860	3.20	.74	.03		1,012	3.59	.74	.02	
	중2	특별시	1,218	3.19	.75	.02	3.819**	1,103	3.73	.82	.02	26.955***
		대도시	1,787	3.15	.78	.02		1,664	3.76	.86	.02	
		중소도시	2,694	3.12	.79	.02		2,909	3.58	.84	.02	
		읍면지역	770	3.21	.83	.03		986	3.54	.81	.03	
	중3	특별시	1,240	3.15	.80	.02	3.346*	1,073	3.70	.85	.03	24.316***
		대도시	1,821	3.08	.80	.02		1,624	3.70	.89	.02	
		중소도시	2,717	3.07	.79	.02		2,842	3.52	.88	.02	
		읍면지역	781	3.13	.80	.03		973	3.49	.87	.03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30	3.03	.76	.03	62.940***	109	3.53	.80	.08	69.723***
		고졸	3,149	3.21	.76	.01		2,412	3.57	.78	.02	
		대졸	2,519	3.40	.77	.02		3,474	3.79	.79	.01	
		대학원졸	373	3.50	.81	.04		608	4.02	.74	.03	
	중2	중졸 이하	595	2.97	.78	.03	53.459***	107	3.48	.81	.08	47.254***
		고졸	2,999	3.07	.77	.01		2,372	3.51	.84	.02	
		대졸	2,392	3.28	.78	.02		3,412	3.71	.84	.01	
		대학원졸	335	3.40	.75	.04		580	3.90	.77	.03	
	중3	중졸 이하	596	2.91	.79	.03	42.716***	106	3.38	.82	.08	36.974***
		고졸	3,027	3.03	.78	.01		2,340	3.48	.89	.02	
		대졸	2,416	3.20	.79	.02		3,331	3.65	.88	.02	
		대학원졸	353	3.35	.80	.04		551	3.85	.81	.03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51〉 학생의 교육 포부

(단위: %, 명)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가중 사례수	χ^2
2005 코호트 (2005 ~ 2007)	전체		중1	1.10	4.07	3.66	72.58	9.06	9.53	5,252	-
			중2	0.66	3.89	5.95	73.64	7.32	8.53	5,389	
			중3	0.55	3.55	6.34	68.80	10.87	9.89	5,672	
	성별	중1	남	1.61	4.55	3.61	68.74	9.97	11.52	2,746	56.991***
			여	0.55	3.54	3.70	76.79	8.07	7.34	2,506	
		중2	남	0.97	4.06	5.32	71.27	7.78	10.61	2,840	49.887***
			여	0.31	3.70	6.66	76.29	6.81	6.23	2,550	
		중3	남	0.90	4.41	5.58	65.98	11.12	12.00	2,992	69.254***
			여	0.16	2.60	7.18	71.94	10.58	7.54	2,680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0.69	3.07	3.85	70.06	9.09	13.23	1,002	93.378***
			대도시	1.28	3.43	3.52	72.27	9.69	9.81	1,479	
			중소도시	0.97	3.31	3.67	74.19	9.31	8.55	2,154	
			읍면지역	1.84	9.86	3.63	71.80	6.61	6.25	617	
		중2	특별시	0.53	3.01	4.56	75.02	7.14	9.74	1,035	38.596**
			대도시	0.75	3.33	6.54	71.63	8.77	8.99	1,458	
			중소도시	0.65	3.76	6.07	74.56	6.64	8.31	2,295	
			읍면지역	0.69	7.23	6.48	72.69	6.69	6.21	601	
		중3	특별시	0.50	3.36	4.35	69.89	10.01	11.88	1,093	66.981***
			대도시	0.65	3.30	5.34	70.00	10.76	9.95	1,559	
			중소도시	0.59	3.06	6.65	68.69	12.16	8.85	2,364	
			읍면지역	0.27	6.24	10.92	64.51	7.88	10.18	657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2.95	11.30	5.90	71.75	4.50	3.60	433	359.949***
			고졸	1.11	4.60	3.93	77.60	6.68	6.08	2,351	
			대졸	0.87	2.32	3.02	69.92	11.33	12.54	2,057	
			대학원졸	0.00	0.72	2.16	51.37	19.92	25.83	296	
		중2	중졸 이하	0.80	11.34	9.40	70.24	2.50	5.71	451	486.605***
			고졸	0.59	4.48	7.07	78.51	5.09	4.26	2,453	
			대졸	0.52	1.88	4.51	71.75	10.18	11.16	2,077	
			대학원졸	1.76	0.85	2.13	49.27	14.25	31.73	283	
		중3	중졸 이하	0.92	10.82	11.02	69.48	3.69	4.08	473	500.161***
			고졸	0.40	3.98	8.26	73.19	7.88	6.28	2,622	
			대졸	0.56	1.60	3.41	66.57	14.86	13.00	2,127	
			대학원졸	0.85	0.98	0.68	46.36	22.24	28.89	297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가중 사례수	χ^2
2013 코호트 (2015 ~ 2017)	전체		중1	1.01	5.03	4.79	75.49	7.04	6.64	5,585	-
			중2	0.82	7.50	3.46	77.61	5.24	5.37	5,521	
			중3	0.44	11.23	3.54	73.88	4.97	5.94	5,623	
	성별	중1	남	1.40	5.97	5.01	71.36	7.48	8.78	2,848	73.846***
			여	0.61	4.05	4.56	79.78	6.59	4.42	2,738	
		중2	남	1.12	8.80	3.95	73.85	5.72	6.56	2,804	50.821***
			여	0.51	6.16	2.96	81.48	4.76	4.13	2,717	
		중3	남	0.70	13.90	4.09	69.94	3.98	7.40	2,853	94.788***
			여	0.17	8.49	2.97	77.94	5.99	4.44	2,770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0.73	4.90	3.54	71.90	9.45	9.47	919	61.224***
			대도시	0.93	4.72	3.99	75.73	7.34	7.29	1,408	
			중소도시	1.37	5.19	4.99	75.65	7.06	5.74	2,433	
			읍면지역	0.39	5.24	6.94	78.60	3.79	5.04	825	
		중2	특별시	0.78	8.36	2.19	75.62	5.29	7.76	918	56.863***
			대도시	1.10	6.74	4.12	76.59	6.57	4.88	1,404	
			중소도시	0.62	6.65	3.15	79.11	4.76	5.71	2,380	
			읍면지역	0.95	10.33	4.66	77.20	4.34	2.53	819	
		중3	특별시	0.42	11.10	3.21	72.19	6.23	6.86	931	15.448
			대도시	0.37	10.91	4.00	74.56	4.29	5.88	1,433	
			중소도시	0.43	11.08	3.14	74.11	5.15	6.09	2,421	
			읍면지역	0.59	12.37	4.27	73.94	4.22	4.60	837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0.86	18.80	7.81	67.87	1.86	2.80	85	555.293***
			고졸	1.31	7.95	5.99	78.20	3.51	3.04	1,929	
			대졸	0.99	3.26	4.09	77.86	7.64	6.16	2,916	
			대학원졸	0.00	0.90	3.06	53.59	18.96	23.49	500	
		중2	중졸 이하	2.00	24.87	4.17	64.69	2.22	2.05	80	449.584***
			고졸	0.64	11.58	4.81	78.68	2.09	2.20	1,913	
			대졸	0.87	5.11	2.89	79.69	6.21	5.23	2,874	
			대학원졸	0.22	2.71	2.08	63.62	12.37	19.00	501	
		중3	중졸 이하	1.64	34.67	4.21	57.57	1.91	0.00	88	402.208***
			고졸	0.29	16.61	4.22	74.08	2.04	2.77	1,969	
			대졸	0.48	7.79	3.19	76.08	6.00	6.46	2,913	
			대학원졸	0.27	3.78	2.45	64.37	12.06	17.07	492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52〉 학부모의 교육 기대

(단위: %, 명)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가중 사례수	χ^2
2005 코호트 (2005 ~ 2007)	전체		중1	1.10	2.59	61.03	9.14	26.13	6,522	-
			중2	1.13	4.30	59.33	11.19	24.06	6,130	
			중3	1.17	7.14	58.35	11.52	21.82	6,101	
	성별	중1	남	1.18	2.16	56.55	9.29	30.82	3,439	91.470***
			여	1.01	3.07	66.03	8.98	20.91	3,083	
		중2	남	1.10	3.67	56.76	11.53	26.94	3,228	38.015***
			여	1.15	4.99	62.18	10.82	20.85	2,902	
		중3	남	1.48	6.62	55.65	11.56	24.69	3,216	42.106***
			여	0.82	7.72	61.35	11.47	18.63	2,885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0.37	2.06	55.95	11.03	30.59	1,234	98.871***
			대도시	0.74	2.57	59.95	8.83	27.91	1,816	
			중소도시	1.00	2.72	62.15	9.28	24.86	2,684	
			읍면지역	3.42	3.04	67.70	6.45	19.38	787	
		중2	특별시	0.36	2.02	55.37	14.12	28.12	1,161	158.030***
			대도시	0.93	4.15	57.10	12.18	25.65	1,680	
			중소도시	0.88	4.18	61.41	10.82	22.71	2,556	
			읍면지역	3.66	8.67	63.44	5.58	18.66	733	
		중3	특별시	0.54	4.40	55.52	14.41	25.12	1,164	77.276***
			대도시	1.08	7.64	56.78	11.19	23.32	1,656	
			중소도시	1.12	7.17	59.53	11.27	20.91	2,568	
			읍면지역	2.59	10.35	62.32	8.47	16.27	713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5.71	7.29	72.61	3.47	10.92	600	793.408***
			고졸	0.86	3.07	70.76	6.23	19.09	3,054	
			대졸	0.40	1.24	51.27	12.46	34.62	2,472	
			대학원졸	0.00	0.11	26.19	19.73	53.98	358	
		중2	중졸 이하	6.25	12.16	67.70	4.15	9.74	540	766.626***
			고졸	0.90	5.26	67.92	8.10	17.83	2,855	
			대졸	0.26	1.95	51.06	15.25	31.48	2,283	
			대학원졸	0.32	0.36	25.38	23.61	50.34	323	
		중3	중졸 이하	4.87	17.06	65.93	3.84	8.30	526	760.770***
			고졸	1.17	9.17	66.35	8.25	15.06	2,801	
			대졸	0.38	3.09	51.03	16.50	29.00	2,288	
			대학원졸	0.00	0.12	29.30	19.88	50.71	338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가중 사례수	χ^2
2013 코호트 (2015 ~ 2017)	전체		중1	1.46	5.06	68.50	9.72	15.25	6,482	-
			중2	2.08	6.51	70.60	8.68	12.13	6,273	
			중3	2.48	6.75	71.76	7.44	11.57	6,119	
	성별	중1	남	1.48	5.37	66.90	9.55	16.71	3,381	13.931**
			여	1.45	4.73	70.25	9.91	13.67	3,101	
		중2	남	2.17	7.36	69.29	8.50	12.69	3,254	11.297*
			여	1.98	5.59	72.02	8.87	11.54	3,018	
		중3	남	3.05	7.26	70.43	7.91	11.34	3,178	15.038**
			여	1.87	6.20	73.19	6.93	11.81	2,941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1.10	3.23	63.40	14.41	17.86	1,070	71.214***
			대도시	1.11	4.40	69.14	9.47	15.87	1,619	
			중소도시	1.71	5.39	68.96	9.09	14.86	2,827	
			읍면지역	1.74	7.25	71.73	6.79	12.49	965	
		중2	특별시	2.41	4.86	66.92	10.94	14.87	1,051	59.007***
			대도시	1.00	5.98	71.37	7.98	13.67	1,582	
			중소도시	2.27	6.45	71.59	8.69	11.00	2,721	
			읍면지역	2.98	9.46	70.59	7.25	9.72	919	
		중3	특별시	1.35	4.86	68.50	11.36	13.93	1,017	61.845***
			대도시	2.58	6.32	70.57	7.77	12.76	1,535	
			중소도시	2.56	7.16	73.34	6.23	10.72	2,664	
			읍면지역	3.37	8.45	72.78	6.02	9.38	903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8.67	20.46	60.59	1.51	8.77	95	809.488***
			고졸	2.40	9.30	75.48	4.50	8.31	2,261	
			대졸	0.79	2.41	69.33	11.08	16.39	3,363	
			대학원졸	0.20	0.88	38.08	24.95	35.91	588	
		중2	중졸 이하	13.62	14.18	63.04	4.63	4.54	94	724.453***
			고졸	3.55	11.29	75.14	3.85	6.16	2,231	
			대졸	0.98	3.98	71.61	10.31	13.11	3,235	
			대학원졸	0.21	0.20	47.40	20.05	32.14	549	
		중3	중졸 이하	12.55	25.01	61.33	0.53	0.57	90	749.478***
			고졸	4.24	11.93	75.20	2.93	5.70	2,170	
			대졸	1.31	3.56	73.24	9.17	12.70	3,179	
			대학원졸	0.22	1.00	49.23	18.08	31.47	516	

+ p<.10, * p<.05, ** p<.01, *** p<.001

〈부록 표 1-53〉 고등학교 진학 계획

(단위: %, 명)

구분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	예체능고	마이스터고	자율형고	기타	가중 사례수	χ^2
2005 코호트 (2005 ~ 2007)	전체		중1	65.89	11.15	13.67	5.63	-	-	3.66	6,659	-
			중2	70.78	13.76	9.27	4.81	-	-	1.39	6,322	
			중3	74.66	19.37	3.64	1.38	-	-	.96	6,369	
	성별	중1	남	64.32	11.47	16.22	3.39	-	-	4.59	3,507	121.761***
			여	67.63	10.79	10.84	8.13	-	-	2.62	3,152	
		중2	남	70.16	13.32	11.03	3.81	-	-	1.69	3,346	44.804***
			여	71.47	14.26	7.29	5.93	-	-	1.05	2,976	
		중3	남	75.59	18.53	3.71	1.04	-	-	1.13	3,367	11.766*
			여	73.61	20.31	3.56	1.76	-	-	.76	3,003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52.20	11.27	21.02	5.81	-	-	9.70	1,256	324.579***
			대도시	71.41	10.39	11.43	4.81	-	-	1.97	1,830	
			중소도시	67.89	10.04	14.15	5.76	-	-	2.15	2,746	
			읍면지역	67.79	16.30	5.90	6.78	-	-	3.24	827	
		중2	특별시	64.98	12.70	15.09	5.72	-	-	1.52	1,190	152.949***
			대도시	75.63	11.74	7.38	4.17	-	-	1.07	1,755	
			중소도시	71.59	12.69	8.90	5.35	-	-	1.47	2,624	
			읍면지역	65.79	23.89	5.74	2.97	-	-	1.61	753	
		중3	특별시	73.89	15.08	8.01	1.55	-	-	1.46	1,191	117.507***
			대도시	76.24	19.12	2.70	.80	-	-	1.14	1,759	
			중소도시	74.83	19.88	2.80	1.83	-	-	.66	2,663	
			읍면지역	71.60	24.91	1.83	.90	-	-	.76	756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62.08	24.48	3.10	6.56	-	-	3.78	614	384.232***
			고졸	68.73	12.49	9.16	6.25	-	-	3.37	3,074	
			대졸	63.88	7.16	20.04	4.78	-	-	4.14	2,481	
			대학원졸	60.40	4.22	26.75	4.78	-	-	3.84	360	
		중2	중졸 이하	59.64	31.37	3.90	3.40	-	-	1.69	580	476.446***
			고졸	73.22	15.76	4.62	5.25	-	-	1.15	2,931	
			대졸	71.46	8.12	14.46	4.46	-	-	1.50	2,347	
			대학원졸	66.94	2.54	24.14	4.26	-	-	2.12	322	
		중3	중졸 이하	53.73	40.30	3.12	1.87	-	-	.99	569	481.29***
			고졸	72.28	23.97	1.75	1.24	-	-	.75	2,933	
			대졸	82.42	10.05	5.32	1.41	-	-	.80	2,361	
			대학원졸	81.70	3.24	9.88	2.04	-	-	3.14	346	

구분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	예체능고	마이스터고	자율형고	기타	가중 사례수	χ^2
2013 코호트 (2015 ~ 2017)	전체		중1	51.38	5.76	16.18	14.79	2.12	8.54	1.22	6,532	-
			중2	65.90	8.02	7.27	8.50	2.11	7.08	1.12	6,443	
			중3	70.52	13.2	4.03	3.48	2.15	5.65	.97	6,335	
	성별	중1	남	48.56	6.33	18.39	13.17	3.46	8.76	1.33	3,411	109.743***
			여	54.46	5.14	13.77	16.57	.67	8.29	1.11	3,121	
		중2	남	62.68	8.54	8.64	7.26	3.54	7.97	1.38	3,358	124.248***
			여	69.40	7.45	5.78	9.86	.56	6.12	.83	3,085	
		중3	남	67.56	14.21	3.62	3.15	3.57	6.54	1.34	3,317	103.436***
			여	73.77	12.10	4.47	3.83	.58	4.69	.56	3,018	
	지역 규모	중1	특별시	39.79	7.69	18.69	15.42	1.28	15.79	1.35	1,083	171.83***
			대도시	50.99	5.39	17.18	14.10	2.49	9.04	.82	1,624	
			중소도시	53.61	5.41	16.46	14.74	2.16	6.41	1.22	2,852	
			읍면지역	58.40	5.27	10.93	15.43	2.35	5.86	1.77	974	
		중2	특별시	51.05	10.28	9.27	10.12	.94	16.5	1.84	1,063	269.292***
			대도시	68.10	7.79	7.72	7.55	2.17	5.24	1.42	1,599	
			중소도시	69.30	6.74	7.38	8.29	2.09	5.34	.86	2,826	
			읍면지역	68.65	9.69	3.94	8.94	3.38	4.83	.57	955	
		중3	특별시	58.16	16.17	4.55	4.30	1.35	13.91	1.56	1,044	222.371***
			대도시	71.55	12.96	4.40	3.66	2.31	4.46	.65	1,591	
			중소도시	72.87	13.10	4.11	2.90	1.88	4.18	.96	2,751	
			읍면지역	75.57	10.66	2.58	3.95	3.52	2.85	.86	950	
	부의 교육 수준	중1	중졸 이하	41.43	14.74	4.04	29.71	.94	6.07	3.06	104	487.65***
			고졸	54.60	8.69	9.88	18.23	2.77	5.00	.82	2,308	
			대졸	52.54	3.94	17.54	13.05	1.82	9.96	1.14	3,352	
			대학원졸	35.02	2.18	36.13	7.93	1.40	14.83	2.51	589	
		중2	중졸 이하	54.34	20.07	3.27	13.46	2.85	3.00	3.00	102	411.154***
			고졸	68.18	11.65	3.44	9.65	2.63	3.68	.77	2,308	
			대졸	66.75	5.92	8.46	7.96	1.92	7.72	1.27	3,292	
			대학원졸	55.32	2.21	17.32	5.02	1.01	17.83	1.28	559	
		중3	중졸 이하	49.07	37.05	1.28	4.95	4.62	1.54	1.49	104	494.581***
			고졸	68.47	20.57	1.51	3.74	2.91	2.17	.63	2,284	
			대졸	73.74	8.61	5.15	3.15	1.60	6.74	1.02	3,234	
			대학원졸	65.80	2.67	9.05	4.33	1.55	14.75	1.85	534	

+ p<.10, * p<.05, ** p<.01, *** p<.001

[부록 2]
교과별 CREM 모형 분석 결과[33)]

〈부록 표 2-1〉 국어 학업성취도에 대한 CREM 모형 분석 결과 ····· 268
〈부록 표 2-2〉 영어 학업성취도에 대한 CREM 모형 분석 결과 ····· 269
〈부록 표 2-3〉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CREM 모형 분석 결과 ····· 270

33) 본 부록은 "Ⅲ.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와 연결된다.

〈부록 표 2-1〉 국어 학업성취도에 대한 CREM 모형 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cohort	.031	.115						
wSES	.046	.237						
(b-w)SES	1.695**	.257						
wcohort×SES	.033	.354						
(b-w)cohort×SES	.711	.377						
wyear			9.779**	.045				
(b-w)year			-.545	.374				
wcohort×year			-5.841**	.063				
(b-w)cohort×year			2.190**	.635				
wyear×SES			-.085	.055				
(b-w)year×SES			.298	.270				
wcohort×year×SES			.045	.072				
(b-w)cohort×year×SES			-.218	.443				
성별(남=1)					-3.219**	.128		
w부모의 교육기대					.130*	.056		
(b-w)부모의 교육기대					2.197**	.095		
w특별시					-2.822*	1.144		
(b-w)특별시					2.859*	1.163		
w대도시					-.391	1.045		
(b-w)대도시					.924	1.065		
w중소도시					-2.403**	.716		
(b-w)중소도시					2.108**	.740		
w설립유형(사립=1)					1.945*	.870		
(b-w)설립유형(사립=1)					-1.388	.881		
w남학교					-2.402*	1.128		
(b-w)남학교					2.699*	1.141		
w여학교					2.770**	.979		
(b-w)여학교					-2.312*	.994		
w교원 1인당 학생수					.016	.038		
(b-w)교원 1인당 학생수					.068	.041		
w학업 자아개념							.139*	.066
(b-w)학업 자아개념							-.728**	.107
w시험 스트레스							.153**	.046
(b-w)시험 스트레스							.175*	.072
w독서향유							.158*	.063
(b-w)독서향유							1.566**	.091
w공부시간							.093+	.052
(b-w)공부시간							-.846**	.090
w수업 이해도(국어)							.446**	.049
(b-w)수업 이해도(국어)							2.678**	.081
w교사 성취압력							-.083	.061
(b-w)교사 성취압력							-.150	.112
wd교사 열의							.395*	.061
(b-w)교사 열의							.254**	.106

+ p<.10, * p<.05, ** p<.01

〈부록 표 2-2〉 영어 학업성취도에 대한 CREM 모형 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cohort	.075	.111						
wSES	.133	.228						
(b-w)SES	2.352**	.248						
wcohort×SES	-.138	.342						
(b-w)cohort×SES	1.752**	.365						
wyear			9.986**	.040				
(b-w)year			-.303	.364				
wcohort×year			-6.517**	.056				
(b-w)cohort×year			1.170+	.606				
wyear×SES			-.048	.049				
(b-w)year×SES			-.429	.261				
wcohort×year×SES			.029	.064				
(b-w)cohort×year×SES			.676	.424				
성별(남=1)					-2.201**	.126		
w부모의 교육기대					.123*	.049		
(b-w)부모의 교육기대					2.223**	.090		
w특별시					.042	1.011		
(b-w)특별시					1.103	1.032		
w대도시					1.116	.924		
(b-w)대도시					-.374	.944		
w중소도시					-.203	.633		
(b-w)중소도시					.105	.659		
w설립유형(사립=1)					.505	.769		
(b-w)설립유형(사립=1)					.186	.781		
w남학교					-1.684+	.997		
(b-w)남학교					1.599	1.011		
w여학교					1.149	.865		
(b-w)여학교					-1.028	.881		
w교원 1인당 학생수					-.121**	.033		
(b-w)교원 1인당 학생수					.242**	.037		
w학업 자아개념							.054	.057
(b-w)학업 자아개념							-.357**	.099
w시험 스트레스							.235**	.040
(b-w)시험 스트레스							.033	.067
w독서향유							.035	.055
(b-w)독서향유							1.097**	.082
w공부시간							.014	.045
(b-w)공부시간							-.306**	.083
w수업 이해도(국어)							.365**	.040
(b-w)수업 이해도(국어)							2.737**	.064
w교사 성취압력							.092+	.053
(b-w)교사 성취압력							-.251*	.104
wd교사 열의							.350**	.053
(b-w)교사 열의							.041	.098

+ p<.10, * p<.05, ** p<.01

〈부록 표 2-3〉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CREM 모형 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cohort	.044	.114						
wSES	.208	.224						
(b-w)SES	2.060**	.244						
wcohort×SES	.099	.336						
(b-w)cohort×SES	1.624**	.131						
wyear			9.652**	.041				
(b-w)year			-.169	.482				
wcohort×year			-6.675**	.058				
(b-w)cohort×year			1.132	.700				
wyear×SES			-.146**	.050				
(b-w)year×SES			-.106	.289				
wcohort×year×SES			-.023	.066				
(b-w)cohort×year×SES			.484	.453				
성별(남=1)					-.368**	.132		
w부모의 교육기대					.026	.052		
(b-w)부모의 교육기대					2.535**	.095		
w특별시					-1.437	1.065		
(b-w)특별시					2.319**	1.087		
w대도시					.942	.973		
(b-w)대도시					-.025	.995		
w중소도시					-.874	.667		
(b-w)중소도시					.964	.694		
w설립유형(사립=1)					.856	.810		
(b-w)설립유형(사립=1)					-.191+	.823		
w남학교					-1.877+	1.051		
(b-w)남학교					1.850	1.065		
w여학교					.752	.912		
(b-w)여학교					-.800	.928		
w교원 1인당 학생수					-.107**	.035		
(b-w)교원 1인당 학생수					.223**	.039		
w학업 자아개념							0.034	.061
(b-w)학업 자아개념							-0.239*	.102
w시험 스트레스							0.158**	.042
(b-w)시험 스트레스							0.057	.069
w독서향유							0.019	.058
(b-w)독서향유							0.694**	.085
w공부시간							0.099*	.048
(b-w)공부시간							-0.480**	.086
w수업 이해도(국어)							0.595**	.041
(b-w)수업 이해도(국어)							3.072**	.066
w교사 성취압력							-0.073	.056
(b-w)교사 성취압력							0.097	.107
wd교사 열의							0.305**	.056
(b-w)교사 열의							-0.020	.102

+ p〈.10, * p〈.05, ** p〈.01

연구보고 RR 2018-02

2018 한국교육종단연구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Ⅲ): 10년 주기 코호트 간 비교

발 행	2018년 12월
발행인	원장 반상진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 (27873)
	전화 : (043) 5309-114
	팩스 : (043) 5309-819
	http://www.kedi.re.kr
등 록	1973년 6월 13일, 제16-35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044) 868-5590
ISBN	979-11-5666-330-0

책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